1973 공군

1973년 12월 24일 인쇄
1973년 12월 31일 발행

〈제 136·137 합병호〉

미 공군참모차장 「웨이드」대장

옥 만호 참모총장 초청으로 미 공군참모차장 「웨이드」대장, 미 제 5 공군사령관 「퍼슬리」중장, 태국 공군 총사령관 「분·츄」대장, 우간다 공군사령관 「구에데코」

미 제 5 공군사령관 「퍼슬리」중장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 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신임 UNC참모장 공본 예방

신임 UNC참모장 「머피」중장이 지난 10월 5일 취임인사차 공군본부로 옥 만호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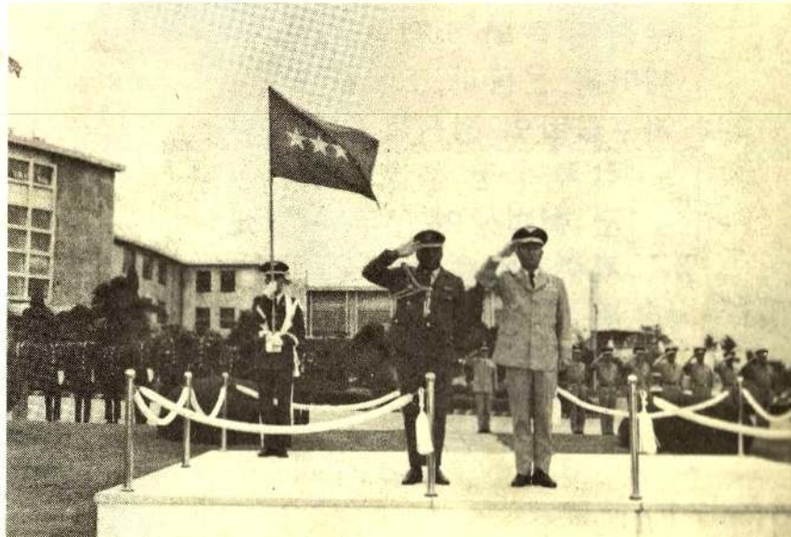
공군 야구부 창단식

지난 11월 9일 공본 강당에서 옥 만호 참모총장을 비롯한 전 참모 및 관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본 야구부 창단식을 거행하였다.

태국 공군총사령관 「분·츄」대장

준장이 제2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차 내한하여 각각 공본을 예방코 우방간의 우의를 한층 증진시켰다.

우간다 공군사령관 「구에데코」준장



「공 군」 제 136 • 137 합병호

권 두 언 ..... 정훈차감 민 병 규 (2)

권두시 쉬지 않는 조국의 눈 ..... 조 병 화 (4)

특별정훈교육자료

유신 1년의 안정과 발전 ..... 편 집 실 (16)
북한은 왜 「남북연방제」를 주장하는가? ..... 편 집 실 (30)
북한은 왜 「대민족회의」를 주장하는가? ..... 편 집 실 (41)

조국과 명예와 긍지를 ..... 이 창 록 (6)
군인의 사명과 사생관 ..... 김 세 환 (58)
우리의 정신적 지표 ..... 안 병 욱 (50)
삼민주의와 구국정신 ..... 조 정 기 (69)

특 집 조국 근대화와 우리의 좌표

우리 민족의 이념과 진로 ..... 리 선 근 (79)
새마을 운동과 조국근대화 ..... 유 태 영 (87)
자주국방의 정신적 기조 ..... 윤 종 현 (98)

논 각국의 군 원호시책의 현황 ..... 정 함 채 (131)
단 군 형법상의 군무 이탈죄 ..... 홍 용 표 (125)
자주국방을 위한 PPBS ..... 군 특명검열단 (221)

수 필
조 화 ..... 양 문 경 (113)
한 인간으로서의 군인 ..... 조 정 기 (114)
결혼과 예물 ..... 허 양 길 (117)
시골면장 ..... 강 국 희 (120)
관제사의 긍지 ..... 정 기 창 (122)

표지화 • 차례화 • 컷……진 광선, 김 준호

특집=나는 이렇게 한마디를… ……초대, 제 3 대 참모총장 김 정 렬 (105)
제 5 대 참모총장 김 창 규 (108)
제 7 대 참모총장 장 성 환 (111)
한국동란 휴전 20년의 발자취 ..... 편 집 실 (257)
북한의 위장평화 제의 ..... 편 집 실 (268)

항공 · 군사과학
공정작전 ① ..... 유 순 근 (154)
OV-10 항공기 ..... 배 종 학 (175)
미래의 공군 ..... 이 상 경 (183)
구라파 미공군 사령관을 찾아서 ..... 이 웅 수 (198)
항공발달사 ..... 심 사 수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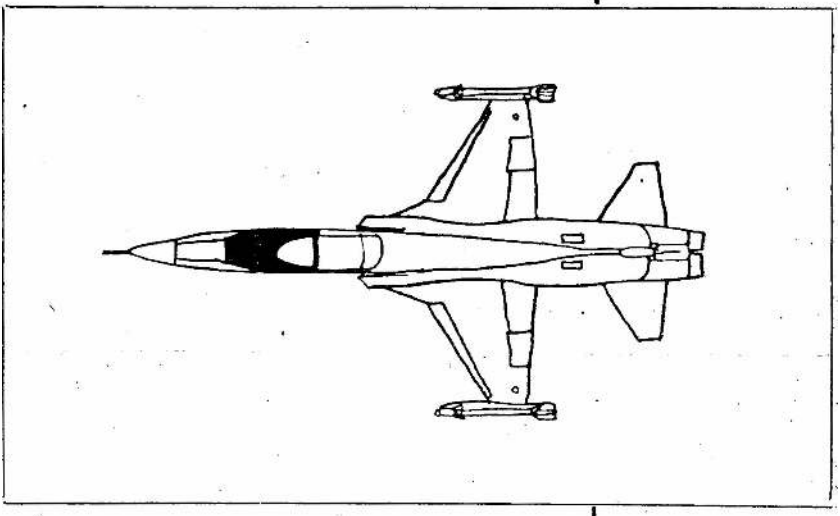
식품의 맛과 영양 ..... 박 일 필 (246)
만 화 공 군 만 상 ..... 박 진 래 (152)

군종코오너
절제와 생활 ..... 유 병 춘 (278)
군인과 용기 ..... 김 선 도 (282)
샤머니즘과 한국문화 ..... 이 준 학 (286)
시간과 성공 ..... 전 율 성 (292)
군목의 사명 ..... 정 필 도 (295)

취미코오너
돼지 사육법 ..... 손 행 남 (298)
즐거운 실내게임 ..... 김 남 기 (304)
(단) (편) 사랑의 시도 ..... 앙드레·지이드 (312)

공군

제 136·137 합병호 | 1973년 제 4 호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책자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의 전략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읍니다. 독자 제위는 부지중 이 책자가 오용이 되지 않도록 취급과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훈감실

10월유신 1년에 즈음하여

정훈차감 공군대령 민 병 규

서구(西歐)를 여행하면서 그 지역의 풍물이나 생활관념 속에 「오스만·터키」나 「아랍·사라센」에의 공포나 저항의식이 상당히 깊은 것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표시한 어느 역사학자의 얘기를 들었다.

「다뉴브」강 연변에 갖가지 서사시와 공포의 전설을 남긴 「터키」와 「사라센」의 침입의 역사는 「동방의 방책」(「오스트·마르크」)에서 유래한 「오스트리아」란 국명을 낳게 했고 서구의 역사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그들과의 대결을 피해서 「바스코·다·가마」는 「아프리카」남단을 돌아 인도항로를 개척하였으며 새로운 인도항로를 찾기 위해서 서쪽으로 항해하던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지리상의 발견 후 서구인들이 세계 도처에 식민지를 개설하여 갖은 부(富)를 만끽하였음은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잘 아는 사실이다.

한편 일본은 홍콩과 상해에 「유니온·잭」기가 펄럭일 때 언제 당할지도 모를 그들의 지배에 잠도 제대로 못자다가 「명치유신」을 빌어 비로소 부국강병으로 치달았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이어오면서 우리는 그 때 무엇을 하였는가를 지금 새삼스럽게 따져 묻고 싶지는 않다.

어떤 개인이나 민족이나를 막론하고 자기방어를 위한 수단에는 극단적으로 두가지 밖에 없을 것이다. 즉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부딪치는 부류와 문

을 꼭꼭 걸어잠그고 나오지 않는 부류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것을 가리켜 외향성이다, 내향성이다 하지만 어쨌든 밖으로 뛰쳐나가 부딪치다가 여의치 않으면 다른 곳에서 새로운 터전을 잡는 민족은 부(富)를 누렸었다.

어느 독일 철학자가 한옥(韓屋)의 처마끝이 하늘로 솟은 것을 보고, 또 여자들의 뾰족한 버선끝과 고무신을 보고 머칠을 의아해 하다가 「한국인은 현세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내세에 기대하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며 떠났단다. 기계공학적인 합리에서만 사실을 찾는 독일인이 우리의 우아(優雅)를 알까보냐고 동정으로 그쳐버릴 수만은 없는 무언가 생각케 하는 얘기구나 할 사람도 많을 게다.

이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유신」이라는 방향을 처음 명확히 설정한지 1년여가 흘렀다. 문을 굳게 닫아걸고 「나는 내 것만 지키겠소」하던 사람들이 크고 넓은 길을 보고, 높이 솟은 「빌딩」을 보고 괜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를 정립하고 국민총화를 이룩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공고히 닦은 우리를 누가 내세에 기대하는 민족이라 하겠는가?

10월유신을 통하여 우리는 서구에 못지 않는 번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교훈을 주고 또 연관된 일을 준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대해(大海) 가운데 섬은 고도(孤島)가 아니고 해저(海底)로 해서 그것은 다른 대륙과 이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어네스트·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서의 개두사(開頭辭)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시>

쉬지 않는 조국의 눈

조 병 화

옛날엔
대지를 지배하는 자
온 천하를 지배했었다
옛날엔
대양을 지배하는 자
온 천하를 지배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늘을 지배하는 자
조국을 지키고
이웃을 지킨다

새만이 나를줄 알았던
하늘
날개 단 짐승만이 왕래할 줄 알았던
하늘
그리고 낮엔 해
밤엔 달, 별이 뜨는
신비한 우주공간으로만 알았던
하늘
그런데 지금은
온 인류의 목숨이 달린
그 하늘

하늘을 지배하는 자
하늘을 갖는 자만이
조국을 지니고
조국을 펴고
부강을 이루고
평화를 말한다

신라, 고구려, 고려, 이조,……
이어 내려오는 한반도 삼천리 강산
푸른 하늘
온 세계에 그 푸른 하늘을 자랑하는
우리 겨레
그런데 지금 그 우리 하늘은
그 평화의 하늘이 아니다

감시와 긴장
수사와 탐지
위협과 공갈
구석구석 온 겨레의 신경이 깔린
전투, 생존의 마당
앗차, 당하면 순식간에 망하는
그 하늘이다

용감한 자만이 산다
용감한 자만이 말한다
용감한 자만이 나른다
용감한 자만이 지킨다
용감한 자만이 하늘에 떠서
지구를 굽어보며
나라와 겨레, 그 우릴 지킨다

밤하늘 그 꼭대기를 나르며
별처럼 하늘 한가운데 떠있는
우리 용사의 눈
그 눈, 눈
그 슬기로운 눈을 보아라
그 눈, 눈이
조국의 목숨, 그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거다

지금 조국의 하늘은
사방이 적이다
적이 노리고 있는 그 화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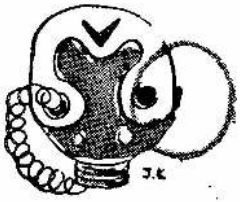
아, 형제여
하늘을 지키는 고마운 우리 용사여
보다 높이
보다 멀리
보다 빨리
보다 민첩히
보다 용감히
아, 그 하늘, 조국에 떠 있어다오
조국의 영원과
그 번영
겨레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은 지금
그 싸움터다.

<보라매들에 부치는 글>

조국과 땅에 외국자를

이 창 록
<전우신문 논설위원>



사람마다 사물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다. 미국의 우주인(宇宙人)들이 달에서 가져온 월석(月石)이 우주과학의 귀중한 자료이면서도 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에게는 단돈 십원보다 못한 돌맹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 반면에 지게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지게가 과학자들에게는 별로 소용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사람마다 각기의 학문지식, 성장과정, 직업 등 생활여건에 따라 사물을 보는 가치관이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가치관으로 존중되고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조국(祖國)이다.

소크라테스(BC 470~390. 그리스의 철학자)는 일찌기 「조국은 어머니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또 그 밖의 모든 조상들보다도 더욱 귀하고, 더욱 숭고하고, 더욱 신성한 것이다. 우리는 조국을 소중히 여기고 조국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거니와 플루타아크 영웅전에는 「로마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으로 지내는 것을, 모국으로부터 버림받고 온 세상의 권세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원한다.」는 귀절이 있다.

그러기에 유태인들은 독립된 조국 이스라엘을 찾아들면서 가나안의 흙을 가슴에 안으면서 「오! 나의 조국이여!」 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메마른 가나안의 사막 위에 현대문명의 열매가 기적처럼 여물어가는 것도 다시는 조국을 잃지 않겠다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피맺힌 공동노력의 결정인 것이다.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한국국민인 너와 나의 구원(久遠)한 생명의 젖줄이며 희망의 원천이다. 우리의 가까운 조상들이 뼈저리게 겪어야 했던 일제침략 36년간의 질곡(桎梏) 속에서 「너라고 불러보는 조국아/너는 지금 어디 있나/누더기 한 폭 걸치고/ …… /너라고 불러보는 조국아/낙조보다도 쓸쓸한 조국아/긴긴 밤 가야고 소리마냥/가슴을 파고드는 네 이름아/새 봄날 도리화(桃李花)같이/활짝 한번 피어주렴」하고 조국의 비운을 개탄한 시인이 있었듯이 조국잃은 망국민(亡國民)의 참상을 글만으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내나라 땅에 살면서도 주권(主權)을 빼앗겼기 때문에 내나라 국호(國號)와 국기를 내세울 수 없고, 내나라 글과 말(言語)이면서도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한글을 쓸 수가 없으며, 조상 이래의 유풍(遺風)과 전통이면서도 힘이 없기 때문에 동화정책(同和政策)의 재물이 될뻔 했던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의 승리와 더불어 조국광복의 감격을 맞았을 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으나 온 겨레는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고창(高唱)한 것은 대한민국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주권적인 여건을 되찾고 떳떳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생의 기쁨 때문이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애국가의 가사에도 있듯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영원해야만 한다. 과거의 역사에는 비록 오욕과 비탄으로 얼룩진 장(章)이 있었다 해도 오늘과 내일의 새역사에는 영광과 번영의 새로운 장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이 점이 바로 오늘의 세대(世代)에서 반만년의 민족사를 이어받은 우리의 보람이며, 명예와 긍지의 원천이 된다. 그 가장 관건이 되는 고비가 1970년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 정희 대통령각하께서는 이 70년대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었다.

「이 연대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오늘의 우리 세대가 먼 훗날

<보라매들에 부치는 글>

우리의 후손들로부터 빛나는 유산을 물려준 자랑스런 선조가 되느냐, 그렇지 못한 부끄러운 선조가 되느냐가 판가름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가온 이 70년대를 민족영광의 시기로 장식하기 위하여 투철한 역사의식과 시대적 사명을 지니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미 착수한 조국근대화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

즉, 새역사를 창조하고 새시대를 개척함으로써 민족중흥의 빛나는 유산을 대대손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10월유신>의 설계도가 여기서 기초(起草)된 것이다. <10월유신>의 근원을 다시 소급시켜 1961년의 <5·16 횃불>로 보게 된다.

「불안과 혼돈의 구질서(舊秩序)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질서를 찾을 길 없었던 1961년, 그 때의 5·16 혁명은 민족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역사 발전의 당위(當爲)였고 필연이었다.」고 규정하신 박 정희 대통령각하는 다시 「그것은 또한 남의 원조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나아가 남을 도와줄 수도 있는 자주자립의 민족이 되어야 겠다는 강렬한 민족의지의 발현이었으며, 조국근대화 운동의 출발이었다」고 <5·16 횃불>의 참뜻을 밝히시었다.

오늘 날, <10월혁명>이 본 궤도 위에서 눈부신 성과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서, 전국방방곡곡에 메아리치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망치소리를 듣고 있다.

아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앞장서서 그 망치를 힘껏 휘두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 <우리>라는 복합명칭(複合名稱) 속에 포함되어 있는 60만 국군 중에서 이 세대적인 보람찬 사명감을 망각하고 있는 전우가 있다면, 누구를 위하여 통탄해야 할 것인가?

또한, 피동적인 자세에서 민족대열의 우렁찬 전진을 방관하려고만 하는 전우가 있다면, 이 역시 누구를 위하여 통탄해야 할 것인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영원해야만 할 조국 대한민국은 겨레

모두의 생명이며 희망일진대, 그러한 전우들은 자기 자신의 생명과 희망을 스스로 저버리는 낙오자로서의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양심의 문제이며, 명예와 긍지의 문제라는 점에서, 내면적인 가책을 면치 못하게 된다.

왜 조국을 사랑하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쿠오레」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줄로 안다. 그 가운데에 「애국」(愛國)이라는 제목의 장(章)이 있다. 아버지로부터 주인공 「엔리코」에게 보내온 편지의 한 귀절이다.

＜소년고수(少年鼓手)의 이야기를 듣고 너는 크게 감동했을 것이니만큼, 오늘의 학교시험에서 "왜 이탈리아를 사랑하는가?" 하는 작문을 짓는 것은 대수롭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너의 어머니가 이탈리아에서 태어났고, 너의 혈관 속에서는 이탈리아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선조 대대로 이탈리아의 땅에 묻혀 있으며, 네가 태어난 곳도 이탈리아가 아니겠느냐. 네가 말하는 국어도 이탈리아 말이며, 네가 읽는 책도 모두 이탈리아 말이다. 그리고 너의 형제, 너의 친구, 주위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 아름다운 자연환경 등 그 모두가 이탈리아에 있는 것들이다. 이탈리아를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이처럼 수두룩하다. 외국에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나, 외국에 나가서 이탈리아 말을 들을 때에는 참으로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법이다. 내나라를 헐뜯는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에는 저절로 분격하게 되고, 외국과 일단 전쟁하게 되면 조국에 대한 사랑이 더 한층 강해지는 법이다.

그리고 군대들이 고국으로 개선해 오는 것을 볼 때에는 너는 애국이라는 말뜻을 진실로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신성한 감정이 아닐 수 없다. 이 애비는 네가 먼 훗날에 조국을 위해 훌륭히 싸우다가 자랑스럽게 개선해 오는 것을 마중했으면 한다.＞

「쿠오레」는 ＜참마음＞이라는 뜻이며, 주인공 「엔리코」를 비롯한 국민학

<보라매들에 부치는 글>

교 3학년짜리들을 등장인물로 하여, 애국심과 인간애를 깨우치기 위한 「데·아미첸스」의 원작이지만, 여기에 인용한 소년 고적수의 애국적인 무용담은 소년 아닌 어른들에게도 커다란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오고 있다.

역시 「쿠오레」에 수록된 일화로 애국소년이라는 장이 있다.

<한 척의 기선이 스페인 수도 발세로나를 떠나 제노아를 향하고 있었다. 선중(船中)에는 프랑스인, 이탈리아인, 스페인인, 스위스인 등 각국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그 중에 열한살 가량의 초라해 보이는 어린이 하나가 있었다. 그는 언제나 외톨이가 되어 구석진 곳에서 우울한 눈초리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

그로부터 약 2년 전, 이탈리아의 바즈아 근처에서 농사짓고 있던 소년의 양친은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 못이겨, 돈 몇 푼으로 자기 아들을 떠돌이 흥행사에게 팔아넘겼던 것이다. 이 흥행사는 악독한 인간이었다. 소년에게 곡예를 가르치면서 모진 매질과 몰인정한 학대를 가했다. 끼니조차도 제대로 주지 않아, 발세로나에 당도했을 때에는 소년은 기진맥진, 지칠대로 지쳐 있었다. 참으로 비참한 환경이었다. 소년은 참다 못해 도망쳐나와, 이탈리아의 영사에게 구원을 청했다. 영사는 소년의 불쌍한 처지에 동정하여, 이 기선편으로 고국에 돌려보내기로 했다.

소년은 영사의 후의로 2등실에 타고 있었으나, 그 온 전신은 매맞은 상처로 멍들었고, 말할 수 없이 쇠약해 있었다. 2등 선객들은 소년에게 여러가지로 흥미를 느꼈다. 옷차림새나 쇠약해 있는 몰골로 봐서는 2등실에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소년은 사람의 눈을 무서워하는 눈초리로, 또는 이 세상을 원망하는 눈초리로 사람들을 피하고 있었으므로 승객들은 더욱더 관심을 쏟고 있었다. 소년은 마침내 승객들의 요청에 못이겨, 이탈리아말, 프랑스말, 스페인말을 뒤죽박죽 섞어가면서 지난 2년 동안의 슬펐던 내력을 이야기했다. 승객들은 이탈리아사람이 아니었으나, 소년의 딱한 처지에 동정하여 몇 푼씩을 거두어 주었다. 그 중에서도 술취한 세 사람은

얼근한 김에 흥미삼아 돈을 내보이면서 소년의 경험담을 더 계속하라고 요구했다. 마침 그 때에 여러 명의 부인들이 이 장소에 나타났다. 술취한 세 사람은 돈자랑이나 하듯이 다시 한줌씩의 돈을 테이블 위에 내던지면서 동정하는 기색을 꾸며 보였다.

소년은 낮은 목소리로 감사하면서 그 돈을 호주머니에 넣었다. 어둡고 핏기없던 소년의 얼굴에도 따스한 미소가 떠오르게 되었다. 그는 자기 침대에 들어가 커튼을 치고 조용히 눕고 여러가지를 회상했다. 허기지고 쓰라린 2년간이었으나 지금 호주머니 속에 있는 이만한 돈이면, 이 기선 안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무엇이든 사먹을 수 있고 제노아에 배가 닿기만 하면 무엇보다도 우선 새옷을 사입어야겠다고 가슴부푼 행복감에 젖기도 했다. 아니 그것보다도 이만한 돈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아무리 냉혹한 부모일지라도 따뜻하게 맞아줄 것만 같았다. 이 돈은 이제 소중한 재산이 아닐 수 없었다. 동정해준 승객들이 고맙기만 했다. 이것저것 후룻한 생각에 잠겼던 소년은 잠이 들락말락했다.

마침 그 무렵이었다. 그 술취한 세 사람의 목소리가 커튼 너머로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여행다녀온 여러나라의 인상과 경험담을 주고받고 있는 중이었다. 이야기는 마침내 이탈리아로 언급되었다. 소년은 자기의 고국 이야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귀를 세웠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여관이 형편없었다고 불평했다. 또 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철도시설이 엉망이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목청을 돋구면서 이탈리아에는 사기꾼과 소매치기 밖에 없더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맞장구나 치듯이 이탈리아의 관리들이 글자도 제대로 못읽는 것을 보니 이탈리아는 형편없이 무지몽매한 나라가 틀림없다고 비평했다.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불결한 국민이라고도 했다. 이 말을 받아서 또 한 사람이 「이탈리아는 도둑놈의……」 하고 말을 채 맺기도 전에 별안간 동전과 은화(銀貨)의 벼락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동전과 은화는 그 세 사람의 머리 위로 사정 없이 쏟아졌다. 테이블과 방바닥에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세 사람은 날벼락

을 맞은듯이 머리를 싸매고 당황했다. 그 뒷통수를 향해 또 한주먹의 동전이 쏟아졌다. 그와 동시에 소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선실을 흔들었다.

「네깐놈들의 더러운 돈은 안 받아! 왜 이탈리아를 욕하는 거야! 남의 나라를 욕하는 놈들이 더 더러운 놈들이야!」

소년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몇 번이고 외쳤다.

좀 지루하게 인용하기는 했지만 가슴에 울리는 그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는 줄거리가 아닐 수 없다. 간결하고 핵심을 찌르는 훌륭한 애국론이다. 허기지고 지쳐있는 어린 소년이면서도, 동전 한푼이라도 목구멍에서 손이 나올만큼 탐나는 모처럼의 돈이면서도, 자기의 조국을 욕하는 놈들로부터는 동정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이 애국심,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기 나라를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해주는 줄거리로 본다.

우리는 왜 조국을 사랑하게 되는가? 내가 태어난 곳이며, 나의 부모형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여기에 애국심의 핵(核)이 있는 것이 아닐까? 동시에 애국하는 명예와 긍지를 간직할 수 있는 정신체계의 근원이기도 하다.

명예의 가치관

지나간 일이지만 조국광복 직후 우리나라에는 애국자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속출했던 한 시절이 있었다. 해외에서 귀국하는 자는 저마다 독립투사였으며, 제헌국회의원에 입후보한 자들은 저마다 감옥경력을 나열하기에 바빴었다.

그러나, 해내외(海內外)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애국투쟁했던 인사들은 묵묵히 광복 후의 조국재건에 여념이 없었다. 이 분들은 자신의 득세보다도 조국의 장래를 근심걱정하는 것으로 생의 보람을 느끼신 것이었다. 목숨과 바꾸어 나라를 건지고자 했던 그 피맺힌 독립투쟁 경력을 상품화(商品化)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의당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그 초연한 자세에서 진실한 명예의 가치관을 엿볼 수가 있다. 명예는 자기 자신이 의식하고 장식하는 것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서 찬양받고 추앙받음으로 해서 참다운 빛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동시에 이 참다운 명예를 지니는 분들은 거의 고독한 생애를 마치신 것으로 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민족의 성웅 이충무공도 너무나 고고하셨기에 외로운 생애였다고 생각한다. 그 분에게는 자기의 일생을 생각하시기에 앞서, 다시 말해서 속된 인간생활의 모든 행락을 즐기기에 앞서 나라 걱정부터 하셨기 때문에 때묻은 평범한 즐거움을 모르시고 그 파란많은 생애를 마치신 것으로 살피고 싶다. 학자들이 서술한 충무공 전기나 난중일기를 읽노라면 독야청청(獨也靑靑)한 고송(古松)을 연상하게 되어 참다운 명예를 지니시는 어른들은 외로운 법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백의종군의 장에 이르러서는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터무니 없는 누명을 쓰셨으면서도 억울한 죄명을 받으시고도 아무 항변도 없이 백의종군하신 그 모습은 그 어느 순교자의 모습과도 바꿀 수 없는 고고한 차원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다.

충무공은 가위 명예의 가치관을 몸으로 증명해 보이신 성웅이시다. 그 누가 알아주든 말든 나라사랑하는 일편단심을 오직 천명으로 아시고 묵묵히 실천하신 위대한 실천가이시다.

백의종군하신 그 모습이 이 드높은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숙연한 마음으로 그 분의 명예를 우러러보는 것이다. 공(公)인들 인간인 이상, 왜 억울한 누명과 죄명에 대하여 말 한마디라도 항변하고 싶지 않았겠는가! 어찌 분한 마음이 전혀 없었으리요! 그러나, 공은 개인이기에 앞서 나라의 기둥되기를 원하신 바가 하두 높고 컸기에 간신배들의 참소를 귓전에 부는 바람소리보다도 개의치 않았을 뿐이다.

코딱지만한 공로만 있어도 으시대고 선전하는 무리들과는 어찌 같은 차원에서 공의 명예를 논할 수가 있으리요!

이렇게 생각컨대 명예의 가치관이란 결국, 어떤 공로가 크다고 해서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가짐에 따라 차원이 달라지는 것임을 엿보게 된다.

보람찬 긍지

나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의 꿈을 품어왔다. 오십고개를 넘긴 인생의 사양길에 접어든 오늘까지 그 꿈은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3년 전에 좋은 기회를 놓친 일이 있다. 전우신문에 연재 중이던 「태극무공훈장」의 한 편(篇)으로 공군의 대표적인 전공담을 계획하여, 취재차 모 공군기지를 방문했을 때에 비행단장의 호의로 그 꿈이 이루어질뻔 했었다. 나를 친절하게 대해준 비행단장 P장군은 호쾌하고 늠름한 기상을 저절로 갖춘 지휘관이었다. 부대 기풍은 지휘관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점칠 수 있지만, 이 P장군의 기상(氣像)으로 표징되는 ○○전투비행단의 기풍은 이미 우리의 영공을 빈틈없이 자신만만하게 품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그 늠름한 기풍을 만끽하면서, 나는 하나의 뚜렷한 사실을 발견했다. 즉, 북한공산집단의 공군쯤은 새끼 손가락 정도로 취급하고 있으며, 그 밖의 여하한 공군세력일지라도 우리의 영공을 침범한다면 자신있게 격파할 수 있다는 긍지로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참으로 보람찬 긍지로 뭉쳐있는 전투비행단이었다. 짧은 시간이나마 이 분위기에 몸을 담을 수 있다는 만족감에 취하면서 나는 주제넘게도 P장군에게 무례한 청을 드려보았다.

「단장님, 저는 어릴 때부터 하늘 높이 올라가서 우리나라의 강산을 한눈에 바라보았으면 하는 꿈을 품고 왔읍니다만……」

말하자면, 전투비행단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 ××에 편승할 수 없겠느냐는 염치없는 청이었다. 일언지하에 거절당할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P장군은 호쾌하게 웃으면서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좋으시다면 지금에라도 당장에 떠보시지요.」

하는 것이었다.

이 모처럼의 후의에 매달려 ××의 뒷자리에 올라탔더라면 오랜 꿈을 이룰 수 있었으나, 묘하게도 겁이 살짝 일어나고 말았다. 분명, 그것은 나에게 미지의 모험일 수 밖에 없었다.

자전거타는 이상으로 안전도가 보장되어 있는 줄은 알면서도 하늘높이 올라간다는 일종의 고도감(高度感)으로 인해 움튼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이 모처럼의 기회도 놓치고 말았지만, 이 자리에서 나는 귀중한 경험담을 들었다.

동해안과 서해안, 그리고 휴전선 너머 북녘의 강산까지를 한눈에 바라보기 위해서는 ×만피이트상공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24시간의 불침번으로 알려진 공군기가 일부러 강산구경을 하기 위해 그러한 고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공을 파수보는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그 고고도의 상공까지 올라가게 마련이다.

이 때, 공군용사들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찬 긍지>를 품게 된다고 한다. 조국의 강산을 한눈에 바라보는 그 장쾌감(壯快感)도 그러하지만, 이 한몸을 바치고 지켜내야 한다는 결의가 저절로 굳어진다고도 한다.

동시에 시공(時空)을 초월하여 하나의 점으로 동화되어 영겁(永劫)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감을 맛보게 되는 그 고고한 고독감, 혼자만이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푼 만족감, 그리고 부모형제와 겨레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국강산을 한눈으로 지켜보는 긍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가슴 속에 차오르면서 <조국>을 실감하게 된다고도 한다.

국군 3군 중에서도 가장 요긴한 승리의 관건이 되어 주고 있는 우리 공군의 미더운 편대비행을 올려다 보면서 나는 언제나 조국과 명예와 긍지를 실감하면서 국토방위에 임하고 있는 그 보람있는 생애를 부러워한다.

<하늘>을 벗삼아 생명의 진가를 불태울 수 있는 그 특수한 분야에서 어제를 지켜왔고, 오늘과 내일을 지켜나갈 공군 용사들에게 조국의 이름으로 찬사가 끊기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무운장구를 기원해 마지 않는다.

유신 1년의 안정과 발전

10월유신 1주년을 맞아

특별정훈교육자료

1. 한국적 민주정치체제의 확립

(1) 유신헌법의 확정

1972년 10월 17일 박 대통령 각하의 영단으로 단행된 10월유신은 그 첫번째 과업으로서 유신체제의 기반인 유신헌법을 국민투표에서 절대적 지지로 확정시킴으로써 민족중흥의 80년대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정의 우람한 출범이 이루어졌다.

대립과 냉전에서 화해와 공존을 지향하는 국제정세의 격변과 새로운 남북대화시대의 개막 등 우리를 에워싼 주변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우리가 주체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허술한 우리의 체제와 자세를 바로잡아 나가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안정·번영·통일」의 새로운 민족여명을 맞으려는 박 대통령 각하의 구국의 영단이 각계 각층으로부터 열렬한 호응과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2) 유신선거풍토의 정착

10월유신 이후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세번이다.

첫번째는 1972년 11월 21일에 실시된 유신헌법 확정을 위한 국민투표였고, 두번째는 동년 12월 15일에 실시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였으며 세번째는 1973년 2월 27일에 있었던 국회의원선거였다.

유신 이후 실시한 이상 세 차례에 걸친 투표권 행사에서 우리는 사상 유례없이 공정하고 깨끗하며 조용하게 주권을 행사하였다. 특히 두 차례의 선거에 있어서는 종전에 선거망국론이 나올 정도로 타락하고 소란스러우며 금권과 관권이 난무했던 비민주적 선거기풍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그야말로 심기일전한 유신적 선거풍토가 조성되었다.

(3)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구성과 대통령 선거 및 취임

유신헌정체제 가운데 두드러진 특색을 지니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작년 11월 27일 대의원선거일의 공고에 이어 12월 15일의 대의원선거로써 총 2,359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고, 12월 23일 역사적인 제1차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구성 발족되었다.

이와 같이 발족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유신헌정의 첫번째 대통령인 제8대 대통령을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함으로써 유신헌정의 또 하나의 초석을 다졌다.

이리하여 유신헌법의 확정 공포,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구성과 발족 그리고 대통령의 선거와 취임 등 유신헌정의 기반이 불과 2개월 10일만에 그야말로 유신적인 추진으로 착착 다져지고 새로운 유신헌정의 새 역사가 펼쳐 나오고 있다.

(4) 유신국회의 구성

금년 2월 27일 과거의 부조리한 선거풍토를 일신하는 완전 공영제(公營制)의 선거제도로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를 구성함으로써 유신헌정체제는 완벽하게 정비된 것이다.

우리는 지난날 우리 국회가 그 제도면에서나 운영면에서 많은 부조리한 요인을 안고 있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새로 출발한 유신국회는 지난날의 이러한 비생산적이며 비능률적인 정치형태를 대오각성하여 능률본위의 「일하는 국회」로 그 면모를 일신하고 공화당·유정회·신민당 및 무소속의 4개 교섭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대화와 이해를 통한 국회운영으로 생산적이며 능률적인 정치풍토를 확립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2. 적극 외교와 국위선양 활동

(1) 유신외교의 추진

다극체제하의 긴장완화시대에 있어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관계의 어떠한 변화도 우리의 안보체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방지하며 나아가서는 우리를 중심으로한 보다 적극적인 안보체제의 구축에 솔선하는 안보외교태세를 강화해 왔으며 국가안보체제를 바탕으로 80년대의 번영을 향한 수출 100억「달러」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유대와 협조를 강력히 추진해 왔다.

또한 박대통령 각하의 「8·15선언」을 기점으로 개막된 남북대화의 새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이해와 지지를 두텁게 해 왔다.

(2) 평화통일외교정책의 선언

지난 6월 23일 박대통령 각하께서 천명한 평화통일외교선언은 한 마디로 말해서 그 동안 우리가 쌓아 올린 우리의 국력과 10월유신으로 다져진 국민 총화의 터전을 발판으로 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뿌리 박고, 세계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하며 나아가서는 민족의 염원인 자주적인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이로써 남들이 이룩해 놓은 세력균형과 가공적인 평화「무우드」에 젖어 있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공산주의 국가를 포함한 전세계를 향해 우리의 문호를 개방하고, 또 다른 나라도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국제적인 화해조류와 세계의 평화건설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외교활동의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가?

작년 10월말 현재 77개국에 해외공관을 두고 12개의「유엔」전문기구, 7개의「유엔」직속기구, 그리고 23개의 정부간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국제적인 평화와 협조에 노력해 왔었으나 지난 1년 동안 외교무대의 확장에 더욱 힘을 기울인 결과, 10개의 대사관과 1개의 대사관이 더 늘어 해외공관은 모두 88개가 되었다.

(4) 더욱 선양된 국위

정부는 금년 1년 동안「유신한국의 선양」이라는 목표 아래 날로 발전하는 우리의 참 모습을 전 세계에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한 해외홍보활동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특히「6·23」평화통일외교선언을 계기로 더욱 뚜렷하게 밝혀진 우리의 평화지향적인 기본자세와 노력을 크게 부각시키기 위하여 힘을 써 왔다.

3. 총력안보태세의 강화

(1) 10월유신으로 다져진 안보태세

1971년 12월 6일 급변하는 내외정세에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그에 따라 우리의 자위태세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갈수록 정세 변화가 급격해짐에 따라 우리 민족 스스로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체제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다듬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여기에 바로 10월유신의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10월유신으로 밖으로는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이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안으로는 국력을 증강하고 조직화하는데 온 민족 역량을 집약하기로 다짐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주국방과 총력안보태세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4대목표를 세워 추진함으로써 유신1차년도인 지난 1년 동안에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날의 욕된 역사를 거울삼아 자주국방이라는 민족의식을 드높인다.

둘째는, 군장비를 현대화하고 군을 정예화함으로써 자주국방의 태세를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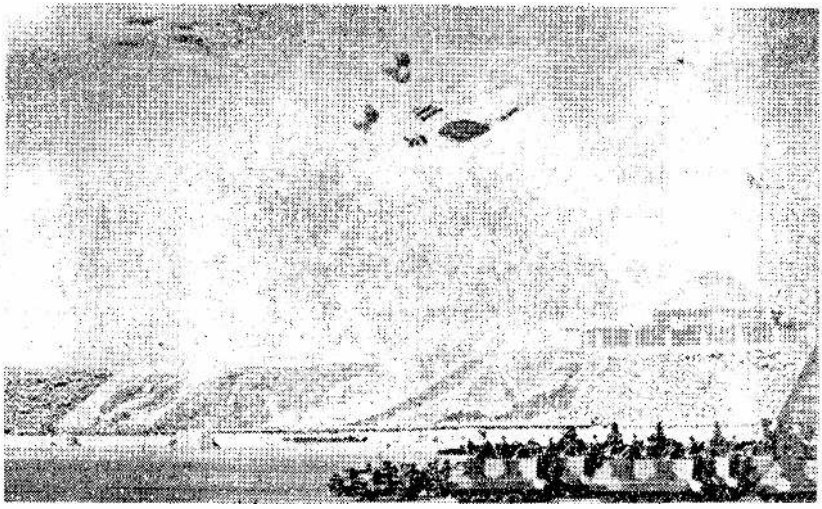
세째로,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의 일환으로 방위산업기술을 고도화한다.

네째로, 국가총동원체제를 강화하고 그 기동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력을 철통같이 조직화한다.

이렇게 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자주국방태세와 총력안보태세는 더욱 튼튼하게 다져진 것이다.

(2) 더욱 강화된 민방위태세

정부가 지난 72년을 「총력안보의 해」로 정한 이래 모든 국민은 자위하는 용기와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다듬어 왔다.



한편 향토예비군의 조직과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훈련과 동원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총화력으로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민방위태세는 더욱 튼튼하게 다져졌다.

그 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은 새마을 운동에도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전국민의 단결과 협동을 촉진하고 총력안보태세를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북한의 공중 기습공격에 대비하고 전국민의 정신무장의 강화와 안보의식의 고취를 위한 월 1회의 민방공훈련에 있어서도 전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총력안보태세는 더욱 굳이졌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안보교육의 강화에 더욱 역점을 둠으로써 청소년 학생들도 국토방위를 위한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능동적으로 학교교련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온 국민은 유비무환의 정신과 민방위체제에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력안보태세는 더욱 튼튼히 다져져 나왔다.

4. 남북대화

(1) 남북대화의 동기

박 대통령 각하는 1970년 8월 15일 제25회 광복절 기념식전에서 경축사를 통해 우리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할 구상을 만천하에 밝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경축사에서 박 대통령 각하께서는 북한 당국에게 「전쟁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우리와 함께 개발과 건설과 창의의 경쟁을 벌이자」고 제의하였다.

역사적인 이 「8·15선언」을 계기로 남북간에 얼어 붙었던 장벽을 우리들의 자주적인 노력으로 무너뜨리려는 노력은 점차 실천적인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듬해인 1971년 8월 12일에 대한적십자는 「1천만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제의하였으며, 또 작년 7월 4일에는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2) 남북대화 추진

남북적십자회담은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가 「남북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제의하고 이틀 뒤인 8월 14일 북한적십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같은 해 9월 20일에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제1차 예비회담이 열렸던 것이다.

본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회담으로 시작된 적십자회담은 그 뒤 25회의 예비회담과 16회의 실무자회담을 거쳐 우리가 회담을 제의한지 꼭 1년만인 작

년 8월 30일에 제1차 본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게 되었다.

10월유신 이후 굳게 다져진 우리의 국력을 바탕으로 남북대화는 더욱 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10월 24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본회담에서부터 우리는 실질문제의 토의를 주도하여 예비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의제 제1항인 「남북에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생사와 주소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에 대한 실천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 회담을 진지하게 진전시켜 나가려는 우리의 자세와 이것을 하나의 선전장으로 이용하려는 북한의 전략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난 7월 12일 제7차 본회담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줄기찬 인내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의 생떼에 부딪쳐 그 이상의 구체적인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박 대통령 각하는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그동안의 불안한 평화를 영속적이고 안정된 평화로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사이에 인도적인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정치적인 대화통로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결단에 도달했다.

박 대통령 각하는 이같은 진취적인 결단에 따라서 1972년 5월 2일부터 5일까지 사이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극비리에 평양에 보냈었고, 뒤이어 북한은 제2부수상 박 성철을 김 영주의 대리로 서울에 보냈다.

이리하여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서 1972년 10월 12일에는 판문점에서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고 11월 29일에는 드디어 남북조절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되어 그 첫 회의를 서울에서 열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제3차 조절위원회까지 세번의 모임이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별다른 진전은 없다.

(3) 남북대화의 문제점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우리는 쌍방간에 대립이나 마찰이 비교적 적은 경제와 사회·문화 부문에서부터 교류와 협력을 이루어 나가자고 제의하였다.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과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상호 신뢰와 이해의 폭을 넓혀 어려운 문제까지도 합의와 협력의 바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북한측은 이른 바 「군사문제5개항」(군비축소, 병력감축, 군장비 도입 중지, 미군 철수, 평화협력 체결)을 내놓고, 이것이 선결되지 않는 한 회담은 한 발자욱도 더 진전될 수 없다고 엉뚱한 생떼를 부렸다.

다음으로 남북대화를 단절시키려는 그들의 도발은 지난 8월 28일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 공동위원장 김 영주의 「남북대화를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없다」는 발악적인 성명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김 영주는 이 성명에서 가진 트집과 생떼로 터무니 없는 이유를 열거하였지만 이는 한 마디로 말해서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이 회담을 진지하게 이끌어 나갈 성의가 없었으며, 여구나 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그들의 약세를 새삼스럽게 깨닫고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지 말아야 겠다는 저의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

우리는 지난 해의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일대 유신적 개혁을 단행하여 민족사에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발전과 번영을 위한 민족중흥에의 출발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염원하는 민족중흥은 국력의 비약적인 성장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민족중흥은 경제적 번영이 그 핵심적 기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민족중흥의 중간 목표를 80년대 초로 설정하고 이때까지는 1인당 국민소득을 1,000불까지 끌어올리도록 하는데 국정의 초점을 모으기로 결정하고 유신 1차년도인 금년도 시정방향을 경제우선주의에 두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을 9.5%로 정하고 물가상승률을 3% 내외로 억제하여 경제안정과 고도성장을 추구하며 23억 5천만불의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1) 경제성장

금년도 상반기(1월~6월)의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19.2%라는 사상 유례 없는 실질성장을 기록하였다.

즉 금년도 상반기 GNP(국민총생산)는 1970년 불변시장가격으로 1조 4441억원에 달해 19.2%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성장실적은 작년 동기(同期)의 5% 성장을 약 4배나 상회함은 물론, 제3차 5개년계획에서 당초 예정했던 8.6%와 그리고 금년도 총자원예산에서 추정했던 9.5%를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서 이 추세로 나간다면 연간 성장률은 1969

년도의 15%와 맞먹는 고도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경제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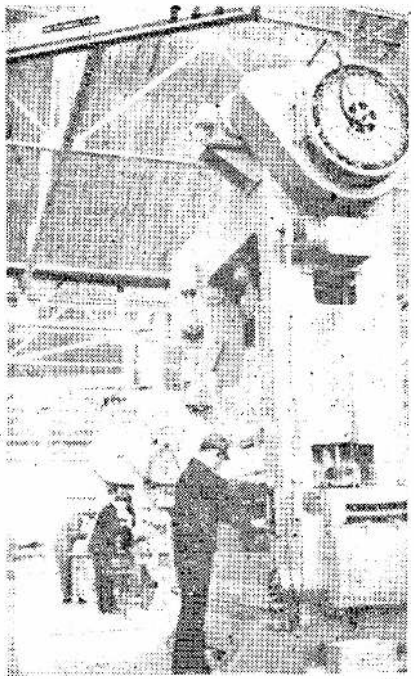
8·3조치 이전의 우리 경제는 60년대의 고도성장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과 부작용에 따라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업의 불실화, 생산증가의 둔화, 투자활동의 위축, 물가상승 압력과 국제수지의 악화, 경제성장률의 둔화 등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

8·3조치는 이러한 병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활력소가 되었으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원가를 절감하는 등 기업경영의 여건을 획기적으로 쇄신하는 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8·3조치는 우리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안정된 기반 위에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성취하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우리 경제의 개선을 이룩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3) 수출 증대

73년 7월말 현재의 우리 나라 수출실적은 14억8,117만불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60.3%의 높은 실질증가를 나타낸 것으로 전년 동기의 증가율 28.9%의 배를



능가하는 것이며, 제3차 5개년계획의 연평균 수출증가율 31.6%의 배에 가까운 것이다.

이는 금년도 수출목표 23억 5천만불에 대한 63.3%로서 전년 동기의 목표대비 53.1%를 10.2% 앞서고 있는 것으로 금년도 수출목표는 무난하게 초과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수출의 신장세(伸長勢)는 8·3조치에 따른 기업원가의 절감과 국내물가의 안정을 토대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된데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6. 중화학공업의 육성

지난 60년대에 경제의 고도성장과 공업입국의 튼튼한 기반을 이룩한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연초에 「중화학공업정책」을 선언하고 그 육성에 온갖 정책수단을 집주하고 있다.

중화학공업의 육성은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고 장기적인 수출증대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며, 산업간의 관련효과를 제고(提高)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GNP에 대한 광공업부문의 비중을 72년의 24.3%에서 81년에는 34.7%까지 끌어 올림과 동시에 중화학공업대 경공업의 비율을 72년의 35.2대 64.8로부터 81년에는 51대 49로 향상시키며 수출구조면에 있어서는 공산품의 비중을 72년의 87.7%에 81년에는 93.5%로 끌어올리는 한편 중화학공업제품대 경공업제품의 비율을 27대 73으로부터 65대 35로 향상시키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전력·석탄·석유 등 「에너지」 산업의 대폭적인 건설과 항만·수송·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경제개발기반을 강화하였고 경공업부문의 급속한 신장과 석유화학계열 공장 등 선발 중화학공장의 건설로 공업기반을 확충하였으며, 8·3조치 등으로 기업체질을 개선하여 중화학공업정책 추진의 소지를 마련함으로써 중화학공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착수하였다.

7.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전력·교통·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은 각종 생산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사회기초시설이므로 그 균형적 확충이야말로 사회 전역의 균형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이 부문의 확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역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1) 전력의 증가

중화학공업의 중점육성에 따라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 이 부문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 지난 72년도에는 경인화력·호남화력·영동화력 및 영남화력 등 네 개의 발전소를 준공하여 72년말 발전시설용량은 387만kw에 달하였다. 금년도에는 동해화력·소양강수력·팔당수력을 건설하여 66년의 80만kw 대비(對比) 6배가 넘는 427만kw의 시설용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전력은 전기를 마음대로 쓰고도 50만kw의 예비출력을 갖게 되는 셈이다.

(2) 고속도로의 건설

호남고속도로의 연장사업인 대전-순천간 189km에 대한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연내 개통을 서두르고 있다. 73년 8월말 현재 전체공정 86.7%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남해고속도로(부산-순천)177km의 연내 개통을 위해 구조물 시공과 포장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3년 8월말 현재 89.5%의 공정을 완료하였다.

한편 고속도로 건설과 병행하여 국토포장에도 역점을 두어 72년도에는 365km를 시공하였으며 73년도에는 150km를 시공중에 있다.

(3) 철도의 변모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수송 증대에 대비하여 중앙선 382.7km 중 청량리-제천간 155.2km를 전철화하여 금년 6월 20일 개통을 봄으로써 수송방면에 있어서는 44%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속도 향상면에 있어서는 30분 내지 1시간의 단축을 보았다.

이 밖에 울산석유화학 인입선·송정리-광주 직행 연결선·고한선(고한-황지) 등 철도를 건설하였다.

(4) 서울 지하철공사의 진척

71년 4월에 착공된 지하철제1호선(서울역-청량리)의 9.45km건설은 총 공사비 316억원을 투입하여 마지막 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3년 7월말 현재 전 공정의 70.68%를 달성하였으며 금년말까지는 전 공정의 91%를 달성할 예정으로 있다.

(5) 항공사업의 발전

격증하는 항공수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73년 5월 「점보」제트기를 취항시키고 8월에 2번기를 도입하였으며 김포와 제주의 공항을 확장하기로 하였다.

지난 5월에는 김포공항의 활주로 보강공사를 이미 완공하였으며 현재 규모의 배에 상당하는 종합청사에 착공, 금년말에 완공할 목표 아래 8월말 현재 75%의 공사를 진척시켰다.

한편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장기계획을 성안, 내년부터 81년까지 김포·제주 두 공항을 대폭 확장할 예정이다.

(6) 주택 건설

첫째, 주택건설촉진법의 시행으로 주택자금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72년의 128억원에 비하여 3배인 371억원으로 확대, 5만1천호의 주택건설을 촉진하게 되었으며,

둘째,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도 72년도의 500세대에 비하여 3배 규모인 1,500세대를 건설한다.

세째, 72년까지는 수해주택복구에만 15만원씩 지급하던 농촌주택부문을 금

년부터는 30만원씩으로 자금지원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의 보급과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8. 사회개혁

정부는 그 동안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부정 부패는 물론 미풍양속을 해치는 각종 퇴폐풍조를 근절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

사회적 부조리가 척결되지 않고는 건전한 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부조리 척결의 일환인 서정 쇄신을 위해서는 감사원의 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지위의 고하와 죄질의 경중을 막론하고 국가발전을 좀먹는 독소는 과감히 도려내고 있는 것이다.

(1) 부정행위의 근절

감사원은 10월유신 제1차년도를 맞이하는 1973년도를 「유신기풍 진작의 해」로 정하고 금년 7월 31일까지 204회에 걸쳐 연인원 81,964명을 동원, 1,073개 주요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정행위와 중과실을 근절하는데 주력하였다.

(2) 사회악의 근절

사회의 발전에 따라 범죄도 점차 지능화하고 광역화되어 있어 정부는 그 동안 수사의 과학화와 전문화체제를 강화, 사회악을 과감히 소탕하였다. 작년 10월 17일부터 금년 8월말까지 단속한 결과, 범죄발생건수 총 396,701건 가운데 360,118명을 검거하여 검거율 90.8%를 기록하였다.

(3) 허례허식과 사치 낭비풍조의 일소

정부에서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생활태도를 쇄신하기 위하여 생활의 과학화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합리적인 가정의례를 법제화하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것은 낭비와 체면을 앞세워 외화내빈(外華內貧)하는 어리석음을 자초하지 말고 국민생활의 실질적인 향상을 기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민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혼분식을 권장하여 왔다. 이 혼분식의 여행(勵行)은 국민체위의 향상에도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외화의 소비가 수반되는 외곡도입의 억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1주 2일간의 무미일 설정과 1일 1식 분식의 권장 및 요식업소에서의 표준식단제를 실시한 결과 지난 한 해만도 400만섬의 쌀을 절약할 수 있었다.

9. 민족교육의 진흥

10월유신은 민족의 활로를 개척하고 평화적인 조국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력의 조직화와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의 기본목표를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생활화로 교육의 체제와 내용을 쇄신하고 「국적 있는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유신과업 수행에 앞장서는 「참다운 새 한국인」을 육성하는 민족교육의 진흥에 두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로, 유신과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밑받침하기 위한 유신교육체제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교육체제 전반에 뿌리박고 있는 비능률과 부조리의 병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교육내용과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의 개선 등 교육의 성과가 개인생활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에 직결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합리적인 생활습성을 길러 모든 학생이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 국민이 과학하는 국민으로서 수준 높은 생활문화를 이룩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둘째로, 주체적인 민족사관의 정립을 위한 국사교육을 강화하여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주인공으로서의 높은 긍지를 지니게 하고 아울러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유산을 올바르게 계승할 우리의 민족적 정통성의 견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고 국가와 민족을 앞세우는 「참다운 새 한국인상」을 형성하여 오도(誤導)된 서구적 민주주의의 병폐를 불식하고 우리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실에 가장 알맞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적 있는 교육」을 기약하고 있다.

세째로, 국민 특히 농어촌의 의식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 과정의 운영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개발에 이바지할 「생산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작(勞作) 기능교육의 강화, 자활학교의 육성, 산업협동체제의 강화 등 지역사회의 소득증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의 사회화 기능을 확대시켜 교사와 학생이 주동이 되어 조국 근대화를 저해하는 모든 폐습을 일소하고 가정의례의 간소화, 생활양식의 합리화 등 생활개선과 사회 정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새마을교육의 심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10. 민족문화의 진흥

박 대통령 각하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더욱 창의적으로 계발(啓發)하여 민족문화의 꽃이 활짝 피어나도록 문예증흥의 시책을 펴 나가겠다」고 유신문화정책의 목표를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서 종합박물관을 건립하였으며, 국립극장을 완공, 유신 1주년을 맞이하여 개관한다. 한편 문화유산의 발굴 보전과 민족예술의 전승·보급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문화예술인들이 안심하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조치 및 정책을 추진하여 문예증흥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1) 제1차 문예진흥 5개년계획의 수립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그 터전 위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중흥을 기약하는 장기사업으로 제1차 문예진흥 5개년계획을 수립,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문예증흥 선언」을 하였다. 한편 총리 직속의 문예진흥위원회를 73년 3월 28일에 설치하였으며, 문예진흥기금을 설립, 운영하고 지방문화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문예진흥법을 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예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을 수립하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새마을운동에의 기여

새마을운동 및 유신과업을 소재로 한 신인들의 창작품을 공모, 이를 널리 배포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대중에 널리 고취시켰으며, 새마을 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시켰고 경제개발 성과 기록화전을 개최하여 대중의 경제건설 의욕을 앙양시켰다.

(3) 민족예술의 진흥

민족정기를 반영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문예작품(문학, 미술, 음악, 연극, 국악 등 5개부문) 창작활동에 대한 집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문예작품 창작지원기금」을 대폭 증액하였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제정하여 문학, 미술, 예술 등 부문에서 민족문화예술 진흥에 유공한 인사를 선정 시상하였으며, 국전·건축사진전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4) 대중예술의 정화

우수영화 및 건전가요 등 밝은 내용

과 교훈적 이야기를 담은 품위있고 건전한 대중예술을 권장 지원하고 퇴폐적이고 민족정신을 흐리게 하는 불량한 작품을 단속하여 국민정서 순화에 노력하였다.

(5) 고도(古都)개발을 위한 고분 발굴사업의 성과

경주 미추왕능 지구의 종합 정비를 위하여 155호 고분을 발굴하였는데 금관·천마도(天馬圖) 등 귀중한 사료(史料) 6백여점이 출토(出土)되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또 98호 고분도 이어 발굴사업에 착수하였는데 74년 11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

고분지역을 잘 보존하기 위하여 미추왕능지구 환경정비를 위한 갖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경주지구를 미화하려는 국립공원화계획과도 관련있는 사업이다.

□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

○—조국의 통일은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룩해야 하겠다는 우리의 염원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아무리 절실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된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했던 것이다.

— 1971. 10. 1. 「국군의 날」 유시에서 —

○—통일이 우리 민족의 숙원이고, 우리가 아무리 통일을 열망한다 하더라도 현실 여건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 현실적인 통일론이라든지 또는 감상주의에 젖은 통일론을 앞세워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위험한 짓이다.

— 1971. 1. 11. 기자회견에서 —

북한은 왜 「남북연방제」를 주장하는가?

특별 정훈교육 강좌

1973년 6월 23일 박대통령 각하의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이 있자 북한의 김 일성은 체코공산당 총비서 환영대회 연설을 통해 이같은 국제여론과 민족의 여망에는 아랑곳 없이 종전에 주장해 오던 연방제를 되풀이하면서 「고려연방공화국」을 만드는 것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동 국호하에 하나의 국가로 UN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UN가입문제와는 달리 UN에서 한국문제가 토의되는 경우는 북한이 마땅히 참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 일성의 이같은 발언내용은 박대통령 각하의 평화통일 외교선언에 대한 반응으로서 「고려」라는 왕조의 이름을 가져다 붙인 것을 제외하면 하등 새로운 것이 없는 종래의 연방제안인 것이다.

모처럼의 남북대화가 궤도에 오른 작금에 와서, 대화에 성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연방제」를 기본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이는 분명히 평화적 민족통일 노력에 역행하는 그들 특유의 대남전략전술의 새로운 구사를 기도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남북대화를 온 겨레의 여망에 부응토록 진전시키며 자주적 평화통일의 기반을 하나 하나 다져가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주장하는 어설픈 남북연방제안을 민족적 양심 앞에 폭로하고 그 기도를 규명해야 한다.

1. 남북연방제 주장의 경위와 내용

북한이 남북연방제를 처음으로 제안한 것은 4·19혁명 후 남한에서 민주당정권이 수립되고 평화통일논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던 1960년의 8·15기념식에서 행한 김 일성 연설에서 비롯된다. 그 후 남한의 5·16혁명으로 인한 정세안

정과 함께 북한 내부의 전쟁준비정책으로 사실상 중단되었다가 1969년 8월 15일 기념식에서 행한 김일(金一 : 당시 제일부수상)의 연설에서 다시 제기되었다. 그 후 1971년 4월 12일 북한 외무상 허담(許淡)이 발표한 8개 항목의 통일방안 가운데서도 남북연방제가 제안되었는데 1960년 김 일성이 처음으로 제안한 것과 대체로 동일한 내용의 것이었다. 그리고 남북대화와 함께 공식적으로 남북연방제안을 제시한 것은 1972년 9월 17일 김 일성의 일본「매일신문」기자와의 회견에서였다.

그 후 북한은 남북대화가 본궤도에 들어감에 따라, 제2,3차 남북조절위원회에서「무엇보다도 북과 남 사이에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시게 하는 것은 현시기 오해와 불신을 풀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관건적 문제」라고 역설하면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 중지, 외국군대 철거, 군대와 군비의 축소,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 중지,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했다.

이리하여 남북조절위원회에서 한국측의「남북사회 완전개방」대 북한측의「군사문제 우선해결」주장이 서로 맞서 대화는 정돈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박 대통령 각하의 6·23특별선언이 발표되자 김 일성은 같은 날 오후 8시「후사크」「체코」공산당 총비서 환영대회 연설을 통해 이른바「고려연방공화국」명칭을 최초로 거론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① 남북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시키고 긴장상태를 완화시키며,

② 북과 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고,

③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대민족회의」를 소집하고,

④ 현존제도를 당분간 그대로 두고 남북연방제를 실현하며, 국호는「고려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

⑤ 단일한 고려연방국호를 가지고 UN에 들어가야 한다.

이상 1960년 이후 현재까지 사이에 북한이 제의한 남북연방제는 내용상으로는 그 어느 것이나 동일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대화 이전과 이후의 연방제 제의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이점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남북대화 이전에는 독립적인 제반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남한측이 연방제이든 또는 어느 하나를 택하라는 방식이었는데 대화 이후에는 이를 지양하고 연방제를 다른 통일방안과 불가분하

게 관련시켜 제의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 남북대화 이전에는 선전적이거나 대중적 투쟁과제로서는 남북연방제를 제기한데 비해 대화 이후에는 선전과 대중적 투쟁과제로서는 물론 남북 당국간의 대화의 주제로서 올려 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대화에서 연방제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희박해 질수록 선전적 및 투쟁과제로서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째, 남북대화 이전에는 남북연방제 실현에 하등의 전제조건을 붙이지 않았는데 반해 오늘날에는 남북간의 군사문제 해결을 선행조건으로 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볼 때 북한은 남북연방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에서 어떤 효과를 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시행의 단계에서 전제조건을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2중 3중으로 묶어놓고 남북대화의 진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 남북연방제의 개념

북한의 남북연방제안이 통일지향적인 것이냐 혹은 분단고정화까지를 염두에 둔 평화 지향적인 것이냐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한 마디로 북한의 주장은 두 가지 대립되는 양극을 다 같이 반영하고 있는 매우 신축성을 가진 것이라고 보겠다. 즉 통일지향적인 것이면서도 주·객관적 정세의 추이에 따라 남북간에 평화적 관계가 유지되는 분단고정화정책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연방제안이 갖는 이러한 양면성은 남북대화시대에 있어서 북한의 현실적 입장과 소위 혁명적 입장의 양면을 병행시키고 정세의 추이에 따라 그 가운데 어느 한쪽의 비중을 높이거나 또는 줄일 수 있는 전략전술과 관련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남혁명의 정세가 유리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면 남북연방제안을 주로 대남적화를 위한 혁명적 입장에서 다루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대남혁명전략이 난관에 부딪혀 그 실현성이 없거나 희박하다고 판단하면 남북연방제안을 남북간의 평화관계 유지 및 자기체제의 보전이라는 현실적 입장에 중점을 두고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이 제안한 남북연방제는 분단된 한반도에 두 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인정이 한 측면이며, 다른 한 측면은 통일국가를 지향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에 그 특징이 있다. 물론 북한의 남북연방제안이 통일지향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여 민족공동의 염

원에 기초한 통일국가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북한이 공산화 통일을 절대적 과제로 하고 있는 것은 남북대화의 전후에 걸쳐 전혀 변화가 없는 만큼 오늘날의 남북연방제안은 소위 대남혁명전략의 일환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통일지향적이란 측면의 전부이다.

여기서 재강조할 점은 김 일성의 「고려연방공화국」 제안에서는 분명히 군사적 문제 선결을 요구하여 주한미군의 철수를 남북연방제 실현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남북연방제의 실현으로 미군철수를 촉구하자던 과거의 태도로부터 전환되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북한의 남북연방제안이 남북간의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현실적 입장이 반영되고 있는 측면은 평화공존문제에 비추어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무력에 의한 통일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또한 「남조선혁명」을 통한 공산화 통일의 전략이 구현되지 못할 경우에는 체제유지와 통일문제해결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좋든 싫든 남북간의 평화적 공존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한반도 내의 「두 개의 정부」 내지 「두 개의 국가」를 남북이 상호 인정하는 것이 되는 「남북연방제」가 합당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평화공존의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순수한 개념이 아니라 공산주의적 개념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평화공존은 혁명적 입장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와 방법에 의해서 대남혁명의 목적을 이룩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의 남북연방제안은 이론상으로는 평화공존과 대립시키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산주의적 평화공존론의 소산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남북연방제의 입각점은 평화공존이론과 상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 한반도에 현실적으로 체제를 달리하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이 전제로 되고 있는 점.

둘째, 남북간의 관계는 전쟁에 의한 병합이 아니라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점.

세째, 경제, 사회발전 전쟁과 계급투쟁을 배제하지 않고 궁극적 목적은 사회주의혁명에 있다는 점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중시해야 할 점은 남북연방제안이 남북간의 경제 및 사회발전 경쟁에서 북한이 승리함으로써 통일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판단이 동요되면 남북연방제안을 전

략적 차원으로서의 성격을 퇴색(褪色)시켜 사실상 현실이 불가능한 합작과 군축, 평화협정 등 보다 어려운 조건을 첨가하여 선전적 또는 전술적 차원으로 표방하는데 그치게 될 것이다.

다음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정치학의 통념에서 말하는 국가연합 또는 연방을 성취하는 국가가 가지는 최소한의 이념적 기초에 관한 동의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본래부터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북한의 남북 연방제는 그의 성립 조건을 쌍방의 이념적 동의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이념에 의한 일방적 통합을 전제로 하는데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데올로기」적 함축성에 있어서 잠정적으로는 한국을 마치 한반도의 한 구석에 수립된 보잘것 없는 「부르죠아」민족주의 국가로 간주하고 그 때까지는 병존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과정에서 현상을 파괴하는 공산주의 운동의 물결을 계속 밀어 넣어 언젠가는 하나의 공산권력으로 전 한반도를 통합할 수 있게 하자는 사고방식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북한의 남북연방제는 북한정권과 똑같은 정권 형태를 언젠가는 남한사회에도 만들어 양국간에 연방을 만들거나 또는 통합하는 것을 종국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남북연방제가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떤 범주에서 봉사하고 공헌할 수 있겠는가를 모두 측정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명백히 내다 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성원의 이름으로 한국에 대하여 내정간섭을 하려 들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가 지분(支分)국가결합에 의한 복합국가 또는 조약에 의한 국가의 단순결합이라는 국제법상의 유형과는 전혀 관계없는 정략적 특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3. 「고려연방공화국」을 제의한 저의

지난 6월 23일 북한은 종래의 남북연방제에 「고려」를 붙인 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UN에 들어가자고 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민족국가의 분열을 막고 통일국가의 형태를 고수하기 위하여 일견 타당한 조치인양 보이도록 하자는 전술적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 남북연방제는 다만 국호만으로 실현가능한 것이 아니며, 동족 상잔에 의한 깊은 적대의식 속에 4

반세기에 걸쳐 굳어진 두 개의 이질적 사회의 실체를 어하히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접근 가능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자기본질로 하여 그들대로의 가치체계를 형성한 사회가 되어졌고 남한사회는 민주주의를 자기 본질로 하여 가치체계와 윤리체계를 형성한 사회로 되었다.

전혀 상이한 가치체계를 가진 두 개의 이질사회를 하나의 민족국가로 통합한다는 것은 단일민족으로서의 유구한 역사, 언어와 문화의 공통성 등의 바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질적 요소로 인한 분열의 심층은 그대로 현실이기 때문에 통합이나 통일은 단순한 수학적 관념으로 성취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1960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측이 남북연방제를 제의함에 있어 보인 일관성없는 경위와 내용상 특이점 그리고 동연방제의 불합리한 개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여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전략적 기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 낼 수 있다.

첫째, 주한미군철수를 비롯한 한·미의 공동방위 및 협력관계를 약화 내지 단절시키려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현 여건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비롯한 전통적 한·미관계의 단절은 어려우므로 북한은 남북연방제의 실현으로 동 목적을 이룩하려고 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남한 내의 광범한 계층 내지 정치세력과 소위 통일전선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7·4공동성명 이후 북한측은 남북당국간의 쌍무적(雙務的)접촉과 함께 다무적(多務的 : 다변적) 접촉을 병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무적 접촉이란 비정부 정당, 사회단체간의 대화와 회의를 말한다.

북한이 다무적 접촉을 중시하고 있는 것은 대남혁명 전략의 핵심으로 되는 소위 통일전선을 구현시킴으로써 한국정부의 대북경계태세를 약화하고 나아가서 반미, 반정부라는 「남조선혁명」의 투쟁문제에 남한 내의 광범한 정치, 사회세력을 집결시키기 위해서이다.

세째, 한국의 반공체제, 즉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는 법적 및 정책적, 사회적 규제와 국민의 반공의식을 깨뜨려야 한다고 보고 있는 점이다.

한국에서 공산당이 불법화되고 있는 것은 「남조선혁명」의 전략 전술 전개에 결정적인 타격으로 되고 있으며 또한 공산당이 불법화되고 있는 여건에서의 지하활동이 한국의 법적 및 사회적 규제와 함께 국민의 반공의식으로 인해

주효하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한 사실은 이때까지의 경과가 말해주고 있다.

북한은 적십자회담을 비롯한 남북대화에서 한국 반공체제의 폐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반공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법률적 조건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대화로 관철될 수 없는만큼 남북연방제의 실현으로 남한 내에서 공산당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케 하며, 동시에 국민의 북한관을 개선함으로써, 반공의식을 이완시키며 나아가서 친공세력을 결집(結集)하려고 꾀하고 있는 것이다.

네째, 한국안전보장의 중핵(中核)을 이루고 있는 국군의 대공의식을 약화시킴으로써 소극적으로는 북한안보에 대한 위협요인을 제거하며, 적극적으로는 국군의 일부를 「혁명」의 편에 끌어 들이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군사적 수단에 의한 적화통일의 기회를 포착(捕捉)하려는 것이다.

남북연방제에 의해서 남북의 군사문제를 대남혁명의 전략에 유리하게 처리해 나가며, 동시에 국군의 대공의식을 모호하게 유도하고 이 가운데서 남북군대 사이에서도 「합작」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국군이 남조선혁명의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며 나아가서 국군의 일부 또는 대다수를 혁명의 협조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북한은 장차 무력이 통일의 수단으로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 무력에 의한 통일을 시도할 것이며, 이 경우에 국군의 대공의식을 약화시키고 일부를 혁명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남북연방제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남북연방제가 혁명의 「결정적 시기」 조성에 유용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혁명적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곧 「결정적 시기」의 조성을 노리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위장된 민족적 명제를 앞세워 대중을 선동하고 혼란을 유발케 하는데 있어서는 남북연방제라는 「통합의 형태」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국제적인 현상 고정화추세에 피동적 입장을 취하면서 남북분단 영구화 책임을 전가하려는 저의이다.

북한의 연방제안이 실질적으로 주객관정세 추이에 따라 「두 개의 정부」 내지 「두 개의 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제가 통일로 가는 과도적 조치라고 선전함으로써 그들의

입장을 민족적 차원에서 정당화 하려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의 주동적 제의에 의해 분단 4반세기만에 대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에서 무성의 일변도로 나아가 대화를 고의적으로 정체시키는 일방(一方), 이를 국제사회에 적극 파고드는 외교활동에 역용해 왔다.

특히 동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과의 단순한 1대1의 대등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UN산하 전문기구에까지도 진출하여 국제적으로 「두 개의 한국」을 명백히 하는 일마저 서슴치 않았다.

현시기에 민족적 염원을 안은 모처럼의 남북대화를 국제외교만에 국한치 않고 「두 개의 한국」을 획정하는 선으로까지 역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현상동결을 추구하는 국제추세에는 피동적 입장을 전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곱째, 주민교양과 동결 등의 대내정책수행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 일성이 고려연방제를 제시한 이후 지금까지 「고려연방공화국」을 지지하는 선전과 군중집회를 연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집회는 곧 남북대화로 인한 주민사상의 해이와 대화를 통한 그들 전략의 차질에서 오는 통일성취의욕의 감퇴가 도탄에 빠진 주민생활상과 겹쳐 김 일성의 영도에 대한 기대감이 현격히 희박해졌다는 내부사정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럴 때 북한 노동당은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어 김 일성의 이른바 영명한 지도에로 주민을 결집시키며, 혁명기세가 앙양하는 전투장으로 북한주민을 내모는 것이 침체를 탈피하는 계기로 되며 이를 통해 대내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여덟째, 해외교포에 대한 침투공작에 이용할 수 있다.

교포사회는 비교적 모국의 구체적 사정에 어둡거나 민감하지 못한 제약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북한이 재일조총련을 적화혁명의 간접기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도 교포사회의 이같은 제약성을 적극 이용할 수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고려연방공화국」운동이 교포사회에 대하여 흡인력과 설득력을 가지게 되리라 타산하고 교포사회에 적극 침투하여 조직을 확대하는 공작과 함께 이를 통해 해당국의 의회와 정부 및 언론계에 영향을 주는 공작활동에 심분 활용코자 기도할 것이다.

4. 남북연방제의 부당성

우리는 이상에서 북한의 남북연방제 안이 첫째, 내용상 동일한 것을 제의하면서도 시기에 따라 선적적이며, 대중투쟁과제 제시면에 비중을 더 두거나 심지어는 전제조건이 없었던 것이 선행조건을 못박는 것으로 둔갑하는 연방재임을 직시했으며, 둘째, 개념 자체가 자주,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적 염원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대남혁명전략에 초점을 둔 기초하에 다루어진 정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산통일의 과도적 조치로서 역할치 못할 여건하라면 연방제는 민족영구분단을 보다 촉진 고착화하는 용납못할 반민족성을 갖고 있음을 보았으며, 세째, 이로 인해 「고려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연방제가 여러가지의 간악한 저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그러므로 김 일성이 남북한 UN동시초청은 갈구하나 동시가입은 반대하며 「고려연방공화국」의 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가입한다고 한 것은 논리적 모순에서 뿐만 아니라 동 연방제의 본질부터가 원천적 허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 연방국가의 이념적 기초가 없는 주장이다.

북한의 남북연방제는 연방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이념적 기초를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이념적 구심점으로 하여 연방국가를 형성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언급이 없다.

이것은 의심할 나위도 없이 연방제의 이름을 빌어 적화통일의 종착역으로 향하는 모략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적 평화통일노선과는 위배되며 부당하다.

둘째, 「두 개의 한국」을 선결하여 적화통일에 봉사하고 있다.

북한의 통일전략의 특징은 「두 개의 한국」 단계를 거쳐서 「하나의 조선」을 달성하려는데 있다. 즉 국제외교와 함께 남북연방제를 대내외에 선전하여 우선 남북한의 1대 1관계를 실현하고 난 다음 남북연방제를 실시하여 연방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북한의 영향력으로 남한을 적화하는 과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세째,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호만으로 연방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연방을 형성할 수 있는 이념도 있어야 하거니와 그에 못지 않게 더 중요한 것은 연방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현

실적 여건이다.

그렇다면 연방제 실시에 앞서 누적된 불신과 오해가 풀어져야 하며, 그것을 토대로 쌍방간에 새로운 이해와 신의를 회복하는 것이 선차적 문제로 되어져야 할 터인데 이것을 도외시하고 일약 연방제로 유도하려는 것은 현실무시의 허망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네째, 냉전용(冷戰用)의 낡은 사고방식의 선전물에 불과하다.

북한의 이번 제의는 적화통일의 평화적 방략(方略)이라는 낡은 사고방식에서 출발한 선전물로 밖에는 달리 인정할 수 없고 정치적 타당성을 전제로 한 현실적 방안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남북대화도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연방제부터 실시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음은 물론 현실적으로 정치적 타당성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남북대화에서 연방제를 이용함으로써 결국 통일을 향한 대화의 진전에 장애를 조성할 것이다.

북한은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한 대화에서 남북문제 해결의 여건조성을 위한 진지한 노력 및 이해와 신뢰를 돈독히 하는 실증적 조치를 강구하는데는 무성의한 반면, 대화의 내용을 비약시키고 그 대상을 확대하는데만 급급하면서 남북연방제를 억지 성취하려는 책동을 자행하고 있다.

단장어린 분단 4반세기만에 온겨레의 기대 속에 모처럼 대화를 진행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남혁명전략 수행에만 급급한 나머지 조절위의 대화를 「남북연방제」로 가는 방략에 이용코자 함으로써 결국 대화의 정체(停滯)는 물론 그 진전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으므로 평화적인 민족통일과업의 성실한 추진에 역행하는 연방제는 부당한 것이다.

5. 결 론

「고려연방공화국」안은 이때까지 되풀이해오던 남북연방제를 내용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새로이 들고 나온 것은 다분히 선전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 함이 분명해졌다.

또한 북한은 적화통일을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과제로 설정하고 한편으로는 무력통일의 기회를 엿보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붕괴를 의미하는 「남조선혁명」을 통해서 목적성취를 꾀하고 있는데 비추어보면 남북연방제안은 그 전략 구현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이 「남북연방제」에서 노리고 있

는 기도는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것이다. 「남북연방제」가 대남혁명전략의 구현에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남한에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또 소위 혁명의 주동세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남북간의 다각적 접촉과 인사왕래가 북한체제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사회가 안정되고 경제발전과 국민복지의 밝은 전망 가운데서 전통적인 반공의식과 대북한관이 어떠한 공작과 계획에 의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요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남북연방제는 대남혁명전략에 유용한 것이 못되며, 이러한 여건에서라도 남북연방제의 가치를 찾는다면 그것은 남북간 평화적 공존의 수단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남북연방제 실현에 앞서 어려운 조건을 붙이기에 이른 것은 무조건적인 남북연방제의 가치에 회의를 품기 시작한 징조라고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임으로써 남북연방제의 실현에 의한 부정적인 면을 극복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국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부로 오직 선전적 효과에 역점을 둔 것이다.

어쨌든 북한은 남북연방제를 그의 대남혁명의 전략 내지 정책적 안목에서 이용하려고 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만큼 우리는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

만약 남북의 이질적 제요소의 동질화 노력에 앞서 남북연방제를 선행시킨다면 그 형식 속에 묶인채 내분과 대립의 연속은 물론, 이로 인한 폭발의 결과는 민족의 적대적 영구분열이라는 비극 이외 찾을 것이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 세계 명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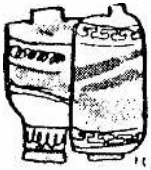
◇ 너의 위대한 조상을 본받아 협동하라. 그리고 그들의 덕성과 비교하여 네가 그들의 자손임을 증명하라.

— 드라이든 —

◇ 인생의 포기는 열등의식 속에 가라앉는 것 밖에 아무 것도 아니다.

— J. C. 길훈 —

북한은 왜 「대민족회의」를 주장하는가?



특별정훈교육강좌

1973년 6월 23일 박대통령 각하께서는 현국내외 정세를 바탕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평화통일외교선언은 긴장완화를 추구하고 있는 국제적 요청에 능동적으로 영합하면서 남북간의 대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동결된 남북현상을 타개하려는 현명한 영단이다.

그러나 북한은 동선언이 발표된지 10시간 후인 6월 23일 오후 8시 「체코」공산당 총비서 「구스타보·후사크」일행의 북한방문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김 일성의 연설을 통하여 한국의 성실한 제의를 묵살한 채 「남북간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 그리고 「남북 각계각층 인민들과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등 일방적인 입장만을 또한 되풀이했다.

이러한 「대민족회의」란 솔직히 말해서 종래의 주장인 남·북협상론이나 제정당, 사회단체대표 또는 개인까지를 포함하는 이른바 거족적 통일전선의 한 형태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며, 이는 만민참정(萬民參政)의 명분 밑에 현실을 외면해 버린 허구적 가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1. 북한이 주장하는 「대민족회의」의 내용

북한측은 「대민족회의」를 소집하는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통일조국을 위한 거족적인 애국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북과 남

사이의 대화가 다만 남북 당국자들 사이의 범위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 민족적인 범위에서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같은「대민족회의」주장은 오늘에 와서 새롭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 해방 후 김 일성 정권이 확립되는 시기부터 줄곧 선전하던 종전 주장에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중요한 것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측은 1948년 3월 25일「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명의로 UN 결의(총선결의)와 남한에서의 총선을 반대하여 평양에서 전 조선정당, 사회단체 대표자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한 것이 제일 첫번째의 남북정치협상주장이며,

둘째, 그 후 1950년 6월 7일「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호소문을 통해「평화통일의 모든 필요한 조건과 수단을 토의 결정하기 위해 남북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협의회를 해주 또는 개성에서 6월 15~17일에 걸쳐 소집」할 것을 주장하면서 여러가지 조건을 붙였던 것이다. 당시 이같은 제의가 있은지 불과 18일만인 6월 25일 북한공산당은 불법남침으로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을 도발하였던 것이다.

세째, 북한은 한국전후 전후복구와 5개년계획을 완성할 즈음 한국에서 4·19학생의거가 일어나자 기다렸다는듯이 그 이틀 후인 60년 4월 21일 4·19의거와 관련한 북한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연석회의에서「통일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조선의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구성하자」고 주장한 이래 때때로 같은 취지의 제의를 하였다.

네째, 특히 1971년 8월 6일 김 일성은「시하누크」를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한국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제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 아무 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하여 지금까지 포함시키지 않았던 여당까지를 토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섯째, 그 후 1973년 4월 16일 김 일성은「시하누크」환영 평양시 군중대회에서「남북조절위원회에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 및 각계각층 인사들을 참가시켜 그 폭을 넓히든지 아니면 현 조절위원회 사업은 그대로 진행시키고 각계각층 인사와 정당, 사회단체 대표가 참가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자」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는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때는 이미 한국측이 경제, 문화교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데 반해 북한측은 군사문제를 선결하자는 기본태도를 굳히고 있는 상황하에서 제시된 것

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은 1948년에 UN감시하 한국 총선거 반대, 1950년 6·25 남침공격시점의 은폐, 1960년 4·19학생의거에 따른 한국정국혼란 역용, 그리고 70년대에 들어 동서긴장완화추세와 남북대화에 편승하여 이번에는 또처럼의 남북당국자간 교섭인 남북조절위원회를 격하, 또는 완전히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어 놓는데 역점을 두고 정치협상회의와 이명동질의 「대민족회의」를 제시한 것이 명백하다.

여기서 우리는 남북정치협상회의든 대민족회의든 간에 그때 그때 그들 목적에 따라 전제조건과 협상대상을 바꾸어 가면서 공산주의 특유의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려 하고 있음을 「대민족회의」의 내용과 동 제의의 배경에서 뚜렷이 엿볼 수 있다.

2. 제의의 배경

북한이 「대민족회의」소집을 주장하게 된 주요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박대통령 각하의 「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에 따른 대내외적인 긍정적 반응을 들 수 있다.

박대통령 각하의 「6·23선언」은 투철한 현실 인식의 바탕에서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적응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길을 효율적으로 개척해 나가겠다는 「프로그램」인 동시에 북한이 말로는 평화통일을 떠들어 대면서도 행동으로는 국토분단을 고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며 남북대화를 국제지위향상에 이용하고 있는 반민족적 처사에 타격을 준 것이다.

둘째,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한 남북대화가 북한측이 기대한 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이다.

그 동안 남북조절위원회에서 한국측은 상호 불신과 오해를 제거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경제, 문화교류 등 실현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자고 하는데 반하여 북한측은 군사문제 우선해결이라는 비 현실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대화는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졌다.

세째, 그들은 한국 내부의 반공기반이 너무 공고한데다 공산주의자를 상대한 대화가 어렵다고 하는 한국국민의 여론을 간파하고 있으므로 민족감정에 보다 영합하는 제의로서 상대측을 교란해야 할 상황에 당도했다.

3. 저 의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이 「대민족회의」를 제의한 것은 일관성없이 주장해온 종래의 정치협상회의를 변형시킨 것일뿐 새로운 것이 없으며 또한 현행 남북대화통로를 도외시한 태도임이 명

백해졌다.

이는 곧 겨레와 세계 앞에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엄숙한 공약을 위반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측이 7·4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과 현행대화통로를 도외시하고 이른바 대민족회의소집을 주장하고 나온 심상치 않은 전략적 저의가 무엇인가를 규명 해 보기로 하자.

첫째, 남북조절위를 무력화하고 다무적(多務的) 접촉으로 대남혁명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몇차례 거듭된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하여 우리 국민이 염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간파(看破)했으므로 이같은 대화통로로서는 자기네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남북조절위는 쓸모가 없게 된 도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단 대화의 시대이니만큼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파괴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무용한 도구로 판명된 이상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솔직한 북한의 입장인 것이다.

원래 북한은 남북대화를 대남혁명 전략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현행 쌍무적(双務的) 접촉을 점차 다무적 접촉으로 끌고 감으로써 평화적 통일의 미명하에 우선 남한을 교란하는 공작활동에 역점을 두는 책략을 전개코자 다무적 접촉을 주장해 왔다. 여기서 다무적 접촉이라고 함은 남북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 각층 인사가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북한이 다무적 접촉을 주장하는 것은 요컨대 쌍무적 접촉, 즉 남북당국간의 대화에서 이룩하지 못한 목적을 비정부, 정당, 사회단체간의 대화에 의해서 이룩하려는 것으로, 바꾸어 말하면 다무적 접촉에 의해서 한국정부의 입장과 주장을 삭제함으로써 남북대화를 대남혁명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이용하려는 것이다.

둘째,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이다.

통일전선이란 공산당의 당면 혁명투쟁과업 혹은 그 과제의 일부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정당, 사회단체 및 기타 여러 사회계층과 손을 잡고 행동통일을 기함으로써 혁명의 대상을 고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미군의 한국주둔을 비롯한 한미공동방어 및 협력관계가 대남혁명에 가장 중대한 장애라고 보고 반미에 의한 한미관계의 단절을 위해 한국의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각층과 제휴하려고 꾀하고 있다. 북한은 그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소위 반미통일전선에 남한의 광범한 국민계층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북한은 통일전선을 형성함에 있어 반미투쟁과 함께 반정부투쟁면을 중시하고 있는 바 이는 대남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반공정책이 또한 중대한 장애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통일전선을 정당, 사회단체의 지도층과 이루어지는 「상층통일전선」과 각계각층의 군중과 이루어지는 「하층통일전선」으로 구분하고, 「하층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상층통일전선」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민족회의」에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상층통일전선」과 함께 「하층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여건에 따라 이를 유기적으로 또는 상호 대립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당국이 「대민족회의」를 제의한 것은 대남혁명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코자 하는 것이 명백한 것이다.

세째, 민족적단결을 앞세운 정치 「합작」을 기도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쟁과 대결이 아니라 합작과 단결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남북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협상회의, 즉 「대민족회의」를 제의한 합당성을 여기서 찾고 있다. 물론 민족의 단결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통일원칙 가운데 하나로 밝히고 있거니와 통일을 위해 이룩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민족의 단결은 우리가 앞으로 이룩해야 할 중간목표이지 현재 그것을 실현할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남북의 민족단결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면 우리나라의 통일이 어려운 문제일 수가 없으며, 이미 통일은 성취되었을 것이다. 이렇듯 문제는 단결을 위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도 않는데 북한측은 이를 당장 해결해야 될 선결과제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인 즉, 민족단결이야말로 우리 나라의 민주, 민족주의 진영이 일관해서 제창하고 노력해 왔으며 만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민족단결에 합세했다면 국토통일은 오래 전에 이룩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민족의 단결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의 가치기준이다. 민족의 단결은 민족의 행복이 약속되는 번영된 민족국가를 지향할 때 비로소 가치있는 것이며 여기서만이 민족단결의 구심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목적을 가진 민족단결이야

말로 한국이 시종일관 추구해온 것이며 7·4남북공동성명에서 통일원칙의 하나로 밝힌 민족단결도 이러한 정신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남북간에는 각기 추구하고 있는 정치적 목적 내지 통일의 가치관마저 다르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민족단결에 대한 입장이 반드시 합치된다고는 할 수 없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민족의 개념이다.

그들의 전통적인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 민족성립의 요건으로 언어, 역사, 지리, 문화 및 경제적 공통성 등을 들고 있다.

이와같은 개념과 상통되는 것으로 「인민」의 개념을 들 수 있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인민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이고 반동에 대해서는 독재를 해야 한다」고 하여 독재정치를 정당화하려고 애쓰고 있는 면을 엿볼 수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소위 인민이라 함은 사회주의를 지지하여 「프롤레타리아 혁명」 혹은 「인민 민주주의 혁명」의 편에 서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민의 범주(範疇)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측이 민족의 단결이라는 말과 함께 인민을 위한다는 주장은 통상적 개념에 비추어 본다면 매우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북한측이 민족의 단결과 또한 인민을 거족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목적을 노린 전술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든 오늘날의 남북관계로 보아 민족의 단결은 현시점에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중간목표로 설정해 놓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 남북사회를 완전히 개방하여 교류를 실시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착실한 노력에 의해 이룩하여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나라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는 민족의 단결을 속으로는 원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사회 및 문화분야의 남북교류와 같은 우선 쉽고도 효율적인 방법은 회피하면서 군사문제 우선해결을 앞세우며 「대민족회의」와 같은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이고 허황한 제의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네째, 한국의 국론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이다.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를 위해 여러 번 남북관계자들이 왕래하고 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한국의 발전상을 새로이 인식함으로써 북한이 한국보다 경제 및 사회 발전면에서 상

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뒤집혀 졌고 동시에 한국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반공의식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투철하다고 보기에 이르렀다.

북한이 종래 가지고 있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을 금반의 남북회담을 계기로 재정립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신념을 파괴코자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러한 체제가 더욱 굳어지기 이전에 어떻게 하든 혼란과 분열을 계획하지 않으면 그들의 적화 야욕의 꿈은 이룰 수 없다는 판단 밑에 실상 새롭지도 않는 「대민족회의」소집을 들고 나와 국론의 분열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6·23선언」과 UN대책을 겨냥한 해외선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북한이 남조북절위원회 회의가 교착상태에 있는 책임을 한국측에게 전가하기 위한 선전과 외교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일정한 정치적 및 외교적 투쟁과제의 해결을 노리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되어야 하겠다. 지난 4월 5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정무원(政務院 : 종전의 내각) 총리 김일(金一)은 남북대화가 부진한 상태에 빠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대화가 부진한 원인이 미군의 한국주둔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동 회의는 UN이 한국에 UN군을 두기로 한 결의를 철회하고 주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서한을 UN 및 세계 각국의 의회에 보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금년에 들어 UN총회에 대처하기 위해 전례없이 활발한 순방외교를 전개하였으며 북한측은 이들 국가를 순방하면서 남북대화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마구 헐뜯었다.

북한측이 「대민족회의」 개최를 주장한 것은 이러한 외교목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국토분단의 책임을 국제적으로 한국측에 전가하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그들만이 성의를 다하고 있는 것처럼 진실을 의곡(歪曲)시키고, 국제적으로는 그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반면 한국의 입장을 곤란케 하려는 기도의 표현인 것이다. 즉 주한외국군 철수를 비롯한 국사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의 입장이고 한국국민과 민족은 그렇지 않으니 북한측은 「대민족회의」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국제여론을 기만하는 것으로 이는 북한당국이 상투적으로 사용해 온 교활한 선전수법에 불과한 것이다.

여섯째, 북한주민들의 통제를 위한

정치 구심점을 조작함에 있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자 북한은 이 성명이 자기네들이 주장한 원칙대로 만들어졌고 따라서 통일도 자기네들의 뜻하는 방향으로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왔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러했던 것처럼 날이 갈수록 그 약속은 한낱 공수표와 같이 허무한 것으로 되어 가자 북한은 주민의 사기를 고취하고 적화통일에의 희망을 불어 넣기 위하여 「대민족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선전물」을 끄집어 내놓은 것이다.

북한당국이 이와같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조작해 내고 있는 것은 북한주민이 공산당으로부터 멀어져 나가지 않도록 정치적 급유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한 적화통일에의 발동이 당원들의 심장에서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응당 필요한 것이다.

4. 부당성

첫째, 7·4공동성명의 위반이다.

북한 당국은 한국정부의 명분외교를 파괴하는데만 주력하고 대화에서 민족염원을 충족시키는 일에는 무성의하며 또한 그들은 고의로 남북대화를 정체(停滯)상태로 몰아넣었다.

남북조절위가 자기네의 뜻대로 먹혀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여 그 기구의 무력화를 획책한다든가 이를 존중하려 들지 않는다면 이것은 7·4남북공동성명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며 그 정신을 저버린 태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남북당국간의 협의에 의한 남북관계의 개선 및 통일문제 해결에의 접근을 기피하는 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당국간의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 및 통일문제의 해결을 회피한다는 것은 7·4남북공동성명 이전의 상태로 남북관계를 되돌리는 결과가 되며 그 책임은 마땅히 북한측이 져야 한다.

둘째, 평화통일의 포기이다.

북한당국은 남북 대화과정에서 보더라도 민족적 염원에 맞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자세를 처음부터 갖지 않았으며 우리측을 소위 합작(合作)으로 유도하며 대남혁명의 장애가 되는 제요소, 예컨대 한미관계 이간, 반공체제의 약화를 노렸고 나아가서는 한국방위에 허점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였다.

세째, 대화는 커녕 설정장(舌戰場) 역할 밖에 못된다.

남북간에 통일의 가치관과 사상 및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또한 생활방식과 사고방식마저 본질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환경하에서 이를 조정하기 위한 노

려도 하기 전에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 협상회의 또는 여기에 남북의 각계각층 인사들까지 참가해야 한다고 한는 소위 「대민족회의」는 설전장이 될지언정 어떠한 소득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다.

네째, 자기들이 주장하는 전민족적 단합 논리에도 모순된다.

북한이 그들이 주장하는 「대민족회의」 대상 계층에서 남한측 대상을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 각정당, 사회단체」만을 들고 그들의 계층 규정이나 혁명의 타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위 「매변자본가(買辨資本家), 「반동관료」 등으로 호칭하는 한국의 집권층이나 지도계층을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는 현 집권층과의 협상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적화혁명 전략수행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물론 한국사회의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이 북한의 동조세력일 수도 없고 또한 남한사회의 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립세력일 수도 없으며 또 남한사회의 지식인사회가 용공적 진보세력일 수도 없는 것이지만 북한은 이러한 전술을 통해 국민과 정부를 이간하고 광범한 비공산주의 세력과 제휴함으로써 반정부 통일전선을 획책하려는 것이다.

5.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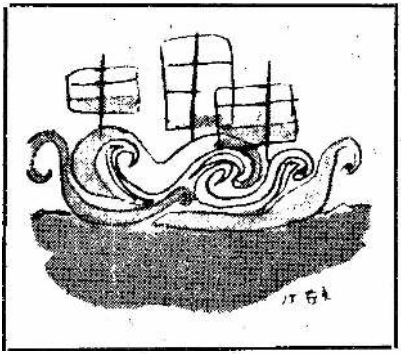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금반 북한이 제기한 「대민족회의」는 남북대화가 자기들 의도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 박대통령 각하의 「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이 대내외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역전시켜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하려는 기도하에 내놓은 허황한 것이다.

북한당국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 남북조절위원회와 적십자회담을 운위(云謂)하는 것은 우리 5천만민족의 염원을 안고 시작한 대화를 성취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지연시키고 교란시키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

남북개선을 착실하게 개선해 나가며 궁극적으로 민족의 염원대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남북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7·4남북공동성명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당국이 현 남북회담에 성실한 태도로 임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적 지표

안 병 욱
<숭전대학 교수>



인간은 사명적 존재다.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에서 보람을 느끼고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다.

무엇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곧 사명의 자각이다. 세상에 사명감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의 생애의 어느 시기에 인생의 큰 사명을 느꼈다. 사명을 자각하는 계기는 사람따라 다르다. 책이 우리의 사명감을 일으키는 창조적 계기가 된다. 간디는 힌두교의 성전인 「바가바드 기타」(Bhaga bad gita)를 읽고 그의 잠자던 정신이 크게 눈을 떴다. 기타는 간디의 정신적 우주를 확대시켰다. 그는 이 책에서 신에 대한 헌신적 봉사의 철학을 배웠다.

「진리에 대해서 몸바쳐 일하라」 윤리를 그는 터득했다. 바가바드란 말은 「성스러운 신」이란 뜻이요, 「기타」는 「찬송가」라는 뜻이다. 즉 성스러운 신을 찬미하는 노래란 뜻이다. 그는 매일 아침 바가바드 기타의 한귀절씩을 벽에 써놓고 보고 읽고 외웠다. 기타의 진리는 간디의 골수에 사무쳤다. 기타의 지혜는 그의 생활의 지도원리가 되었다.

간디는 「바가바드 기타」를 자기의 행동의 사전(辭典)」이라고 말했다. 외

국어를 읽다가 모르는 말에 부딪치면 우리는 사전을 펼쳐보고 그 뜻을 알아낸다. 간디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를 모를 때에는 언제나 바가바드 기타를 펴보았다. 그는 그 책에서 행동의 확고한 지침을 발견했다. 기타는 간디의 행동의 사전이 되었다. 바가바드 기타라는 한 권의 책이 간디의 사명감을 불러일으켰다.

한 인물과의 만남이 사명감을 일으키는 놀라운 계기가 된다.

플라톤은 20세의 다정다감한 청년 시절에 철인(哲人) 소크라테스를 만났다. 기원전 399년 봄,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고 죽을 때까지 8년 동안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스승으로 모셨다. 그는 소크라테스를 한없이 존경했고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을 다시 없이 사랑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에게서 진리애(眞理愛)를 배우고 애국심을 본받고 정의감과 용기를 배웠다.

소크라테스의 정신은 플라톤의 폐부에 침투했다. 그는 본래 정치가가 될 생각이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나서 그의 뜻이 달라졌다. 그는 정치가의 길을 버리고 철학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 한 인물과의 만남은 인간의 생애의 방향까지도 바꾸게 한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일개의 정치가가 되었다가 역사의 망각 속에 자취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플라톤은 자기 운명의 신에게 네 가지 것을 감사했다. 그가 특별히 감사한 것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된 것을 운명의 신에게 감사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의 사명을 절실히 깨달았다.

한 사건과의 만남이 사명을 자각하는 위대한 계기가 된다.

도산(島山)은 16세 때에 평양에서 청일전쟁의 비극을 보았다. 많은 동포들이 무참히 죽고 허다한 가옥이 불에 탔다. 소년 도산의 머리에는 하나의 큰 의문이 떠올랐다. 「일본과 청국(淸國)이 싸우면 일본 땅에서 싸우거나 청국 땅에서 싸울 일이지 왜 우리 한국 땅에서 싸움을 벌이는가, 왜 저들이 우리의 강토에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우리 국민을 죽이고 우리 땅에서 전쟁

을 하는가, 왜 한국이 청일전쟁의 비극적 전쟁터가 되었는가?」 그는 이 문제를 곰곰히 생각한 끝에 하나의 명확한 결론을 얻었다. 「우리 민족에게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군이나 청국군을 물리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청일전쟁의 전쟁터가 된 것이다.

이름만 독립국가지 독립국가를 지탱할만한 실력이 없는 한국이다. 조국의 힘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라의 힘을 기르는 도리 밖에 없다. 그렇다. 힘을 기르자 힘, 이것이 만사를 결정한다. 민족의 힘이 생기려면 먼저 내가 나부터 힘을 길러서 힘이 있는 국민이 되어야겠다.」 이것이 16세 난 소년 도산의 가슴 속에 솟구친 민족혼이요, 자주사상이요, 국력배양의 의지였다.

그는 청일전쟁의 비극을 보고 스스로 힘이 있는 인물이 되기를 자각하고 결심했다. 이 자각과 결심이 도산으로 하여금 민족적 사명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였다.

인간이 사명감을 느끼는 계기를 세 가지 들었다. 첫째는 훌륭한 책과의 만남이요, 둘째는 뛰어난 인물과의 만남이요, 세째는 중대한 사건과의 만남이다.

인간은 사명적 존재다.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에서 보람을 느끼고,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다. 우리가 보람있게 살려면 자기의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

사명감이 우리를 성실하게 만든다. 사명감이 우리를 용감하게 만든다. 사명감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다.

인생은 거의 비슷한 일의 되풀이다. 매일 같은 집에서 같은 일을 되풀이하면서 같은 생활을 반복한다. 같은 일의 반복은 우리에게 단조감과 무미건조감과 권태와 따분한 생각을 느끼게 한다. 무사안일의 옷을 입고 무의미 무성의의 권태로운 생(生)을 되풀이하기 쉽다. 인생이 불만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振子)가 되기 쉽다. 무슨 신나는 일이 없을까, 좀 재미나는 일이 없을까 하고 권태의 하품을 하기 쉽다. 이것을 우리는 매너리즘이라고 일컫는다. 매너리즘은 정신의 권태와 생활의 무의미감을 일으킨다. 이것을 방각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찾고 자극을 구하고 향락을 좇으

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 해결은 가능할는지 모른다. 피상적 만족은 잠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깊은 만족과 근본적 해결은 그런데서 도저히 찾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곧 사명감이다.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향락주의가 아니고 사명주의(使命主義)의 철학이다. 사명감이 인생의 권태를 인생의 보람으로 바꾸고 삶의 무의미성을 삶의 의미로 바꾼다. 하품하는 생활을 충실한 생활로 바꾸고 따분한 인생을 즐거운 인생으로 변혁시키는 것은 인간의 확고한 사명감이다. 우리의 생활이 사명감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생은 비로소 알찬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사명감은 인생의 확력소다.

실존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젊은 시절의 일기에서 이렇게 썼다. 「온 세계가 무너지더라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를 나는 찾고 싶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념을 발견하고 싶다.」

온 세계가 무너지더라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념, 그것이 바로 사명감의 핵심이다.

그 사명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학문의 연구에서 찾고, 예술의 창조에서 찾고, 정치의 실천에서 찾고, 경제의 사업에서 구한다. 또 어떤 이는 육영의 보람에서 찾고, 신앙의 봉사에서 찾는다. 사명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의 이상의 추구요, 가치의 창조요, 의미의 실현이다. 사명감은 곧 인생의 보람이다.

나는 사명감을 갖는 이와 갖지 않는 이를 이렇게 비유한다. 전자는 인생의 백리길을 가려는 자요, 후자는 인생의 십리길을 가려는 자다.

인생의 십리길을 가려는 자는 생의 목표가 약하다. 그는 인생을 멀리 보는 자가 아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강한 맥박이 없다. 굳건한 생명의 의욕이 없다. 그는 힘없이 인생의 길을 걷는다. 그의 눈에는 광채가 없고 그의 입술에는 노래가 없다. 그의 가슴에는 기도가 없다.

그러나 인생의 백리길을 가려는 자는 생의 목표가 크다. 그는 인생을 멀

리 바라보는 자다. 그의 발걸음에는 씩씩한 의지가 약동하고 생명의 맥박이 강하다. 그의 눈은 정기가 가득차서 목표를 응시한다. 그의 입술은 부동의 신념으로 굳게 다물어졌다. 그는 허리띠를 힘껏 잡아매고 구두끈을 힘껏 동였다. 그는 힘차게 인생을 걸어간다. 그의 가슴 속에는 간절한 기원이 있고 그의 얼굴에는 힘찬 표정이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것이다.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주의의 철학으로 무장하고 인생을 충실하게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교육을 힘쓰고 그러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러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인생의 목적과 보람은 높은 사명의 자각과 실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가르쳐 주어야 한다.

사명, 그것은 인생에서 아름다운 단어의 하나요, 가장 보람된 사상의 하나다.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비결은 확고한 사명감을 갖는 것이다.

그 승리의 철학……네 개의 V자

승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요행의 결과는 더구나 아니다. 피눈물나는 노력의 산물이요, 끊임없는 투쟁의 소산이다.

인생의 승리자나 사회의 성공자가 되려면 네 개의 V자가 필요하다.

첫째는 「비젼(Vision)」이다. 비젼이란 무엇이냐, 꿈이요, 이상이요, 사명이요, 목표요, 방향이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대답이 곧 「비젼」이다.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관심과 돈을 한군데 집중케 하는 인생의 공격 목표가 비젼이다. 산다는 것은 꿈꾸는 것이다. 꿈꾼다는 것은 이상을 갖는 것이다. 이상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목표를 주는 것이다. 목표를 준다는 것은 인생에 보람을 주는 것이다. 보람을 준다는 것은 행복을 마련하는 것이다.

「비젼이 없는 국민은 멸망한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쳤다. 이상이 없

는 민족은 역사의 투쟁에서 패배한다. 비젼이 없는 인생은 사회의 경쟁에서 낙오자가 된다. 그것은 목표가 없는 항행과 같기 때문이다.

영국의 식민지 정치가요 세계의 「다이아몬드」 산업의 왕이 된 영국의 풍운아 「세실·로즈」는 이렇게 말했다.

「꿈만 있어서는 안 된다. 돈이 있어야 한다. 돈만 있어서는 안 된다. 꿈이 있어야 한다. 꿈과 돈의 결합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의 인생철학이었다. 그는 철학을 가지고 「옥스포드」대학을 나온 뒤에 남아에 가서 「다이아몬드」 광(鑛)을 개척하고 식민지 수상(首相)이 되었다.

비젼이 있으면서 돈이 없는 사람이 있다. 돈이 있으면서 비젼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인생의 위업은 돈과 비젼의 합작에서 이루어진다. 돈없는 비젼은 수단없는 이상이요, 비젼이 없는 돈은 이상없는 수단이다. 큰 일을 하려면 돈과 비젼, 경제력과 이상이 다 같이 필요하다.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한다. 꿈을 가져야만 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 꿈이 없으면 인생의 노력이 없어진다. 전진의 에네르기가 생기지 않는다. 향상과 발전의 원동력이 고갈한다.

비젼의 설정, 꿈의 포회(抱懷), 이상과 목표의 확립은 인생의 첫째가는 중요한 일이다.

둘째는 모험(Venture)의 정신이다. 비젼이 있으면 비젼을 실현하기 위한 모험을 해야 한다. 벤쳐가 없는 곳에는 성공이 없다. 우리는 모험을 또한 도전이라고도 하고 개척이라고도 한다. 비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 가치 있는 사업은 모험의 산물이요, 벤쳐의 아들이요, 도전과 개척의 소산이다.

모험 없이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 일이 있는가. 컬럼버스의 두 달에 걸친 대모험에서 신대륙이 발견되었다. 코페르니크스의 대담한 정신적 모험에서 지동설의 진리가 탄생했다.

간디의 사생결단의 비장한 도전에서 인도독립의 영광이 실현되었다.

충무공의 모험이 일본의 한국침략을 막았다. 모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성공의 열매를 딸 수 없다. 도전의 용기가 없는 자는 승리의 정상에 오를 수 없다. 안일한 자에게는 성공이 오지 않는다. 비겁한 무리에게는 승리의 영광이 없다.

천만인이 반대한다고 해도 나는 용왕매진하겠다는 맹자의 용기가 없이는 인생의 대업을 성취할 수 없다. 성공은 인생의 칠전팔기의 산물이요, 백련천마(百練千磨)의 결과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크고 모험이 클수록 승리는 빛난다. 모험과 도전과 개척은 아니 하고 성공과 승리를 거두려는 것은 마치 밥을 안 먹고 배불러 보겠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모험의 거름을 주라. 반드시 성공의 열매가 열릴 것이다.

세째는 박력(Vitality)이다. 모험을 하려면 박력이 있어야 한다. 강한 생명력이 없이는 인생의 개척자가 될 수 없고 사업의 도전자가 될 수 없다.

바이탈리티는 온갖 활동력의 기초가 된다.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인내력, 과로와 격무를 이겨내는 건강력, 칠전팔기하는 굳은 의지, 실패에 도전하는 용기, 모든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진취적 자세, 모두가 박력의 산물이요, 바이탈리티의 덕이다. 성공에는 자신이 필요하다. 자신은 박력의 산물이다. 성공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는 박력의 딸이다.

성공에 극기(克己)가 필요하다. 극기는 박력의 아들이다. 성공에는 도전이 필요하다. 도전은 박력의 소산이다. 우리는 왕성한 생명력을 가져야 한다. 강한 정신은 강한 신체에서 나온다. 견고한 집을 지으려면 굳건한 터전과 견실한 주춧돌이 필요하듯이 승리와 성공의 정상에 오르려면 박력이라는 인생의 기(基)와 용기라는 인생의 초(礎)가 필요하다. 바이탈리티의 토양에 성공의 나무가 자라고 승리의 꽃이 핀다.

끝으로 승리(Victory)다. 우리의 최후의 목표는 승리에 있다. 비젼(Vision)도 벤쳐(Venture)도, 바이탈리티(Vitality)도, 결국은 빅토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승리의 탑이 무너진다면 꿈과 모험과 박력도 그 빛과 의의를 잃고 만다.

「모든 도전에 이겨내는 민족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고 토인비는 말했다. 인생의 모든 도전을 이겨내는 개인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고난을 이겨내는 개인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고난이 클수록 승리의 영광은 빛나고 시련이 많을수록 승리의 기쁨은 크다.

인생의 승리는 높은 산에 오르는 것와 같다. 진땀을 흘리며 애를 써서 산의 정상에 오를 때 그 땀은 보람으로 변하고 그 애씀은 기쁨으로 화한다. 1940년 히틀러의 침략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부딪친 영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수상의 중책을 맡은 처칠은 하원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 밖에 바칠 것이 없다……한 마디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오직 승리라고 대답할 뿐이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승리를, 모든 공포를 이기고 승리를, 그 길이 아무리 길고 어려워도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왜냐하면 승리가 없으면 생존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1947년에 또 이렇게 말을 했다. 「전쟁에는 결단, 패배에는 도전, 승리하면 관대, 평화에는 선의」라고 말했다.

우리의 궁극 목표는 승리요, 성공이다.

우리는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한다.

인생의 이 삼대액체(三大液體)를 흘리기 싫어하는 자는 승리의 월계관을 쓸 수 없다. 성공의 정상에 오를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은 <네개의 V자>의 기초 위에 건설되어야 한다. 그러한 인생이라야 사는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다.

꿈과 비젼이 없는 인생은 이상과 목표가 없는 인생이다. 모험과 도전이 없는 인생은 안일과 나약에 빠지는 인생이다.

용기와 박력이 없는 인생은 맥이 없고 신이 안 나는 인생이다.

승리와 성공이 없는 인생은 보람과 기쁨이 없는 인생이다.

비젼과 모험과 박력과 승리, 이 네 개의 단어로 우리의 인생을 수놓아야 한다.

■……국가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
■……치는 것.……■

정훈교육자료

군인의 사명과 사생관

김 세 환

우리 군인이 지켜 나아가야 할 「군인의 길」을 보면, 제1항에 「우리는 국가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고 했다.

이 조항에서 「국가를 지키고」 즉 국가를 방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한다는 군인의 사명과, 이를 위해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군인의 사생관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명이란 부하(負荷)된 임무를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의 개인으로서는 그의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겠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명이 있다.

그런데 군인의 사명이란 예로부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 그것은

군인은 국가를 보위한다는 그 임무의 중대성과 이를 위해 신명(身命)을 바친다는 신성함에 비추어 다른 어떤 사명에 비해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1. 사명적 존재

인간은 나면서부터 무거운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까닭은 사회와 더불어 사는 「사명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혼자 고립하여 살아 갈 수는 없다. 가정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존재」이다. 요컨대 인간은 곧 사회적 존재인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한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며, 국가생활을 통해 그 인격과 이상을 구현하는 것이다.

한편 국가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힘쓴다. 여기서 국가를 떠난 개인이란 생각할 수 없고 개인을 떠난 국가 또한 생각할 수 없다.

개인의 행복은 국가가 번영함으로써 가능하고 국가의 번영은 개인의 발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에 대한 깊은 연대의식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국가의 이상과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2. 국가 방위

국가방위는 모든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귀중한 사명이다. 모든 국민은 조상이 대대로 살아왔고 또 그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국가를 방위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국방이란 내외의 적의 침략위협을 배제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보위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안으로는 국가의 변란이나 비상사태에 임하여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고 밖으로는, 외부의 침략에 대항하여 실력으로써 국토를 지키며 또한 가상적국의 침략위협에 대비하는 일이다.

때문에 역사상 국방은 모든 국가가 하나같이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왔고, 모든 국민들은 국방을 위해 피흘려 싸워왔다. 또한 역사를 돌이켜 보건대 국방에 힘을 쓰고 용감하게 외침(外侵)을 물리쳤던 민족은 존속하여 번영을 누렸고, 국방을 게을리하고 외침을 이겨내지 못한 민족은 그 국가 멸망에 따라 그 민족도 소멸되고 말았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때문에 우리가 국방을 얼마만큼 중요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

3. 자유와 독립의 수호

군인의 사명은 국가방위에 있는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민족의 자유와 국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3요소로 되어 있다. 민주국가의 국민은 그 자신들이 주권자이며, 전통과 이상을 가지고 국가를 창건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민족의 자유와 국가의 독립을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박탈당하고 갖은 수모를 겪어왔다. 그러나 마침내 애국선열들의 끈질긴 독립투쟁과 연합군의 승리로 민족의 자유와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였다.

이와 같이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이 귀중한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기 위해 우리는 불타는 애국심을 가지고 목숨바쳐 나라를 지켜야 한다.

애국심, 그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최대의 존경과 신뢰, 그리고 긍지를 가지고 국가의 존속과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이다. 우리 군인은 국가에 대하여 최고의 애국심을 발휘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내 조국, 내 동포를 위해 불타는 애국심으로 사명감에 투철해야 한다.

모름지기 「국가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이 곧 군인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4. 군인의 사생관

군인의 제1차적 기본임무는 물리적인 전투수단을 통하여 적을 격퇴하고 승리를 확보하는데 있다.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위하자면 적의 어떠한 침공 상황하에도 최후의 승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희생을 각오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의미의 희생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사생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킨다는 말은 곧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옛날부터 충성이란 생명과 직결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어에도 충직진명(忠則盡命)이라 하였고 우국지사는 나라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한다고 하였다.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한번 밖에 가질 수 없는 그 고귀한 생명을 초개와 같이 내놓을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진다는 것은 국가의 존망을 자신의 존망과 똑같이 생각하는데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발로인데 그 참된 마음을 가리켜 우리는 충성심이라고 한다.

군인이 이와 같은 참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군인은 외부로부터 무력으로 침공해 오는 적을 직접 무찔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참된 마음이 없어가지고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전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인은 비오듯하는 총탄과 포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쓴다는 것보다는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한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를 지키자니까 적의 총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결코 자신의 생명의 고귀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총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나라를 지킨다는 임무감에서 자신의 책임을 죽음으로써 다한다는 데에는 빼놓을 수 없는 강렬한 정신요소의 작용이 있기 때문인데 그 정신요소란 즉 진충보국(盡忠報國) 사상이다.

진충보국이란 곧 충성으로써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자기에게 부과된 책임과 의무를 완수한다는 말이다.

농민은 농업에 열중하여 나라에 보답하고(以農報國), 교육자는 교육으로써 나라에 보답하며(以敎育報國), 군인은 적의 침공을 막는데 신명을 바쳐 진충보국하는 것처럼 자신의 할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나라의 힘을 북돋고 겨레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원천적인 힘의 기틀이 된다고 생각할 때 특히 군인에게 있어서 진충보국의 사상은 훌륭한 군인상을 부각시켜 줄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사생관을 뚜렷이 지니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죽음은 언제나 목적의식이 있는 생활과 연결되었을 때 그 죽음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생활가치관을 가지고 사회공익에 이바지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죽음의 길이 사회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것은 참다운 죽음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죽음의 고귀성은 언제나 자기 생활의 변함없는 연장으로 장식되어야만 불멸의 명예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육신은 비록 죽어 없어져도 명예는 자손만대에까지 꺼지지 않는 불처럼 그 빛을 드러내어 삶과 죽음의 연결을 단절시키지 않는데서 인생의 참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인간에게 있어서 사생관을 뚜렷이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값지게 만들고 죽음을 영광스럽게 장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릇 인간은 다른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생명을 유지하다가 마침내 죽음에 이른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어서 어떠한 힘이나 지혜로도 이 죽음의 길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기에 이 길을 두려워 할 까닭도 없으며 두려워 한다고 해서 생명이 한 시간이라도 더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 밖에 없는 생명, 두번 없는 죽음이기에 어떻게 「값있고 영광되게」 죽어야 하느냐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값있고 영광된 죽음을 하였을 때, 그것은 곧 죽는 것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과 더불어 영원토록 사는 길이다. 즉, 죽음은 삶을 뜻하며,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인된 자는 모름지기 병들어 병상에서 죽을 것이 아니라, 마땅히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가름하는 전장에서 불멸의 공을 세우고 죽는 것이 최대의 영광이며 자랑이다.

일찌기 충무공 이 순신 장군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급했던 임진왜란의 국난을 당하여 삶과 죽음의 확고한 신념을 발휘하신 분이다. 즉, 1597년 명량해전을 앞두고 두번째의 백의종군에서 풀려나온 이 충무공은 남은 배 12척을 가지고 300여척의 일본함대를 맞이했을 때, 도망가려는 부하들에게 일러 훈계하기를 「죽기를 각오하면 능히 살 것이요, 구차히 살려는 자는 도리어 죽는다」라고 하셨다. 이 얼마나 사생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며, 우리 군인들이 귀감삼아야 할 불멸의 교훈인가!

예나 지금이나를 막론하고 역사상의 영웅들이 승리하고 돌아온 것은 모두가 생사를 초월하여 싸운 결과였으니 이들은 모두 죽기를 각오하고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쳤고」 또한 싸워서 국가를 지킨 거룩한 영웅들인 것이다.

옳게 죽는 것, 즉 나라와 겨레를 위해 의롭게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길이요, 제 수명껏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은 길게 산 것 같으면서도 실은 죽는 순간부터 영원히 이름없는 한줌의 흙이 되어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것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사생관에 투철한 불타는 충성심이야말로 군인정신의 본 바탕이며 여기에 군인의 명예와 최고의 영광이 있는 것이다.

5. 현대전과 군인의 사명

전쟁의 양상은 날이 갈수록 변천하여 가고 있다. 따라서, 현대에 살고 있는 세계 인류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전쟁에서 오는 공포를 염오하는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원래 전쟁이란 국가의 흥망과 성쇠를 판가름하는 운명적인 문제를 전제로 하여 개전되는가 하면, 전쟁 수행자인 인간은 전쟁목적 달성을 위해 생명을 바친다는 각오가 앞서지 않고서는 전쟁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의 결과는 반드시 그 어느 한쪽에 대하여 패전의 결과인 국가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비애를 자아내게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특히 전쟁이란 예를 들어 스포츠 등과 같은 비파괴적인 경쟁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전쟁의 실패는 비파괴적 경쟁의 실패에서와 같은 역량의 손실이나 혹은 기타 이익의 박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멸망의 결과가 있을 뿐이라는 데서 전쟁은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전쟁에 임할 때에는 반드시 승리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온갖 임전태세가 전전히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임전태세란 물리적인 역량의 확보 뿐만이 아니라, 전쟁의 목적을 똑바로 인식하는 목적의식의 견지와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을 굳게 갖는 투철한 정신자세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더우기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진보로 고도화된 전쟁무기를 수단으로 하는 현대전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적 요소가 보다 큰 전략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쟁 양상이 변화 발전하여 갈수록 그 전략부문에 정신적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현대전의 특수성에서 스스로 유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전쟁무기의 그 가공스러운 파괴력은 질·량적인 면에서도 과거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즉, 현대과학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고도화된 무기체계는 전쟁기술을 보다 고차원으로 발전시켜 단 일격으로써 전 인류의 존망을 순식간에 결정지울 수 있는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핵무기에 의한 파괴력의 혁명적인 증대는 전쟁의 대상이 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획득하려는 목적마저 파괴시키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

자, 전쟁은 도리어 자기부정적 성격을 띠게 되고 전략사상은 군비에 의하여 국가를 방위한다는 새로운 생각으로 전환되어 전쟁과 평화의 통일을 모색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전의 성격과 그 양상의 시대적 의미를 좀 더 깊이 음미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전의 특성으로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1) 대량 파괴력을 가진 무기의 출현, 2) 핵 폭탄을 운반하는 수단의 급진적인 발전, 3) 현대전은 선제공격을 함으로써 절대 우위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점, 4) 현대전은 고도로 발달된 전자무기를 그 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점, 5) 현대전에 있어서의 전쟁의 수단은 점차 기계화되어 인간의 역할을 기계로 대치하여 가는 경향이 있다는 점, 6) 과학 기술의 고속적인 발전은 무기의 조로화(早老化)와 군비의 불경제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가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제 전쟁 수행 능력자는 자연적으로 소수의 강대국에게만 귀착되게 된다. 이러한 현대전이 지닌 모든 특성은 국방비의 과중한 부담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그 결과 현대전은 광대한 자원의 기초와 대규모의 고도화된 생산기구 등 산업능력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과학 기술의 부단한 연구 개발을 촉구하는 한편 건전한 국민경제의 제반 균형이 잘 유지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전은 국가자원과 산업능력을 그 기초로 한다는 의미에서 국민 총력전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국민 총력전은 국방의 임무를 군인에게만 일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국가를 방위하는 그 힘의 원천은 전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군인은 국토방위의 직접적인 임무를 일선에서 담당 수행하고 있지만, 그 군사력은 일반 시민들과 무관한 상태에서 독자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민사회 속에서 성장 발전한 군사조직체인 동시에 공동운명 의식 속에서 생존하여 나아가는 일체 불가분성을 지니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국가정책적인 활동목표를 지닌 모든 조직 단위는 스스로의 위치에서 국가기능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담당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국민 개개인은 각기 주어진 직분을 스스로의 위치에서 보다 충실히 이행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국민으로서의 보국(報國)의 길을 다 하는 것이다.

더우기 나날이 발전하여 가는 과학문명은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특히 군사분야에서의 과학무기는 현대화의 최첨단에서 공포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비록 국가적인 기술수준과 지역적인 격차는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핵폭탄 몇 발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단계에 돌입한 현시점에 있어서는 우리의 안목도 국제단위로 그 차원을 바꾸어 이러한 국제사상에 대응할 수 있는 정신자세를 견지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현대전은 고도의 기계화를 지향하며, 모든 전쟁방식은 그 전쟁 수행에 있어서 조그마한 오차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정밀과학률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방향에서 날로 연구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같은 양상으로 변천하여 가는 현대전을 제1선에서 직접 수행해 나아가야 할 우리 군인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정신자세의 현대화를 선행조건으로 문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에게 현대무기를 활용토록 하려면 먼저 그들로 하여금 현대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정신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무기의 시대적 사용 가치성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할 문제도 선행될 조건으로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손에 의하여 조정되는 과학무기는 예외없이 고도의 정밀성과 정확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는 바, 우리는 현대무기의 조작을 전담할 주역자로서 사고방식 등 정신적인 합리화를 비롯한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합리화를 추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1) 내일을 개척한다는 창조적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며, 2) 합리성의 정신을 생활화

하여 사상 판단에 있어서 그 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3) 미지세계에 대한 동경에 상응하는 현실생활의 합리화를 추구하려는 혁신성을 스스로 발굴해야 할 것이며, 4) 보편화의 정신을 체득하여 외계의 모든 사상을 주관세계에 흡수 소화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조직을 통하여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고 또한 그 조직을 통해서 생성되는 그 힘은 역학적인 가속작용을 하게 되어 예측할 수 없을만큼 거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군대의 힘은 단결을 기반으로 하여 전투역량을 발휘하고 있느니만큼 현대전에 있어서 더욱 고도적으로 요구되는 유기체적인 단결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능력 증진의 길일 뿐 아니라, 우리 군이 지향하는 숭고한 이념에로 촛점을 맞추어 정진해 나아가는 자세인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 발전의 기본정신을 고도화하여 물질문명을 주도해 나아가는 인격자로서 요구되는 정신자세를 체득함으로써, 신예기계를 군사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배양한다는 것은 곧 현대전 체계가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정신적 현대화의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6. 결 론

핵전쟁이라는 높은 차원에서 볼 때에는 현대 과학전을 주로 해 나아갈 주역자로서의 정신적 현대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시야를 우리의 현실면으로 돌려본다면 우리는 방관할 정도로 목전의 현실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미·소 양대국을 주축으로 한 동서 양대 진영의 고차적인 대결 형태와는 달리 우리나라 현 전선에서는 아직도 아시아적인 전술법을 쓰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적화통일이라는 기본전략 아래 무력남침이라는 광적인 도발행위를 일삼고 있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분쇄하고 또한 우리들 주위에서 우리의 사회적 안정을 파괴할 목적으로 갖은 침략방법을 자행하고 있는 공산「블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해가며 우리가 지향해 나아갈

조국근대화 작업에 차질없는 진군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시 침착과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그들의 도발이 비록 더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보다 냉엄한 자세로 필승의 대비태세를 완비하여 그들의 망동을 여지없이 분쇄해 나아갈 수 있는 군인으로서의 기본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군인복무규율」 강령, 「국군의 이념」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의 건군이념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평화를 유지하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제로서 이루어진 국민의 군대」인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국가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 보전한다는 군인의 사명과 이를 위해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사생관에 투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정신자세면에 있어서도 현대전의 주역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어 나아가는 한편, 목전의 적도 여지없이 섬멸시켜 나아가는 대적 필승의 굳은 의지를 더욱 드높여 우리 국군의 늠름한 기상과 위용을 중외에 널리 과시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 분발해야 할 것이다.

□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

◇—안을 들여다 보고 밖을 내다보나, 북쪽을 쳐다보고 동쪽을 돌아보나 그 어디를 보나 안일과 타성은 곧 낙후와 몰락을 가져오고 굳센 의지와 줄기찬 전진만이 생존과 번영의 담보임을 말해주는 오늘의 이 냉엄한 현실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 70. 1. 17. 제헌절 경축사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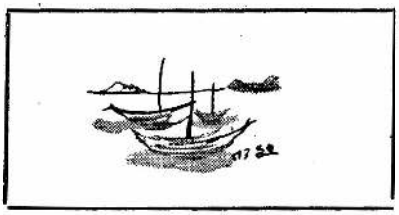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힘, 즉 국력을 길러야 하겠으며 이것은 정녕 우리 국민 모두가 헌신해야 할 과업이며 구국의 길인 것이다.

— 72. 10. 27. 개헌안 공고 담화문에서 —

<정훈교육자료>

삼민주의와 구국정신

조 정 기



서 론

삼민주의는 현대 중국의 아버지라 불리워지는 손문이 구국의 방략으로서 제시한 이른 바 민족, 민권, 민생의 삼대주의를 기록한 위대한 사상서요, 또한 혁명의 저서이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만청(滿淸)제국이 무너진 이후 중국 혁명운동의 주체세력을 형성해 왔던 국민당은 현재의 자유중국 정권에 이르기까지 손문이 창도한 「삼민주의」를 움직일 수 없는 기본강령으로 믿어 왔었다. 따라서 현대 중국사의 근원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삼민주의」사상의 전모를 이해함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그러나, 역사상의 그 영향력을 깊이 끼쳐온 위대한 사상들이 모두 그러하듯 손문의 「삼민주의」사상 역시 그 시대의 산물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손문이 태어났고 살아갔던 당대 중국사회의 몰락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에서 탄생한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먼저 손문의 생애와 그의 시대적 배경에 눈을 돌리게 된다.

손문은 1866년 광동성 향산현 췌형촌에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1866년이라 함은 중국 최근세사의 일대 전환기를 획(劃)한 홍수전 등의 이른 바 태평천국의 난이 평정된 지 겨우 2년 밖에 지나지 않은 해였다. 멸만(滅) 흥한(漢)이란 민족적 명분을 최대 구호로 내걸었던 이 대규모의 반란은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무엇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백년간에 걸친 만청(滿淸)의 한족지

배는 그 근저에서부터 흔들리게 되었고 중앙정계에까지 한인 세력이 크게 대두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Arrow호 사건의 처리문제로 영·불·서 제국주의 국가가 청에게 강요한 천진조약(1858)과 북경조약이 체결된 것도 손문이 태어나기 몇해 전의 일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대사건에 대해서 이민족인 만주족이 세운 노청(老淸)제국은 너무나도 무력하였다. 이같은 어린시절의 시대적 배경이 손문을 혁명가로서 성장케 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그의 탄생지인 취형촌은 광동에서 40리, 마카오에서 30마일, 홍콩에서 75마일 지점이 되는 곳으로 당시로서는 서방의 물결을 가장 접하기 쉬운 곳이었다. 따라서 홍수전, 강유위, 손문 등 근대 중국 혁명운동의 영도자들이 모두 이 지방 광동성 출신인 것도 한낱 우연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손문의 사상형성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은 그가 받은 교육 내용이다. 그는 14세 때 하와이에 이주하고 있었던 만형 손덕장에게 가서 그 이듬해부터 17세에 이르는 삼년간을 「미션계」인 Iolani College에서 수학하였고 또 22세부터 5년간을 홍콩에서 의학을 공부하였다. 「하와이」에서 미식 민주주의적 교육은 손문의 사상형성이나 혁명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니 이는 그의 전 혁명생활을 통하여 중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건설하겠다고 표방한 점이나 민권사상을 고취한 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사상이 공허에 흐르지 않고 어디까지나 분석적이요, 실질적인 성격을 강하게 띈 것도 홍콩에서 받은 의학수학의 영향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손문의 삼민주의 사상은 한갓 학교교육에서 온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30여년간에 걸친 혁명생활과 수차의 해외 망명생활에서 얻은 산 교육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는 1896년, 1905년, 1909년, 1910년 등 전후 4차례나 세계 각지를 망명하였는데 특히 그의 사상형성에 중대한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제1차 구주생활이었다. 즉 1896년 9월에서 이듬해 7월까지 약 10개월간 손문은 런던의 대영 박물관에서 사회과학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이 때에 이르러 그의 민족, 민권, 민생의 이른 바 「삼민주의」는 그 윤곽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삼민주의」는 1924년 1월부터 8월에 이르기까지 광동대학에서 가진 강연 내용을 한데 모은 것으로 민족주의 6강, 민권주의 6강, 민생주의 4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론

Ⅰ. 민족주의

민족주의 1강

삼민주의는 중국의 국제 지위의 평등, 정치 지위의 평등, 경제 지위의 평등을 촉진시켜 중국을 영구히 세계에 적존키 위함이니 이가 곧 구국주의다. 민족은 자연의 힘에 의하여 이룩되고 국가는 부력을 써서 이룩된 것이다. 민족을 이룩할 수 있는 요인은 첫째 혈통, 둘째 생활, 세째 언어, 네째 종교, 마지막으로 풍속과 습관을 들 수 있는 바 4억의 중국인은 같은 혈통, 언어, 문학, 종교, 풍속, 습관이기에 완전한 하나의 민족인 바 구미 각국과 같은 국력을 배양키 위하여 중국인의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위기와 망국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국의 민족주의는 국가주의로 간과되며 구국주의로 민족주의를 제창하였다.

민족주의 2강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요인을 인구증감에 의한 자연 도태력, 정치력과 경제력으로 볼 수 있고 경제력과 정치력이 민족흥망에 미치는 영향은 자연력에 비하여 훨씬 크다. 당시 중국 민족은 자연력에 의하여 도태되고 있을 뿐더러 인위적인 경제적 정치적 압박과 피해를 심하게 입고 있었다. 중국이 자연력 정치력 및 경제력의 세 가지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되고 중국 민족의 지위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정치력에 의해 중국민족, 즉 한민족의 수난을 열거했고 한(漢)국을 잃은 땅으로 생각했던 것은 독자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실이다. 중국혁명으로 정치력에 의한 중국민족의 분쇄는 용이하지 않음이 입증되었고 경제력으로 식민지화하는 경향의 실례를 들어 유형적인 정치력의 압박보다 무형적인 경제적인 압박이 훨씬 격렬한 것으로 보았다. 그 당시 백년 동안 외국의 인구는 증가 일로에 있었고 중국의 인구는 전혀 증가하지 않아 자연력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경제력과 정치력의 압박이 설상가상격으로 가해지고 있는 바 중국민족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 세 가지 압박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였다.

민족주의 3강

민족주의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민족의 생존을 보장하는 사상인데 중국은 두 차례에 걸친 외국인의 침입을 받고 완전히 민족주의를 잃고 말았다. 폴란드나 유태민족은 국가는 망했어도 민족

사상은 멸하지 않아 옛 국가를 도로 찾게 되었다. 중국 민족사상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을 이민족의 침입으로 보았고 한국을 일본이 침입하여 한국사상을 멸망시키려고 했다. 신 청년들의 세계주의에 대해 비판을 가했고 민족사상으로 무장되어야만 정치력, 경제력을 파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세계주의는 어디까지나 약소민족의 연합하에 강권이 타파된 후 실현가능하고 현 시점하에서는 중국인이 자중자애하여야 한다. 곧 민족주의를 구국주의, 구국은 민족사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족주의 4강

당시 동맹국이라 불렀던 독일, 오스트리아와 협상국이라 불렀던 프랑스, 러시아, 영국 및 일본과의 유럽대전은 해상의 패권을 다툰 색슨 민족과 투우론 민족간의 전쟁이었다. 미국은 전적으로 민족적인 문제로 영국편에 가담했다. 이때 미국의 윌슨이 주창한 민족자결주의는 약소민족의 호응을 받았으나 전쟁 후 평화회의가 열릴 무렵 세계주의를 고취하여 윌슨의 주장을 속였다. 강한 국가의 힘이 있는 민족은 독점의 지위를 유지키 위하여 약소 민족의 부흥을 다시는 허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중국이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회복기 위하여 4억인의 힘을 합쳐 불공평을 배제하는 것이 천직이라고 생각했다. 열강은 우리들이(중국) 이러한 사상을 갖는 것이 두려워 세계주의를 선동하고 인류의 안광을 달성해야 한다고 하여 민족주의는 지나치게 편협하다고 주장했다. 즉 전세계주의는 중국에 맞지 않음을 강조했다.

민족주의 5강

민족주의를 회복하는 방법을 논했다. 첫째는 4억인으로 하여금 중국인이 처했있는 처지를 알도록 한다. 당시의 처지는 생사의 관두에 있고 화를 피하고 복을 구하며 사를 피하고 생을 구하여야 했다. 중국민족은 정치적 압박, 경제적 압박, 인구증가의 압박의 화해를 받고 있는 현실인 바 이를 의식하고 각성의 종족단체는 먼저 연합을 하고 다시 종족단체로부터 민족의 대단체를 형성하여 민족정신을 불러 일으켜 민권 민생을 구하고 제국주의를 타도해야 한다.

민족주의 6강

중국 민족의 지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답은 민족정신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민족정신을 회복기 위하여 중국 민족이 현재 매우 위험한 지위에 처해 있음을 자각하고 중국 고유의 단체

예컨대 가족단체나 종족단체를 이루는 두 가지 선행조건이 수반된다. 즉 알고 단결하라. 민족국가의 장구적인 지위를 유지하려면 국민 도덕문제가 제기된다. 국가와 민족에 충성하고 인, 민, 애물 사상을 강조했다. 다음이 신의다. 즉 중국의 도덕은 충, 효, 인, 애, 신, 의로 요약되고 이는 바로 민족의 정신인 것이다. 또한 중국의 정치철학은「격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로 요약된다. 청년은 수신부터 시작해야 하며 중국의 고유의 지식을 회복하고 일실된 도리를 회복하여야 한다.

Ⅱ. 민권주의

민권주의 1강

민권이란? 민권은 곧 인민의 정치역량이다. 정은 여러 사람의 일이요, 치는 관리인 바 여러 사람을 관리하는 것을 곧 정치라고 한다. 정치의 원동력은 군인에게 있고 군인은 정치가 무엇인가를 명백히 알아야 한다. 인민으로서 정사를 관리케 하므로 민권이라고 부른다. 인류가 생존키 위하여 보와 양이 필요했다. 유사 이래로 지금까지 신권을 거친 후에는 군권이 발생하였다. 군수제도는 무도하니 인민은 혁명을 하여 민권을 회복해야 한다. 프랑스의 루소는 민약론으로 민권사상을 부르짖었고 인민은 천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중국이 민권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첫째 세계조류에 순응함이요, 둘째는 국내전쟁을 단축기 위함이었다. 이로써 중국민의 골육상쟁의 씨를 뽑고 황제가 되려고 하는 꿈을 없앨 수 있었다.

민권주의 2강

프랑스혁명의 구호가 자유, 평등, 박애의 세 가지 명사인데 대해 중국혁명이 민족, 민권, 민생이 근거하고 있으며 민권은 바로 자유, 평등, 박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국적 자유의 정의에서 중국인의 자유를 극도로 보장한다면 이는 곧 한줌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나, 고로 이 자유는 곧 강한 국가를 의미한다. 현재 중국은 부자유하다. 중국의 자유를 회복키 위하여 흩어진 인민을 결속시켜 견고한 민족단체를 형성해야 한다. 혁명주의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 중국의 혁명목적은 유럽 것과 상반된다. 유럽도 자유를 위해 투쟁했지만 중국은 너무나도 자유가 많기 때문에 단체가 없고 저항력이 없이 한 줌의 모래흙과 같이 약했기 때문에 이를 뭉치는 시멘트가 필요했다.

민권주의 3강

민권의 개념은 프랑스 혁명의 평등구호와 상대가 된다. 혁명의 첫뜻은 인위적인 불평등을 타파하는 것이요, 근대에 이르러 과학이 급격히 발달함에 따라 천부의 평등의 도리는 없다. 사회에 있어서 지위 평등을 말한다면, 기점의 지위는 평등인데 후에 각인의 총명 재력에 의해 발전해 나가는 것인 바 각인의 총명 재력은 불평등한 것이다. 따라서 평등이란 인류의 발전을 위해 인위적인 평등은 오직 정치상의 평등을 달성하는데 있다. 중국의 경우 자유, 평등을 위해서 구호는 민권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자유, 평등은 민권 안에 포괄되는 것이다.

민권주의 4강

미국의 혁명은 원래 충분한 자유와 평등을 확보키 위하여 영국에 대해 독립을 주장했고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를 해방시켰다. 제퍼슨은 성선설에 기초한 천부의 자유, 평등 사상으로 그들에게 충분한 정권을 주자고 했고 헤밀톤은 정부가 정권을 갖고 인민에게 완전히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종전의 군권에는 제한이 필요하나 지금의 민권에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연방파가 승리하여 각 주는 연합하여 합중국을 건립했다. 구미의 혁명은 남녀의 선거권을 얻었을 뿐이다. 그러나 가장 새로운 민권사상은 독일에서 태어났다. 이가 곧 사회주의다. 민권발달의 사적 경과와 장애는 첫째 미국혁명에서 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해밀톤, 제퍼슨 두 파로 나누어졌고 해밀톤의 중앙집권이 승리했다. 이것이 민권의 첫째 장애이다. 둘째는 프랑스혁명인데 인민은 충분한 민권을 얻게 되자 이것을 남용하여 폭민정치로 변하고 말았다. 이것이 민권의 둘째번 장애다. 세째는, 비스마르크가 가장 교묘한 수단을 써서 민권을 방지하니 이것이 세번째 장애다. 그러나 모두 민권사상은 소멸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다. 결국 대의정치에 지나지 않았다. 각국은 이것을 종점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중국의 삼민주의는 중국의 민권주의를 가지고 전민정치의 민국으로 구미보다 높은 위치에 두고자 했다.

민권주의 5강

아직껏 방법이 없는 구미를 배우지 말고 새로운 우리들의 방법인 "권"과 "능"을 구분하여 정부는 능을 가지고 인민은 권을 가지는 것이다. 인민들은 대부분 무지몰각의 사람들이니 정치인

선각 선지의 사람들은 인민을 지도하고 올바른 제도를 탈피케 하여야 한다. 이것이 비로소 구미의 혼란을 피하고 구미의 전철을 밟지 않고 민권을 찾는 것이다.

민권주의 6강

정치 안에는 두 개의 힘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정(政)권이며 하나는 치(治)권이다. 하나는 정부를 관리하는 힘이요, 하나는 정부 자신의 힘이다. 정권이 인민권이요, 치권이 정부권이다. 중국의 정권의 면에 있어 4권(四權)을 주장하며 치권의 면에 있어 5권(權)을 주장한다. 이 4권(權)과 5권(權)에는 각자 각자의 계통이 있고 작용이 있어 분명히 나눠야 하며 문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정권과 치권이 있고서야 비로소 만능정부를 만들고 인민을 위하여 행복을 도모할 수 있다. 여기서 4권이란 선거권, 파면권, 창제권(創制權), 복결권(複決權)이고 5권이란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 고시권, 감찰권이다.

Ⅲ. 민생주의

민생주의 1강

민생이란 인민의 생활사회의 생활 국민의 생계, 군중의 생명 바로 그것이다. 기계화 이후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노동자들은 고통을 받게 되어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사회문제가 민생주의다. 고로 민생주의, 사회주의의 명제라고 말할 수 있다. 맑스는 사회문제를 과학적 사회적 사회주의로 해결하려고 했다. 맑스의 유물사관「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곧 역사의 중심을 물질에 두었지만 그렇지 않고 민생에 있다. 계급투쟁은 사회진화의 원인이 아니며 계급투쟁은 사회가 진화에 당면했을 때 발생하는 바 일종의 병적인 것이다. 맑스는 계급 투쟁을 사회진화의 원인으로 인정한 것은 결과를 놓고 원인이라 한 것이다. 민생은 정치 경제의 중심이며 역사활동의 중심으로, 맑스는 물질이 역사의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 문란을 빚어냈다. 이러한 사회분란을 해결하려면 착오를 뜯어고쳐 민생이 역사, 정치, 경제의 중심으로 보아야 하고 민생문제 연구를 명백히 함므로 비로소 사회문제의 해결 방법이 있게 된다.

민생주의 2강

중국의 민생주의에 대한 두 가지 방책은 지권의 평등이고 자본의 절제이다. 이는 맑스의 혁명에 의한 해결과 다르고 구미의 경제진화는 사회와 공업의

개량수송과 교통의 공유, 직접증세, 분배의 사회화로 이루어 지는 것과도 다르다. 지권의 평등이란 땅값에 비추어 징세를 하고 땅값에 비추어 매수함을 말한다. 자본의 절제란 개인자본의 절제와 더불어 국가 자본 발달을 말한다. 중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외국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목표는 중국인민이 모두 안락을 얻을 수 있으며 자산 분배의 불균등의 고통을 안 받게 하자는 것이다. 삼민주의의 뜻은 바로 민유, 민치, 민향인데 이 뜻은 국가는 인민의 공유이며 정치는 인민의 공동관리 이익은 인민을 위해 누려진다는 것이다.

민생주의 3강

민생문제를 해결하려면 의, 식, 주, 행(行) 네 가지 필수를 값싸게 만들어 내야 한다. 중국의 농업은 진척되지 않았으며 식량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농민의 권한과 이익을 보장해야 하며 농업의 기계화 문제이고 둘째는 비료문제, 다섯째 제조문제, 여섯째 수송문제이며 일곱째는 재해방지 문제이다. 다음에 공평하게 분배하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고 민생주의는 그 목적이 자본제도를 타파하는데 있다.

민생주의 4강

민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이요, 둘째로 입는 문제이다. 우주 만물 중에 인류만이 의복이 있으며 그것도 문명된 인류에 한해서 의복이 있다. 의복의 원료는 동식물에 의존하여 생산하고 제조하여 왔다. 민생무제를 해결하고 본국의 공업을 보호하며 외국에게 침략과 약탈을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정치력으로서 공업을 보호해야한다고 하였다.

결 론

삼민주의는 중국의 한민족이 나라를 빼앗겨 몽고민족이 세운 청나라로부터 정권을 다시 찾자는 민족주의와 군주전제정치를 뒤엎고 평민혁명으로 국민정부를 세우자는 민권주의와 토지문제를 해결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와 같은 사회문제를 미리 방지한다는 민생주의로 전 16강으로 구분되어 구국의 의식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반 식민지 반 봉건사회의 혁명운동의 첫째 문제는 민족의 독립이요, 둘째는 정치적 민주제도요, 세째는 경제적 민주제도라 한다. 확실히 삼민주의는 중국의 근대화의 요구에서 착상되었다. 삼민주의는 손문의 서거 후 국민혁명군을 이끄는 장개석의

국민정부의 국교가 되었다. 손문은 삼민주의 속에서 건설의 꿈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은 확실히 오늘의 자유중국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삼민주의를 간략하게 요약하였거니와 손문의 사상 체계의 근본은 역시 전통적인 유교사상이었다.

이것은 그가 유교의 전통적인 정치이상인 "수신제가 치국평천가"를 서양정치 철학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뛰어난 사상이라고 극찬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요컨대 그의 삼민사상은 전통적 유교 이념에 근원하여 여기에다 서구의 우수한 과학문명과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도입하여 반식민지로 전락해버린 중국을 회생케 하려는 것이다.

손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많다. 그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독립과 근대화를 역설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전통문화를 멸시하고 말살하는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유의 민족문화를 현실에 적응시키고 재 발굴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조국근대화라는 민족의 지상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 민족에게 하나의 반성할 계기를 마련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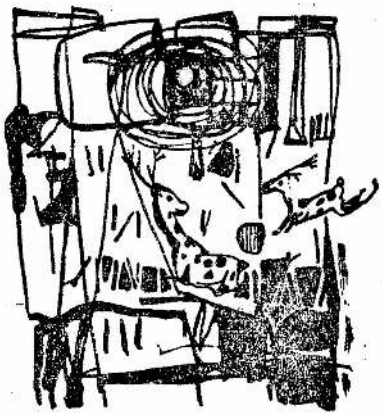
주체의식의 결여란 근대화를 지향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무엇보다 도 경계하여야 할 요소인 것이다.

이런 이미에서 60년대 이후 학계에서 활발히 전개되어 왔던 "근대화"의 개념규정이 서구의 근대화 과정을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하고 여기에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현실에 적응시킴으로써 국가의 보다 나은 장래를 도모하는 과정으로 결론지워졌음은 실로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그가 내걸은 민족자결에 의한 세계평화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헌법이념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민족주의 궁극적 사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민족도 단일민족으로서 쓰라린 일본 식민생활을 거쳐 민족의식을 고취하였으며 해방과 더불어 불운하게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북에서도 아직도 공산독재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차제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나마 민족, 민권, 민생에서 말한 바와 같은 국민정신을 바탕으로 한 줌의 흩어진 모래알이 되지 말고 뭉쳐서 단단한 민족으로서 나라의 융성을 꾀한다면 나의 번창은 물론 모두가 잘사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역경을 견디어 정부가 추진하는 유신대열에 앞장서서 국가의 간성으로서 소임을 다 하여야 하겠다.

특집

우리의 표적 조국근대화와



우리 민족의 이념과 진로

리 선 근

새마을 운동과 조국근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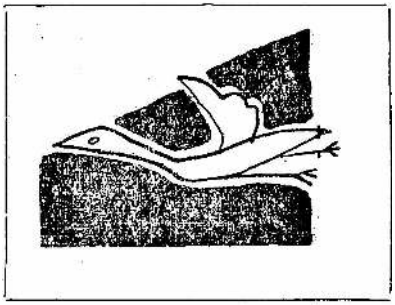
유 태 영

자주국방의 정신적 기조

윤 종 현

우리민족의 이념과 진로

리 선 근
<문학박사 • 영남대학교 총장>



우리나라가 5 • 16혁명 이후로 영명하신 박 정희대통령 각하의 영도 아래 민족의 나아갈 방향을 확고히 견지하고 비약적인 국가발전을 기하고 있다 하는 사실은 우리만이 아니고 인방국가 전 세계가 다 짐작하는 바이다.

이런 시기에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민족의식을 갖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이것은 앞으로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규명해 보는 것도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한 나라라는 것은 국토와 국민과 주권, 즉 정치체제가 다 갖추어져야 한다 함은 정치학도 누구나의 상식이다.

이런 대전제 아래 우리 국토는 어떤 국토냐?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은 어떤 국민이요, 어떤 민족이냐? 나아가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우리 국가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으며 금후의 과제는 무엇이냐? 이런 요소를 더듬어 봄으로써 이 주제를 풀어나가려 한다.

먼저 객관적으로 본 우리 국토는 어떤 국토냐?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할 때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 다른 분이 기초한 초안을 보니 우리 국토에 대한 말이 빠져 있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 다음 귀절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말을 본인이 고집해서 넣었다. 한 나라 국민의 애국심을 조장하는데 있어서 자기 국토에 대한 신념이 박약하면 될 수 없다.

요즘 새마을 운동은 내고장 내마을 내 국토에 대한 애향심, 애착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초 작업의 하나라고 본다.

내 마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내 고장을 사랑할 줄 알고 내 고장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다.

새마을 운동의 일면의 의의가 바로 애국심의 기초를 다지는 것임을 확신한다.

동시에 내마을 내고장 내나라가 주관적으로는 물론이지만 객관적으로도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신념이 서야만 비로소 자연스러운 애국심이 배양될 수 있다고 믿는다.

금강산 속에서 태어나 금강산 속에서 자라난 사람은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모른다. 금강산 밖에 나와서 금강산을 들여다 봐야 비로소 『아, 이거 내가 태어나 자란 금강산이 참 아름답고 훌륭한 곳이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토 안에서 태어나고 우리 국토만 보아 온 사람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요한 옥받은 국토인지를 모른다.

그러나 일단 해외에 나가서 특히 비행기를 타고 지구 대륙을 쭉 돌아보면 문자 그대로 금수강산이다.

삼면이 바다요, 대륙을 연접하고 기후는 뜨겁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말하자면 온대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춘하추동 4계가 분명하다.

우순풍조(雨順風調)한 금수강산 이것은 자화자찬의 이야기가 아니다.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가리켜 부러워하며 지어 준 이름이다.

스위스를 우리는 세계의 공원이라고 한다. 내가 스위스를 두번 가 보았는데 「쥬네브」에서 좀 떨어진 곳에 「리용」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다.

이 「리용」성에는 호반에 유명한 감옥이 있다. 이 감옥은 독일의 시성 「바이론」이 일부러 죄수로 가장해 들어가 사흘 동안 죄수생활을 해 보고 시를 써서 더 유명해진 감옥으로 지금도 이 감옥의 석벽에는 「바이론」의 필적이 남아있다.

「쥬네브」에서 「리용」성까지 자동차를 달리면서 보니까 수십마일의 호반 석벽에 일정한 간격으로 덩굴진 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스위스 사람, 스위스 산천이 이처럼 아름다운가?』 그런데 한참을 가고 그 덩굴진 꽃들의 간격이 너무도 일정해

의심이 났다. 차를 내려 석벽에 아름답게 늘어진 담쟁이 덩굴꽃을 손으로 더듬어 봤다. 이것은 놀랍게도 자연이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스위스 국민이 그 석축을 쌓을 때 그곳에 화분을 끼어 놓고 꽃을 심은 후 가꾼 것이었다.

천부의 혜택이 아니라 스위스 국민의 피눈물난 노력의 결과였다. 스위스는 「알프스」산 돌각담 속에 그 국토가 끼어 있다. 돌바위에 표토 석자가 되는 데가 없다. 스위스에 화단이 많고 아름다운 공원이 많지만 이것은 모두 사람이 좁은 평야지대의 흙을 날라다가 부토를 하고 꽃을 심고 가꾼 것이다.

자기 나라 국토가 너무도 척박하기 때문에 조국을 버리고 불란서, 독일, 이탈리아 등지로 흩어져 방황하다 불란서 혁명으로 정신을 차린 청년들이 『내 국토가 비록 돌각담 속에 끼인 척박한 국토이지만 내 국토를 버리고 남의 나라에 와 방황하다 개죽음 하느니 차라리 조국 스위스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부삽과 곡갱이를 들고 알프스에 도전한 지 출잡아 3백년 오늘의 세계 공원 스위스가 건설된 것이다.

스위스를 가보든지 독일을 가보든지 다른 어느 나라를 가보든지 우리 국토만한 국토가 없다. 임수산 자원은 물론 농공산 자원, 요즈음 와서는 우리 영해 대륙붕에서 석유까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이고 있다.

스위스나 독일같은 나라도 세계 공원을 만들고 공업국가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이들 나라보다 백배나 더 되는 풍요한 자원을 가지고 아름다운 미관을 가진 우리 국토를 어떻게 아끼고 가꾸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러면 이런 국토에 태어난 우리 민족은 도대체 어떤 민족이냐? 일제 36년 동안 악독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악선전의 영향으로 우리 한민족, 배달겨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미개 열등한 나라로 낙인찍혔다. 1910년 전후부터 제국주의 일본은 그네들의 총력을 발휘해 그들 자신의 침략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우리 한국민족을 중상하고 모략함으로써 문화유산도 없고 자치 자주 능력도 없으며 오로지 쟁패, 분열과 굴욕, 복종만이 전부인 수치 민족으로 몰락시켰던 것이다. 그런 영향이 우리 내부에도 미쳐 우리 민족 자신이 우리 민족 자신을 자학하는 그런 경향조차도 없지 않아 있었다.

여기서 나는 「10월유신」이후 박 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우리나라의 교육, 우리나라의 역사교육 이런 것이 국적없는 매판교육을 해왔다. 국적을 되찾는 교육을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피력하신

이유도 그 역사적 배경에는 이런 사실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사람들만이 아니라 과거 왕조 5백년을 통해서 사대주의자들도 우리 민족의 역사를 그렇게 보아 왔다. 중국 민족만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고 우리 배달겨레, 우리 한 겨레는 그네들에 비해 열등하다는 인식을 조장해 왔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 민족의 본연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밝혀 보면 우리 국토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국토라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의 하나라는 것을 단언하는 바이다.

그러면 우리 민족 본연의 성격이 과연 어떤 것이냐? 우리 민족 본연의 성격은 광명정대(光明正大)한 사상의 소유자이다. 비겁하지 않고 바르며 음흉하지 않고 밝으며 편협하지 않고 대담한 것이 우리 민족 본연의 성격이다.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우리 민족은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 「한겨레」라고 했다.

우리 말의 「한」이라는 말은 굉장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큰 「大」자, 밭「田」자를 써 놓고 「한밭」 그렇게 읽는다. 「한」이라는 말은 큰 것을 의미한다. 하늘「天」하면 무한히 큰 울타리란 것이다. 「한」이라는 말은 무한대를 말한다. 동시에 많다는 것을 말한다. 불경 주석을 보면 「한불」이라는 우리말을 써놓고 한자로 「多佛」 많을 「多」자, 부처 「佛」자, 혹은 모들 「諸」자, 부처 「佛」자 「諸佛」로 번역해 놓았다. 무한히 크고 무한히 많다는 의미이다. 한아름도 많다는 것을 뜻한다.

그와 동시에 「한」이라는 말은 바를 「正」자를 의미한다. 한자로 「正午」라고 써놓고 한낮이라고 한다. 「子正」이라고 써놓고 한밤중, 그리고 삼복 더위 제일 심할 때를 한더위라고 한다. 둥그런 원의 제일 구심점이 되는 곳을 한복판이라고 한다. 이 「한」이라는 말이 내포하는 것은 크고 위대하고 많고 빠르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나무 결이 곳곳한 것을 「한결같다」고 한다. 바를 「直」자 곧을 「直」자다. 「한빛」하면 하나의 빛(一光)이 아니다. 환하고 밝은 빛 광명 그 자체를 말한다. 백두산, 태백산을 우리가 「한붉산」이라 했다.

이같이 태양을 중심한 천체의 밝은 것 광명을 마음대로 숭배하고 신앙으로 삼아 온 것이 우리 민족 본연의 모습이다. 불의와 부정과 협잡과 음흉한 것을 싫어하면서 광명정대한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 우리 민족 본연의 모습이다. 그랬기에 「한」이라는 말로 민족의 대명

사를 삼고 「한」이라는 말로 나라 이름을 삼았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단군 할아버지의 성이 「한」이다. 「한웅」, 「한인」 혹은 「한씨」 등이 모두 이 「한」자의 한문음화(漢文音化)이다.

삼한시대의 「한」, 대한민국의 「한」이것 역시 한문자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아득한 옛날부터 태양이 밝게 비치는 광명천지에서 광명정대한 사상을 품고 남부럼지 않은 멋진 문화를 창조해 왔다. 밝고 아름다운 강산에서 광명정대한 사상을 품고 풍요한 생활을 누려 왔기에 남의 것을 탐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지 않고 멋진 생활 양식과 찬란한 민족 문화를 창조해 내는데 고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광명정대한 본성에 창조적인 능력을 갖춘 민족이었다. 다음에는 창조해 놓은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외세가 침략해 들어 올 때는 가장 강인한 저항력을 발휘한 것도 우리 민족의 또 하나의 특징이었다.

남들이 보기에 가장 부러운 땅이요, 민족이기 때문에 항상 탐낼 수 밖에 없었던 곳이요,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것이기에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이 나라요, 이 민족인 것이었다. 광명정대한 사상을 뇌신경이라고 본다면 창조적인 능력을 풍부하게 가진 것은 우리 혈맥 속의 동맥이요, 외국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할 때 억세게 저항하는 저항정신은 우리 혈맥 속의 정맥이다.

그러기에 옛날부터 우리가 자화자찬한 것이 아니고 중국 사기를 보면 후한서 동이전(後漢書 東夷傳)이라든지 혹은 삼국지 위지에 나오는 동이전에 한국은 「東方禮儀之國」이요, 「君子不死之國」이요, 「仁人之邦」이다. 어진 사람이 사는 곳, 예의 바른 군자의 나라라고 기록했다. 「互讓不爭한다」 서로 양보하면서 다투지 않는다. 중국이 예의를 상실할 때에는 예의를 물으러 동방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다.

그러니까 소위 자존심 강한 중국 민족도 문화도에 있어서는 동이족이라고 일컬어진 우리 배달 민족을 고도로 높이 평가하고 존중해 왔다. 따라서 역사의 큰 사건 사건을 훑어 보면 우리 겨레는 항상 창조적 능력과 저항력을 배어서 발휘하지 않고 동시에 같이 발휘해 왔다.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다.

왜구의 해적떼를 대항하면서 축조된 감포 앞바다의 문무대왕 해저능침과 토

합산 기슭의 석굴암과 불국사—.

신라 시대의 이러한 민족의 특성은 그대로 고려 시대에 계승되었다. 초기에는 거란과 여진의 침공을 받아 굉장한 수난을 겪었다. 그러면서도 항상 정신적으로는 신라 선민들의 호국사상과 함께 이를 되새기는 우리 민족의 역사의식을 국민 앞에 강조했다.

건국초 고려는 불교국가이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을 간행했다.

그러나 고종 때에 이르러 몽고족이 침입해 들어오면서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 있던 팔만대장경을 불질러 태워버렸다.

고려 선민들의 정신무장의 모체인 팔만대장경이 타버린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는가? 세계를 정복한 강폭 몽고족의 말발굽 아래 전국토가 초토화하고 정부는 강화도로 피난들어가 있으면서도 전국민의 성금과 정성을 모아 팔만대장경 복간에 착수한 것이다.

『이 몽고라고 하는 흉악한 외적을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저항하기 어려우니 초인간적인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격퇴해야 되겠다. 부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몽고족이 불지른 팔만대장경을 몽고족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복간 해내자』고 외치며 착수, 드디어 1251년 복간에 성공,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관중인 팔만대장경인 것이다.

요즈음 인쇄술 모양으로 윤전기에 박아 내는 그런 인쇄물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호국의 비원을 집결해서 8만 4천 수백매의 목각 경판을 한자 한자 손으로 새겨 내는 것이다.

치열한 전쟁의 아우성 속에서 만 16년이나 걸려 완성시킨 이 팔만대장경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창조력과 저항력을 동시에 잘 발휘해 냈는지를 웅변해 주고 있다.

세계를 정복한 막강의 몽고족과 40년간의 피눈물나는 전투를 계속하면서도 훌륭한 문화재를 만들어 내고 굴욕이 아닌 당당한 평화교섭으로 주권을 지킨 그런 민족이 또 세계에 어디 있는가? 그런가 하면 근세 조선왕조 5백년 동안에도 세종대왕 같은 위대한 분이 나타나 한글 문화를 창조했고, 세계 최고의 인쇄술을 동활자, 금속활자를 발명해 놨다. 「구텐베르히」보다 2백년 앞섰고 측우기의 발명도 이탈리아보다 우리가 역시 2백년 더 앞섰다. 근세에 와서 미국이 비행기 발명을 제일 먼저 했다고 한다. 「라이트」형제가 맨처음 「글라이더」를 날린 것이 1900년대 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원군은 이보다 수십년이나 앞서 한강의 마포강 언덕에서 「나

는(飛)무기」를 직접 실험했다. 물론 첫번째 실패를 했지만 이곳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위대한 발명을 착상, 구상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점이다. 만일 대원군이 정치적으로 몰락을 안 당하고 그 상태로 밀고 나가게 했더라면 비행기 역시 「라이트」형제보다 몇십년 앞서 발명하는 영광을 차지했을는지도 모른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우리 민족의 재질, 소질은 세계 어느 민족과 맞붙혀 놓아도 결코 뒤떨어짐이 없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는 어떤 길을 밟아 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민족은 분산난립의 부족국가 형태에서 삼국으로 정리되고 삼국이 통일 신라로 단일 민족국가를 형성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분산난립을 싫어하고 통일 독립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지난해 위대하신 박정희대통령각하께서는 「10월유신」을 외치시고 「10월유신」의 역사적 대업을 발족시켜 이제 그 1주년이 되었다. 그 동안 가끔 여러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왜 하필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 「명치유신」을 본따 유신이란 말을 쓰셨느냐? 고 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일본의 「명치유신」은 1868년에 시작됐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원군은 이보다 4년 앞서 「함여유신(咸興維新)」을 내 걸고 내정개혁에 착수했었다. 문제는 명치유신은 중단없이 추진되었으나 「함여유신」은 민중전이 나타나 대원군을 정치 모략으로 몰락시키는 바람에 중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좀더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신라(新羅)라는 국호가 『유신해서 통일하자』는 뜻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지증왕 4년(AD 503) 여러 신하들이 국왕께 진언하기를 『우리나라가 개국한 이래로 국호가 서벌(徐伐)이니, 서라벌(徐羅伐)이니 탐라(斯羅)니, 신라(新羅)니 일정치가 않다. 그러니 아무 의미가 포함되지 않은 다른 것은 모두 없애고 오직 신라(新羅)라고 하는 것은 덕업일신(德業日新)해서 망라사방(網羅四方)하자는 뜻이 포함돼 있으니 이것으로 국호를 고정화 시키자』 이렇게 해서 신라라는 국호가 확정된 것이다.

신라의 조상들은 국호 속에다가도 이처럼 확고한 목적의식을 담았다.

이후 신라 선민들은 1백60여년 동안 신라라는 국호가 의미하는 바 그대로 뭉치고 뭉쳐 통일대업을 위해 피눈물나는 노력을 계속, 드디어 AD 668 문무왕 때 통일신라를 성취하게 되었다.

통일의 의지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 고려 시대의 우리 선민, 다음 이조에서

도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같은 큰 시련을 치르면서도 우리 정치체제는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계속돼 왔다.

다만 불행하게도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권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항정신과 주체의식은 3·1운동을 기점으로 다시 불붙어 결국 빛나는 민주조국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건립할 수 있게 했다.

「10월유신」의 정치체제는 역사적으로 통일신라에서 물려 받은 역사적 필연의 정치체제이다.

우연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사에서 볼 때에는 이 시점에서 이런 유신체제는 덕업일신(德業一新)해서 망라사방(網羅四方)하는 지도이념을 오늘에 되살리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10월유신」에는 기본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겠다는 것이다. 새마을 운동은 유신대업의 흥망성패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는 전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국력을 야무지게 길러 나가면서 남북통일 대업을 값싼 환상 속에서 조급히 덤빌 것이 아니라 신라 조상들이 지증왕부터 문무왕까지 165년 걸려 했듯이 끈질기게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는 것이다.

현대 세계의 「템포」는 빠르니까 165년까지 가지는 않겠으나 그러나 통일대업이 내일 모레 된다든가, 2~3년 후에 된다든가 혹은 10년내에 된다든가 하는 생각은 금물이라고 본다.

공산도배의 수법은 언제고 그다지 만만치가 않다. 지금도 그들은 계속해서 칼을 갈고 있다. 표면은 달콤한 평화적인 용어를 쓰나 대륭령 각하께서 말씀한 대로 그네들은 『비수를 감춘 비둘기,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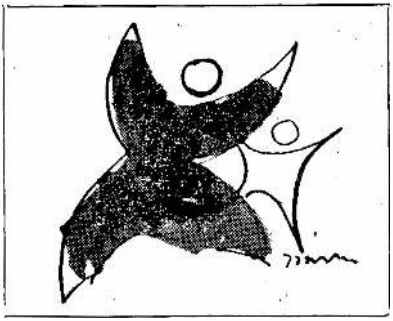
상대방이 강하다고 볼 때에는 양인체, 비둘기인체 하다가 상대방이 약하다고 볼 때에는 맹수처럼 덤벼드는 것. 이것이 공산당의 윤리이고 수법인 것이다.

줄잡아서 그네들이 함부로 맹수의 근성을 나타내지 못하게끔 힘을 키워야 한다.

「10월유신」의 정신이 제시하고 있는 바 그대로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며 비협동적인 태도를 스스로 배제하고 용감하게 차질없이 책임완수를 통한 국력배양에 힘쓰며, 통일성업을 위한 무언 실천의 선구자로 끈질긴 노력을 다 할 때 후세의 사가들은 반드시 우리를 가리켜 민족 중흥의 새 역사를 창조한위대한 역군들이었다고 기록할 것을 의심치 않는다.

새마을운동과 조국근대화

유 태 영
<건국대학 교수>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 이 새마을운동」의 불길은 「우리도 잘 살아보자」 잠자던 마음을 일깨우고 우리 스스로의 힘과 마음을 한데 뭉쳐 스스로의 손으로 잘 사는 마을을 이룩해 보자」는 자립, 자조, 협동의 강한 의지가 응결되어 타오르는 자주이념의 불길이며, 자립의지의 분출이며, 협동정신의 승화이다.

이제 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나도 한 번 잘 살아보자」는 자기발전을 희구하는 우리의 강한 의욕이 불붙기 시작한 것이다.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나를 잘 살게 해 주지는 않는다. 서로 힘을 모아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자조, 자립, 협동의 슬기를 깨닫게 된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바로 이러한 우리 민족의 각성의 외침이며, 민족갱생에의 분발이다. 생각하면 이러한 우리 민족의 각성은 5·16 이후 조국근대화 과업의 횃불을 든 민족의 영도자 박 정희 대통령의 선각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 길만이 우리민족의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국민적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 선각자는 많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의 외침은 한낱 메아리 없는 독백으로 그치거나 우국충정의 탄식으로만 끝나고 말았다.

5·16에서 싹트려진 조국근대화 이념은 10여년의 각고 끝에 마침내 그 이념

구현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새마을운동」의 전개는 11년 전의 5·16혁명이 「국민혁명」으로 승화 발전되는 「제2단계 혁명과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11년 전에 씨뿌려진 조국근대화의 씨는 이제 그 싹이 트고 성장해서 마침내 개화기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조국근대화를 위한 국민혁명운동」으로서 이 운동은 결실을 맺는 날까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새마을운동」은 일시에 그치는 운동이 아니라 생활화되고 또한 끊임없이 발전되어 나가야 할 지속적 운동이어야 한다. 그것은 근대화가 하나의 발전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한 마디로 「조국근대화의 행동철학」이며, 결국 「조국근대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범국민적 일대 약진운동」이라고 말하였다.

「새마을운동」에 참여해야 할 모든 국민은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이해함으로써 자기의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한 사명감에 입각한 자발적인 참여활동은 그 참여자에게 무한한 생의 보람과 긍지를 안겨다 줄 것이다.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활동, 그것은 곧 자발성과 적극성, 그리고 신념과 용기를 북돋아 마침내 자기희생의 봉사정신으로 승화되어 강한 협동력으로 응결 결정될 것이다. 다시 이것은 그대로 「새마을운동」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추진력이 될 것이다.

「새마을운동」이 조국근대화를 위한 범국민운동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민족중흥을 위한 박 대통령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마을운동」의 개념과 이념, 요컨대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여 비약하는 나라의 국민정신으로 삼아야 하겠다.

1. 새마을운동의 역사적의의

인간은 누구나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번영되고 유복한 생활을 영위할 것을 희구하며, 또한 그를 위해 활동하고 노력한다.

이러한 인간의 욕구와 노력은 인류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고, 또한 인류역사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는 남의 나라 사람들

처럼 근대화된 사회환경 안에서 유복한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 요인은 한 마디로 단정해서 지적할 수는 없다. 천연적인 자원의 혜택, 역사, 민족성, 정치 및 사회적 지도력, 정책방향, 인간노력의 방향과 방법의 차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반의 이질성 등 천태만상의 여건 하에서 귀납되어 결과된 종합상황이 그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과 여건이 미흡하다고 해서 이 낙후된 상황을 숙명으로 받아들여 언제까지나 이대로 현재의 상황에서 정체하고 있을 것인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날 근대화된 선진제국의 경우도 과거에는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이상으로 낙후되고 미개발된 상태에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오늘날과 같이 근대화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저력과 방법은 무엇이었으며, 그 요건은 또한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자기발전을 추구하는 그들 국가와 국민들의 인간노력의 방향과 방법이 현명했다는 점이다. 방향과 방법이 현명치 못한 인간노력은 결국 도로「徒勞」에 불과하다. 오히려 그러한 노력은 보다 많은 괴땀을 경주하면서도 현명하고 올바른 노력에 비하면 그 성과에 있어서는 정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그러한 인간노력의 방향과 방법의 타당성 여부에 따른 발전 격차는 비단 개인적인 경우만이 아니고 국가나 사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 및 개인의 발전 격차는 그 기반적인 여건의 차이에서도 오는 것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노력 자체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낙후성은 결국 우리 선조들의 노력방향과 방법의 착오, 즉 과거의 정책방향과 사회 및 개인적 노력의 타당성 결여에서 결과된 것이라고 판단해야 한다.

「새마을운동」은 바로 이러한 판단에 입각해서 정부의 올바른 정책방향의 설정과 국민들의 자기발전 추구의 합리적이며 소망스런 노력방향으로서 굳혀진 광의적인 인간노력의 방향전환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데 착안해서 국정의 일대 전환을 가져온 것은 5·16혁명 이후,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을 다짐하고 자주, 자조적인 국력배양을 목표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한데서부터 출발된 것이다.

그러나 1,2차 5개년계획의 추진과정에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국가 기간산업의 중점적인 육성과 공업육성 및 수출증대가 급선무였기 때문에 산업별, 지역별 개발격차를 해소하는 국토종합개발이나 낙후된 농어촌의 지역사회개발에까지 충분히 균형적으로 주력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제 제3차 5개년계획의 추진에 있어서는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배양된 국가저력의 성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뒤떨어졌던 지역사회 특히 농어촌지역에 대한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정부는 정부대로 국력이 미치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그를 위해 경주할 것이지만, 그 주력(注力)의 최대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주민, 즉 국민들의 노력과 협조를 병행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아니 오히려 지역사회주민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자기발전노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啓導)하고 고를 강력히 지원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러운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국가노력의 올바른 방향에 부응해서 국민노력도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만이 거국일치로 국가발전을 기약할 수 있음을 확신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리하여 국민노력의 올바른 방향설정이 바로 「새마을운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사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은 「덴마아크」나 「이스라엘」의 개척사와 근대화과정을 살펴보면 그 중요성과 본질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개발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덴마아크」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특히 민간주도, 국민주체의 개척운동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룬드비히」의 애국심의 호소와 국민적 각성의 촉구, 국민적 노력의 올바른 방향 제시, 그 이념에 호응하여 그를 실제로 실천운동으로 전개했던 「크리스틴·콜」의 국민고등공민학교 운동, 국토녹화운동을 전개해서 황무지를 옥토로 만드는데 앞장섰던 「이엠·달가스」 부자(父子), 협동 조합운동으로 농민협동체제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확립한 「크리스찬·손네」나 「요젠센」 등의 민간주도의 개발운동이 오늘날 지상낙원 「덴마아크」를 건설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경우 2천년 동안 조국없는 민족으로서 갖은 멸시와 냉대를 받으며 세계 도처에 흩어졌던 유대민족이 자기들의 조국이라고 찾은 「이

스라엘」은 거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높이거나 사막지대로서 그 곳에 영광스런 유태민족의 바람직한 조국을 건설하기란 실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2천년 전의 조국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것을 외쳤던 독립운동의 선봉인 「시온」주의 운동자들이 주동이 되어 벌였던 집단농장 「기브츠」의 개척운동과 「모샤브」의 개발사업은 오늘날 사막을 「오아시스」로 만들고, 개인 국민소득 1,500불 이상의 부를 누리기에 이른 것이다.

인간 노력의 올바른 방향설정은 이와 같이 중요하다. 민간주도의 국토개발 노력의 집대성이야말로 참다운 지역사회개발, 참다운 국가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다.

이 두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추진하는 「새마을운동」이 과연 어떠한 것이며, 또한 어째서 필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덴마아크」와 「이스라엘」의 민간주도의 개발과 개척운동, 그것은 곧 오늘날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그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새마을운동의 발전 과정

「새마을운동」은 조국근대화를 위한 민족의 영도자 박대통령에 의해 제창되었다.

박대통령은 지난 70년 4월 22일의 지방장관회의 유시를 통해 「농민, 관계기관 지도자간의 협조를 전제로 한 농촌자조노력의 진작방안을 연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새마을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최초의 발단이라 할 수 있다.

이 지방장관회의 이후 전국 33,000여 마을 전부를 대상으로 「새마을운동」의 점화를 위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여러가지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데 박대통령은 71년 7월 30일, 지방장관회의에서 이를 지적,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도자를 가진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자조정신이 왕성하고 협동과 단결심이 강하여 남이 못하는 큰 일을 반드시 성취시키고 마는 성공한 실례를 우리는 전국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정부지원의 혜택은 균등하고 자조정신이 강한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하겠다. 그러나 자조정신이 결핍되어 정부에만 의존하려는 사람은 아무리 도와주어도 자립하지 못한다. 오늘날 「뉴질랜드」나 자유중국의 농민들은 남부럽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곳 농민들이 남달리 부지런하고

자조정신이 강할 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자립의 밑거름이 되도록 잘 활용하는 지혜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작년 가을부터 전국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나는 이 사업의 목표를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주민들의 정신개발이라는 측면에 두고 이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협동정신과 단결심과 자조정신을 북돋우자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다시 지난 71년 9월 17일 전국 시장·군수·비교행정회의에서 유시를 통해 「농촌근대화」의 관건이 우리 농어민들의 자조·자립·협동의 노력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 「새마을운동」을 전국적으로 파급시켜야 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이 농촌근대화의 관건임을 단명하였다.

이리하여 「새마을운동」은 전국적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다시 72년 3월 7일 지방장관회의에서는 이 내용을 거듭 강조하고 「새마을운동」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자조·자립·협동의 「새마을운동」은 도시에서도 전개되어야 한다.

2. 「새마을운동」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무원, 농촌지도자 및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3. 「새마을운동」은 생산과 직결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 「새마을운동」은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의 정신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5. 「새마을운동」은 비생산적인 전래의 폐습을 퇴치하는 운동도 병행시켜야 한다.

6. 「새마을운동」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추진한다.

가. 자조·자립·협동의 기조 위에 자립정신이 투철한 농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나. 자원(自願)지도자, 독농가(篤農家) 중심으로 운영한다.

다. 주민의 숙원(宿願)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자원지도자에게 최대한의 재량을 부여하고 행정당국은 그 타당성을 확인, 책임지도해 나간다.

라. 시범사업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

7. 교육은 생산과 직결되어야 하며, 교사는 지역사회개발의 선구자가 되어야 하고 「민족의 스승」이 되어야 하며, 학교는 「새마을운동」의 「센터」로서의 구실을 다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박대통령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소신과 기본방침의 단명을 계

기로 「새마을운동」은 농촌이건 도시건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실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게 되었다.

박대통령은 그 뒤 온갖 정력과 관심을 「새마을운동」에 쏟아 왔으며, 기회있을 때마다 자조·자립·협동의 「새마을정신」을 강조하면서 이 운동의 구체적인 방향도 직접 시시해 왔다. 그리하여 박대통령은 지난 72년 4월 11일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새마을운동 지침」을 하달하였다.

1. 지금까지의 「새마을운동」은 부락민의 단결과 협동정신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그러한 협동심으로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 농번기에 들어서면 지금까지의 사업을 매듭짓고 생활향상과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도록 지도할 것.

2. 특히 농번기에는 협동과 단결심을 협동농업을 이룩하는데 기여토록 할 것.

3. 중앙에서는 「새마을운동」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파악,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감독하는 식의 지도는 하지 말 것.

4. 자기 고장의 능력에 알맞는 사업을 선택함으로써 자금염출에 무리한 일이 없도록 할 것.

1972년 5월 18일 광주에서 열렸던 「새마을 소득증대 촉진대회」에서 박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개념과 이념 및 전개방안 등에 관해 평소의 소신을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새마을운동」은 한 마디로 말해서 「잘 살기 운동」이다. 잘 산다는 것은

1. 무엇보다도 먼저 빈곤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2. 소득이 늘고 농촌이 부유해져서 보다 더 여유있고 품위있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알뜰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내 마을」을 이룩했을 때 우리는 잘 산다고 할 수 있다.

4. 또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잘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후손을 위해서 잘 사는 내 고장, 번영된 우리 조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박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조국근대화」의 행동철학이며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운동으로서 결국 「조국근대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범국민적인 일대 약진운동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개념과 기본철학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서 박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음 11개 사항을 지적하고, 「새마을운동」의 방향과 방법을 소상하게 밝혔다.

1. 공무원이나 주민이 사업성과에 대해 너무 성급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2. 이 운동은 반드시 농민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계도(啓導)되어야 한다.

3. 이 운동은 반드시 생산에 기여하고 소득증대에 직결되어야 한다.

4. 정부는 근면하고 자조정신이 강하며 협동정신이 왕성한 우수부락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침을 계속 밀고 나간다.

5. 정부는 자금, 기술, 계획 등의 지원과 아울러 농산물의 가격보장, 유통대책 등을 강구해서 농민들의 증산의욕을 북돋게 해야 한다.

6. 부락의 부녀층이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7. 탁월한 부락 지도자의 발굴과 양성에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8. 이 운동은 조국의 근대화와 통일이라는 우리 세대의 지상목표 달성을 위한 민족의 일대 약진운동으로서 모든 국민은 이를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나가야 한다.

9. 이 운동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해 나가야 한다.

10. 이 운동의 모든 사업은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 야무지고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11. 공무원은 이 운동에 앞장서고 지도하고 돕는데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리하여 박대통령의 조국근대화를 위한 신념 어린 이념은 마침내 온 국민의 가슴과 가슴에 메아리져 전파되고 자조·자립·협동의 「새마을운동」으로서 조국근대화를 위한 하나의 「국민혁명운동」으로 승화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3. 새마을운동의 개념

박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잘 살기 운동」이며, 「조국근대화의 행동철학」이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새마을운동」의 핵심을 그대로 찌른 말이다.

「새마을운동」이란 한 마디로 말해서 국민 각자가 자기개발, 자기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조국근대화를 기약하는 범국민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범국민적 노력은 국민 각자가 독립된 개체로서가 아니라 한 지역사회 협동체 내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동개발, 공동발전을 위한 협동노력으로서 경주됨을 필요로 한다. 이 점이 「새마을운동」의 한

특성이다.

개개인이 자기발전을 위해 개체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는 것은 인간활동의 보편적인 상태다. 이러한 보편적인 개인 노력을 지역사회 단위로 집결시켜 하나의 집단노력으로 지역사회발전, 지역사회개발을 추진하려는 것이 「새마을운동」인 것이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조적이며, 협동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 「새마을운동」이 「민간주도」의 지역사회개발이란 또 하나의 특성이 있다.

요컨대 민간주도의 지역사회개발운동인 「새마을운동」은 주민 각자가 곧 자기 개인의 발전과 생활향상을 목적하되, 그 노력의 방향과 방법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주민의 공동노력, 협동노력으로써 집단노력을 경주한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개인발전의 추구를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자발적이며 자조적이고 또한 자립의욕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새마을운동」에서 이러한 자조·자립정신의 개발이 관건(關鍵)적 요건으로 강조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때 「새마을운동」이란 지역사회주민의 자발적이며 자조적인 협동노력에 의해 주민들 스스로가 생활태도와 정신자세를 근대화하고 혁신하며,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환경을 발전, 개선해 나가는 민간주도의 지역사회개발운동이며, 사회혁신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지역사회주민, 즉 국민의 정신개발과 지역사회의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이며 자조적인 협동노력 경주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지역사회개발의 개념에서는 보통 경제개발과 사회개발만을 의미한다. 이 점이 「새마을운동」과 일반적인 지역사회개발 개념과 다른 점이다. 특히 여기서 그 특색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일반적 개념인 지역사회개발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파악해야 한다.

「새마을운동」이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개발을 목표로 한다는데 있어서는 일반적인 개념의 지역사회개발과 하등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그 성격상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즉 「새마을운동」은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사회개발에서는 성취될 수 없는 주민들의 정신개발과 생활태도 개선 문제를 기본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는 국민정신 건작과 사회혁신을 위한 하나의 국민

운동인 것이다.

일반적인 개념의 지역사회개발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책계획의 수행이지 운동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국가나 지역사회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인간정신의 개발문제가 정부의 지역사회개발계획을 통해서 다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일반적 개념의 지역사회개발과는 달리 자조와 자립과 협동의 정신, 그리고 근대정신을 함양하여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운동의 주체가 주민들이라는데서 정부가 주도하는 일반적인 지역사회개발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정부주도의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도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강조되고, 또 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인사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그 계획의 수립과 실시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예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주민들의 호응과 협조가 없는 지역사회개발계획이란 성공적인 추진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의 지역사회개발계획은 어디까지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이고 주민들은 협조자의 위치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이러한 지역사회개발계획에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정부주도의 지역사회개발계획이 갖는 이 한계성을 극복하고 한편에 있어서는 그것을 보완하면서 또 한편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밑바탕으로부터 개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이 「새마을운동」인 것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새로운 정신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낙후된 오늘의 모든 여건을 자기의 힘으로 개혁해 나가려고 하는 데에 「새마을운동」의 참다운 의의가 있는 것이며, 또한 「새마을운동」의 발전하는 힘이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바로 정부주도의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의 주민들의 입장과도 같이 하나의 지원자요 협조자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주민들이 스

스로 자조·자립·협동의 정신을 배양하고, 그 정신을 소득증대와 생활향상을 위해 구현해 나가는 자발적인 자기개혁운동인 동시에 사회개혁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마을운동」이야말로 새 한국의 국민이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운동」이며, 우리가 추진해야 할 「생산·건설운동」이며, 「생활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운동」으로서 결과적으로는 「국력배양운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일시적인 운동으로 끝맺는 운동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생활화되어야 할 운동인 것이다.

4. 결 론

「새마을운동」은 조국근대화를 위한 「민간주도의 지역사회 개발운동」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그것은 지역사회의 경제개발, 사회개발 및 정신개발을 성취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발의와 의욕으로 추진되는 자조·자립·협동운동이다.

이렇게 볼 때 「새마을운동」의 목표는 지역사회의 근대화며, 이를 더 세분하면 지역사회의 경제개발, 사회개발 및 지역주민의 정신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이 목표로 하는 이 세 가지 큰 실천과제는 현재로서는 너무 이상적인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허황된 꿈은 아니다. 근대화된 선진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조금만 노력한다면 조만간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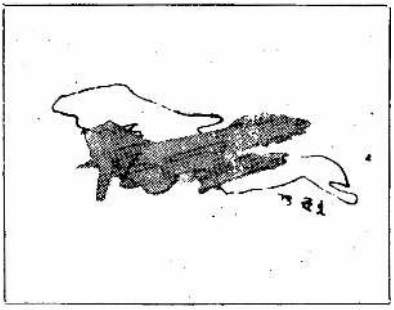
근대화는 「로스토우」교수가 지적한대로 「도약단계」까지가 어려운 것이지, 일단 그 단계를 넘어서면 자체 발전력의 가속화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빨리 발전하여 목표에 도달될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이런 의미에서 민족번영을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동노력이며, 조국근대화와 민족통일 기반 강화를 위한 「국민혁명운동」바로그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새마을운동」은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목표를 단계적으로 성취하여 모든 지역사회가 각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양상은 다르다 하더라도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 지역사회간의 개발격차나 산업부문별 소득격차를 줄여 개발과 소득의 균형화된 사회로 건설해나가는 사회혁신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조국근대화와 민족통일을 기약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의 참다운 길인 것이다. 그러므로 「새마을운동」은 조국근대화와 민족통일의 완수로 민족중흥을 기약하는 보다 원대한 목표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주국방의 정신적 기조

윤 종 현
<한국일보 논설위원>



〔1〕

이미 자주국방의 「슬로건」을 내건지 5년이 넘었다. 68년 적의 무장특공대가 서울에 침입했던 1·21사태에 자극되면서 그 대응책에 자주성이 필요함을 절감한 이래 이·목표는 우리 국방문제(정책, 방위태세, 방위력 증강과 그 질량 및 행동기준 등) 최고의 표상이자 의식내용으로 되어 왔다.

그 목표를 지향한 전진은 여러 모로 강조되었고 지금 역시 매우 열렬하다. 물량면(物量面)에서도 그렇거니와 정신적 접근은 특히 「악센트」를 강하게 붙이고 있는 것이다. 「1·21」과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으로부터 동해안 무장공비 침입(68년 10·11월)→EC/21 미해군 정찰기의 피격추락(69.4.15)→KAL기 피납(69.12.11)→북한집단의 전쟁준비 완료선언(70년 11월「노동당」제 5차 전당대회)→무장공비 또는 간첩의 계속 침투와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요새화(要塞化)추진→12·6 비상사태선포(71. 12. 6) 등 안보상의 중요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자주국방의 당위성, 긴요성이 수학(數學)의 공식처럼 선명한 결론을 맺곤 했었다. 그러나 아직 어떠한 목표고지도 제대로 점령하지 못한 게 우리 자

주국방의 솔직한 현실일듯 하다. 말하자면 「이미지」와 형식의 부작에 비하여 내실성은 목표와의 거리가 먼 그런 실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 뿐 아니다. 한때는 남북대화와 세계의 긴장완화 「무드」에 젖으면서 그 「템포」나 구호마저 「어필」하지 않는 허상(虛像)을 보이기도 했다. 당국의 정책은 지속되었다 해도 「캠페인펏치」나 국민의 의식개발작업은 둔화현상을 지금도 분명히 빚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자주국방의 목표달성이 그리 수월한 것은 아니다. 또 어느 한도가 과연 참다운 자주국방의 목표냐는 구분을 엄격히 가리는 것조차 실질적으론 거의 불가능한게 사실이다. 그 진도(進度)를 측정하는 척도도 보기에 따라 사람마다 다를 것이며 특히 의식구조 면에서의 진전이란 매우 유동적인 것이어서 더욱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목하진행중인 자주국방의 요건을 정신면으로 치중하면서 그 기조를 다시 한 번 다짐해 보려 한다.

〔2〕

자주국방의 정신적 기조를 옳게 찾는데는 몇 가지의 전제사항을 조용히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첫째는 자주국방의 개념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세계적으로 구구하다. 예컨대 방위능력면에 치중하여 자력방위(自力防衛)만이 자주국방이라고 풀이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체제를 중시하면서 무장중립(武裝中立)이나 단독방위(單獨防衛)를 내세우고 집단안보체제(集團安保體制)의 상호 의존성을 배제하려는 주장도 있다. 또 이런 자기중심적인 능력과 체제의 테두리를 훨씬 벗어나 오히려 자기 나라의 국리(國利)를 위하여 자기 의사로써 집단안보체제를 선택하고 상호의 방위력으로 국가안전을 보장하며 그 「파트너쉽」을 더욱 굳건하게 이끄는 자조의 자세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해석도 나왔다. 모두가 그 나라의 객관적 사정과 주체적 조건에다 논쟁자들 자신의 정치적 소견에서 오는 차이라고 보겠다.

우리의 경우는 이런 능력이나 체제의 관점에서보다 먼저 방위에 대한 주체의식부터 강조된 것이었다. 과거 20여년간 지나치게 남에게 의존하던 방위심정을 『내 나라는 내가 앞장서서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주체로 찾고 방위에 필요한 자기능력(수단)과 체제를 국력성장과 더불어 증진시키려는 지향점을 가진 것이다. 원래 자주국방이란 자기 나라를 지키는데 필요한 모든 결정을 자의대로 단행하고 결정된 방위방책을 실행

하는데 주체성을 발휘하는 두 과정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므로 자주적인 의지와 역량과 방법, 태세를 제대로 갖추고 항상 상응하게 작용시켜야 할 것이 제1의적 개념으로 요구된다. 설사 방위능력에서 완전자력성(完全自力性)을 갖추고 있다 하여도 그 방위방법과 태세가 남의 「강제」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자주적이라 할 수가 없다. 반대로 방위방법의 판단이나 결정을 아무리 자의에 따라 했다 해도 자기 실력이 전혀 없다면 자기의 방위의지를 피나가기 대우 힘들것도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 × ×

그렇다면 우리의 자주국방은 과연 어떤 체제와 내용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그 정신적 기조를 다짐키 위한 두번째의 전제로서 생각해야 할 사항은 이 점에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국방은 미·소와 같은 초강대국이라 하여도 「완전자력」이거나 「단독방위」체제같은 형태는 사실상 없다. 설사 그럴 능력은 있다손 치더라도 집단안보체제를 추구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며 실리적이어서 그런 것이다. 자주국방을 표방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공동방위·집단안보체제를 갖추면서 타력현상(他力現象)을 국민적 합의로 받아들여 자주국방의 개념으로 소화시키는 경향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자주국방의 「챔피언」처럼 평가되는 「이스라엘」도 무기는 역시 미국의 지원을 받거나 다른 우방으로부터 사들이는 형편이고 GNP(국민총생산)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자주국방도 「자력+미일안보」의 체제를 고수하는 노선에 한정시키는 추세이다.

국방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사정과 조건은 좀더 타력의 영향을 짙게 받아왔다. 군사력은 출발 당초부터 「외탁」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장비는 물론 전략전술개념, 편제, 교육훈련의 내용이 모두 미국의 지원과 방식에 의존되어 왔다. 「6·25」를 여러 전우국가들이 도와줬고 오늘도 한국방위의 책임이나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부와 그 사령관에게 또한 위임된 채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원하는 군원제공과 공동방위체제는 아직껏 확실히 우리 국방의 큰 기축(基軸)을 이루고 있으며 한국민 모두는 이런 체제를 배척하지 않을뿐 아니라 그 강화를 바라는데 합의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방위대상(防衛對象)에 관한 상황 역시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북한 공산집단은 단독전쟁의 능력을 갖췄고 전쟁준비완료를 공언하였다. 휴전 이후의 도발과 침투는 「전쟁직전」의 위험을 여

러차례 실감케 하는 것이었다. 평화를 위한 대화 중인데도 혁명전쟁에 의한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치 않고 있다. 국내 전쟁을 치를만한 군사, 정치, 경제, 사회적 자력체제는 다지고 또 다져 놓았다. 그 위에다 소련, 중공과 군사동맹을 체결, 유사시 자동지원체제(自動支援體制)까지 확립해 두었다.

문제상황을 이렇게 집약하면 우리의 자주국방이 「자주와 공동」의 「컴비」를 일차적인 형태로 삼아야 할 것을 수긍치 않을 수 없다. 즉 「자력(自力)과 타력(他力)의 공존(共存)」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공존」의 배분 위에서 자력의 면적을 가급적 급속히 그리고 최대한으로 확장시켜야 할 내용상의 명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정신, 물량, 체제 등 모든 면에서 최소한이나라 방위를 위한 자기의 의사와 수단이 협조적으로 통할만한 자력의 위치는 확보토록 분발할 일이다.

× × ×

내용상의 이 명제를 기필코 풀어야 할 필요성을 옳게 성찰할 일 또한 자주국방의 정신적 기조를 발굴하는 세번째의 선행요건일 것으로 믿어진다. 우방들의 원조는 날로 짜지며 「미니화」하고 있다. 「닉슨·독트린」은 방위의 자담(自擔)을 우리에게 강청하는 것이다. 다원화한 국제권력구조는 기존안보체제나 국가관계를 몹시 뒤흔들고 그에 따라 중소국가의 생존은 위협을 받기 쉽게 됐다. 자유중국은 그런 대표적 제물처럼 전락되었다. 강대국과 우방들은 점차 이기적으로 놀며 침략자를 제지할만한 국제적 역량은 사실상 증발된 상태이다.

냉엄한 이 변화는 자위를 위한 주체적 노력을 우리에게 강렬하게 채근하는 증조임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더 큰 국제권력정치의 주름살이 우리를 좌우하려 들거나 북의 공산침략자들이 다시금 전쟁의 불씨를 당기려 들지도 모른다는 사전 경종으로 새겨야 할 「상황판」이라 할 수도 있다.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이나 「남북한 유엔 가입」을 거부하며 선통일(先統一) 후가입(後加入)노선을 고집하는 북의 방자스런 동향은 새로운 전쟁도발의 먼 포석으로서 주시돼야 한다.

그들은 한국 내의 「외군철수」를 시종 발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를 뒤집어 새기면 「외군만 철수하면 보자」 하는 음흉한 계산의 표현인 것이다. 우리의 자주국방력은 아주 얕잡아 보며 외세만을 적화통일의 제일 큰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는 셈이다. 넘겨다 보는듯한 적의 이 흉악한 계산처럼 우리가 똑똑히

명심해야 할 대목은 더 없을 것이다. 그것을 북의 오산이라 치더라도 자력에 취약성을 가진 우리 방위력 보강의 촉진 재료로 삼아야 할 것만은 틀림없겠다.

오늘의 방위력은 전쟁발생 후의 대처력(對處力)으로보다 사전 억지력(抑止力)으로서의 효과를 더 뚜렷이 발휘케 해야 한다. 또 참다운 국방력이란 적의 전쟁기도를 그 위력으로 미리 꺾고 흡수하여 평화로우며 안전한 현상을 유지함과 동시에 복지국가로서의 발전적 진운을 보장해야 한다. 이 점에서 국방력은 가위 독립국가의 긍지요 생명이요 척추라 하는 것이다.

발전의 온갖 추세로 보아 우리는 그만한 실력을 불원 구축케 될 일보 직전에 다가서 있다. 60만 이상의 대 군사력을 근 20년간 운영하였다. 현대화 계획이 진전 중이고 국방비도 거의 자담할 단계에 이르렀다. 병력의 잠재능력이 지보다 월등하거니와 예비군 2백50만이 언제든지 실존하고 있다. 놀라운 경제 성장도와 함께 자기방위를 위한 물량능력이 축적 돼가며, 방위산업 및 중요 연관산업의 진도를 따라 「자기병기」의 국산화 전망도 분명하다. 국력을 배양하는 온갖 분야의 건설성과 사회의 건전성이 조화 돼가는 가운데 자위의 실력과 신념을 십분 부풀일 수 있는 운세 위에서 우리는 국방자위화(國防自衛化)의 명제에 따른 정신적 근저를 다짐받고 있는 것이다.

〔3〕

다짐해야 할 첫 대목은 틀림없이 주체의식이다. 방위의 주인이자 담당자가 곧바로 자기임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의타심, 의존심, 안일감, 무관심 등을 청산케 된다. 또 이 정신이 연장되어 국방을 위한 책임감, 사명감, 참여의식과 자발성은 발동되게 마련이다. 옛과는 달리 현대의 국방은 국민적국방(國民的國防)임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국방은 어느 전문가만의 전담영역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그 주체인 것이다. 이를 이웃이나 남의 나라 사람에게 위탁하려든다는 생각처럼 그릇된 위험은 없는 것이다. 방위를 남에게 의존하는 한 위협판단이나 방위력의 규모 및 그 대비책에 대한 자기의사와 자기 방법이 통할 리 없으며 따라서 자주국방은 초보부터 좌절되게 마련이다.

주인으로서 둘째번으로 키워야 할 정신적 대목은 자조에 있을 것이다. 남의 도움을 바라기에 앞서 제 일은 제가 먼저 하되 최선과 전력을 다 할 것이며 이, 떠한 난관이나 장애가 있더라도 우선 자

기부터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고방식과 행동규범을 찾자는 것이다. 자조하는 마음과 모습이 이처럼 철저할 때 남들은 우리의 부족을 도우러 나설 것이고 그런 실행이 없을 경우는 우리 집에 불이 나도 비웃음과 핀잔만 주려 할뿐 티끌만한 원조도 베풀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자주국방이 「자력과 타력」의 공존을 형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 자조의 실적처럼 귀중한 타력유도의 자본은 더없음이 자명하다.

세째론 협동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안으로는 전국민적인 자주국방과 총력안보태세를 갖추고 밖으로는 집단안보 이념과 체제를 연장하려면 자주성을 간직하면서도 상호협조심과 유대감각을 더욱 짙게 해야 한다. 주체성이나 자주의식을 잘못 발산하여 부질없는 배타성과 자존심 따위에 사로잡히면 「자주+공동」이어야 할 우리 자주국방의 현실적 형태나 그 속에서 자력의 면적을 우리 힘으로 넓혀가야 할 내용마저 파산시키기 쉽다. 앞에 말한 「자조」와 함께 「협동」이 바로 집단안보체제의 정신적 기조라고 하는 까닭은 이런 데서 알아차릴 수 있다.

방위가치와 목표로서의 민주이념에 철(徹)할 것을 네번째로 잊지 말아야 하겠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분명히 민주한국이다. 즉 주권재민의 민주공화체제를 방위하려는 것이며 그 때문에 주인인 국민의 자제로서 뽑혀 나서 국방임무를 다하고 있다. 옛날과 같은 나라의 군주체제나 공산독재국가 따위를 방위의 가치로 생각할 수는 꿈에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공산침략으로부터 확고하게 수호하려는 것이 바꿀 수 없는 국방의 목표이고 이를 풀어서 생각하면 나라의 민주주의적 체제와 주권 그리고 생명, 재산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오늘과 같은 민주주의적 생활양식을 지켜야 할 것을 그 가치의 내용으로 삼는다. 이 방위가치에 대한 투철한 주관이나 인식이 없는 한 자주국방을 위한 정신적 활력이 풍성하고 줄기차게 솟아날 수는 없는 것이다.

좀더 우리다워지려는 진전성·진실성을 다섯번째의 기조로 삼았으면 한다. 남에게 매달렸던 때문이긴 하겠지만 이제까지의 방위는 너무나 남을 모방하고 남을 따르며 자기 실정을 2차적으로 돌린 흠이 없지 않다. 이를 갱신하면서 우리 환경과 조건과 국정에 맞는 방향으로 전환을 주저치 말아야 할 일이다. 군으로 말하자면 전략전술교리로부터 편제, 장비, 시설, 교육훈련의 내용에 있어서 자기 몸체와 체질을 더 가미해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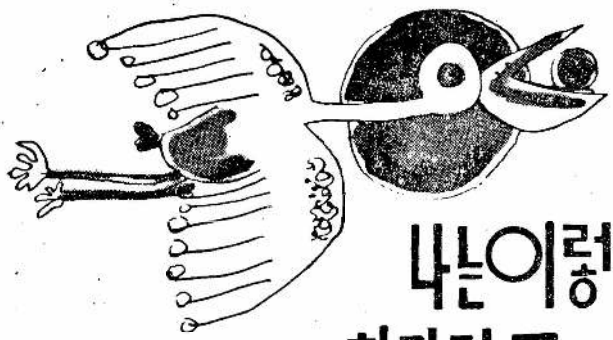
것이고 일반으로 치자면 검소, 절약생산에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여건하에서 모자라는 국력을 증강하기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는 기풍같은 것을 진작시켜야 한다. 연구개발심과 창의성을 급속히 길러야 할 것은 자주국방의 여섯째 기조로서 매우 절실해지고 있다. 우리다운 건전한 기풍을 일으키는데도 그렇거니와 특히 과학기술력, 산업력, 공업력을 향상시켜 나라의 물량적 자주국방력을 증진케 하는 주요한 원동력이 다름 아닌 이 연구심과 창의성에서 발생되기 때문이다.

상대보다 훨씬 전향적(前向的)이며 억척스럽고 악착스러운 집착성과 적개심을 불태우도록 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이 성향에 있어서 지난 날 우리는 항상 너무 추종적이었다. 상대는 우리를 기어이 쳐부수려 하고 있다. 그렇기에 모든 면이 공세적이고 전향적이다. 방위를 위주로 하는 민주국방의 본질에 따라 우리가 선공적(先攻的)인 심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하여도 그 방위에 있어서나마 「공세적」인 기질과 침략자를 악착스럽게 제압하고 말려는 집착성 적개심은 강해야 한다. 반공적개심이 없는 방위임무란 우리 처지에선 존재할 소지가 없겠고 집착심이 굳세지 못할진댄 승리의 영광을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4〕

이 모든 국방상의 정신적 보루(保壘)는 결코 남으로부터 이양받거나 이식될 수가 없다. 오로지 스스로의 마음에서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을 뿐인 것이다. 따라서 자주국방의 장래는 첫째로도 둘째로도 세째로도 「너와 나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소론으로 귀결될 따름이다. 물량이 자력으로 갖추어졌다 해서 자주국방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모자라는 물량을 채우고 생산된 물량을 조작하며 방위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을 달성케 하는 것은 오직 사람의 정신을 구체화시킨 의사와 의지와 결의 뿐인 것이다.

새삼 강조할 필요까진 없겠지만 자주국방의 진로는 확실히 매력적인 것이며 장차의 우리 안보귀추는 그 길다짐으로써만 평탄한 언덕 위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자의 정신적 자세도 그러해야 하겠거니와 국민 전체로서의 정신적 일체성을 바짝 다잡아야 할 구심점 또한 있지 말아야 하겠다. 우리 자각과 정치의 「리더쉽」이 이런 방향을 유도하며 조화시켜야 할 것은 부인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또 유신의 「리듬」과 호흡이 일치할 것임도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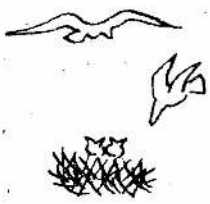
나는 이렇게 한마디를…

□……우리 공군은 자주국방의 전위로서 조국영공을 수호하는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정예공군을 이룩하기 위해 적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 보다 나은 공군의 발전을 바라는 역대 참모총장의 후배 보라매들에 주는 조언을 듣는다. <편집실>……□

김 정 렬

<초대 · 3대 참모총장
현 삼성물산 사장>



지난 8월 9일 성우구락부 회원과 함께 공군에서 내준 DC-4를 타고 대구비행장에 내렸다. 3년만에 보는 대구기지는 더 일층 커진 것같고 전에 보지 못했던 여러 건물들이 눈에 띄었다. 기지을 일주하고 팬텀전투기 앞에서 기능에 대한 여러가지 설명을

들었다. 전에는 대형 폭격기에도 싣기 어려웠던 다량의 폭탄과 로케트, 기관포 등을 한 개의 전투기에 싣고 천후에 구애됨이 없이 날아갈 수 있는 이 기막힌 괴물 앞에서 난 순간적으로 26년 전 한 대의 비행기도 없고 공군도 아직 창설되지 않았던 그 시절 "공중 방어력이 없이는 국방이 없다"라고 절규하던 공군의 선각자들의 얼굴이 머리를 스쳐갔다.

이젠 소위 공군창설 7인이라고 불리우는 최 용덕, 이 영무, 장 덕창, 박 범집, 이 근석, 김 영환 각 장군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나만이 홀로 남아있으니 지나간 우리 공군의 비화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게 됐다. 오늘의 공군은 일조일석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이는 과거의 피땀나는 선배들의 노력의 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기회있을 적마다 하나 둘 정확한 옛얘기를 해두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자각하고 오늘은 공군사관학교 창설 당시의 얘기를 할까 한다.

공군사관학교는 1949년에 2월에 육군항공사관학교로 출발하였다. 그 10개월 전(1948년 4월)에 공군창설 7인이 백의종군으로 보병학교에 입교하고 그 4개월 후(1948년 8월 15일)에 미군정 3년의 종결을 보고 대한민국이 수립됨에 따라 육군산하에 항공 사령부가 설치되고 10대의 L-4(현재의 L-19보다 작은 연락기)를 수령하고 그 2개월 후인 1948년 10월에는 여수, 순천사변이 발생하여 전력으로 진압작전에 참가하였다.

육군항공사령부라는 명칭은 그럴싸하였으나 그 내막은 사령부 예하에 비행부대와 기지부대만이 있었고 과거의 경력을 인정받아 장교에 특별임관한 30명과 하사관 사병을 합쳐 300명 밖에 없었고 비행기는 경비행기 10대 뿐이었다. 또한 교육기관이란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 해방 때에 주둔하였던 미군도 육군 고문단 500명만 남기고 철퇴를 시작하였고, 우리 육군도 말로는 6개 여단이라고 했으나 그 실은 6개 연대에 불과하였고 해군도 연안경비에 수척의 선박을 갖고 있었을 뿐 국

방력이 매우 미약한 때라 육군에 존속하는 육군경비행대를 확장 강화하여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국방부나 육군본부에 거의 없었다. 그런데 육군항공사령부를 구성하고 있는 약 330명의 사람들은 전부가 해방 전 국내 국외에서 공군이나 민간항공에 종사하였던 우수한 항공 기술자였고 비록 정식장교로서 교육과정을 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장차 공군이 확장될 경우에는 정부가 장교로서, 군의 간부가 될 사람이므로 단기간의 장교 교육을 마친 후에 임관시키기 위해서는 태능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특별반을 만들어 항공간부를 받아 줄 것을 전의하였으나 부결되고 말았다.

그러나 거절되었다고 가만있을 공군 창설자들이 아니었다. 재차 삼차 노력하다가 좌절되자 그러면 독자적으로 육군항공사령부 내에 항공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소유하고 있는 항공기술자들을 3개월 내지 6개월의 간부교육으로 임관시키는 과정과 장래를 위하여 4년제 사관 후부생의 과정을 두기로 하였다. 그러나 역시 설치 인가는 필요하였으므로 그 인가를 받기 위하여 마치 운동시합에서 선수들이 각자 상대편을 분담하여 마크하는 것과 같이 창설 간부들은 각자가 교섭하는 상대를 분담하여 설득에 나섰던 것이다.

태능에 있는 사관학교 외에 또 무슨 사관학교냐 하며 일소에 부쳐버리는 그 험악한 공기 속에 공군창설자들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설득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던 중에 상선출신의 신성모 국방장관과 손 원일 해군참모총장의 지원을 얻게 되어 마침 공군의 대표적으로 계시던 국방차관 최용덕 장군의 측면 지원이 있었고 최후로 당시의 육군 참모총장 채 병덕 장군을 본인과 형제지간에 있던 우의를 백분 이용 기어이 합락시켜서 설치명령을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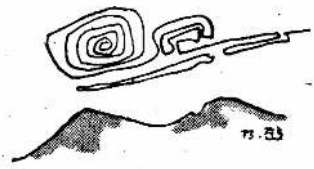
장소는 김포비행장 외각에 있던 미군이 사용하다 간 병사로 정하고, 학생 수용능력은 4년제 100명, 단기소집 장교학생 30명 규모로 하고 예산에 없던 관계로 신설비용으론 책상과 걸상 100개 밖에 살 수 없는,

적은 특별 예비비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박 원석장군(당시 소령, 현 유공사장)을 교수부장, 전 명섭 장군(당시 대위, 현 KAL 전무)을 학생대장, 고 서 한호 대령을 지원부대인 교육대장으로 임명하였다. 교수진은 그 당시의 대학교 교수 중 최고 석학을 망라하게끔, 김 석환 대위가 주로 수고하여, 유 진호씨, 박 순음씨, 김 도태씨, 김 안서씨, 육 지수씨, 장 발씨, 김 성태씨, 이 종찬씨 등을 모시게 되었다. 그리하여 엄격한 입학시험을 실시하여 제 1 기생 입학을 기다렸다.

드디어 지금부터 25년 전 1949년 4월에 일등으로 합격한 김 중보 후보생을 필두로 윤 영환, 윤 자중, 이 희곤 등 활기에 차고 씩씩한 후부생 100명의 입교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김 창 규

<제 5 대 참모총장
현 국회의원>



한 나라가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군대를 육성하는 이유는 나라의 이익과 나라의 의지의 안전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인간사회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이익과 의지를 존중함과 같이 다른 나라의 이익과 의지를 존중하고, 폭력을 쓰지 않고 국제신의에 의해서 서로 번영의 길을 트기 위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제사회가 이루어지는 날은 아직도 먼 장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경제건설을 희생해가면서 방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은 북녘의 막강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면서

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내일의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 위한 것이다.

우리 군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이다. 국가나 국민이 군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가를 생각하며 그 뜻에 맞도록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여기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몇 가지 생각해보려고 한다.

첫째, 국민이 믿고 존경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10년 동안 평화로울 때에 군대를 양성한다는 것은 하루 아침 유사시에 필요한 그 날을 위해서 어떠한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전력을 가져야만 믿을 수 있고, 한편 그들의 행동과 생각이 오로지 겨레를 생각하고 역사적인 사명을 다할 때 젊음의 불살음을 보람되게 생각하는 순수한 그 자세만이 국민의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만 우리의 이익과 의지가 보전되어 후세에 대하여 그런대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간을 존중하여 명랑하고 능률적인 군대가 되어야 한다. 군을 구성하는 각 개인은 계급과 직책이 다르나 다같이 없어서도 안 될 귀중한 전력이다. 서로의 직책을 존중하는 동시에 그 인간을 아끼고 엄연한 군기를 세우면서도 따뜻한 골육지정이 흐른다면 그 군대는 명랑하고 굳건한 단결(團結)을 이룩할 것이다. 자식을 군대에 내어보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각자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같은 군에서 생사를 같이 하고 있는 인연을 생각해본다면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여 항상 명랑하고 군에 참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일의 능률이 오르고 군인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게 되니 이 얼마나 흐뭇한 일인가.

이러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면 무리한 일, 고통스러운 일이 어렵지 않게 극복되고 명령이 계획될 때, 명령이 실천될 때 또 실천된 결과가 순리에 의하여 부자연이 없고 항상 만족되게 이루어짐으로써 어떠한 적(敵)에 대해서도 꺾이지 않는 막강한 군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몇 배의 적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이스라엘」군대가 강한 이유(理由)를 물었듯이 「이스라엘」국회의 외무국방위원장의 대답이 「비행기나 탱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싸우는 것이지요」 한 대화가 기억에 남는다. 아끼고 존중을 받는 군인이 참으로 자기 사명을 느끼고 마음 속에서 우러나서 사명을 다 하기를 기약하는자 앞에 패배는 결코 없을 것이다.

세째, 정직하고 정열적이라야 한다. 군에서는 추호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많은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 많음으로 사람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거짓은 있을 수 없다. 특히 오늘날 고도한 과학과 기계의 발전은 더욱 이 거짓이 용납될 수 없다. 한편 배워야 할 일, 해야 할 일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호랑이가 백수(百獸)의 왕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것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에도 전심전력을 다하여 실패하는 일이 없음으로 연유된 말임을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한다. 신임하고 맡기고, 맡기고 안심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영국(英國)의 처칠경이 말하기를 「한 나라의 청년이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열성만 있다면 그 나라는 결코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마음과 행동을 정직하게 하고 항상 부지런하게 일하고 열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전심전력으로 수행해 나간다면 아무도 그들을 넘보지 못할 것이요, 그들의 의지(意志)를 꺾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럼으로만이 나라는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약속한다.

이상 몇 가지는 내가 그린 오늘의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군인의 모습들이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군을 아끼고, 군에 참여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서 배우고 실천한 것이 사회에 크게 기여할 때 우리의 안전과 번영이 더욱 크게 확대되고 길이 역사를 빛낼 수 있을 것이다.

장 성 환

<제 7 대 참모총장
현 한국 디자인포장센터 이사장>

공군을 떠난지 10여년의 세월이 흐르고 당시와 비교하면 우리 공군은 초창기의 보잘 것 없는 장비면에서 우수한 작전기술과 장비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공군으로서의 국방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확고부동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되며 각급 전투요원은 공군창설과 6·25 당시부터 계속 공군의 발전과 전력강화를 위하여 노력해 온 장병들이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된다.

지금의 국제정세는 60년대의 동서냉전 시대에서부터 그 방향을 달리하여 70년대에는 긴장완화 평화모색으로 평화를 유지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나. 그 중에서도 세력 균형이라는 물리적 원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과 경제적인 원인도 그 요인의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요인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한반도에 있어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력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면 우리는 우선 우리의 안전보장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총력안보태세를 완비했으며 국방을 지원하고 우리 정치, 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력의 배양이 필요하였다. 이것은 생산 수출증대로서 농어촌 소득 증대사업과 동시에 중화학공업의 개발로서 수출을 매년 증대해 국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내다보는 1980년대의 한국은 소득이 1,000불 100억불 수출을 목표하고 있으며 경제, 사회적으로 크게 발전 성장해 나갈 시대로 본다. 또 이러한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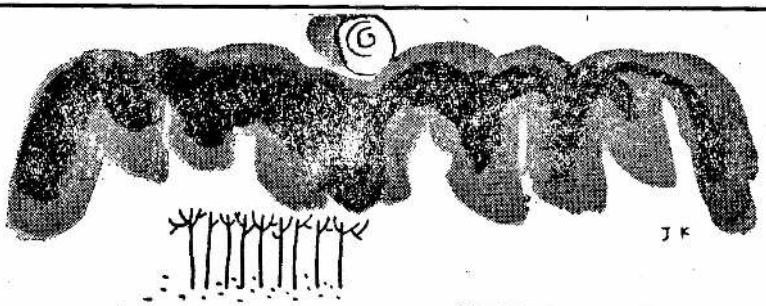
력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의 외교정책도 그간 많이 변천되어 왔다. 그것은 오늘의 국제정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국제정세하에서 지난 날과 같이 무조건 공산사회 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외교정책에서 많이 수정이 되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를 용인한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더욱 경계해야 할 점도 있을 것이다. 지난 6·23 선언 이래 우리는 평화를 기초로 한 현실외교정책으로서 전환돼 가고 있으며 우리는 UN에 있어서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한다는 것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국제협력상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많은 발전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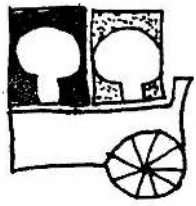
근래에 와서 온 세계는 자원전쟁과 같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석유 수출국의 정치적 작용, 원자재의 확보 등에 고심하는 나라, 식량문제 등등 국제경제의 동향은 참으로 미묘하고도 많은 난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경제발전에 최우선권을 두고 국력배양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이 시기는 우리의 민족중흥을 이루어야 할 절호의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더 말할 것도 없이 각기 자기 직책을 완수하는 것이 고도로 분업화된 현 사회에서 국민총력을 이루는 첩경이라고 생각할 때 경애하는 공군의 장병 여러분들은 전국민이 아무 걱정 없이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방임무수행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크게 기대하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국민에 대한 봉사요, 국가사회에 대한 고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충심으로 건투를 빌며 많은 성공 있으시기를 축원하는 바이다.



수 필

조 화



양 문 경

사람은 싫든 좋든 조직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 조직은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다양하고 자기의 지식, 기술, 취미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직 속에 소속되어 행동(Behavior)해 나가는 것이 곧 생활이다.

공군이라는 조직(좋아서 들어왔음)은 그것이 갖는 특수한 목적 내지는 목표를 갖고 있고 이것을 위해 장병이 행동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있는 곳에 행동이 있고, 행동이 있는 곳에는 조화되는 행동과 부조화되는 행동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난다.

A병장, 그는 3년전 제대하여 제약회사 계장으로 있다. 제대 후 처음 만난 A병장 아니 A계장의 첫마디, "공군에서의 3년생활이 고생도 더러 있었지만 내무반생활 그리고 일과중 생활이 보람있었고 재미있었읍니다"

B병장, 2년전 제대하여 건축회사에서 막노동하는 노무자가 하는 첫 이야기,

"장교님 그때 있던 A대위 그리고 선임하사 아직도 제대 안 했읍니까? 한번 만나면 욕 한번 해야겠읍니다"

"어떻게 돼서?"

"말도 마십시오. 그 A대위와 선임하사가 어떻게 못살게 굴었던지 군대생활하면서 신물났읍니다"

A, B병장이 공군에서 생활했던 내

용들이 다소 양상은 다르나 현재 우리 장병이 하는 생활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A병장은 조화되는 행동으로 살아온 생활이고, B병장은 부조화의 생활인 것 같다. 그런데 부조화의 행동(상하간 동료간)은 대개 상대방을 이해못하는데서 오는 것 같고 자기의 일방적 생각과 판단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행동에서 오는것이아닐까?

A병장(A계장) 혼자만 전전한 행동, 조화있는 행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 그 상관과 동료들도 조화있는 행동임에 틀림없을 것 같다. B병장, B병장의 불만은 B병장 혼자만의 행동이 잘못데에서 온 것일까? A대위 그리고 선임하사의 행동만이 꼭 옳았을까? 생각해 볼 문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욕구(Need)가 있다. 장교는 장교대로 하사관은 하사관대로 그리고 병은 병대로 장교는 사병들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사병은 사병대로 상관을 받들고 충실히 근무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곧 조화있는 행동이고 그렇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그런 행동을 요구한다면 부조화의 싹은 이미 커져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타인 (상하간의 관계)도 하고 싶고 내가 하기 싫은 것(힘든 일)은 남도 하기 싫을 것이다. 그런데 싫은 것은 남에게 좋은 것은 내가 하는 사고방식과 행동이 바로 부조화의 원인이 아닐까? 우리는 공군의 일원들이다.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고 힘들다. 상하간에 상호 이해 그리고 행동의 조화가 요구된다.

군은 특히 생활조건이 불편하다. 불편하다고 불만만을 품고 생활한다든지 더 나아가 그 불만을 타인에게 방출하고 행동하여 나가면 행동의 조화는 더욱 힘들고 마찰만 점증되어 갈 뿐이다. 상관은 모름지기 부하를 아끼고 부하는 상관을 존경하고 받들어 나가는 행동이 곧 조화있는 생활이다. 오늘날 우리사회(공군)에서 아쉬운 행동이 바로 조화있는 행동이 아닐까?

<공군대학>

한 인간으로서의 군인

조 정 기

인생과 군인이라는 것. 나는 때때로

생각한다.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 "참다운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 것인가. 나는 우연히 태어난 것인가? 신의 각본에 의해 탄생된 것일까? 한없이 많은 생각의 흐름이 스쳐 지나간다. 나는 되어진 존재이냐? 아니면 되어지는 존재인가? 희랍의 철학자 한분이 자기 스승인 Herok Leitos에게 인생이 무어냐고 물었을 때 답변하기를 나에게 묻지 말고 Logos에게 물어라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성되어 간다고 말하였다. 모든 것이 변하여 가지만 그 밑바닥에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 이것이 바로 Logos이다. Logos라고 하는 말은 Welt Vermunft 즉 Welt는 "세계" 또는 도란 뜻이다. Vermunft는 이성이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성과 도(道)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문의 소리가 계속해서 일어나곤 한다. 여하간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대한 전체적, 직관적, 통일적 사고방식을 말한다. 반드시 종교철학이라 할 필요는 없지만 인생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근본적 가치에 체험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자연철학이나 종교철학의 문제에 치중된다. 따라서 염세관과 낙천관, 유물론과 유신론,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합리론과 경험론, 범신론과 유신론 등 철학상 종교상 여러 경우는 그에 대한 인생관을 세우고 또한 그러한 인생관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견지에서 인생관을 기술하여 본다면,

첫째, 인간은 관심이다.

인간은 세계 안에 있다. 물체가 상자 속에 있는 양식으로가 아니라 세계와 끊임 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나"와 "나"를 둘러 싸고 있는 세계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 "내" 주위에 둘러 싸인 모든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띄우면서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밝고 둥근 달이 떠 오를 때 "나"를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나"와 대화를 나누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임"으로서 따스한 담소를 나눌 것이며 쓰라린 고통을 지닌 어떤 사람은 삼대 독자 외아들의 싸늘한 시체를 안고 무덤을 향하여 갈 때 한없이 차갑고 애처러운 달빛의 촉감이 아니겠는가. 또한 도둑질하는 사람은 남의 집 담을 넘을 때 너무나 환하게 비추어 준다면 얼마나 원망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겠는가. 여하간에 삼태만상의 인간의 감정이 가지각색으로 의미를 띄고 드러나지 않는가? 따라서 인간은 언제나 관심으로서 자기 세계에 교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인생은 노력이다. 인간은 단순하지가 않다. 그것은 인간이 기계가 아님을 말한다. 인간은 인간의 내부에 언제나 하나의 투쟁이 자리잡고 있다. 단일화 하려고 하는 의지에 저항하려는 무의지의 힘이 있다. 인간의 투쟁은 이 저항을 극복하려는 경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력은 의지와 타의지의 모순을 지양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투쟁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은 우주의 모든 존재, 즉 의지적 존재와 무의지적 존재에 대한 평화스러운 동의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의식이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과 대항의식으로 분류된다. 이는 두 양식의 공존을 뜻한다. 대항 의식은 자의식에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이 의식의 본질은 반성(Rejlemion)인데 반성이란 그 무엇으로 거리를 취함을 말한다. 동물은 비록 동물적 의식이 있다 해도 사물로부터 거리를 취할줄 모른다. 인간의 의식은 사물로부터 거리를 취하여 다시 그 사물을 이름 지을 줄 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으로부터 해방이며 또한 자연 그 자체에 가까와지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꽃을 꽃이라고 명명한 것을 인간이 꽃으로부터 거리를 취했기 때문이고 또 그러한 명명은 꽃의 세계에 또다시 가까와짐을 뜻한다.

또한 인간은 사랑을 말한다.

사랑이 본능적 결과라면 동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만족 이상의 것이다. 만족은 하나의 포만상태로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닫혀진 영혼의 상태이다. 사랑은 하나의 열려진 영혼이다. 그것은 사람이란 바로 하나의 Emotion이며 Emotion은 자기를 벗어나는 움직임을 주는 것이다. 자기를 벗어난다는 것은 자기 위로 자신을 창조하기 위함이다.

또한 인간은 정신이다.

인간의 정신은 현존이고 영원하다. 왜냐하면 정신적 정신의 사랑은 시간을 넘어서 언제나 현존으로서 나의 곁에 나와 함께 있고 수만리의 공간을 무시하고 바로 여기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러한 현존을 느끼고 또 현존에 의하여 스스로 커가고 있기에 인간의 인간다움은 바로 현존의 정신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한 인간으로서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군인은 사회의 한 계층이다.

그 계층의 인간들의 관심은 바로 나의 조국을 방위함에 있다. 이 조국은 어떤 정치적 체계에서 나온 국가의 제

도와 국가자체라기보다 오히려 내 고향에 대한 나의 정열에서이다.

또한 군인의 관심은 자기고향이 그리고 자기의 형제가 타국의 이기심에 신음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투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군인은 용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용기는 군인이 불합리한 행위 즉 비겁을 택하지 않는데서, "만용"을 택하지 않는데서 생긴다. 용기는 의지의 힘이 그 발단인데 의지의 게으름이 모든 악의 시원이라면 악을 경멸하고 정의를 사랑함에 있다. 또한 군인은 본능적 행동은 금물이다. 본능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거리를 취할줄 모르는 동물의 세계이다. 군인은 지적 사유를 하여야 한다. 용기가 지적사유를 동반하지 않을 때 그 용기는 만용이 되기 쉽고 거칠고 파괴적이다. 군인의 영혼은 견고하고 부드러워야 한다. 견고함과 부드러움은 정의의 치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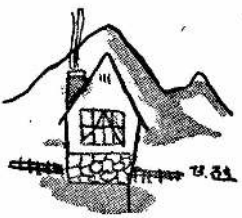
또한 군인은 질서를 지키고 계급을 존중한다.

결코 어떤 형식하에 타성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위계급을 노예의식으로 생각함은 오만과 불종을 낳는다. 계급은 만족의 표시가 아니라, 모든 사회를 통제하고 창조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사랑의 표시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군인의 정신은 평화를 사랑하는 정신이어야 한다. 군인은 투쟁을 일으키는 극열화된 흥분에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방지하려는 선의의 인간들의 단결에서 살찌는 것이다. 평화를 수호하려는 선의의 정신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지금도 하나의 현존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다.

<공군대학>

결혼과 예물



허 양 길

아침 저녁으로 싸늘한 감촉을 느끼는 계절이 시작된다. 경포대 따가운 모래밭에서 이글대던 여름 햇빛을 받으며 몸둥어릴 딩굴리던 날이 엊그제 같다. 세월을 막연히 빠르다고만 표현할 수 없음을 느낀다. 기다리는 오늘은 이렇게 지루하면서도 가버린 날 뒤에 오늘을 생각하면 다시 세월이 빨랐음을 느끼게 될 것이 아닌가. 느리면서도 빠른 것, 그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세월일지도

모른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린 것이다. 세월이 느리게 생각될 때 끝내 그곳에선 오늘에 성실치 못함을 반견할 수도 있으리라……

오늘의 이 가을도 가면, 겨울. 뒤이어 봄날이 오는, 평범한 그것을 다른 하나 비범한 것으로 돌려 생각해보는 마음의 여유라도 갖자.

어느덧 신접살이를 차린지 5년여. 한창 결혼의 계절에 접어들고 있기에 필자의 결혼식을 회상해 보며 결혼과 예물에 대한 소견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결혼식은 일생에 한 번 밖에 없는 것이라 하여 누구나 성대히 지내려는 것이 젊은이들의 꿈인 것이다. 물론 형편이 허락한다면 그 경사스러운 날을 마음껏 친지, 동료들과 함께 한껏 축하의 분위기 속에서 즐기게 된다면 더 이상 좋은 일은 없으리라.

그러나 범 국민적으로 새마을 사업과 유신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형편이 넉넉하다 할지라도 자신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안다. 이미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예식절차는 많이 간소화되고 있으나 예식 자체의 비용이나 결혼예물 준비 등에 있어서는 아직도 당사자나 부모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형편이다. 남자는 여자에게 반드시 다이아몬드 반지를 예물로 주어야 하며 여자는 받아야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릇된 생각이다. 또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자측은 반드시 텔리비전, 냉장고, 티크장농 등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품목으로 되어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빚을 내어서라도 충당하는 것을 부질없는 체면과 허례허식에 빠진 낡은 사상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편견일까?

참으로 상대방을 아끼며 일생의 반려자로 생각한다면 그까짓 예물이 무슨 소용이 되겠는가. 설령 값비싼 예물을 마련할 여유가 있더라도 그 비용을 신접살이에 보탠다면 더 아담한 보금자리가 되리라고 믿는다. 지난 5월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예식장마다 대혼잡을 이루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6월 1일부터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뜻대로 예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앞당겨 해치워야겠다는 뜻에서 서두른 모양인데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었다. 선진 제국에서는 대부분의 결혼예식이 간소하게 행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들은 일찍부터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있는데도 이유가 있겠으나 결혼예물 준비에 있어서도 자기분수에 맞도록 하겠다는 생각에서

일 것이다. 분수 이상의 것을 바라는 데서 불행이 싹트게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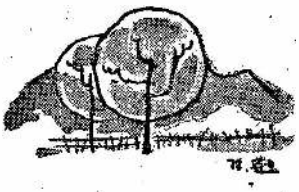
아가씨들이 끼고 다니는 반지 중에서 여인은 공군 가족이거나, 애인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반지가 있다. 이름하여 「캐노피 반지」. 영내 사병들이 즐겨 만드는 반지다. 필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보겠다는 일념에서 결혼예물 반지를 그 반지로 택할 것을 결심하고 손수 똑같은 모양으로 두개를 만들었다.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관을 굽히지 않고 추진하였다. 예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식절차도 당시에는 가정의례 준칙도 없었지만 지금의 가정의례 절차보다 더 간소하게 했다. 신랑은 중위 계급장이 달린 동정복, 신부는 흰 치마저고리에 미사수건을 쓰고 군종신부님의 주례로 성당에서 간소하게 예식을 끝내고 기념촬영은 카메라로 하고 신혼여행 없이 곧장 신부 자택으로 향했다.

결혼식을 하기 위한 총 비용은 1만원이 들었는데 축하금이 7만원 접수되었다. 비용을 제하고 6만원으로 조그마한 전세방 한칸을 구하고 68년 12월 7일 예식을 했는데 10일날 부대에 돌려 봉급을 수령하여 부엌용품 몇가지와 쌀을 구입하여 신접살이가 시작되었다. 이듬해 1월부터 1년에 5만원짜리 적금으로부터 저금 통장을 갖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 후 이제까지 빈틈없는 가계를 이어 오는 동안 지금에 와서는 1남 1녀를 둔 부모로서 전세방도 6만원에서 40만원으로 승격이 되었으며 살림살이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마련됐다. 만약 결혼식을 무리하게 치루고 신혼여행을 하고 예물은 다이아몬드는 못했어도 금반지라도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는 전속다니면서 떳떳이 방 한칸도 구하지 못할 형편에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가장 행복되어야 할 날이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마치 홍역을 치루는 것과 같은 고통을 안고서야 밝은 앞날을 설계할 수 없지 않을까? 진정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캐노피 반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다면 떳떳한 마음으로 주어야 할 것이며 또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끼고 다닐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늘도 아내의 손에 끼워진 캐노피 반지를 어루만지며 계속 분발을 다짐해 본다.

<제5982부대>

시골면장



강 국 희

기온 33도를 넘는 찌는듯한 무더운 여름, 토요일 오후 어느날이었다.

토요일이 되기 며칠 전부터 이번 주말은 좀 의의깊게 보내겠다고 계획은 세우지만 막상 닥치고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주말을 보내고 나면 또 못다한 일들이 남아서 이번 주말만은…… 하면서 꽤나 굳게 다짐한다.

이렇게 다짐만 하면 토요일을 하루 앞두고 전화가 왔다.

수화기를 바꾸어 들고 보니 내가 근무하고 있는 부대에서 70여리 떨어져 있는 시골의 면장으로부터 전화였다.

반가운 목소리다.

『나야. 명구야. 내일 오후 3시까지 우리 면사무소까지 와……』 하면서 단숨에 말을 한다. 어안이 벙벙한 나는 『좋와 내일 오후에 갈테니』 하면서 간단히 수화기를 놓았다.

놓는 순간 나는 또 이번 주말은 망쳤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이 명구라는 친구는 대학시절 학생활동을 한다고 종횡무진 설치면서 패나 사물에 대한 비판과 세태를 비판하면서 나의 동조를 구하기에 열을 올리면 막연한 친구 중의 하나다.

그러던 그가 이제 넘치는 열기를 식히면서 시골면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시골면장을 만나기 위하여 토요일 오후 퇴근하는 길로 동향 후배인 최모 중위와 함께 면사무소로 향했다.

노면이 평탄치 못한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달리거리는 고역을 치른 끝에 간신히 면사무소에 도착했다. 도착하여 보니 기다릴 줄 알았던 면장은 부재 중이고 당직자로 보이는 직원이 지금 면장님께서 퇴비증산을 위한 이장회의에 참석 중이니 다방에서 기다리라고 전한다.

면사무소에서 1km 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 하나 밖에 없는 다방을 쉽게 찾아서 기다리기로 했다.

3시가 약속인데 무려 5시가 지나고 있었다. 그 사이 몇 번이고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동행한 최중위가 말리 왔으

나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한 것이 5시간을 넘긴 것이다. 그제서야 장본인이 나타났다. 그에게는 시간관념이 없는 것 같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하여 면장의 전용인 오토바이로 각 부락을 순회하며 새마을사업과 퇴비증산을 위한 독려를 하고 자정이 되어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간단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없다.

나는 밤 8시에 만난터라 한바탕 싫은 소리를 하려고 벼르는데 그는 까맣게 그을은 얼굴로 그의 특유한 높은 음성으로 크게 웃으며 『늦어 미안허이…… 자네는 이해할 거야 하면서……』 꼭 당연한 것 같은 말투다. 나는 이 친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래 퇴비증산도 좋고 새마을사업도 좋지만 5시간은 너무하지 않은가』고 나무라자 그는 더한층 소리내어 웃으며 『그 시간은 더 있어야 끝날 것을 그래도 찾아온 성의를 생각해서 빨리온 것』이라고 한다. 확실히 달라졌다.

그처럼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만 했고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비판과 공격을 일삼으며 항상 자기 이론의 관철만을 주장하여 괴변철학자로 통하던 그가 언제 이처럼 다져진 두툼한 손에 까맣다 못해 에나멜을 칠한 것처럼 윤기마저 흐르는 얼굴에 모든 것을 이해 하나만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으로 변했을까?

더우기 그는 퇴비와 피사리가 어떻고 메탄가스를 이용한 생활의 개선, 하수구, 배수구, 농로개설, 양묘장 등…… 무슨 소리인지 알듯 모를듯한 말을 되뇌이면서 새마을사업의 전개현황을 일일이 열을 올리며 설명한다.

몇불여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몇년만 계속하면 우리 면은 도내의 어느 면보다 훌륭한 면으로 이룩될 것이라고 자랑이 대단하다. 듣다 못한 나는 『좋와 그런데 이곳에 나를 부른 것은 결국 자네 PR을 하기 위한 것이었구먼』하자 그는 웃으며 『자네 말고 누구에게 PR하겠나… 자네야말로 옛날부터 나의 말을 들어주는 유일한 친구가 아닌가』 하면서 시계를 본다. 벌써 9시를 넘었다. 『이사람 나 저녁 안 먹었어』하자 그는 『식사시간 아직 안 되었어』 하면서 그의 식사시간은 그날의 목표량을 달성하고서야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한다. 나는 오늘이야말로 그 어느 주말보다 뜻있는 주말을 보낸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정기 정훈교육이나 전역 장병들에게 실시하는 새마을 교육을 이론교육 더우기 피상적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시골면장에게서 얻은 인간 상록수의 경험과 체험담을 교육에

반영한다면 참으로 산교육이 될 것이라 생각할 때 더욱 보람있는 주말이 되었구나 하고 크게 느껴진다.

과거에 그처럼 비뚤었던 사고방식을 조국의 미래상 정립을 위해 생활철학을 바꾼 장한 시골 면장이야말로 참되고 진정 우리가 바라는 애국자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 맥주잔을 기울이며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부조리한 일들을 말로만 비판하고 실현성없는 공리공론를 앞세우는 군상들을 벗어나 이처럼 주말을 모르고 낮과 밤을 모르며 식사시간을 잊어버리고 일하는 시골면장과 담소하고 있다는 것은 더한층 오늘 하루가 고맙게 느껴지기도 한다. 나는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시골면장인 나의 친구와 같이 부지런하고 근면한 정신으로 일하고 또 일한다면 조국의 앞날은 어느 선진국보다 복되고 번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우기 지난날의 학창시절에 부정과 부패를 규탄하던 일과 즐거웠던 일들을 담소하며 밤을 지새우고 그 이튿날 일찍 그와같이 면내 부락을 돌아보고 부락민들의 피와 땀, 노력과 정성이 담긴 퇴비더미를 비롯한 새마을사업의 결정체들을 볼 때 나자신 지금까지 생각하던 새마을 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한층 절감했다.

이번 주말이야 말로 나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넣어주는 활력소적 주말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친구인 시골면장집을 떠나왔다.

<제5426부대>

관제사의 긍지

정 기 창

세계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남자들이지만 그 남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여자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조종사들은 하늘을 나르며 우주의 궤도를 한 눈에 보지만 그 조종사들을 관제하는 것은 관제사다.

그러면 도대체 관제의 종류는 얼마나 될까? 술과 담배를 끊으려는 자기절제, 젊음을 오래 간직하기 위한 미용절제, 공개석상에서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생리현상으로 폭발되는 신체의 가스를 관제하는 가스절제, 도립병원에서 약먹을 시간을 기다리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치료절제, 백발 노인이 굽어진 허

리를 오른손 바닥으로 두드리며 아침 산길을 오르내리는 건강절제 등 모든 것은 관제로부터 출발된다.

이토록 많은 관제 가운데서도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한 경우와 가능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양귀비의 미모는 현종의 시력을 관제하는데 성공했지만 안록산의 야심은 관제하지 못해 사랑하는 현종이 베푸는 쇠철사로 목졸림 당하였다. 진시황제는 아방궁의 3만 궁녀들을 관제했지만 자기의 생명만은 관제하지 못해 서씨로 하여금 선남선녀 삼백쌍을 거느리고 불로초를 찾아오라 했지만 그것을 찾으러 동방에 간 서씨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걸 임금은 달기의 아름다움에 눈이 밀어 그녀의 입술을 관제했지만 사랑하는 신하들을 불기름 기둥에서 미꾸라지처럼 팔팔 뛰다가 죽어가게 한 그녀의 살기띤 미소는 관제하지 못했다.

삼손은 그의 힘으로 데릴라를 포용하는 관제에는 성공했지만 그녀의 뱃속에 들어 있는 수백마리의 독사를 보지 못하고 결국 요격에 실패하여 머리를 깎이고 회전 숫돌을 돌리는 쓰라린 신세가 되었다. 이처럼 관제의 역사는 시시각각 변천해 왔고 순간적인 관제가 영원을 지배하고 새로운 시대를 창조한 예가 허다하다.

그럼 검정 머플러들의 요격기 관제는 어떤가? 요격관제는 역사에 과연 얼마나 관련되어 있고 새로운 시대를 창조할 수 있단 말인가?

삼천만의 불침번이 잠을 잘 때 삼천만은 순간적인 역사 속에 휘말려 들어갈 수도 있고, 검정 머플러가 하늘을 지킬 때 우리의 역사는 더욱 더 엄숙하게 영원한 시대 속으로 창조되어 가기 때문이다.

그럼 이와 같이 영원을 책임지고 새 시대를 약속하는 우리 검정 머플러들의 멋과 긍지는 무엇일까?

첫째 관제사들은 조국의 창공을 지키는 삼천만의 불침번이요 파수대로서의 긍지를 갖는다.

삼천만은 Daytime에 수고를 많이 했다. 많은 역사도 창조했고 새로운 사연들도 수놓았다. 이제 우리들은 밤 근무로 그들의 고달픔을 달래고 편히 쉬게 하려 한다. 우리의 근무가 좀 고달프고 힘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탓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삼천만의 파수대이기 때문이다. 안개낀 밤 거리를 연인들이 정답게 걸어가다가 "지금 이 시간에도 Scope를 보지 않으면 우리가 대화의 오솔길을 걷지 못해요" 또는 책상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수험생들이

지금 비행기가 잘 잡히는지 궁금한데 이렇게 말할리 없다. 다방에서 밤늦게 차를 마시는 대학생들이지만 관제사들이 공중감시 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는데 위로의 말을 할리가 없다. 누가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국토는 우리가 지키겠다는 굳은 신념 속에 오늘도 새로운 각오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긍지를 가지고 있다.

둘째, 시간관념이 철저해진다고 자부하고 싶다. 관제사들은 철두철미한 시간관념 속에 최선의 노력으로 최대의 방공업무를 하고 있다. 독일의 철인 칸트는 루소의 에밀을 읽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산보하지만 관제사들도 어김없이 상번 시간에 찾아온다. Scope에 지남철이 들어 있는지 아니면 관제사들의 머리 속에 나침반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다.

루소의 에밀로 칸트도 산보 시간을 어겼지만 Scope 교대만은 정확하게 해주자는 것이 시간 속에 살고 시간 속에 죽는 관제사들의 긍지이고 멋이다.

세째로 관제사들에게 더 없이 친근한 멋은 자연의 신비로움과 접하는 것이다. 은하수 깔린 밤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환희를 느낀다. 정말 그렇게도 치밀하고 광범한 저 우주……

내가 만약에 우주를 창조했다면 저렇게 복잡하게 창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한 로마의 어떤 황제가 생각난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아무런 충돌없이 자기의 궤도를 돌고 있을 저 우주 그 속에 내가 있다.

결론적으로 관제사들의 멋이란 Scope 위에서 생각할 수 있고 그 속에는 삼천리의 사연들이 콩알만하게 집중되어 온다. Scope 속에서는 아름다운 세계도 창조되고 때로는 추한 나라도 꿈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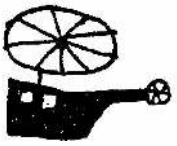
그 속에는 가지가지의 사연도 많다. 외상값을 갚지 않는다고 금이빨을 빼려고 달려드는 술집 주인도 있을테고 자기집을 잘못 찾아가서 자기집이라고 졸라대는 사람도 있을테고, 키가 너무 커서 개가 사람이 아닌 전주로 착각하고 한쪽 다리를 들고 오줌을 싸는 풍경도 없다고 볼 순 없다.

조국의 창공을 지키는 Scope는 지금도 돌고 있다.

그리고 그 Scope 앞에는 지금 어떤 관제사가 앉아서 방공업무를 다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 번 시간이 되어 Scope 보는 것이 체질에 맞는다는 다른 장교가 교대를 해주고 있다.

<제5305부대>

군 형법상의 군무 이탈죄



홍 용 표

1. 머 리 말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무단 이탈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는 일반 형법상으로도 범죄로서 규정하고 있는 바이다(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그러나 특별직 공무원인 군인·군속에 대하여는 군의 특수성 때문에 군형법에 특별규정을 두어 직장의 무단이탈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군형법 제27조(지휘관의 수소이탈죄), 제28조(초병의 수소이탈죄), 제23조(솔대 도피죄—率隊逃避罪), 제30조(군무이탈죄), 제31조(특수 군무이탈죄), 제79조(무단이탈죄)의 규정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제23조(솔대도피죄) 제27조(지휘관의 수소이탈죄) 제28조(초병의 수소이탈죄)는 행위주체와 구성요건이 특수한 유형의 이탈죄이며 제30조(군무 이탈죄)와 제79조(무단이탈죄)가 군형법상 이탈범죄의 일반적 유형이라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특별유형의 이탈죄에 관한 고찰은 생략하고 일반유형의 이탈죄인 군무이탈죄(군형법 제30조, 31조)와 무단이탈죄(동법 제79조)에 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2. 군무이탈죄(군형법 제30조)

군형법 제30조의 이른바 군무이탈죄라 함은

가) 군법 피적용자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거나 (동조 제1항)

나)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는 것(동조 제2항)을 의미한다.

가. 제30조 1항의 군무이탈죄

1) 구성요건

(ㄱ)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여야 한다.

(ㄴ) 본죄의 주체는 모든 군법 피적용자를 포함한다. 군법 피적용자(Persons Subject to Courtmartial Jurisdiction)라 함은 ① 현역군인 ② 군속 ③ 군적을 가진 군 소속기관의 학생 생도와 간부후보생 및 병역법 제6장의 규정에 의한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ROTC 학생 등) ④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 중인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군형법 제1조) 등이다.

본죄는 현역군인의 복무의무를 강화하여 절대적 전력확보를 법익으로 하기 위한 것이나 군속 등이 군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역군인에 못지 아니함에 비추어서 군속에게도 본죄의 주체가 되도록 인정하고 있다(국방관계 법령 질의해석집 제6집 제104면 참조).

(ㄷ)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군무기피의 목적」이라 함은 광범한 개념으로서 직무, 근무 등을 포함한 군인에 대한 모든 의무를 총괄한다. 특정한 군무이거나 불특정한 군무이거나 불문한다. 「군무기피의 목적」에는 병역자체의 기피목적은 물론 구체적인 특정임무의 회피도 포함된다. 고로 예컨대 공군으로부터 군무를 이탈한 자가 타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게 된 경우에도 공군 소속부대와 관계에서는 군무이탈죄를 구성하여 처벌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군무기피목적」의 유무는 주관적 불법 요소로서 그 입증이 곤란한데 대체로 이와 같은 목적의 유무는 피고인의 자백과 이탈기간 기타 보조적인 상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군무기피 목적이 없는 단순한 이탈행위는 제79조(무단이탈죄)에 해당된다.

(ㄹ) 정당한 허가없이 이탈하여야 한다.

"이탈"이라 함은 거리의 원근에 관계없이 그 이탈로 인하여 맡은 바 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도의 것으로서 충분하다.

2) 군무이탈죄의 기수 시기

군무이탈죄의 기수 시기에 관하여는

ㄱ) 군무이탈죄는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그 이후는 위법상태가 계속되는데 불과하다는 즉시범설 ㄴ) 군무이탈죄는 부대를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탈된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군무이탈행위 그 자체가 계속되는 것이라는 상태법설이 대립되어 있는 바 대법원 판례는 즉시범설을 채택하고 있다(63.12.12. 자 70.7.28자 대법원판결 참조).

다) 군문이탈자에 대한 참모총장의 복귀명령문제

군무이탈자에 대한 공소사효(보통 군

무이탈죄의 공소 시효는 3년)가 완성되어 군무이탈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각군 참모총장은 군무이탈자에 대하여서 인근 헌병대에 자수하라는 취지의 복귀명령을 매년 신문·라디오 등 각종 통신수단을 통하여 발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참모총장의 복귀명령은 군형법 제47조(명령 위반죄)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되는가? 따라서 위 복귀명령에 불응하였을 경우 명령위반죄로 처벌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는데 근래 대법원 판례는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이탈자가 현역군인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모총장의 복귀명령에 위반하여 소속대에 복귀하지 아니 하면 군형법 제47조의 명령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함으로써(68.7.16자 대법원 판결) 위 복귀명령은 군형법 제47조의 소위 "정당한 명령"에 해당된다는 것을 설시하고 복귀명령 위반행위를 명령위반죄로 인정하고 있다.

또 여기에서 피고인의 복귀명령에 대한 인식의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즉 군무이탈자가 위와 같은 복귀명령의 존재와 내용을 전연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는 경우에 이를 군법회의에서는 여하히 처리할 것인가, 피고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피고인이 위 복귀명령을 인식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신문·라디오 등 통신수단에 의하여 공고한 사실만 가지고 피고인이 위 복귀명령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에 인식의 추정을 하지 않는다면 대개의 피고인은 몰랐다고 부인할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인식이 추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72.11.28.자 대법원 판결). 그 논거는 위 명령이 각종 통신수단에 의하여 전국 각 지역에 알려졌다면 군무이탈 중인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명령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함이 경험법칙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요지이다.

나. 제30조 2항의 군무이탈죄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 하는 것이다.

(ㄱ)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원인은 합법적인 것이거나 불법한 것이거나 불문한다.

(ㄴ) 본조는 처음에는 군무기피 목적없이 이탈상태에 있는 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ㄷ) 복귀하기까지의 기간의 장단에 따라 제79조 후단의 무단 이탈죄(지정시간에 불출두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다. 처 벌

(ㄱ)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가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ㄴ)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ㄷ)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ㄹ) 본죄의 미수법의 처벌(군형법 제34조) 그러나 미수를 처벌할 수 있는 예는 드물다.

3. 특수군무이탈죄 (군형법 제31조)

본죄는 위험 또는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하는 것으로 제30조 군무이탈죄에 대한 특별 구성요건이다.

(ㄱ) 본죄의 주체는 군무이탈죄와 같다. 그러나 위험 또는 중요한 임무를 가진 자에 한한다.

(ㄴ) 본죄의 주관적 불법요소는 위험 또는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이다. 여기의 위험임무에는 전투임무, 위험지역의 근무, 해상근무, 공중근무 등이있다.

(ㄷ)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하는 것이다.

(ㄹ) 처벌은 군무이탈죄와 동일하며 본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4. 무단이탈죄(제79조)

무단이탈죄라 함은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하거나 (동조전단) 지정한 시간 내에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못하는 것이다(동조후단).

군무이탈죄와 무단이탈죄는 전자가 절대적 병력유지를 목표로 하고 후자가 상대적 병력유지를 목표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또한 전자는 군무기피목적을 필요로 하지만 후자는 군무 기피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 차이가 있다. 양죄의 관계는 특별관계이므로 군무이탈죄가 성립되면 무단이탈죄는 여기에 흡수된다.

1) 제79조 전단의 무단이탈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에서 일시 이탈하는 경우

2) 제79조 후단의 무단이탈

지정된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지정장소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의 장단에 의하여 군형법 제30조2항의 군무이탈죄와 구별되어진다.

지정된 장소에의 불출두가 불가항력에 기인할 때에는 범의를 저각한다. 그런데 병을 구실로 하거나 수송기관의 결여를 이유로 함은 원칙적으로 불가항력이 되지 않는다.

3) 처 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 이탈행위의 단계적 완성 과정

1) 제70조 전단의 무단이탈: 군무기피의 목적이 없는 일시적 이탈행위

2) 제70조 후단의 무단이탈 : 지정시

간 내에 지정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로서 군무기피의 목적이 없는 정도

3) 제30조 2항의 군무이탈 : 무단이탈 상태에 있는 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귀대하지 않거나 또는 불출두하는 경우 및 적법한 이탈자(예컨대 출장중인 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귀대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무기피 목적이 인정될만한 단계에 이른 때.

라. 제30조 1항의 군무이탈

처음부터 군무기피의 목적으로 이탈하거나 또는 휴가중 귀영하지아니하는 때

6. 군무이탈죄에 관한 판례의 고찰

1) 63. 12. 12.자 대법원판결

"……군무이탈죄는 소위 즉시범으로서 군무를 이탈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그 범죄는 완성되며 공소권이 소멸된 사실을 유죄로 처단함은 헌법 제9조 위반으로서 헌법위반이라고 함이 복원의 판례이므로……"

2) 68. 5. 28.자 대법원 판결

"병역법 제26조 및 동법부칙 제30조와 군무이탈자의 복무규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현역병으로서 1961. 5. 16. 이후에 그 복무에서 이탈한 자는 그 이탈기간 중에도 현역병이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육군 참모총장이 발하는 복귀명령 공포당시(1967. 1. 26.) 비록 군무로부터 이탈된 상태에 있었더라도 현역병의 신분은 유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며 위 명령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같은 군무이탈 현역병을 수령자로 하는 그 직속상관이 내린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이라 할 것이니 피고인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3) 70. 7. 28.자 대법원판결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는 군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 여하는 범죄의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다."

4) 72. 11. 28.자 대법원 판결

"육군 참모총장이 군무이탈 군인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헌병대에 자수하라고 명하는 취지의 복귀명령은 군형법 제47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여 동 명령이 각종 통신 수단에 의하여 전국 각 지역에 알려졌다면 군무이탈 중인 자는 동 명령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니만큼 위 복귀명령을 군형법 제47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명령이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그 명령이 있는 사실이나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소론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5) 71. 12. 22. 해병대 고등군법회의 판결

"……피고인은 이미 1971. 3. 26. 해병상륙전기지 보통군법회의에서 군무이

탈죄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아 동일경 그 형이 확정되어 민간인이 되었으므로 1971. 4. 30. 해병교육기지에 부임하지 않은 것은 하등 군무이탈죄를 구성하지 아니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장기하사관 후보생으로서 위와 같은 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아직 피고인이 퇴교조처를 받은 바 없는 이상 여전히 군형법 및 군법회의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퇴교조처가 있기 이전에 부임하지 않는 행위는 군무이탈죄를 구성한다.

7. 군무이탈죄의 예방대책

군무이탈범이 군법회의에서 차지하는 건수는 압도적 비율을 점하고 있는 바 그 원인을 분석하면 가정사정, 신병고민, 이성관계, 복무염증, 처벌우려, 인사불만, 기합과도 등 다종다양한데 이 가운데 복무염증, 가정사정, 처벌우려 등이 가장 많다.

군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2대자원이 인적요소와 물적요소인데 인적요소인 장병들이 복무염증으로 말미암아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는 현상은 병력확보라는 군 운영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그 예방대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정훈교육을 통하여 군인의 본분을 명심케 하여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킨다.

2) 군무이탈죄는 엄벌에 처하여짐은 물론 각종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인식시킨다. 곧

ㄱ) 군무이탈범은 군법회의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나아가

ㄴ) 장교 및 하사관이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그 반사적 결과로 군인사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제적처분(동법제40조)을 받게 되며

ㄷ) 또한 군인연금법상 지급받게 될 제급여금의지급이제한되고(동법제3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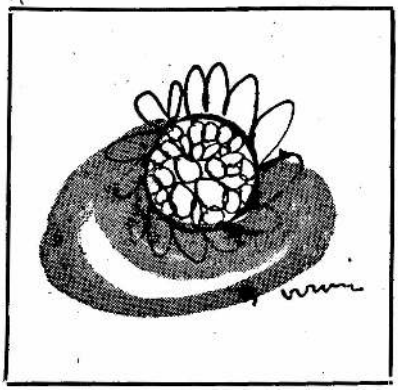
ㄹ)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이 될 권리가 제한되는 등 취직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ㅁ) 군무이탈자는 형의 복역을 마친 후에 다시 잔여 복무기간에 형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여야 되며(병역법 제44조)

ㅂ) 군무이탈죄는 공소 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복귀명령 위반죄로 처벌되므로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 한 언제까지라도 병역문제가 해결되지 아니 하는 등 신분상 가혹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는 점을 인식시키도록 한다.

3) 부대 내에 건전한 오락시설 및 복지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병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킨다.

각국의 군원호시책의 현황



정 함 채

1. 머 리 말

제대군인에 대한 원호복지사업의 활발한 조장은 전역시 취직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역복무 중에 있을 때도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복무할 수 있게 한다는 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군(當軍)은 물론 범국민적으로 연구와 노력이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될 시기라고 본다.

전역장병으로 하여금 각자가 희망하는 부서로 취직이 가능하도록 국가나 군 또는 공사기관의 원호조직체에서 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진력하고 있기는 하나 현단계로 보아 당장 빛을 보기는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와 직접관계가 있는 이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호 연구 토의 개발함으로써 우리 자신들이나 후배들이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서 힘써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현황을 살펴볼 때 소수의 인원에 한정된 요원(조종사, 정비사 위주)만의 국내 유사특기부문으로 소화가 될 뿐 전군에 약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하사관 이하에 대한 복지원호사업이란 그 실적이 전무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유신개혁을 부르짖고 정병강군 육성을 전제로 하는 작금 그들의 사기

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군, 민 각 기관 실무담당관급 요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문제 연구에 전력을 경주하여야 하겠다.

필자는 근간 선진 제국 군 원호업무제도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책자를 입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그들이 연구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현황을 소개함으로써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에게 다소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여 우리나라의 군사원호(군인사법)법의 개략을 소개하고 인접국 일본 자위대의 현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서독군, 불란서군, 호주군과 같은 국가의 원호제도의 현황을 전달하고자 한다.

2. 각국의 군인원호시책 현황

각국은 자국(自國)의 국가 이익을 위한 국방정책 또는 재정적 배경의 차이로 그 방법과 제도가 각양각색임으로 일률적으로 비교하여 우열을 가릴 수는 없으나 여하간 선진각국은 군인원호에 관한 범국가적인 시책으로 후원하고 있는 것만은 기정사실이며 그 절차와 제도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좋은 혜택을 주고 있음을 볼 때 부러움이 앞선다.

우리 한국군도 병력이 막강함만을 자랑하기에 앞서 제 외국의 원호시책과 현황을 깊이 관찰 검토하고 의타심과 관망하는 자세에서 탈피하여 더 좋은 내일의 복지국가 건설에 다같이 참여하여야 하겠다.

일 본

가. 단기복무자 원호의 중요성

우리 한국과 같이 국민병 제도에 반하여 가까운 일본은 헌법상 국가방위의무화의 규정이 없는 기반 위에서 순수 지원모병제임은 우리가 잘 아는 바이다. 물론 우리 공군도 타군에 비한다면 지원제라고는 하나 일본과는 달리 의무병 제도하의 지원제이므로 그 차이는 엄연한 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금후 점점 적령인구의 감소와 민간기업체에서의 고용증대 경쟁 속에서 단기(내지는 장기)지원제도에 의한 우수청년 요원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 예상된다.

이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본 자위대 측에서는 단기복무자 확보를 위한 금후의 시책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사회복귀대책, 즉 취업원호복지대책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반면 그들을 자휘감독하는 중간관리 장병들에게 특별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나. 단기복무자의 대부분은 사회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일본 자위대는 2년(또는 3년)간 임용기간을 전제로 병원(兵員)을 모집하고 있으며 한국군과 같이 임기가 만료되면 전역 또는 일부 희망에 따라 장기복무자로 구분되어 장기복무자는 계속 하사관으로 누진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장기복무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은 조만간 사회로 복귀하게 됨은 당연한 사실이다(도표 1 참조).

도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자위대는 연간 2만2천5백명(과거 3년간 평균)의 신병을 획득하였으며 그 중에 하사관으로 누진될 수 있었던 사람은 약 3,500명 내지 4,000명 정도로서 동시 입대자의 약 15%선의 병력만이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약 85%에 해당하는 입대자는 당연히 사회로 복귀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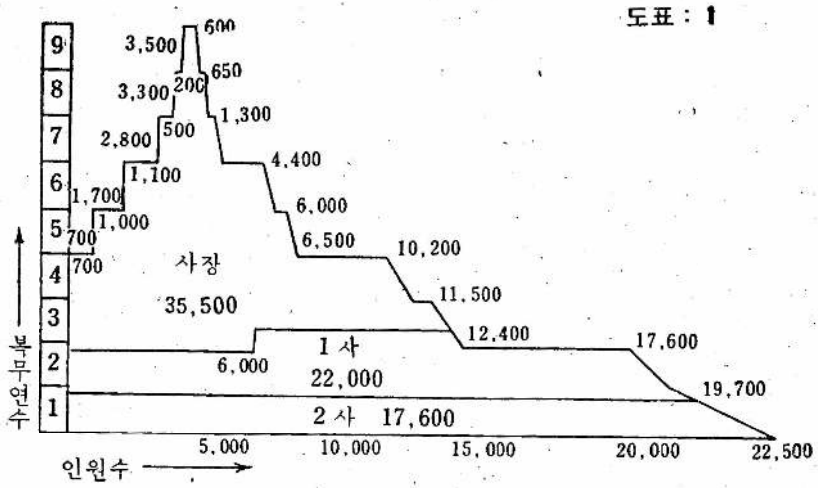
물론 일본 자위대에서도 한국 공군과 같이 가능한 한 많은 우수한 장기하사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인들에게 종용을 하고 있으며 편제까지를 수정하는 한편 소화 40년대는 하사관 대 병 비율이 1:1.66, 43년대는 1:1.34, 3차방(三次防) 말인 46년대에는 1:1.24까지 그 비율을 올림으로써 많은 하사관급 요원을 확보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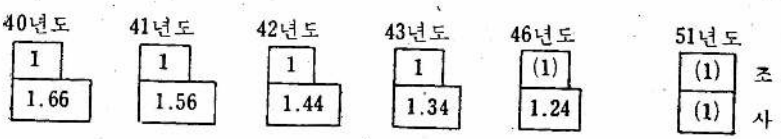
우리 한국 공군은 72년도 말 현재 특기별 차이는 있으나 하사관 대 병 비율은 1:1.5이며 일본 자위대는 4차방(四次防, 소화 47~51년)까지는 그 비율을 최고 1:1선까지 유지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제도가 연구 진행되고 있다. (도표 2 참조)

이렇게 예산적 뒷받침을 얻어 그 제도가 이룩된다 할지라도 단기자(임기자)에서 장기자(하사관 누진) 확보비율은 다음과 같은 요원 이상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소화(昭和) 42년까지의 과거 평균치	100명 중 14 명
〃 43년도	〃 15.5명
〃 46년도(3차방말)	〃 20 명
〃 51년도(4차방말)	〃 25 명

도표 : 1


9
8
7
6
5
4
3
2
1
수연무복
3,500
600
650
3,300
200
1,300
2,800
500
4,400
1,100
1,700
6,000
1,000
700
6,500
10,200
700
사장
35,500
11,500
12,400
17,600
1사
6,000
22,000
19,700
2사 17,600
5,000
10,000
15,000
20,000
22,500
인원수


40년도
41년도
42년도
43년도
46년도
51년도
1
1.66
1
1.56
1
1.44
1
1.34
(1)
1.24
(1)
(1)
조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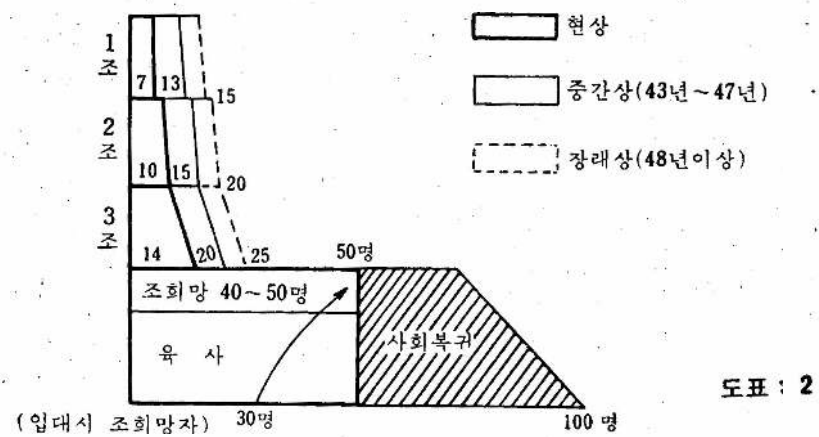

1조
2조
3조
7
13
15
10
15
20
14
20
25
50명
조회망 40~50명
육 사
사회복귀
(입대시 조회망자)
30명
100 명
현상
중간상(43년~47년)
장래상(48년이상)

도표 : 2

다. 자위대에 입대한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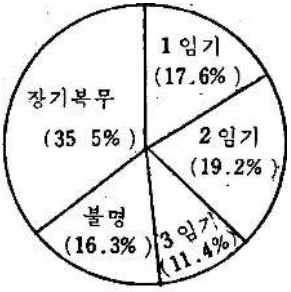
자유지원제 기초를 가진 일본 자위대에 언젠가는 사회로 복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일본청년들이 왜 사회진출을 택하지 않고 자위대에 입대를 희망하였을까.

자위대 당국은 이들의 목적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목표달성에 적극적인 지도편달이 있고 그들의 욕구를 십이분 충족시켜 주는데 큰 비중을 경주하고 있음을 짐작게 함에 있다.

만약 특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지 않다면 순수지원제 일본 자위대는 우수한 하사관은 커녕 임기제 신병모집에도 큰 장해가 있을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 일본 청년들은 무엇을 추구하여 자위대에 입대하였는가를 살펴보자(도표 3 참조).

입대시 희망복무기간(일본)



입대시의 지원동기(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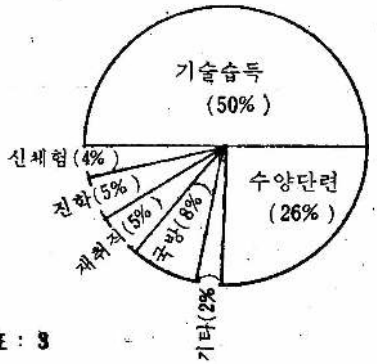


도표 : 3

도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자위대 입대동기를 「기술을 습득한다」, 「심신을 단련한다」, 「새로운 체험을 갖는다」, 「상급학교에 진학한다」, 「재 취직에 필요하다」는 등 각자 자기 인생과정에 무엇인가 「플러스」시키려는 속셈으로 입대를 희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복무기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사관(장기)으로서 입신을 꾀하는 입대자들도 많은 수를 점하고 있다.

소화 41년도 입대자 조사에 의하면

약 35.5%에 해당하는 신병 입대자가 하사관으로 장기간 자위대에서 복무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라. 각자의 욕구에 대한 자위대 대처내용은 무엇인가?

설명할 것도 없이 군조직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군법에 의해서 명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뿐 민간 사회단체와 달라 자동차 교습소도 아니며 기술양성소가 아님은 사실이다.

우수한 요원확보와 주어진 군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지상목표, 즉 그들 각자의 욕구도 충족시켜야 하고 군 발전은 물론 장차의 국가 기간산업 요원을 배출시켜야 하는 양분된 각 요건을 동시에 충족기란 쉬운 일은 못된다.

그리하여 일본 자위대는 두 조건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연구하고 있다.

1) 장기 복무자에 관한 연구

입대시 희망한 조사결과 전체 요원 중 약 30~35%의 신병이 장기복무(하사관)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금후 하사관 대 병 비율을 조정한다 할지라도 약 25% 이상은 수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 자위대 규모로 보아 25%선은 적정선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숫자만을 보면 입대 신병 중에 상당한 수가 하사관으로 누진되는 것같이 생각되나 입대시의 희망자와 1년 내지 2년 임기중 사회복귀를 단념하고 하사관으로 재지원하는 요원을 가산한다면 결과적으로 입대시에 비해 약 반에 가까운 하사관 지원 경쟁상태가 되는 현상을 예상할 수가 있다.

2)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입대자에 대한 연구

자위대 편제직위에는 한국과 같이 일반사회 직종에 유사한 특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상례이며 자위대 4년차 구성요원을 중심으로 특기별 기술습득 정도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ㄱ. 사회 면허증 취득 현황

현재 약 1만여명(전체의 약 26%) 정도가 일반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각종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직종별로 대별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일본 자위대 용어 그대로 기록).

1. 장갑장궤차	6. 무선 인쇄전신	11. 기갑 정비
2. 기 갑	7. 고정유선수리	12. 크레인 운전
3. 기갑 정찰	8. 장윤차	13. 도오자 운전
4. 고정 무선 통신	9. 장갑차 정비	14. 구레이다 운전
5. 무선 전신	10. 견인차	

ㄴ. 면허증은 없으나 일반공과 같은 수준이 기술을 가진 자의 현황

현재 약 3,300여명(전체의 약 9%)이 평균수준 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수많은 특기 중 불과 상기(上記) 인원이 분포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직종별로 세분한다면 종류별로는 수십명에 불과한 상태라고 판단되며 계열별로 예거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정무선수리	14	화(靴)수리	27	철도운행
2	무선수리	15	캔바스 수리	28	항공기 정비
3	항공통신기 기재수리	16	수품과(需品科)장비품 수리	29	항공기체 수리
4	반송(搬送)통신	17	낙하산(Parachute)	30	발동기 수리
5	고정 반송	18	목공	31	항공계기 수리
6	중(重)구성	19	철공	32	지도 제도
7	케이블 수리	20	콩크리트	33	건설 측정
8	전기설비보수	21	관공(管工)	34	지형 측정
9	전기 기기(機器)수리	22	장륜차(裝輪車)수리	35	옵프셋 인쇄
10	광측기재 수리	23	압축기(Compresser)운전	36	제판
11	기계 공작	24	포장(鋪裝)기계운전	37	사진
12	단조(鍛造)용접	25	시설 기계정비	38	취사
13	피복 수리	26	시설 기계수리		

ㄷ. 미숙련공 65%에 해당하는 요원에 대한 연구 및 현황

사회 면허증 소지자 약 26%와 산업계 직접진출 가능자 약 9% 도합 약 35%의 요원은 사회복귀와 동시에 각종 기업체로 진출이 가능하나 나머지 약 65%에 인원은 일반사회직종의 제한 및 미숙련급 또는 일반 군사행정 분야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특별 고려가 문제시되며 그 분포상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경화기	4. 야전포	7. 유선 통신
2. 무반동포	5. 전투 시설	8. 위생 구호
3. 박격포	6. 무선 전화	9. 기타 등

그 직종면으로 보면 적으나 반면 인적면으로 보면 (ㄴ)항과는 반대로 3~4년 이상 재영자(在營者)의 약 3분의 2 이상을 점유하는 점으로 보아 금후 이 신병모집 및 이들에 대한 특별교육과 취업업무에 관하여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군조직의 특수성을 유지하려는 특수 분야 요원들에 대한 확보난(難)을 면치 못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여기에 숫자는 4차년도 요원에 한한 비율을 고려한 바 3년차 이하의 후배 요원까지를 망라한다면 소홀히 다루어질 문제가 아님을 직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대다수의 미완성 요원들에게 적당한 기술을 체득시키기 위하여 재영중 각종 기술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연평균 약 1,500명 정도의 요원을 배출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 한국공군도 직업보도의 일환책으로 재영중 기술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군 본연의 임무가중, 예산, 제도 절차, 관심도 등의 제약으로 많은 시간과 인원을 할당할 수 없는 형편이나 근간 각 지휘관의 특별한 관심과 본인들의 열성으로 차츰 그 실적이 향상되고 있음은 참으로 다같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며 바라건대 여건이 허락된다면 더 많은 인원이 계획되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을 기대한다(도표 4 참조).

한국 공군 직업보도 현황

가. 재영중 직업훈련

구분 / 연도	계획	입소	수료
71 년도	800명	811명	760명
72 〃	800 〃	699 〃	698 〃
73 〃	800 〃		

나. 국가 공인 면허 취득

신분 / 연도	장교	하사관	병	군속	계
71년도	85명	122명	233명	53명	493명
72 〃	102 〃	225 〃	262 〃	75 〃	664 〃
증감	+ 17 〃	+103 〃	+ 29 〃	+ 22 〃	+171 〃

다. 취업알선

신분 / 연도	장 교	하 사 관	병	계
71년도	59명	35명	85명	179명
72 〃	152〃	105〃	30〃	287〃
증 감	+ 93〃	+ 70〃	− 55〃	+108〃

도표 : 4

ㄹ. 일반사회 직업훈련소로의 야간취학 현황

위 ㄷ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제약으로 인하여 재영중 기술교육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으로 일본 자위대 당국은 소화 41년도부터 노동성과 절충하여 도(都), 도부현(道府縣)에서 운영하는 일반직업 훈련소와 고용촉진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통합직업훈련에 야간취학케 하여 기술면허취득을 장려 후원함으로 군대내의 교육에서의 미달사항을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주간은 일반대원과 같이 고된 훈련과 근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야간통학으로 오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및 시간적 제한, 또한 아직까지 제도절차의 미비로 만족할 만한 영역에 도달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자위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주간에 일정기간을 할당하여 습득케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 공군에서는 야간취학이란 제도가 실시되고는 있으나 일본 자위대와 같이 취학을 위한 원호제도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며 어디까지나 개인 학교교육의 연장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그나마 임무의 과중으로 전투부대를 제외한 일부 후방부대에 한함으로 73년 1월 1일 현재 제한된 분야에 93명에 불과한 하사관이 야간 취학을 실시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학과 분야 45명, 인문과학 분야 23명, 자연과학 분야 25명으로 되어 있다.

3) 심신단련, 새로운 체험을 얻고자 하는 입대자에 대한 연구

전항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하사관이 되고 싶다든가 기술을 습득하겠다는 희망자와는 달리 「나는 청년시대의 한 시절을 자위대라는 좋은 수양장에서 자기수양을 철저히 하겠다」 또는 「일반사회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인생체험을 체득하겠다」는 청년 입대자도

약 30%선을 유지하고 있다. 자위대로서는 이와같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입대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요구를 그 어떤 기관보다도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말할 것도 없이 어느 나라 군을 막론하고 군 교육이 목적하고 추구하는 바는 각 요원에게 불요불굴의 정신자세라든가 극기, 인내심, 규율성, 왕성한 책임감을 위시하여 집단조직생활을 통한 상교하애(上敎下愛)의 정신과 인간관계의 조화심, 조직관리자로서의 소지와 단결심을 고취시키고자 함에 그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 실례로써 자위대 출신자들의 정신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어느 기업체를 막론하고 자기 업체의 유사 특기 부문이 있는 한은 이들의 입사를 환영하고 있다는데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자위대 당국으로서는 전술한 정신요소 일변도만이 일반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기술을 포함한 기타의 여건을 충족키 위한 방법모색을 위하여 다각도로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4) 복무기간 중 인생의 지름길을 도모키 위한 연구

일본 자위대는 입대자의 하사관 승급을 모두 받아들일 수도 없으며 완전무결한 기술자로서의 육성도 불가능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군생활이 아니면 체득키 어려운 마음의 양식 또는 정신도덕에 관한 한은 어느 정도 만족하게 소화시키고 있다고 자부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정신적 무장을 부여했다고 하여 재영중 생활기간이 일반사회로 진출한 동료와 비교하여 반드시 양호한 상태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자위대에서 2~3년간 복무를 마칠 때는 각자의 연령은 24~26세 정도가 될 것이며 이때는 결혼 적령기이며 가정생활을 위한 준비시간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미 학교시절의 동급생들은 졸업과 동시 각각 사회 회사에 입사하여 3~4년 후인지라 한 사람의 사원 또는 공원으로서 기반을 구축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야망을 가지고 활약하고 있을 것이다.

자위대 병영생활 중에 인생항로를 우회하였다는 실망감을 주지 않겠는가?

참고로 일본 노동행정연구소에서 조사한 기업 규모별 임금(학교졸업 직후 입사자 기준)과 중도(中途)채용자 임금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면(도표 5 참조) 중도채용자가 얼마나 불리한 조건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 격차를 없앨 수 있다면 지원제 모병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임기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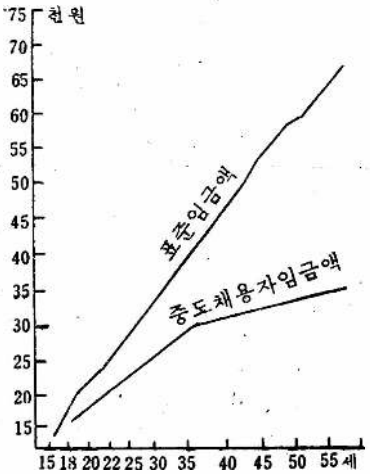
원모병 전망에 좋은 결실을 약속하는 결과가 됨을 의미하게 되므로 일본 자위대 당국은 특별조치지정 기업체에 대해서는 자위대 재직시 급여금을 포대로 입사 후 가봉제도를 채택하는 중도채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표 5에서 중도채용자가 얼마만한 불리한 조건으로 각 기업체에 채용되고 있는가를 보았을 것이며 또한 각 연령층으로 분석하여 보아도 더욱 불리한 처지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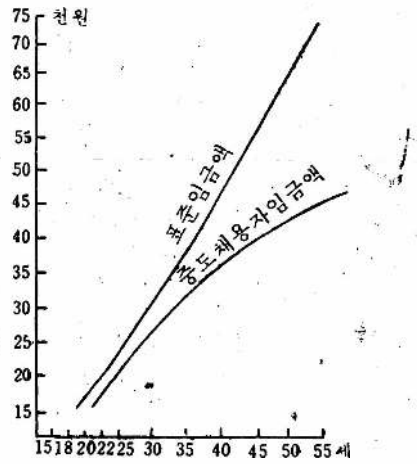
자위대 임기제 대원이 2~3년 후 제대시 평균연령이 22~24세 또는 25~29세를 가정하여 조사하여 보면 초임금은 대기업보다는 중기업, 소기업체로 취업할 때 좋은 편임을 보여 주고 있다(도표 5 참조).

도표 : 5

제조업 1,000명 이상 기업규모(중졸자)



제조업 1,000명 이상 기업규모(고졸자)



이와같은 현상은 여러가지 여건이 있을 것이나 최근 노동력 부족은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에 있어서 문제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표본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위대 출신자들은 임금에 현혹되어 초기에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초봉보다는 그 후의 임금신장률 및 퇴직금 같은데까지 돌려야 할 것이며 도표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40

~50대에는 1.5~2배에 가까운 격차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기업규모별, 연령별 채용자 임금(제조업)

규모 / 연령	30~99명	100~199명	2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이상
18~19세	19,410	18,602	17,878	18,620	18,553	17,365
20~21〃	23,068	21,203	20,989	20,518	19,844	19,608
22~24〃	27,557	24,104	23,231	22,127	23,570	21,423
25~29〃	29,374	27,997	25,540	26,375	26,732	24,663
30~34〃	33,022	29,110	28,247	32,900	29,115	28,647
35~39〃	34,157	30,952	30,130	30,936	30,390	30,860
40~49〃	35,363	34,096	31,984	34,884	30,690	32,151
50세 이상	30,140	29,451	25,998	29,892	33,335	34,074

※ 일본 노동성 임금 구조 기본조사에 의거(소화 42년도 판)

퇴직금 평균 지급률(제조업)

(소화 42년 7월 노동시보, 노동성 노동 통계조사부 조사)

	근속 10년		근속 20년		근속 30년		정년	
	평균 퇴직금	평균 지급률	평균 퇴직금	평균 지급률	평균 퇴직금	평균 지급률	평균 퇴직금	평균 지급률
	(천원)	(월분)	(천원)	(월분)	(천원)	(월분)	(천원)	(월분)
5,000명이상	169	4.6	748	19.0	2,145	36.2	3,313	46.9
1,000~4,999명	167	6.1	772	18.3	1,904	34.0	3,087	46.5
500~999명	146	5.5	677	16.8	1,622	30.7	2,630	41.7
100~499명	144	5.2	571	14.3	1,282	24.7	1,961	32.9
30~ 99명	143	4.9	490	11.6	1,022	19.5	1,518	25.7

※ 중학졸 노무직을 기준

서 독

가. 현 황

서독군의 병원충원(兵員充員)은 군인사법 또는 병역의무법에 의하여 징병, 지원 두 가지 형태로 충원되고 있다.

현재 서독군 병력 구성비는 약 60%가 지원병이나 서독 국방성이 군인 원호시책을 제일주의정책으로 채택 운영하는 관계로 그 비율이 점점 상승일로에 있으며 반면에 징병대상인원은 점차 감소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순조로운 지원병 모집대책의 일환으로서 제대 후 일반사회에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막대한 연방비를 직업훈련비에 충당하고 있다.

그 방법은 재영 중 직업훈련과 제대 후 직업훈련과정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다(도표 6 참조).

전자는 50개소의 군 주둔지에 설치되어 있는 연방군 전문직업학교에서 군사훈련과는 완전 별개인 사회일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상급과정 최종시험 합격자에게는 국가공인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후자는 제대 후 근무연한에 따라 6~30개월간 군재직시 월봉에 70% 가산된 급여의 혜택을 받으면서 희망하는 전문직 직업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강력한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한 이와 같은 직업훈련제도와 병행하여 직업알선제도 전직보조료 및 전직수당금 지급제도 등 전역군인 원호대책을 수립 실천하는데 군 주임무 못지 않게 다대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나. 근거법령

각칭을 연방군 퇴직군인 및 그 가족의 부조(扶助)를 위한 법률(일반적으로 군인부조법이라 칭함)로써 표시하고 있다.

직업훈련 재영 중 종류와 범위결정에 있어서는 본인의 희망, 적성, 근속연한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있다.

또한 훈련의 종류, 범위, 기간, 연방군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 연방군 외의 직업훈련기관 입소 등에 관하여는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제화되어 있다.

다. 훈련대상자

단기하사관 및 병을 원칙으로 하고 4년간 이상 근속한 자를 그 대상자로 하며 직업군인(장교) 및 일반 병역의무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징병에 의한 입대자를 제외한 지원입대자인 단기하사 및 병에게 특전이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재영중 직업학교 교육

도표 : 6

교육과정	기초과정	상급(전문)과정		
		기술과정	경제과정	행정과정
목적	일반교양향상	전문직에 필요한 기초 지식 부여		
교육시간	1,000시간(7개월)	1,400시간 (10개월)	1,400시간 (10개월)	1,700시간 (12개월)
수강요령	1년중 1~2개월씩 수강하고 4개년 내에 이수	1개년중 2~4개월씩 수강하여 4년내 이수 입교 기간 외는 통신 강좌 형식		
교육기관	연방군 전문직 학교(3군 공통으로 50개 주둔지에 설치)			
부여자격	수료시험 합격자에게 상·공·농업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함.			

※ 입교간 신분 : 타군 제학교의 입교 신분과 동일시하고 승진, 승급도 동일한 혜택 부여.

제대후 직업 훈련

	근무연수	훈련수강기간
근속연한에 따른 훈련 수강 기간	4년 이상~8년 미만	6개월 이내
	8년 이상~12년 미만	18개월 이내(제대 6개월 전부터 수강 가능)
	12년 이상	30개월 이내(제대 1년전부터 수강이 가능)
훈련기관	일반직업훈련 기관 또는 기술 전문 학교	
훈련내용	직업 훈련 또는 전문 기술 교육	
훈련수강자에 대한 보조	최종급여(월액)의 75%를 훈련수당으로 수강기간중 지급	

영 국

가. 현 황

영국은 지원제도만을 시행하고 있으며 타국과 대동소이한 내용에 의거 병원(兵員)모집에 특별한 관심을 경주하는 한편 동기부여를 위하여 재대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나. 실시요령

제대 후의 재취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과정에는 서독과 흡사하게 제대 전 훈련과 제대 후 훈련으로 양분되어 있다. 또한 일과 종료 후 야간취학을 인

정하고 국비로써 학자금을 보조하고 있다.

○ 제대 전 훈련

① 제대전 코오스

직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공통적 기초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제대 직전에 군 재취직 Center 또는 민간회사 부속기관에 28일간 교육을 받는다.

② 업무훈련 계획코오스

각 기업체의 경영관리직을 원하는 요원에게 경영기능 기업구조에 관한 개요, 교육, 상공업 전반에 대한 소개로써 노동성 계획에 의거 전국 기술학교에서 실시한다.

③ 감독직을 원하는 요원에 대한 준비 훈련코오스

각 공장 감독직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민간기업의 조직 및 감독자의 기능에 관한 일반적 소개를 실시하며 노동성 계획에 의거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는 하사관을 대상으로 강의, 토론, 기업방문 형식으로 4주간을 실시한다.

○ 제대 후 훈련

노동성이 주관하는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 교육과정에 편입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종목은 전반적 기능에 걸쳐 실행되며 훈련기간은 종목에 의해 3개월부터 2년간으로서 수강시의 생활수당을 국비로 보조받고 있다.

불란서

가. 현 황

불란서군은 1962년 이래 정부직업교육 진흥시책의 일환으로서 군대 내에도 직업교육제도를 강화하였다.

군은 문부성, 노동성, 농림성 등 관계 부서의 협조를 얻어 사병의 사회복귀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육군에서는 사회복귀교육을 군교육의 필요과목으로 삽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실시요령

○ 제대 전 직업훈련

재취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희망자에게 아래와 같은 훈련을 실시하며 수강자는 약 240시간(10개월 기간 중 1주 약 6시간씩)을 할당받고 있다.

① 성인직업훈련 수강준비교육

제대 후 성인직업훈련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복무기간 동안 그 준비교육을 실시한다.

즉 강의 내용과 과제를 배포받아 임명된 교관으로부터 지도교육을 받으며 준비교육 중 수강성적은 성인직업과정 채용시험에 있어서 참고문서가 되게끔 행정적 제도화가 수립되어 있다.

② 농업강습

농업정보 세미나를 개최하여 농가출신 사병에게 신농업기술 등을 소개하며 지방청 농사과에서 주관하는 통신강좌 기관에 참석시켜 농업전문 적성자격과 농업강습 수료증을 획득케 하고 있다.

○ 일반학교에서 야간 및 통신교육

일반학교에 설정되어 있는 야간학교나 여의치 못한 지방에서는 군과 학교당국이 절충 검토하여 필요한 과정을 신설케 하여 야간과정에 취학할 수 있도록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립통신교육 Center에 참석케 하여 공인자격증을 획득하는 방법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 국

가. 현 황

① 미국은 GI법을 제정하여 현역으로부터 전역하는 군인에게 180일 이상의 광범위한 혜택을 가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GI법이란 세계 제2차대전 중에 제정되어 계속 수정되어 왔으며 월남전의 장기화로 인한 내외적인 여건으로 1966년 그 내용이 대폭 수정된 바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월남전 전후의 적절한 시기에 개정됨으로써 출전장병의 사기앙양은 물론 징모(徵募) 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았으며 1966년도 본법 개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4억불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할당한 것 등으로 보아 정부나 군 수뇌부에서 정책상 군인원호 및 사회복귀 대책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② GI법은 교육원조, 취업원조, 주택 또는 농장차관, 의료원조 등 4개 부문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그 개략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나. 교육자금 원조

① 퇴역군인은 퇴역 후 8개년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주간 정규학교에서 공부하고자 할 때는 독신은 월액 100불, 부양자 1명에 150불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시간제 학교에서 수강하고자 할 때는 월액 50불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대상학교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교 및 통신교육기관 등이다.

② 현역군인에 대한 보조

첫째, 근무시간 외에 부외(部外) 교육수강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부양가족에 관계없이 수업료 및 기타의 비용으로 월 100불을 보조한다.

둘째, 국방성은 각 주(州)에 산재되어 있는 공립학교 및 고등학교와 계약

하여 본토 내지 국외 장병에게 통신교육수강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세째, 각 병과학교에서 실시되는 정규 군사교육과는 별도로 주둔지 교육 Center를 통하여 특기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수업은 현지 지휘관 판단에 의거 근무 중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시행되며 주요과목은 자동차 정비, 사무, 용접, 전기, 무선기, 계산자, 자동차공학(自動車工學) 기계 및 제도 등으로 구분 실시되고 있다.

선택과정은 본인 희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정책은 결국 제대자의 직접 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복무기간 중 취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원적(二元的) 효과를 목적하고 있다.

다. 취직원조

① 정부기관에 취직시

첫째, 경쟁채용시험시 퇴역자에 가점제도를 채택하여 유리한 조건을 부여한다.

둘째, 무시험 시에는 퇴역자를 우선 채용한다.

세째, 감원시는 퇴역자를 최종단계로 우대한다.

② 민간기업체에 취직시

첫째, 적성결정을 위하여 응시 후 상담한다.

둘째, 직업소개시는 퇴역군인을 우선한다.

호 주

가. 현 황

모병은 징병제와 지원제를 병행하고 있으며 병력은 3군 전체 약 5만명 내외밖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나 제대 후의 생활보장 등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나. 실시요령

① 제대 전 훈련

계급에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전원이 4주간 교육기간을 갖는다.

첫째, 교육훈련기능을 향상시킨다.

둘째, 제대 예정자가 민간기업 업무에 숙련될 수 있도록 재지도를 한다.

세째, 제대 희망자가 원하는 직종에 관계있는 특별 단기과정을 설정한다.

② 제대 후 훈련

장기복무자로서 제대후 재취직 준비가 부족한 자를 위하여 대학 및 기술전문학교에 취학을 장려하고 3년 내에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은 물

론 수강료는 전액 면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수강과정으로서는 예술, 법률, 경제, 교사, 신학, 회계, 인사관리, 양모분류, 차량도장, TV수리, 용접, 식량조달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한 국

우리나라의 원호시책 현황은 군인사법 제8편 군사원호법에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복사할 필요는 없으며 여기서는 단지 그 조항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군사 원호보상법에 규정된 연금(상이연금과 유족연금)과 제수당(생계부조수당, 보철구(補綴具)수당, 간호수당 및 근무수당)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군사 원호보상 급여금법」

나. 군사원호법 제5조 제5항 및 제6항의 적용을 받는 전몰군경의 유자녀 및 상이군경의 자녀를 교육지도하며 교육기관에 취학하게 함으로써 장차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군사 원호대상자 자녀교육 보호법」

다.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제대하였거나 전공상(戰公傷)으로 인하여 명예제대된 자와 전몰군경의 유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으로 우선 임용(군 경력 인정, 채용시험의 특전 우선 임용, 감원우선보류, 복직의 혜택, 승급 및 상여의 특전)을 목적으로 하는「군사 원호대상자임용법」

라. 군사원호보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 즉

① 군인 인사법 제7조 또는 병역법 제6조 제2항의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제대군인

② 상이군경 중 군사 원호보상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장애가 3급에 해당하는 자

③ 전몰군경의 유족 중 군사 원호보상 급여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받는 자

④ 상이군경 중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가 1급 또는 4급에 해당하는자에 대한 직장 알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군사 원호대상자 고용법」

마. 군사원호대상자, 즉

① 군인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서 전역된 자

② 군사 원호보상법 제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군경

③ 군사 원호보상법 제2조 제1항 제3

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 중 군사원호 보상급여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는 자가 자활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저리(低利)자금을 대부하여 줌으로써 정착사업을 발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 원호대상자 정착대부금」

바. 원호 대상자, 즉

①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상이군경

②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전몰군경의 유족

③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4·19의거 상이자

④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중 애국지사의 유족과 4·19의거 사망자 유족의 직업재활을 위한 기술교육시설과 사업시설(원호처 소속하의 직업재활기술교육소)을 설치하여 기술을 습득시키고 취업을 하게 함으로써 원호대상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원호대상자 직업재활법」

사. 중사 이상의 군인 및 보험에 가입한 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간부후보생이 된 자 또는 이미 가입한 보험을 전역 또는 제적 후에도 계속하고자 하는 자에게 복무 중 보험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사망 또는 전역 후 군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에 기여하고 군사원호대상자 정착대부의 기금을 조성케 함을 목적으로 하는 「군인보호법」

아. 군사원호 보상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군경에게 발급할 상이군경 철도 무임승차 확인증 및 상이군경 철도 운임할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이군경 철도 무임승차 확인증 및 할인증 발급규정」

자. 기타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부하고 퇴직하였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금을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군인 연금법」

차. 상기 제법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제대군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족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군사원호대상자의 보호와 그 회생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원호보상법」

3. 결 론

지금까지 제대강병에 대한(특히 단기복무자를 중심) 각국의 원호시책의 방향과 현황을 알아보았다.

우리가 장병원호사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몰랐거나 소홀히 다루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앞에는 절실한 문제로 대두된 것만은 사실이며 이의 개선과 제도마련에 너 나 할 것없이 연구하여야 할 시기라고 사료(思料)된다.

현재 현역군인 가족에 대한 학비면제, 의료 및 교통임금의 할인 등 하나 하나 실천되고는 있으나 외국에 비하면 그 일부에 그치고 있다.

물론 한정된 국가예산 및 기타 잡다한 여건으로 하루 아침에 방대한 복지원호시책의 수립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제외국의 원호제도를 부러워하기에 앞서 먼저 실천가능한 부분부터 손을 대어야 할 것이며 우리 자신들의 과거의 사고방식도 일신하여야 하겠다.

휘하장병을 복부기간 중 근무, 훈련, 내부 등에만 충실히 교육 지도하면 된다하여 부대임무수행을 위한 일방적인 요구만을 강요하기에 앞서 장병 개인 장래의 욕구와 행복에 관하여까지 머리를 돌릴 수 있어야 한 것이다.

고금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명성을 떨친 명장의 전기를 보아도 예외없이 일상적으로 부하의 고충을 사전 이해하고 애로사항을 적시적절하게 해결하였다고 한다.

이와같은 지휘관 밑에 있던 부하는 그 은혜나 혜택에 보답하기 위하여 일단 유사시 목숨을 걸고 명령에 복종하였으며 전장에 임하여 어떻게 어려운 전국일지라도 이겨나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원호문제는 각국별로 군 창설의 역사적 배경, 모병의 형식, 국제적 위치, 인접국과의 분쟁의 요소 등의 차이로 군 원호법 내용의 선후가 크게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군사원호법 소개에서 직감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6·25의 상처로 인하여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유가족 문제해결이 당시로서는 급선무였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우리 군사원호법(군인사법 제8편 참고)은 현역군인의 장래보장문제보다는 상기의 내용이 주로 거론되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지금부터 우리는 장병의 진실한 욕구와 희망이 무엇인가를 사전 예의검토하고 재영 중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대 후까지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 문제해결은 곧 재영 중 휘하장병이 불만없이 그리고 묵묵히 자기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전제가 될 것이다.

장병전역을 억제하기 위하여 군정책이란 면목으로 특기별 제한을 둔다거나 기수별 제한을 설정하여 전역을 방지하려 하며 더 나아가서는 개인면담을 통한 전역보류를 종용하는 등 근본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와같은 사례가 계속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재영 중 군 업무의 충실도를 높이고 장래에 대한 불안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은 곧 요원 자신들이 안심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며 1, 2년 군복무를 거리낌 없이 연장 복무할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군생활 평소부터 상하간 따뜻한 심혈이 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본인들로 하여금 우리 중대장 또는 이상사라면 틀림없이 자기의 장래와 행복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상관이라고 믿을 때 부하는 솔선수범과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을까?

일상 훈련면에 있어서도 아무리 중간 지휘관이 체적질을 하여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려 할지라도 대원 각자의 마음이 상사를 불신하는 일은 구령과 호령이 이들에게는 마이동풍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전 대원이 일치단결할 수 있고 정병강군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앞에서 말한 여러가지 사소한 점들을 하나 하나 수정해 나감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와같은 잡다한 일을 해결하면서 언제 당장 막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반문하겠으나 결과적으로 부대 요구를 말썽없이 충족하고 정예화할 수 있는 첩경은 어려운줄 알지만 앞에서 말한 제반 사항들이 종결될 때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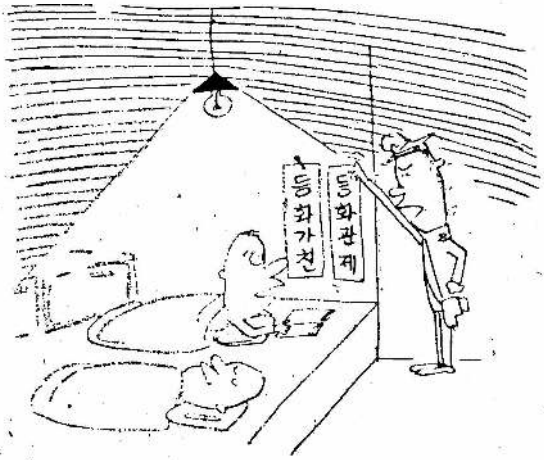
이렇게 됨으로써 우수 하사관 확보는 물론 우수한 청년이 모두 군입대를 지원하여 군 인력운영의 정상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무기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제대장병에 대한 계속적인 후원과 상호 연락 체계를 진심으로 유지한다면 사회인이 된 훗날에도 각자의 모대(母隊)인 군에 애착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훌륭한 예비군으로서 국가방위의식도 고조되리라 믿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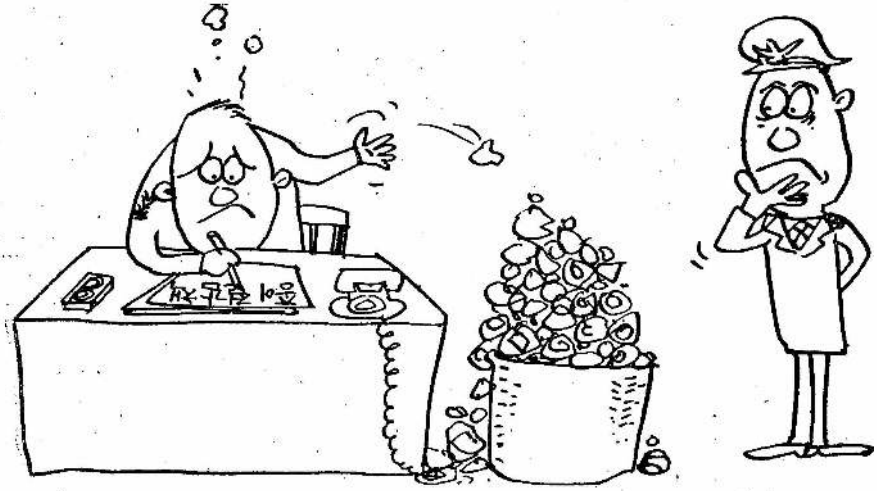
× × ×

공군만상

박 진 래



◇ 등화가친도 좋지만, 이것도 지켜주게. 취침시간이 넘었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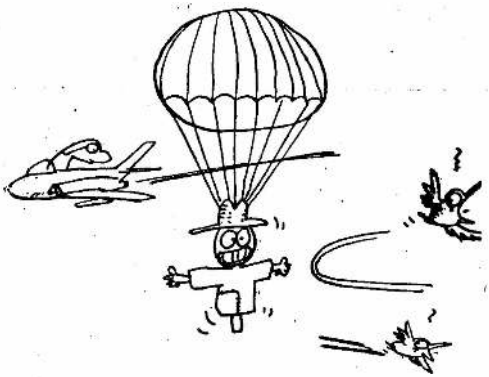


◇ 목하 종이 절감대책 기안 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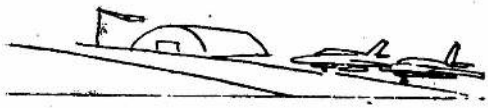
공군만상

◇ 자고로 식욕의 계절이라 ◇

급양대장님! 왜 이럴까요? 같은 정량인데도 가을만 되면 작아뵈니…



◇ 조류충돌 방지 책의 일환 ◇



공정작전

— 종횡무진의 기습부대 —

<1>

유 순 근 역

차 례

1. 무엇인가 큰 일이 서방에서
2. 「마케트·가덴」작전
3. 동서 공정부대의 성쇠
4. 독일 공정부대 크레테에서 사라지다.
5. 공정부대 미국·영국에서도 생기다.
6. 힘에 벅찬 시시리아작전
7. 타도 히틀러의 준비
8. D-day에서 저력발휘
9. 일본군을 하늘에서 무찌르다.
10. 최후의 아성 라인돌파
11. 어데로 가나 공정부대여

서 언

어느 나라나 전쟁준비를 하려고 결심하면 먼저 병기고에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전제(前提)로 함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군비(軍備)란

단지 기계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 뿐 아니라 전략이나 전술에까지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독일이 1930년대에 들어서 히틀러의 지도로서 재군비를 시작할 때가 그러한 상태였다.

독일군의 전차나 급강하폭격기 그리고 공정부대(空挺部隊)는 모두 이러한 상황에서 생긴 것이다. 하늘에서 강하하는 부대로 적을 공격한다는 아이디어는 전차와 같이 원래는 독일군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전차전의 구상이 상상력이 풍부하고 다이나믹하게 개발된데 대하여 공정분야에서는 독일 공정부대사령관 클트 슈트덴트 대장이 요구한 지원이나 시설마저 만족하게 줄 수 없었다.

독일은 공정작전을 감행한 최초의 나라였으나 대전 초기에는 전략 전술적인 효과로 보아 아직 소규모에 지나지 않았다. 독일 공정부대의 최후작전은 Crete섬의 점령이었다. 독일군은 이 작전에서 다수의 병사와 다량의 기재를 투입하고도 위태롭게 실패할 뻔 하였다. 방어에 나선 연합군측의 작전상 결함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의 부대운용상 결함이 속출(續出)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Crete섬은 영국 해군이 해상에서 독일군 상륙부대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했기에 부득이 독일 공정 부대가 탈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슈트덴트 대장은 공정부대가 이 작전에서 30%의 손실을 내고 승리의 희망을 적게 한데 대하여 끝까지 억울하게 생각하였다.

마르타섬도 마찬가지 요령으로 탈취하려는 계획이었으나 히틀러가 실시를 주저했기 때문이다. 수비대가 약한데다가 항공병력이나 기갑병력도 갖고 있지 않은 마르타섬의 영국군은 1942년 봄이나 여름에 독일군의 공정3개군단의 공격을 받았다면 한숨에 당했을 것이다.

한편 연합군의 공정부대 편성은 그 후에 다소 주저하면서 편성되어 착실하게 노력한 결과, 7개사단의 공정부대를 전선에 보낼 수 있었다. 연합군의 고급지휘관의 대부분은 공정부대가 얼마만큼 소용이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낙하산과 글라이더로 전개된 공정부대의 활약은 특히 노르만디의 좌익(左翼)에서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도 훌륭히 능력을 과시하였던 것이다.

또 Market Garden 작전에서는 계획단계에서 큰 차질이 있었음에도 「라인」강을 전면 도하 —이 작전에는 영제21군 집단사령관 몽고메리 원수가 계획

한 독일군의 국경진지(서방의 벽=체크·후리트선)측면을 포위하여 끝내는 결전— 할 수 있을뻔 하였다.

(1944년 9월 17일 화란의 「그레이·브」「니매겐」「아르넘」등 여러 다리를 점령하려는 제1연합 공정군의 마케트작전과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는 지상작전인 가덴작전의 총칭이 Market Garden작전) 또한 다행히도 연합군 수뇌는 아른헴에서 받은 영국 제1공정사단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미·영연합의 공정부대를 재차 편성하여 1945년초에 결국 「라인」도강과 독일의 심장부에 침입하게된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찰스 B 맥도날드는 보병장교의 경험을 살려 전투의 실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그 기술(記述)도 객관적으로 상세하게 하였다.

1. 무엇인가 큰 일이 서방에서

(서방측의 행동의 징조)

1944년 9월 17일의 일요일, 아침안개가 활짝 개이고 상쾌하게 아름다운 만하(晩夏)의 하루가 닥아오고 있었다.

푸르르게 펼쳐 있는 이곳 화란의 평원에는 신념이 굳은 화란인들이 독일에 점령당하여 4년 가까이나 착실히 참고 견디면서 힐렁헐렁하고 선명(鮮明)하지 않은 옷을 입고 교회로부터 집으로 돌아와서 감자만의 고기가 없는 안식일의 식탁에 모여 있었다.

한편 이곳 저곳의 독일병들은 화창한 햇빛 아래서 휴식을 만끽하며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고 어느 병사는 멍청하게 산책을 하고 있다. 독일군의 지휘관들도 대개 같은 모양으로 있었다.

한숨돌린 독일군 장교

연합군의 노르만디상륙(상륙일 D-day는 1944년 6월 6일) 이래 북불란서에서나 벨기에서나 비극적인 대패주도 이제 일단락된 때였다. 복잡하게 생긴 화란의 운하와 라스 왈강, 네델라인강이 천연적인 방어선이 되어 있는 북부지역에서는 특히 그러했다.

암스텔담 근처에서는 점령지구 사령관인 독일공군의 한 장군이 교외의 테스트랑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막료 한 사람을 데리고 외출하고 있었다.

화란지구의 게슈타포(비밀 국가경찰) 사령관은 「하아구」에서 독일인 친구와

휴일을 지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사령부를 떠났다.

또한 어느 SS(친위대)대대장은 숙소에서 「차와」여인과 함께 하루를 즐기기 위해서 면회사절을 부관에게 명하기도 하였다.

신경이 예민해진 슈트덴트

한편 마아스강 남방 몇 km 떨어져 있는 화란인에게 징용한 별장의 붉은 지붕 밑에서는 독일군 공정부대 사령관 쿨트·슈트덴트 대장이 집무에 고달픈 몸으로 침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독일군 전선에 생긴 커다란 틈을 막기 위하여 이제 막 두주일 전에 화란에 달려 왔을 뿐, 원래의 훈련단, 즉 독일 제1공정군의 사령관 슈트덴트 대장은 가능한 한, 전화 곁에 있으려고 생각했다. 영국군이 이날 공격을 재개하지 않나 하는 징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 오전 중에는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지냈다. 연합군 전투기의 폭음이나 간혹 총성이 들릴 뿐, 장군은 별장의 발코니에서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연합군이 활동하기에는 너무 좋은 날씨라고 생각했다.

네델라인강의 북쪽 아른헴의 서쪽 교외에 있는 호헬「탁훼벝그」의 정원식당에서는 독일 서방군 B집단군 사령관 왈타 모델 원수나 오른쪽 눈에 평상시와 같이 안경을 걸치고 고급참모들과 같이 식전주(食前酒)를 마시고 부하들은 식사를 준비 중에 있었다.

모델원수의 예상

슈트덴트·대장과 같이 모델 원수도 영국군의 공격은 빨리 올 것이며, 어쩌면 오늘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느끼고 있었고,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연합군의 부차적 공격은 아르헴에서 남쪽 약 16km의 와루강변에 있는 니매겐에 독일군 전선의 북쪽을 교차시키기 위해서 니매겐에서 아른헴을 향하여 실시할 것이다. 그러나 주공격은 아헨에 있는 미제1군의 정면에서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이날 아침 연합군의 공격은 귀찮을 정도의 공습만 실시하고 긴장은 풀리고 있다. 더욱 이날 아침 아헨의 미제1군에 독일군의 역습을 하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모델원수는 더욱 준비하고 있었다.

만약 미군의 진격을 막을 수 있다면 서부전선의 전체가 독일국경에 연하여 콩크리트제의 방책 「서방의 벽」, 연합군식으로 말하면 「지구후리트선」 가운데 전황을 교착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모델원수는 생각했다.

돌러마치려는 기갑부대

슈트멘트 대장이나 모델 원수와 마찬가지로 무장친위대의 위리·빗트릿히 SS대장—배우를 지망한 바 있는 멋쟁이—도 또한 이날 아침 자기의 사령부에 있었다. 그 곳은 아른헴의 동쪽 약32km 지점이었다.

빗트릿히 대장은 예상되는 영국군의 활동보다도 지휘하에 있는 SS기갑 5개 사단의 이동배치가 더욱 두통거리였다.

모델 원수는 빗트릿히 대장의 SS제2기갑군단 사령부에 소모된 기갑 1개사단을 재건하며 더욱 남는 기갑1개사단을 완전히 재장비시키기 위하여 독일에 송환하도록 화란에 와서 감독할 것을 명받고 2주간 밖에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막 빗트릿히 대장이 초기의 혼란에서 어느 정도의 질서를 회복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을 때, 베르린의 최고사령부는 계획을 변경하였다.

새로운 지령에 의해 아헨의 미국제1군에 대비하기 위해 기갑1개사단의 이동을 명령했다.

빗트릿히 대장은 SS제10기갑사단을 보내기로 하였다. 이 사단은 군단에 도착할 예정이면 최초의 재장비품인 27량의 5호전차 「판델」을 이미 인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이 나쁘게도 이날 오전 SS제10기갑사단장은 단기휴가로 베르린에 갔었다. 그래서 SS 제10기갑사단의 막료들은 사단을 아헨에 보내기 위한 이동준비에 분주했다.

증강된 1개대대의 전위부대는 이미 출발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부대가 진격을 개시하기 전에 독일국내에 후퇴시킬 예정이던 별도의 사단이 비교적 손해가 적은 부대를 SS 제10기갑사단의 지휘하에 두게 되었다.

이 사단은 SS 제9기갑사단이었으나 사단장은 불란서에서 퇴각 중에 부상하여 참모장인 와르타 화르사 SS중령이 사단의 지휘를 맡고 있었다.

17일 아침 화르사는 의기양양하여 부하에게 명하여 남은 전차와 장갑차의 화포를 분해했고 차량은 사용불능이기 때문에 SS 제10기갑사단에 이관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와같은 방법으로 마음에 둔 정찰대대를 거의 그대로 남기는데 성공하여 기분이 좋았다. 미리 이날 아침 그 대대장에게 훈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그 부대 집결지에 가게 되어 있었다.

점심 때 가까와 그의 참모차에 타고 총 500명의 대대원이 식전을 준비하여

정렬하고 있는 아른헴 북쪽에 있는 비행장에 도착하였다. 식이 끝나자 화르사는 비행장 근처의 장교식당에서 대대장교들과 기분좋게 축하연을 가졌다.

한편 화란전선의 후방에 있던 많은 지휘관 중에서 유독 혼자서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던 사나이가 있었다.

서방측 행동의 징조

그 사나이는 극히 최근 19세의 소년병을 주체로 하여 거기에 제1차대전에 참가한 경험을 가진 노병을 적당히 혼합편성한 보급대대의 대대장 제프·크래프트 소령이란 비교적 지위가 낮은 장교였다. 그의 대대는 점령지구사령부에 배속되고 있었다.

크래프트 소령은 이틀전 나이많은 점령지구 사령부 참모장 한스 폰 탯토 중장과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다. 『무엇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구나』라고 탯토 중장이 말했다.

두 사람은 식사 후에 포도주와 담배를 즐기면서 탯토 중장이 말했다. 『오늘은 독일이나 영국에서도 어디나 좋은 날씨다. 그런데도 대형폭격기 1대도 날아오지 않았다.

중장은 더 설명을 계속했다. 연합군은 전쟁의 중대한 전기에 와 있다. 그들은 하루라도 좋은 날씨를 헛되게 보낼리가 없다고…… 이것은 그들이 무엇인가 큰 것을 준비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탯토 중장이 말했다.

크래프트 소령은 상사에게 경고했는지를 물었다. 『놈들은 우리를 늙은이로 취급하고 나에게 냉소하였을 뿐이다』라고 탯토 중장은 슬프게 말했다.

아른헴의 서쪽 와르드후리테라고 하는 장원(일종의 농장)에 위치한 숙소로 돌아가는 도중 크래프트 소령은 탯토 중장의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크래프트 소령은 확실히는 모르나마 불길한 예감이 되었으며, 다음날 아침부터 지붕 위에 감시원을 배치토록 명했다.

9월 17일 일요일 아침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을 무렵 크래프트 소령은 또 다시 탯토 중장의 경고를 생각했다. 점심때 가까이 영국군기가 아른헴의 목표를 폭격하고 이어서 미군기가 와르드후리테에서 멀지 않은 목표를 공격하였다.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아른헴 북쪽에 있는 비행장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일까? 최근 수주간 연합군은 수차에 걸쳐 비행장을 폭격한 실적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른헴에 있는 대라인교를 노리고 있는 것일까? 아니 목표가 별도로 있는지도 모르겠다. 혹은 특

별한 목적이 없는 지도 모를 일이다.

정오가 가까와질수록 크래프트 소령은 더욱 초조해했다. 그는 부하 전원을 숙소에서 대기시키고 완전대기를 명했다. 또한 배급용 드라이찐을 가져오도록 명했다.

그날 일요일 점심 때 가까이 되어 영국 남동쪽의 상공은 세상의 메뚜기가 모두 모인 것처럼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준비 완료! 공정부대 출격

22개의 비행장에서 1,545대의 다그라스 C-47수송기와 병사, 차량, 무기, 장비를 탑재한 479대의 글라이더가 해안 상공에서 집결하기 위하여 이륙하고 동쪽으로 향해 가고 있었다.

그 외에 1,000대의 전투기가 속도가 느린 수송기의 주위에 방호막을 치기 위하여 수송기군과 같이 날고 있었다. 전날 저녁까지에는 하늘의 요새라고 하는 B-17이 900대 이상을 포함해서 거의 1,500대의 미·영연합 군기가 텟토 중장의 예고대로 『무엇인가 큰 일이』되는 대항공작전을 이미 개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작전을 독일군이 알지 못하도록 각 비행임무의 배분(配分)에 주의하면서 아른헴 주변에 넓게 산재하고 있는 비행장이나 고사포 진지를 내일 수송기가 통과할 예정인 두 개의 루트에 배치되어 고사포 진지를 기총 소사하거나 폭격한 것이다.

다그라스 C-47이나 글라이더의 기내에서는 거의 모든 병사들이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북해상공을 통과하기 전부터 거의 모두가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는듯 했다.

군인의 ⅔는 미군이며 나머지 ⅓은 영국군이었다. 미군인 로스 S카타 중사는 3회의 강하작전의 경험을 가진 베터런이었으나 비행개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썼다.

『엄숙하게 로보트와 같이 기내에 앉아 미소나 재미있는 유모어 등이 모두 얼굴에서 사라지고 우리들은 이제부터 전개되는 역사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편대는 폭음을 울리면서 선회하고 몇백 km의 하늘을 비행기로 덮으면서 대형을 만들었다.

우리들은 조용히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손해를 각오한 주간강하

또 니메겐 근처 아른헴의 남방에 강하하도록 되어 있는 미군제82공정사단을 지휘하고 있는 37세의 제임스 M 카빈 준장은 이와 같이 썼다.

『공정의 베터런도, 최초로 체험하는 자도 불만이나 걱정을 가진 것은 마찬가지다. 다만 그것을 나타내는 방법의 차이가 있으며 베터런 쪽이 적게 나타났을 뿐이다.』

베터런이나 신병에게도 이번 비행은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들은 주간의 공정공격에는 참가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야간공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야간에는 병사들이 바람에 쌀겨처럼 날려 몹시 분산하였다.

그래서 지휘관들은 적의 고사포에서 받을 손해를 각오하고 주간에 강하하는 것을 결정한 것이었다.

영국군 통신장교 안소니 던 드라몬드 소령은 비행기에서 보아 평화롭게 보이는 것에 놀랬다. 그의 회상에 의하면 『북해는 저수지와 같이 물결 하나 없었다』라고 했다. 이 드라몬드 소령은 그의 비행기에 타고 있던 병사가 거의 전원 잠자코 있었다고 썼다.

아른헴 부근에서 가장 북쪽 지역에 강하예정이던 영군제1공정사단의 지휘관은 로이 E 아카트 소장이었으나 그는 이 작전까지는 언제나 비행기 멀미에 지친 지상부대 지휘관 중의 한 사람이었다.

아카트 소장은 북쪽의 종대에 속하는 글라이더에 타고 있었다. 장군은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들이 전방과 아랫쪽을 보니 4대의 예인기와 예인된 글라이더를 보았다. 또 교요한 해상에는 공해구조정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윽고 1대의 예인기와 글라이더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끊어지며 구조정이 해상에 불시착한 글라이더쪽에 기민하게 이동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럭저럭하고 있는 중에 우리들은 화란 연안의 상공에 있었다.

남쪽종대에 속하는 1대의 C-47 중에는 남쪽에 강하하도록 되어 있는 미군제101 공정사단장 맥스웰 D 테일러 소장이 주위의 병사들과 같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한번 눈을 떠서 데이션을 먹고 다시 잠을 잤다.

대공화기에 잇따른 비극

화란 연안에 가면 독일군의 고사포사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누구나가 예측하였으나 최초에 출격한 연합군의 전투기와 폭격기가 임무를 훌륭히 끝내고 이미 독일군의 대공화기를 제압하고 있었다.

북쪽의 종대의 비행기는 대공포화를 받은 것은 아른헴과 니메겐을 향해 내

룩을 비행했을 때 뿐이었다. 남쪽 종대의 비행기는 전선근처의 강하지대에 향해 우호적인 벨기령 상공에 진로를 취하고 비행했기 때문에 지상전선을 통과할 때까지에는 전혀 사격을 받지 않았다.

전선에 들어가서 독일군 진지에서 고사포나 소화기의 사격이 심해졌다. 그러나 사격은 대부분 비행기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제32호기는 비군제101공정사단의 병사를 태우고 있었으나 심한 사격을 받았다. 독일군의 대공포진지 상공에 가자 적탄을 받아 비행기는 흔들렸고 다음 순간 오른쪽 엔진에서 불을 뿜었다. 가솔린이 엔진 주위에 날라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 기내에 들어왔다.

강하의 신호등을 기다린 사이도 없이 낙하산병들은 뛰어 내렸다. 기장과 통신병이 다음을 이었다. 두 사람이 내려다 보니 낙하산에 불이 붙어 있었다. 그들은 지상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을 때 예비낙하산이 펴졌다.

제32호기는 조종사 두 사람을 남긴 채 지상을 향하여 활공하기 시작하고 폭발과 동시에 기체가 없어졌다.

미제101공정사단을 태운 비행기는 아인도휀(화란남부의 도시 니메겐 남서 약 50km)의 북쪽에 있는 강하지대를 향하고 있던 중, 비극적인 사건이 끝났다.

테일러 소장과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던 대대장 패트릭·카시디 중령은 그의 연대의 A중대의 일부를 태운 비행기가 화염에 싸여 폭발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불에 탄 항공기가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병사 7명을 보았다. 그의 비행기도 주위에서 일어난 폭발 때문에 쇼크를 받았다.

「강하준비」의 빨간불이 켜져 병사들이 장구(裝具)를 조정하거나 자동전환을 걸고 하고들 있을 때 카시디 중령은 좌측 날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비행기가 불을 뿜는 것을 보았다. 기내에 있는 탑승원도 낙하산병들도 그들의 비행기가 불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불타오르는 비행기에 정신이 팔려 카시디 중령은 「강하」의 녹색등이 켜진 것을 보지 못했다. 카시디중령 테일러 소장은 조용히 말했다. 『녹색등이 켜졌어』『네 알겠읍니다』라고 대답했다.

미제101공정사단의 대원의 대부분은 뛰어내리는 것에 성공했으나 손해를 입고 비행불능이 된 비행기의 조종사들은 진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많은 사람은 목숨을 잃고 있었다.

또한 다른 돌발사고도 일어났다. 비

행기에서 안전하게 뛰어 내린 두 병사가 추락해 온 비행기의 프로펠러에 맞아 몸이 짤라져 죽어갔다. 또 하나는 똑바로 내려온 비행기가 이미 지상에 내린 병사 위에 떨어져 3명이 사망하였다.

강하를 초조해 하는 낙하산병

북쪽의 종대에서는 미제82공정사단의 병사를 태운 비행기 주위에 대공포화가 터지기 시작했었다. 하늘은 어느 곳이나 낙하산이 활짝 펼쳐 있었다. 낙하산의 장착대에 매달려 있는 병사들을 향해 펼쳐지는 풍경은 평화로운 것이었다.

병사의 몇명은 착륙시 낙하산을 신속히 접는 것을 실패하여 바람에 끌려 상처나 타박상을 입어 다리뼈를 상했다. 한 사람은 옆으로 착륙하였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소형기관총에 다리를 다쳤다. 큰 장비의 덩어리가 한사람의 머리에 떨어져 한 병사가 죽었다. 그래도 미제82공정사단의 대부분의 병사는 과거에 했던 강하훈련과 같이 잘 착륙할 수 있었다.

북쪽에 최초로 뛰어내린 가운데 한사람은 B.A 윌슨 소령이었다. 그는 45세나 되었으면서도 소년이라고 불리울만큼의 베터런 장교였다.

윌슨 소령의 임무는 영국군의 부대와 글라이더를 아른헴 서쪽에 강하시켜 착륙지대를 표시하는 Pathfinder(전료표시자)였다.

그러나 윌슨 소령의 부하 중 아직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격을 받아 죽은 자도 있었다. 윌슨 소령이 착륙의 충격을 느꼈을 때, 눈앞에는 한 사람의 독일병이 있었다. 그러나 그 독일병은 양손을 높이 들고 항복하고 있었다.

예정된 글라이더 착륙장

영국군부대를 태운 주력수송기 및 글라이더가 가까와지자 지상에서는 번쩍거리는 나일론제의 포판으로 강하착륙지대가 표시되었다.

어느 비행기 안에서는 대대장인 존 D 후로스트 중령이 강하준비의 빨간불이 켜지자 그 포판을 보았다. 부하들을 처다본 후로스트 중령은 부하들이 최후의 담배를 바삐 피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녹색등이 켜져 부하의 첫번 낙하산병이 공중에 뛰어 내렸다. 공중에는 낙하산의 꽃이 피었다. 수초 후, 후로스트 중령도 뛰어 내렸다.

연합군 2만여의 대공정작전

착륙지의 상공은 대형의 「호사」글라이더로 가득했고 글라이더와 에인기 간의 줄이 끊어졌다. 어느 글라이더는 지상을 향해 활공하며, 기타 글라이더는

착륙하기 위해 선회하고 있었다.

어떤 것은 넓은 들판에 활주하면서 비교적 조용하게 내려 앉았다. 또 어느것은 지면에 처박아 기체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조종사가 거리나 풍속(風速)의 판단을 잘못하여 착륙지점을 넘어갔다.

완전분해가 되어 날개가 떨어져간 것, 숲 속의 나무에 충돌한 것, 가로수에 부딪친것 등이 있었다. 수분 후 지금까지 평화스럽던 화란의 논밭은 대혼란을 맞이했다.

그 혼란에도 불구하고 영국군을 태운 454대의 글라이더 중 419대는 아른헴 서쪽에 착륙예정지대에 착륙하였다. 사상자는 비교적 적었다.

니메겐 부근과 아인트·호휀 북쪽의 미군도 마찬가지였다. 그 곳에 미군은 전술의 차이상 당초의 착륙에는 글라이더를 사용하지 않고 낙하산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1944년 9월 17일 일요일 순식간에 16,500명의 연합군 낙하산병과 4,500명의 글라이더병은 길이 80km에 달하는 화란지역에 강하하였던 것이다.

『할아버지 도대체 무엇이 시작된거죠?』 원주민의 한 소년은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자 숨가쁘게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모르겠다』고 노인은 말했다.

『그러나 전쟁도 끝장인 것 같다…』

2. 「마케트·가덴」작전

위렌·하아트 소년과 그의 조부는 사상최대의 공정작전이라 불리우는 「마케트」작전의 시작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작전의 종료까지에는 36,000명 이상의 미·영 및 폴랜드군이 낙하산이나 글라이더로 강하하기로 되어 있었다.

독일 본토를 노린 몽고메리

6개월 후에 개시될 예정의 또 다른 작전에서 그 첫날에는 보다 많은 부대가 공수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마케트」작전 전반에 걸쳐 참가한 공정부대는 그보다 많았다.

「마케트」작전계획은 캐나다 제1군과 영국 제2군으로 이룩된 영국 제21군집단의 비범한 재능을 가진 사령관 버나드·L·몽고메리 원수(1944년 9월 1일 승진)가 세웠다.

원수는 「서방의 벽—독일과 화란국경에 따라 펼쳐진 "지그후리트"선」이라 불리우는 독일군의 국경요새 측면을 포위하여 화란 서부지역에 있는 독일군을 분단하는 일과 영제2군에게 화란의 주요한 하천장애를 헤쳐 북부 독일 평원을 따라 독일영내 깊숙이 돌입시키기에 유리한 지점을 확보할 심산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몽고메리 원수가 이 계획에서 본심으로 노렸던 것은 이 대진격의 성과를 확대하여 일거에 전쟁을 종결시켜 버리려는 자기의 제안을 채택시키기 위하여 연합군 최고사령관 드와이트·D·아이젠하워 대장을 설득할 수단으로 삼으려는 일이었다.

그러기 위하여 원수는 베르린을 목표로 독일국내를 동북방을 향하여 「혈기왕성한 일대돌진」을 할 영제2군과 미제1군을 원조하기 위하여 연합군이 갖춘 총력을 모으라. 그렇게 되면 바틀거리는 독일군의 항복을 재촉할 수 있다고 열을 떠어 말하고 있었다.

몽고메리 원수는 최근 새로 편성된 제1연합공정군의 3개사단으로 길이 약 80km에 달하는 좁은 화란회랑에 공정부대의 양탄자를 깔아 한편으로는 네번째의 1개사단(영국 공수사단)을 뒤에 공수하여 아른헴 북쪽의 비행장에 착륙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 공정공격에서 장애가 되는 큰 하천에 놓인 여러 교량이 확보되면 지상군의 영제2군이 재빨리 화란회랑을 통과하여 아른헴을 지나 아이셀호수에 이르는 전장 160km를 전진할 예정이었다. 이 지상공격의 작전명칭은 「가덴」작전이었다.

신중한 아이젠하워

아이젠하워 대장은 독일국내를 겨눈 대돌진을 주장하는 논의에 도취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마케트·가덴」작전의 구상에는 찬의를 가지고 귀를 기울였다.

아이젠하워 대장은 연합군의 보급로가 너무 늦어져서 일거에 전쟁을 종결시킬 공격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보급품의 부족으로 인하여 군의 진격이 멈춰지기 전에 라인강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마켓트·가덴」작전은 이러한 그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고 있었다.

게다가 또한 아이젠하워는 노르만디 상륙 이래 지상부대의 진격이 신속한 탓으로 언제나 계획이 중지된 끝으로 출곧 작전도 없이 놀고 있던 공정부대를 활용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는 또한 미국의 육군참모총장과 육

군항공군 총사령관이 공정부대의 전략적 역할을 시험해 보고 싶어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사실 엘리트인 공정부대는 연합군의 예비대에 편입된 작전 대기부대였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공정부대를 경솔히 사용할 의사는 조금도 없고 요긴하게 사용할 기회를 주의깊게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마케트 가덴」 작전의 성공을 기대하였다.

병력부족의 연합군 지상부대

몽고메리 원수의 계획은 아마도 연합군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실시된 작전중 가장 대담하고 가장 파격적인 계획이라고 생각되었다.

이 작전은 경장비의 공정3개사단, 공수1개사단, 기갑1개사단과 보병2개사단이라는 극히 소수의 병력으로 실시되었다. 게다가 기갑, 보병의 3개사단은 화란 벨기 전선에 배치되어 있던 영제2군(사령관 마일즈 뎀푸시 중장)을 구성하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병력이 얼마나 부족하였나 하는 것은 어느 영군 고급장교의 말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 빈약한 병력은 어떤가! 이는 마치 다리 하나를 탈환하면 충분하다. 그 이상은 싸우지 말라고 밖에 더 말할 수 있겠는가」

이 계획에 있는 기본적 전제는 독일군이 불란서에서 장거리에 걸쳐 허둥지둥 퇴각하기 때문에 완전한 혼란상태에 있다는 것, 운하(運河)나 하천의 후방에 진지를 점령하는 까닭에 독일군의 증원부대가 도착 중이라는 정후는 있다 할지라도 전진 중의 부대는 극소수로 게다가 훈련이 부족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종보고 가운데는 연합군 측에 달갑지 않은 것이 몇 가지 있었다. 정찰기의 조종사는 니메겐과 아른헴에서 대량의 철도수송이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또한 화란의 레치스탐스 부대는 피해를 받은 독일군 기갑부대가 화란에 도착하여 재정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받고 당황한 것은 영제2군 사령관 마일즈·뎀푸시 중장이었다. 그래서 그는 몽고메리 원수에게 찾아가서 급히 옆길을 따라 화란영내를 북상하기보다는 우익의 미제 군을 따라 북동쪽으로 돌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말하였다.

만약 뎀푸시 중장이 다음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런 주고를 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2일전에 독일군의 유명한 초음속 로케트탄(파괴적인 V2호)의 최초의 1탄이 런던에 떨어졌다. 독일군은 이 로케트탄을 화란의 헤그 부근의 기지

에서 발사하고 있었다.

몽고메리 원수가 템푸시 증장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영국 육군성은 이 기지를 점령하든가 또는 발사를 저지할 조치를 취하도록 몽고메리 원수에게 타전해 왔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영제2군이 화란 령 북방에 돌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또한 독일군이 병력을 증강 중이라는 보고가 틀림이 없다는 사실은 연합군의 성공 가능성을 한층 더 어둡게 했다.

독일군의 의표를 찌른 기습강하

운하나 하천의 후측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독일군의 증원부대는 독일제1공정군(사령관 슈트덴트 대장)의 전위거나 아니면 독일제15군의 선봉부대 중 어느 하나였다.

이 독일제15군은 캐나다군이 안트와프(벨기에의 북부 세르트강에 있는 항구)를 점령했을 때, 영국해협의 해안에 뭇박혀 있었으나 대부분의 부대는 소형주정을 이용하여 세르트하구를 건너 화란 중부로 빠져 나간 부대였다.

또한 철도의 활발한 운행과 기갑부대의 도착을 전하는 정보는 SS제9, 제10기갑사단을 장악하는 위리·빗트리히 대장의 SS제2기갑군단의 존재를 전하는 것이었다.

한편 후에 진실성이 드러나게 되었으나 기묘한 이야기가 있다. 독일군은 한 사람의 화란인 협력자를 제공했다. 연합군계획의 정보를 활용하여 기갑사단을 이동시킨 것이었으나 이 협력자는 여자 다루기에 뛰어난 소질을 가진 자로 「킹·콩」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이것은 짤막한 간첩이야기지만 실제로 모델 원수가 기갑사단에게 화란 이동을 명한 것은 9월 3일이었다. 즉 몽고메리 원수와 아이젠하워 대장이 공정공격을 결정하기 7일 전의 일이었다.

그러나 나치협력자인 이 화란인이 영국군은 내일 공격을 재개하며 그 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부대를 활용코자 하고 있다고 9월 16일 알려왔을 때 독일군은 이 정보를 그 즉시에는 신용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공정공격의 「마케트」작전은 완전히 독일군의 의표(意表)를 찌른 것이었다. 그러나 작전을 개시하고 보니 기습과 강하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로 귀찮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교량이 전투의 중심으로

영군의 강하, 착륙지역은 중요목표(네델라인강에 놓인 아른헴의 거대한 도로

교량)로부터 9~13km나 떨어져 있었으므로 도보로 도착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병사들이 행진을 시작하자 곧 화란인들이 모여 들었다. 그들은 색깔이 고운 옷을 입고 국기를 손에 들고 병사들을 얼싸안거나, 사과나 토마토 또는 꽃을 굳이 받으라고 성화하였다.

그 수는 드디어 넘칠듯 불어서 도로가 차단되어 버렸다. 마치 카아니발과 축제가 한꺼번에 겹친듯 하였다.

모델 원수는 타웨벨그 호텔에서 달려나와(급하게 챙긴 수우츠 케이스의 물건들을 흘리면서) 전용차를 빗드리히 대장의 사령부로 몰았다. 사령부에 당자 빗드리히 대장은 이미 SS기갑2개사단을 투입한 조치를 취한 후였다.

빗드리히 대장은 영군이 아른헴의 네델라인강에 걸린 대교에 도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1개사단을 파견하고 한편 다른 1개사단에게 서둘러서 대교를 건너게 하여 남쪽으로 전진시켜 놓고 있었다.

빗드리히 대장은 그 때에 미군의 강하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없었으나 혹시 영국 지상군이 아른헴의 낙하산부대와 손을 잡는다면 그들이 쳐들어 올 곳은 그곳(아른헴 다리의 남쪽) 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독일군은 최후의 승리를 굳게 믿고 있었기에 아른헴의 철도 교량은 파괴하였으나 국도교량은 니메겐 아른헴 어느 것도 폭파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았다.

빗드리히 대장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자 영군의 대대장 존·D·후로스트 중령과 500명 미만의 병사들은 드디어 네델라인강에 걸린 교량의 북단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남단은 독일군이 고수하고 있었다.

다른 영군부대는 할 수 있는 한 노력하였으나 단 1개부대도 후로스트 중령의 작은 부대를 증원하기 위하여 전선을 돌파할 수가 없었다.

웰트후리데(아른헴 서쪽의 장원)으로부터 온 제프 크래프트 소령이 지휘하는 소년과 노년병으로 이룩된 독일군 보급대대가 영군의 배후를 향하여 급진중일 때에 SS제9기갑사단의 부대는 아른헴 시가지의 건물 그늘 속에 숨어들어 영군에 대하여 응급조치이기는 하였으나 효과적인 감시망을 폈다.

다리의 북단에 있던 후로스트 중령의 대대는 어느틈에 장갑차와 전차로 포위 공격을 받게 되었다.

독일 기갑사단이 미제82공정사단을 포위

또한 니메겐에서는 미제82공정사단의

병사들이 어느덧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려 하고 있었다. 존·톰프슨 중위와 그의 6명의 부하가 우연하게도 그래이브(니메겐의 남쪽에 있는 도시) 근처에 있는 마아스강 교량의 남단으로부터 수 m의 장소에 낙하하였기 때문에 이 중요목표인 교량은 곧 점령할 수 있었다.

게다가 마아스강과 와르강을 잇는 마아스·와르운하에 걸린 교량도 유사한 방법으로 점령하였다. 낙하산병들은 또한 민첩히 행동하여 니메겐 동남쪽의 고지를 점령하였다.

이 고지는 화란의 해안 적지대에 있어서는 몇개 안 되는 제법 높은 언덕이었으므로 미제82공정사단장 제임스·M 캐빈 준장은 자기의 부하들로 하여금 영국지상군이 올 때까지만 버틸 수 있다면 이 고지는 중요지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캐빈 준장은 밤이 되기 전에 이 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부대로부터 1개대대를 빼내어 다른 중요목표를 확보하기 위하여 파견하였다. 그 중요목표란 지상부대가 니메겐을 통과하여 아른헴을 향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와르강에 걸린 거대한 도로교량이었다.

강하 직후 이 교량을 미군이 점령하는 것을 저지하려던 것은 다리를 지키고 있던 극소수의 독일군 초병들 뿐이었다. 그러나 미군이 다리를 향하여 행동을 개시한 순간 독일SS제10기갑사단의 선견부대가 그 다리를 건너 출격하여 니메겐 시내에 있는 방어진지를 굳히고 말았다. 결국 이 다리는 연합군이 수시간에 걸쳐 혼란된 질서와 태세를 갖추기까지 연합군의 손이 미치지 못한채 남겨지고 말았다.

제일 남쪽에 강하한 미제101공정사단(사단장 맥스웰·D·테일러 소장)의 병사들은 영국 지상군이 통과하기로 되어 있는 북쪽으로 향한 쓸쓸한 국경 근처의 그래이브~아인트호헨 간의 운하나 적은 하천에 걸려있는 교량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아인트호헨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한 개의 운하교량만은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독일군이 그 다리를 목전에서 폭파해 버린 때문이다. 그러나 낙하산병들은 그 다리에 이르는 도로는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다음 날에는 그의 무저항으로 국기의 파도와 민중의 환호를 받으며 아인트호헨 시내를 행진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전 작전계획이 독일군의 수중에

미군은 알지 못하였으나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이 공정공격에 대한 독일군의 대응행동을 지독하

게 빠르도록 만들었다.

독일군 공정사령관 쿨트·슈트덴트 대장이 마아스강의 남쪽 수 km 밖에 있는 정용별장의 발코니에서 머리 위를 지나가는 비행기와 글라이더의 대편대를 보고 있을 때(그의 놀라움 속에는 연합군의 풍부한 병력과 장비에 부러움이 앞섰으나) 고사포탄이 1대의 글라이더에 명중하여 글라이더는 별장 근처의 밭에 추락하였다.

독일병사가 달려가 보니까 이미 승무원은 숨져 있었다. 그 죽은 자의 포케트에서 독일군 한 명이 한 뭉치의 서류를 빼내었다.

그 연합군의 명령서의 사본은 최초의 낙하산부대가 강하한지 채 2시간도 못되어 슈트덴트 대장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게다가 영국 지상부대가 아인트호휀 남쪽에 구축된 독일군의 견고한 방어진지를 돌파할 것을 시도하여 고전 속에 빠졌을 때 또 하나의 불행이 연합군에게 안겨졌다.

계획에서는 영국지상부대는 제1일의 석양 때까지 아인트호휀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영국 기갑부대는 밤이 되어도 약 10km 떨어진 곳에 어름거리고 있었다.

만약 지상부대하 아른헴에 강하한 공정부대와 4일 이내에 손을 잡을 수 있다면(4일간이 공정부대가 지탱할 수 있는 한계라고 작전계획자들은 믿고 있었다) 승패의 명암(明暗)을 바꿨을지도 모른다.

다음날(제2일~9월 18일)의 날이 새었으나 아무 것도 호전될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기가 극히 불순하여 보급품의 공중투하나 공정증원부대의 파견이 늦어지거나 때로는 전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 뒤로는 무한히 용감한 행동과 희생적 정신이 발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부대는 아무 것도 달성하지 못하고 열세를 만회할 수도 있었다.

영국 지상부대가 아인트호휀에 공격을 개시한 것은 이미 전투 제2일의 땅거미가 지고 어둠이 몰려 온 후였다. 그리하여 아인트호휀 북쪽의 운하에 걸린 파괴된 교량의 수리가 끝난 것은 제3일(9일 19일)의 아침해가 뜬 후였던 것이다.

한낮이 가까와서 영국 지상부대가 간신히 니메겐에 도착하여 보니 구비친 와아르강에 걸린 국도교량은 또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고립무원(孤立無援)의 붉은 악마

제 4일—9월 20일 수요일

이미 밤은 깊었으나 작고 엷은 캘바

스제의 돌격주정에 타고 폭약 360m의 와아르강에 몰고 늘어진 미군 낙하산 부대의 공격을 받고 독일군은 겨우 니메겐의 대교를 포기했다.

그러나 완강한 독일군은 굶주린이처럼 다리 밑에 가로 받침대나 지주에 엉겨 붙어 있었다.

제5일(9월 21일)이 저물어갈 무렵 간신히 영국 지상군부대의 소대는 와아르강을 건너 아른헴의 영 공정부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영군의 낙하산병들—붉은 빛이 도는 갈색의 베레모를 쓰고 "붉은 악마"라고 자칭했다—은 줄곧 고립상태였다.

네델라인강에 걸린 다리의 북쪽에 있던 후로스트 중령의 부하 500명은 단독으로 또는 집단으로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고 겨우 50명 뿐이 생존하여 있었다.

한편 독일군은 영제1공정사단(사단장 로이·E·아아카드 소장)의 잔부를 네델라이강의 도선장과 타첼벨그 호텔을 양측으로 한 지극히 좁은 말굽모양의 진지 내에 몰아넣고 말았다. 타첼벨그 호텔은 작전 제1일(9월 17일) 모델 원수가 허둥지둥 뛰쳐나온 곳이다.

절망적인 구원작전

제5일—9월 21일 목요일.

니메겐의 미군(미제82공정사단)이 최후의 독일병을 와아르강의 다리에서 구축해 버린 바로 그때 영군은 몰아넣어진 제1공정사단의 붉은 악마들을 증원하기 위하여 폴랜드의 제1낙하산여단을 네델라인강의 남쪽에 강하시켰다.

폴랜드부대는 나룻배를 타고 말굽모양의 진지로 갈 예정이었으나 낙하산병들이 강변에 이르기 전에 나룻배는 독일군의 포격으로 갈아앉아 버렸다.

게다가 그때 독일군은 말굽모양의 진지의 서쪽 정상에 전원풍(田園風)의 레스토랑이 있는 언덕에서 영군을 몰아낸 후였다. 그리하여 그 언덕에서 독일군 포병은 말굽모양의 진지와 네델라인강의 양쪽을 제압했다.

"붉은 악마"들을 구원할 유일의 희망은 니메겐에서 전진 중인 영 지상부대가 휴대하고 오는 도하공격용주정이 도착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었으나 그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영국지상부대가 이무리 재빨리 도중의 독일군을 돌파하고 강기슭까지 이르렀다 하더라도 언덕 위에 포진한 독일군 포병의 십자포화에서 어찌 강을 건널 수 있었겠는가?

모든 가능성이 의심스러웠으므로 영제2군사령관 템푸시 중장은 아른햄 북쪽의 비행장에 공수하기로 했던 공수사

단에게 공정부대를 증원시키려는 제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와아르강과 네델라인강 사이에 토지는 해안저지대인고로 물기를 먹은 해면상(海綿狀)모양을 하고 있어 전차는 물론 장갑차의 무게조차 지탱할 수 없었으므로 지상부대의 작전은 한층 더 곤란한 것이었다.

독일군은 영국군의 공격을 방해하자면 아른헴으로 통하는 주요간선도로와 몇 갈래의 지름길을 봉쇄하는 것으로 충분하였다.

영군을 보다 더 불리한 상태로 몰아넣은 것은 아인트호휀으로부터 북쪽으로 통하는 한기쳐 드문 국도—미제101공정사단의 대원들은 지옥가도(地獄街道)라고 불렀다—를 전진해 오는 차량부대가 독일군의 심한 포격을 만나 증원부대와 보급품 수송에 차질이 생긴 것이었다.

제6일(9월 22일)에는 독일군의 지상공격에 의하여 국도는 일시적으로 차단되어 버렸다.

손해 1만 이상을 낸 참패

제7일—9월 23일 토요일.

이날에야 간신히 제법 많은 영국군 병력이 "붉은 악마"들이 포진하고 있는 말굽모양 진지의 네델라인강 맞은 편 기슭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그날 밤과 다음날 밤에 도강을 시도했으나 남쪽 기슭의 발붙일 곳 없는 개펄과 맹렬한 독일군의 포격 때문에 지원은 안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영국군의 지휘관들은 드디어 패배를 자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9월 25일 말굽모양의 진지에서 버티고 있던 낙하산병들의 철수를 인정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피로로 충혈된 눈을 번쩍이며 살아남은 "붉은 악마"들 중 움직일 수 있는 자는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서 진흙투성이의 구두를 헝겊으로 감싸고 해가 진 후, 독일군 척후병들의 눈을 피하여 강기슭으로 향하기 시작하였다.

300명 이상의 부상자들은 말굽모양의 진지 안에 남겨져 독일군의 뜻에 맡겨진 운명이 되었다. 또 한편으로 그 10배도 넘는 병사가 이미 확란이나 독일의 병원에 수용되어 있었다.

그날 밤은 고마울게도 캄캄하고 게다가 비가 몹시 내렸다. 처음에는 총소리도 없이 조용했으나 한밤중이 지나자 독일군도 사태를 눈치채고 강기슭에 포격을 개시했다.

독일군의 포격과 초조와 긴장 피로, 게다가 찬비 속에서도 병사들은 느긋하게 보오트에 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이 가까와오자 많은 병사들은 위험한 강물을 헤엄쳐 건느려 했다. 그러나 날이 밝을 무렵까지도 근 300명이 넘는 병사들이 북쪽 기슭에 남아 있었다.

네델라인강의 북쪽에서 싸운 약 9,000명이 겨우 2,400명이 탈출하였을 뿐이었다. 1,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게다가 수백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같은 기간중 미공공정 2개사단(제82, 제101)을 합쳐 사상자 수는 3,500명이었다.

글라이더의 조종사와 영군 지상부대의 손실까지 포함시킨다면 「마케트·가덴」 작전에서 연합군의 병력피해는 11,850명이었다.

그러나 이 작전은 몽고메리 원수의 처음 시도했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 마이스강과 와르강을 건느는 교두보를 포함하여 화란영내 깊숙이 95km에 이르는 가도를 획득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 작전은 실패였다고 말할 수 있다.

「마케트·가덴」작전중에서 최후의 하천 네델라인강의 맞은 편 기슭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 화란을 분단하는 것, 서방의 방벽의 측면을 포위하는 것 또는 북부 독일평원에 깊숙이 침투하기 위하여 영국군을 배치하는 것 등은 모두가 실패하였다.

또한 비틀거리는 독일군을 괴멸로 몰아 넣을 수 있는 대진격도 감행할 수 없었다. 실패의 원인은 운수가 나빴기 때문이라고 한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SS기갑사단의 위치, 탁월한 모델원수(독일 B군집단사령관), 슈트벤트 대장(독일군 공정부대사령관), 빗드리히 SS대장의 존재나 연합군의 작전명령서가 독일군의 수중에 넘어간 것과 일기가 급변한 것 등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연합군은 9월 중 북서유럽의 날씨가 변덕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하더라도 병력과 장비 등이 부족했던 탓으로 첫날에 전공정부대를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연합군에게 크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공정공격의 진가(眞價—기습공격의 효과)가 발휘된 것은 최초의 부대가 도착하였을 때에 꼭 한번 뿐이었으니까.

그 외에도 문제가 있었다. 영국군은 아른헴에서의 전투 중 무전기가 소형으로 성능이 나빴기 때문에 손해가 가중되었다. 영국군은 비행기나 글라이더에 되도록 많은 병사들을 수송하려고 이 종류의 무전기를 선정한 것이었다.

또 아른헴의 도로, 교량 근처에 집중되었던 독일군 고사포에 겁을 먹은 영제1공정사단장 아카트 소장이 강하 및 착륙지대를 중요목표로부터 떨어진 곳

에 선정한 것도 독일군으로부터 약간의 저항을 받았으나 목표점령에 무척이나 힘에 겨웠던 원인 중의 하나였다.

헛수고한 공정작전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마케트·가덴」 작전의 실패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만약 영국지상부대가 아인트호휀 남쪽과 와르강 북쪽에서의 전투에서 좀 더 용감히 싸웠더라면, 또 미 제82공정사단장 제임스·M·캐빈 준장이 공정부대에 걸었던 모험심과 정열과 활기를 발휘하여 와르강의 다리를 기습공격하고자 처음부터 적어도 1개대대를 빼돌렸더라면 「마케트·가덴」 작전은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캐빈 준장이 아무리 상관이 인가한 사전계획에 따라 행동했다 할지라도 실패의 사실과 그것이 가져온 중대한 결과는 결코 소멸시킬 수 없는 것이다.

「마케트·가덴」작전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몽고메리 원수가 가슴에 품었던 원대한 계획을 실현했을는지는 영구히 수수께끼로 남았으나 아마도 그것은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확실히 독일군에는 영국군에 대처할 수 있는 예비대는 전혀 없었으며, 또 공정부대의 강하는 아돌프·히틀러 총통에게 식은 땀을 흘리게 했다.

(후에 히틀러는 "연합군이 공정부대를 강하시켜 나와 막료들을 잡으러 오면 어쩔텐가?"라고 꾸짖었다.)

그러나 독일군 수뇌들은 패배의 징후나 패주 또는 집단도망의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보급선이 길게 늘어나 이미 한계점에 이르렀다. 허약해진 연합군은 스스로 이루어 놓은 이상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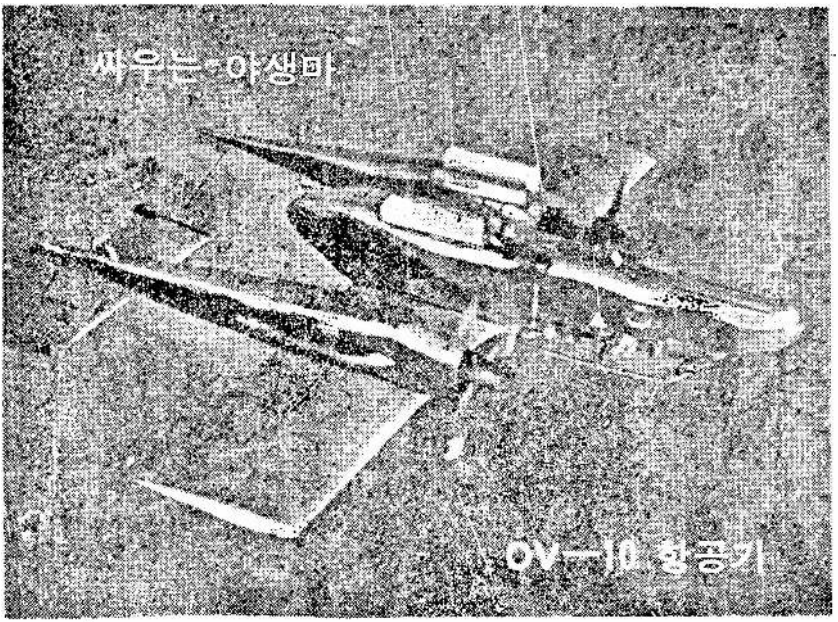
□ 세계 명언

◇ 인생은 낯설은 땅에서의 전투이다. 그리고 뒤따르는 명성은 망각되기 쉬운 것이다.

— 마르크스 아우델리우스 —

◇ 전쟁은 가장 승산있다 해도 국가적 불행이다.

— H·V 몰트케 —



배 종 학 역

동남아시아에 있는 BRONCO(미국 서부 대평원의 야생마를 뜻함) 기지에 날아들어 온 OV-10 교관 파일럿은 「Double-Breasted Hummingbird」 즉 그의 FAC(전방 항공통제관) 주요역할에서 뛰어날 뿐 아니라 주사위가 던져졌을 때 열띤 장소로부터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분란대책(紛亂對策) 항공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OV-10 항공기 자체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전술은 모두 여기에 기재되어 있다.

필자인 미 공군대위 「Henry. S Bartos」는 South Carolina 대학의 공군 ROTC 계획에 의해서 1966년도에 임관하였다.

B-52 항공기를 300시간 비행 후에 그는 1969년초 FAC일원으로서 동남아 파견길에 오르기 전, 플로리다주 Hurlburt 기지에서 OV-10 항공기 훈련을 완료하였다.

그는 동남아에서 OV-10 항공기로서 840시간이라는 출격시간을 기록하였다. Bartos 대위는 현재 Hurlburt 기지의 교관 파일럿 및 OV-10 항공기의 기능점검 파일럿으로 근무하고 있다.

BRONCO 항공기를 타고 1850시간이라는 비행기록을 돌파함으로써 그는 미 공군에서 OV-10 항공기 비행시간 제5위의 순위를 보유하고 있다.

OV-10 BRONCO의 제원과 성능

설계자 및 제조업자; North American Aerospace Group, Rockwell International.

개발계약—1964. 10.

생산계약—1966. 10.

형 태; 2개의 좌석, 다목적 분란대책 항공기

미 공군에 최초 공급한 시기; 1967. 6.

미 공군에 최초 전투임무수행 시기; 1968. 7.

날 개 폭; 40피이트

길 이; 41피이트 7인치

높 이; 15피이트 2인치

중 량; 7,000 파운드

정상 이륙시 9,900 파운드

최고속도; 242 Knot(279 MPH)

상승 고도한계; 2,800 피이트

내부 연료수용능력; 252 갈론

정상 임무수행시간; 3시간 30분(FAC 임무시)

현지 수송거리; 외부 투하탱크 150갈론으로서 1,200 nm

최단 거리이착륙; 11,500 파운드의 이륙거리—1,000 피이트

300 피이트 이상의 장애물—1,500 피이트

9,200 파운드의 착륙거리—500 피이트 내지 600 피이트

발전장치; 2개의 Garrett Aireseach T76-G-410/411 Tuboprop 엔진, 715 Shp each.

무　　장; 7.62 mm M-60기관총 4문.
Rocket나 다른 무장을 위하여 또 600 파운드급의 폭탄을 달 수 있는 Hard Point 4개소
기타 사용자; 미 해병, 서독, 태국 및 베네주엘라 공군

「Double-Breasted Hummingbird」는 이제 나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나는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

"Palace Cobra"라고 불리우는 계획에 따라 나는 B-52기 훈련을 위해 선발되었으나 OV-10 항공기 학교에 입교하기로 픽업되었다.

이에 대한 나의 첫소감은 그리 탐탁한 것은 아니었으나 오래지 않아서 나는 이 귀엽고 조그만 Double-Breasted Hummingbird는 나의 찻(茶)잔과도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North American Rockwell의 OV-10A BRONCO는 공군의 재고품 목록중에서 가장 최신형 항공기이다. 이 항공기가 분란대책임무를 위해서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공군에서는 OV-10 항공기는 전방 항공통제관 임무에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대의 제한전과 분란대책의 필요성에 따라서 제작된 BRONCO는 수행범위를 낮게 구분하는 수완을 사용함으로써 운용되고 있다.

헬리콥터보다 더 빠르고 보다 전술적으로 융통성있게 사용되며 제트기보다는 속도가 느리나 보다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OV-10 항공기는 헬리콥터나 제트기로서는 불가능한 근접지원 전술을 수행해 낼 수 있다.

BRONCO로 1,800 이상의 비행시간을 가진 후(그 중 840시간은 남부 월남에서 수행하였음) 나는 개인적으로 이 비행기가 아군 가까이에 있는 전장(戰場)의 제반 목표물들을 발견하여 일격을 가하는데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

임무에 적절히 제조된 OV-10기

나의 Double-Breasted Hummingbird에 관해 보다 포괄적인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BRONCO의 성능과 특징 및 장비는 공중—지상 전장통합반에 필요한 제반 기동력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전선(戰線)의 지상군 가까이에서까지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전방 항공통

제관에게 전술적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해주며 반응시간을 감소시켜 주고 있다.

OV-10 항공기는 근접 및 저고도 전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동성과 생환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가시능력(可視能力)을 겸비하고 근접할 수 있는 이와같은 능력은 보다 좋은 표적획득과 속공 및 정확한 투하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협조 및 전술적 통제효과를 위해서 BRONCO는 보다 적절한 통신 및 항공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전방 항공통제관은 적의 진지로 여겨지는 곳을 추적할 수 있으며 아측 지상군과의 협조를 위해서 VHF-FM Radio System과 공격기 및 전술 항공통제기관과 통신을 교환할 수 있는 UHF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전방 항공통제관은 장거리 고주파 Single Sideband(HF-SSB)로 스위치를 돌릴 수 있다.

항공 보조부문에 있어서 OV-10 항공기는 회전나침반, 방향지시기 그리고 거리와 방위 및 지상의 위치를 알려주는 TACAN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OV-10에는 전투기에 대한 OV-10의 적극적인 추적을 가능케 하는 IFF와 Electronic Beacom(TACAN에 강력한 UHF신호가 추가된)도 보유하고 있다.

전방 항공통제관 협조에 있어서 중요한 또다른 요인은 살벌한 전방지역에서의 작전능력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속 이착륙 성능과 거치른 활주로에서도 견디는 Gear 및 보급/정비의 부족도 견디는 항공기가 필요하게 된다.

동남 아시아에서의 나의 대부분의 비행은 전방지역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거치른 급조(急造)활주로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커다란 고무나무 숲 속의 방공호에서 나에게 근접저격을 위해 기다리고 있을 "Charlie"에 대한 불쾌한 생각은 나로 하여금 최대성능을 가진 이륙(Maximam-Performance Takeoffs)방식을 사용하도록 해주었다.

간혹 나는 비교적 안전한 고도로 나의 전방작전지역에서 되돌아와서 착륙 급조활주로 끝을 통과하지 않고 주활주로에 바싹 닥아가서 선회하곤 했다.

Landing Gear 밑에 있는 독특한 Knuckle 부분은 조종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부담과 남용을 받을 수가 있다.

North American 회사에서는 OV-10 항공기의 Landing Gear는 자동차가 조종을 상실치 않고는 13MPH 이상 더 빠르게 다닐 수 없을만큼 거치른 특

별히 구축된 Field에서 95「노트」라는 속도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다.

나도 그것을 믿고 있다. 조종에 있어서 OV-10 항공기는 착륙용 Nosewhe-l 조종을 수압으로 조종하여서 매바퀴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따라서 Engine의 동력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비행기는 쉽게 조종될 수 있다.

조종력을 이와같이 변화시킴으로써 비행기체는 10센트짜리 은화(銀貨)위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 통상 브레이크는 Prop가 역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필요치 않다.

통상 BRONCO에 연료를 재보급하고 무기를 장진하고 또한 검사를 하는 전방지역에서는 1명의 정비요원(Crew Chief)만이 필요로 하게 된다. 항공기가 사용하고 있는 JP-4 연료는 전방의 작전지역에서 쉽사리 얻어질 수 있다.

OV-10 항공기에 적용되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우수한 가시도(可視度)이다. 공중 및 지상의 제반 작전을 효과적으로 이끄는데 있어서 가장 요구되는 필요사항은 교묘하게 은폐된 적을 알아내는 능력이다.

이러한 것은 동남아시아, 즉 공중감시로부터 은폐하는 것을 다년간 경험을 가진 "Charlie"에서는 특히 사실인 것이다.

앞뒤로 나란히 놓인 무개(無蓋)조종사실 배열은 조종사와 관측자 양인에게 기체 양측에 방해를 받지 않는 전경에 대한 가시능력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CANOPY는 BRONCO가 급회전을 할 경우에라도 지상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계속하게 함으로써 머리 위에서 최소의 보조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경계가 되는 목표를 냉혹하게 탐색해 내는 크고 노출된 눈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의 OV-10 항공기의 제반 전술

적이 「정글」 속에서 교묘하게 은익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전방 항공통제관(FAC)들은 조그마한 속임수도 알아낼 수 있었다. 사실상 우리는 과거 서부에서 기병대에 의해서 고용된 「인디안」수색병과 아주 흡사했다.

우리는 최근에 사용되었다고 느껴지는 흔적, 최근의 도장을 표시해 주는 진흙으로 덮인 지점이 있는 강, 「정글」에서부터 솟아오르는 한 오라기의 연기 또는 심지어 조그마한 촌락에 열지어 널려 있는 의복가지의 형태조차도 세밀

히 찾아내곤 하였다.

이것은 오로지 우수한 기동력과 넓은 행동범위를 겸비한 BRONCO의 특히 우수한 가시능력(可視能力)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었다.

보통 나는 최대의 가시능력을 위해서 비행하고(대략 1,500피이트) 천천히(대략 120노트) 비행하였으나 동시에 나는 나를 겨누고 있을 "Charlie"를 피하기 위해서 후각적인 비행(Nose Moving)을 하기도 했다.

사전에 계획된 공격지대에 대한 위치를 정확히 알아낸 후, 나는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아군측에게 알리고 또한 아군측의 진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아측의 지상군부대를 호출하곤 하였다.

만일 아군이 안전하다면 "연기같은 것을 피우고" 그렇지 못할 경우 신호용「판대기(Panel)」를 땅 위에 깔라고 했다.

아군 및 여단본부로부터의 확신을 얻은 후 예정된 전투기들이 도착하였다. OV-10 항공기의 하얀 머리 부분은 전투기조종사(Fighter Jock)들에 의해서 쉽사리 발견되며 혹 필요할 경우 나는 BRONCO의 연막발생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

Fighter Jock들이 간결한 지시를 받고 나에게 표적을 지적할 준비를 요구하면 나는 비행속도를 판단하고 어떠한 방향으로든 탈출비행(Split S)으로 회전하거나 혹은 보조날개를 회전하여 목표를 향해 들어간다.

나는 표적을 추적해감에 따라 적이 나를 추격해 올 경우를 생각해서 추격시간을 최소로 단축하였다. 나는 조명 Rocket를 발사하고 곧 궤도를 이탈한다.

OV-10 항공기는 6G의 압력을 받으며 거의 정신을 잃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난 후, 나는 언기나는 곳을 강타하라고 전투기에 명령한다.

Fighter Jock들이 얼마 동안 폭격을 마치면, 나는 그들에게 폭격성과를 평가해 주고 그들을 돌려보내곤 하였다.

사전계획된 공습표적들이 육군정보에 의해서 선택된다 하더라도 전방항공통제관(FAC)은 아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아군측 위치선정에 극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전방항공통제관(FAC)들은 지도를 해독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숲이 울창한 100m 이내의 거리에서 6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된 좌표의 구획을 쉽사리 계획할 수 있다.

사전계획공습(Preplaned Strike)후 나는 무엇인가 탐지해내고 지원을 요청

하는 지상 라디오통신사(Ground Radio Operator)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까지 시각수색(V-R 視覺搜索)을 펴곤 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전공습을 지휘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방항공통제관(FAC)이 공수된다. 예를 들면 정찰 중에 있던 아군들이 "Charlie"를 만나 교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에는 우리는 30분 이내에 그에게 폭격을 가하곤 했다.

직접적인 화력지원이 요청될 경우 BRONCO는 14개의 「Willie Petes(백색의 인(燐)연막 로케트)」와 14개의 「H-E Rocket(고단위 유산탄·榴散彈)」를 포함하여 4개의 로케트를 가지고 있다.

그 외에 7.62mm탄약이 2,000발 들은 M-60 기관총이 전방 항공통제관이 사용하도록 장진 준비되어 있다.

「Willie Petes」는 표적을 표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H-E Rocket가 특히 2~3개가 동시에 한 지역에 발사될 때 효과가 대우 크다. OV-10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는 Rocket가 아주 정확하게 투하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같은 병기는 우연히 투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비상사태가 닥쳐오고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정세판단이 서고 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전방항공통제관(FAC)의 주임무는 유익한 표적을 발견해내어 그것에 대한 공습을 유도하는 것이다.

제1항공기병사단과 함께 전투참여

나는 동남아시아 근무의 처음 절반은 제1항공기병사단 제2여단과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의 시간은 제3여단과 함께 보냈다.

제1항공기병사단은 언제나 수행해야 할 작전이 많았다. 나는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강철「매트」로 된 짧고 좁은 PSP활주로나 알미늄활주로 그리고 때로는 고무나무로 가려진 진흙의 급조활주로가 있는 육군비행장을 이륙하였다.

나의 애기(愛機)의 속공능력은 바람이 높은 상태에서 내가 내뿜는 명중탄이 선도전투기(Lead Fighter)가 회전해 들어올 수 있기 전에 명중할 경우에나 또는 나의 Willie Petes가 늦지대에 명중될 경우 여러 모로 편리하였다.

그리고 나서 나는 전혀 두려움없이 또 다시 표적을 향해 즉시 회전해 들어갈 수 있었다.

BRONCO의 우수한 기동능력과 가시능력 때문에 나는 나의 표적에서 급상승하여 내가 표적한 곳을 공격하는 1번기

의 폭격을 주시하고 그와 동시에 2번기가 회전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OV-10 항공기에 설계되어 있는 고도의 구명능력이 나로 하여금 전투상황중에서 비행할지라도 더욱 안전하게 해주었다. 소화기사격을 방지해내는 특수한 능력은 매좌석 뒤와 밑에 있는 328파운드의 장갑철판 때문에 제공되고 있다.

그 외에 OV-10 항공기는 소총탄을 방지하는 방탄유리와 자체보호 연료탱크 및 충분한 비행능력 그리고 자동 조정장치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OV-10기는 이중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엔진 하나가 작동치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다.

OV-10 항공기가 가지고 있는 또다른 형태의 특징은 도피이다. BRONCO의 고도의 기동능력과 높은 적재력은 강력한 도피기동을 허용한다. 물론 그의 병기적재는 적이 지상으로부터 근거리사격을 하고자 할 때 적으로 하여금 재고케 한다.

나는 비행 중 탈출할 기회가 없었지만 탈출을 부득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 다른 항공기보다는 OV-10 항공기가 훨씬 안전하리라 생각하고 있다.

BRONCO가 보유하고 있는 LW-3B 분출좌석(Ejection Seat)은 해발고도 Zero와 정지상태에서부터 최대치에 이르는 여하한 속도에서건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200노트 이하 속도에서의 고도의 낙하율과 수평을 벗어난 탈출을 포함해서 OV-10 항공기의 귀환능력(Recovery Capability)은 기타 다른 모든 비행기의 도피장치를 능가하고 있다. 연속적인 폭발이 조종사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후방석을 분출하도록 해준다.

전방항공통제관(FAC)의 직책은 아마 공군에서 가장 보람있는 직책일 것이다. 전방항공통제관은 육군과 함께 사태의 진전상태를 알 수 있다.

포로들이 심문을 받을 때, 거기에 있어 보라. 또한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FAC를 찬양할 것이다.

나는 전방항공통제관(FAC)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나의 애기 OV-10 BRONCO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물론 휴대용 식기세트를 사용하는 야식식사와 육군과 함께 야전생활에서의 생활, 그러나 위기에 처해 있는 병사에 대한 구출 등은 값어치 있는 일이다.

미래의 공군

—미래의 공군 및 전투에 있어서의 무인항공기의 역할—

이 상 경 역

■ 다음은 독일에서 발간되는 월간지 **Aerospace International**에서 발췌한 것으로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 여러나라에서 연구개발되고 있는 무인항공기에 의한 공중전의 형태 및 양상을 소개한 글이다.

<편집실> ■

1. 미래의 공군

어느 일요일 아침 한대의 모형항공기가 무전조종된 날개를 이용하여 건공돌이(Loop), 8자그리기(Cuban 8), 횡전(Rolling) 등의 공중곡예를 마치고 마침내 착륙되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원격조종장치(Remotely Piloted Vehicle)에 의한 조종이었던 것이다.

이 작은 항체의 유도 요소들은 모 기지로부터 수백마일 떨어진 적지 고공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케 하는 원격조종장치(RPV)와 똑같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 군에서 연구되고 있는 원격조종장치(RPV)는 70년대의 혁신적인 산물이라기보다는 항공학 그 자체의 진보적인 산물이라 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다. 최근 수년간 전자학의 발전은 무인원격조종비행을 가능케 하였으며 이렇게 볼 때에 원격조종장치의 개념은 전자학의 끊임없는 발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전자학의 발전과 비례하여 원격조종장치는 그 중요성이 더하여지고 군사적

목적을 위한 그 적용분야도 확대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항공학의 새로운 분야 개척은 전략·전술 양면에 있어서 무한하고 방대한 군사적 가능성을 더 크게 하고 있다. 무인 항공기는 현재 방비태세가 강하여 재래식 비행으로 임무를 완수코자 할 경우에는 조종사에게 고도의 위험을 주게 되는 적지에서 정찰 임무와 전자방해장치(ECM) 임무를 수행케 하는 초보적인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격조종장치는 5,6년 내에 충분히 발전하여 폭격기나 요격기로서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원격 조종장치를 단순한 소비적인 형태로 변형시킨다면 철통같은 적의 방어망을 극복하고 적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비행폭탄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전투임무 외에도 장기적인 해양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고공을 비행하면서 지휘통제 및 통신망의 중계소가 될 수도 있다.

극히 간단히 말해서 70년대 후반기 언젠가는 유인 항공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원격조종장치로 대체하여 똑같이 해낼 것이며 유인 항공기에서 필히 조우되는 조종사들의 신체적, 정신적 제약이 원격조종장치에서는 극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원격조종장치가 더욱 장려될 것이다. 여러가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원격조종장치는 유인항공기보다도 더욱 효과적으로 기술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숙달된 전투조종사라 할지라도 극히 짧은 순간도 견디어 내기 힘드는 중력의 거의 2배에 달하는 12G 이상의 계속적인 가속에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 가능한 것이다.

또 원격조종장치의 선회율은 유인항공기보다 100% 능가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구비한 원격조종장치는 어떠한 속도나 고도에서도 그 기동성이 유인 고성능전투기를 능가할 수 있을 것이 명백하며 지상공격 중이든 공격 후이든 회피기동에 있어서도 그 이점은 매우 큰 것이다.

제작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원격조종장치의 크기가 작고 생산이 용이하며 값이 싼 자재로써 조립 가능하기에 경제적인 것이다. 원격조종장치는 수명이 짧은 값싼 제트엔진을 사용할 것이며 또 조종사의 안전을 위한 제반 장치와 부수 설계가 불필요하므로 그 크기도 작아지게 된다. 즉 조종석 사출 장치, 에어콘, 여압장치 및 자동 조종장치 등이 불필요하게 된다.

원격조종장치의 무기통제 및 비행에 필요한 모든 장치들은 대형 항공기 내에서 이동 형태로나 또는 군함이나 지상에 위치하는 원격조종장치 통제소에

영구히 설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격조종장치의 통제 장치들은 장기 사용 가능한 강한 재질로 조립되며 한 통제소의 한 좌석에서 많은 수의 원격 조종장치를 동시 조종 가능함으로써 현대 전쟁 공학상 가장 가치 효율이 높은 개념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 원가 효과
(Cost Effectiveness)

원격조종장치의 가치 효율은 원격조종장치가 임무를 마친 후 항체로 귀환시켜 재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높아진다. 원격조종장치는 보통 모선에 의해서 공중 발사되거나 로케트의 부스터(Booster)의 도움으로 지상으로부터 이륙할 수 있고 미리 지정된 지역에 낙하하여 헬리콥터에 의해 파라슈트(Parachute)로 회수되거나 또는 지면에 낙하한다 하여도 그 내부에 갖추어진 팽창 주머니 때문에 지면 충돌 충격이 방지되는 것이다.

원격조종장치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그 전제로서 지난 25년간 공중 표적기로 사용되어 왔던 무인 항공기(Drone)와의 근본 차이를 알아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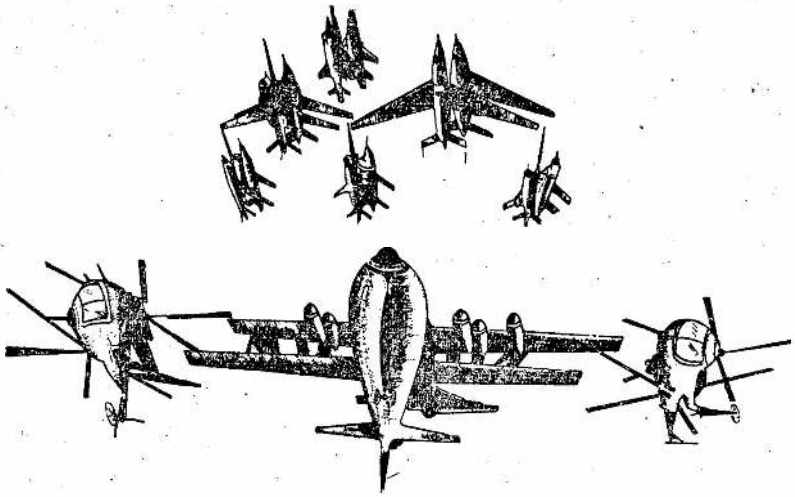
그 차이는 별로 뚜렷한 것이 아니며 그 형태는 공학적으로 볼 때 여러가지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무인 항공기는 발사 후 예정된 코오스를 자동 조종에 의해 비행하고 또 예정된 지점에 착륙하는 무인 항체이다. 지상통제소(Ground Based Control Center)에서는 그 비행에 있어 극히 작은 변화 밖에 줄 수 없다. 즉 한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를 뜻함)에 이동되는 자동 스위치를 눌러주거나 엔진을 끄게 하고 착륙을 명령하거나 비상시에 자체 파괴 명령을 내리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무인항공기에 있어서의 조종장치는 그 항체 자체 속에 설치되어 있거나 또 적절한 항공 전문 용어를 빌린다면 클로우즈 루프(Closed Loop 주 1)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무인 항공기는 세계 도처에서 설계 발전되어 왔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에어로스페셜회사는 지금도 널리 사용되어지는 아음속 CT-20 제트추진 항체와 초음속의 CT-41을 제작하여 훈련을 위한 공중 표적기로 사용하고 있다. 이 CT-20은 제한된 실제시간(Real Time) 유도 능력을 가진 해안으로부터 배까지 저고도 무인조종무기로서 사용된 최초의 하나이다. Rb.08이라는 이름으로 스웨덴 해안 방위군에 널리 사용되어 지고 있는 항체는 가장 초보적인 장거리 RPV의 한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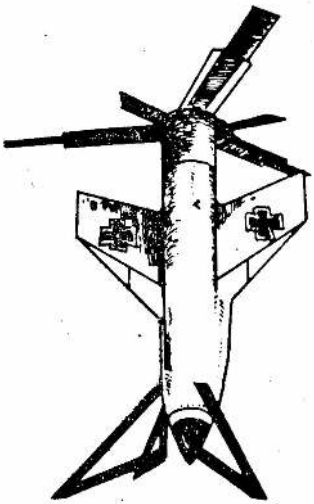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프랑스의 에어로스페셜 회사가 프랑스 군을 위하여

제작한 R-20 정찰용 드론(Drone)이 있다. 오스트리아 항공회사가 50년대 초에 개발 제작한 제트추진 Jinovik Drone은 매우 성공적이고 또한 그 기술상의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서 오늘날까지 영국과 오스트리아 군에서 공중표적기로 사용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Meteor SPA 회사도 일련의 소형 프로펠러 추진 무인표적기를 개발 생산했는데 이것 역시 성공적이었다. 미국에 있어서는 비치, 노드롭, 노스 아메리칸 록크웰 및 텔레딘 등 여러 회사에서 매우 짜임새 있고도 간단한 무인표적기(Drone)를 많이 생산해 왔다. 노드롭사의 KD_2와 Chukar의 표적용 무인표적기는 NATO의 표준 표적기가 되었으며 Beech Cardinal은 미국 및 유럽에서 사용되어 지고 있다. 노스 아메리칸 록크웰사의 Red Head/Road Runner는 미육군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고도의 조립성을 가진 텔레딘 리안사의 Fire-Bee는 미국 및 세계 각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50년도 후반기에서 60년대 초에는 이들 무인 표적기들의 어떤 것은 제작자들에 의해서 정찰용으로 개조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 개조의 결과는 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빈약한 것이었다. 지상과 드론(Drone)간의 장거리 통신망이 적절하지 못했었다.

노드롭회사의 프로펠러식 Faleoner와 같이 현재 이 분야에 남아 있는 설계들은 기 계획 코오스를 비행하는 단거



<여러가지 형태의 RPV와 모기(母機) 및 회수 Hel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RPV〉

리용이거나 또는 육안 포착범위에서 무선 조종 가능한 것들이다.

현대의 정찰용 무인 표적기로서 좀더 발전된 형태의 것은 Canadair CL-89 (AN-USD 501)이다. 이것은 영국 육군 독일 및 캐나다에서 대량 주문되어 왔다. 이 작은 시가형 항체(Cigar-shaped Vehicle)는 사진 장비나 또는 적외선 감음장치(Infrared-Sensor)를 휴대하고 지정된 저고도 항로를 비행할 수 있다. 이 제트추진 무인 표적기는 아음속이며 무선 조종장치에 따라 낙하산으로 착륙기 위해 발사지점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들 모든 표적기와 정찰용 드론(Drone)은 비행진로와 감음장치의 작동 및 착륙장치를 통제하는 클로우즈드 루프(Closed Loop) 장치로 작동되고 있다.

비행조종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은 항체의 엔진조절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항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 통제소 내의 작동사(Operator)에 의해서 원격 조종되고 있다. 지상 작동사의 적절한 판단에 따라 RPV까지 그 결과를 마이크로 웨이브로 송신함으로써 통제 조종되는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그 비행궤도를 Closed Loop 형태로 조종되는 것이다.

원격조종장치의 모든 계통은 원격조종 가능하나 자동 조절기들은 항체의 성능상 원격조정으로는 불리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어 지게 된다.

순수한 원격조종장치와 단거리 미사일과의 차이를 명백히 규정한다는 것은 이 단거리 미사일도 그 상당수가 오픈 루프(Open Loop 주 2) 장치로 유도된다는 점에서 볼 때 힘드는 문제이다. 또한 이들은 육안대조 유도나 또는 레이다 유도에 의하기도 하고 이 양자의 복합적 유도도 되는 것이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그 유도 Loop 장치가 완전히 그 항체 속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미사일은 원발사 지점으로 귀환착륙이 불가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원격조종장치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즉 원격조

종장치는 실제로 지상 통제 조종사가 기능의 핵심을 쥐고 조종할 수 있는 Open Loop 장치에 의해 작동한다. 그리고 발사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와 착륙함으로써 재사용도 가능하다. 원격조종장치가 육안대조로 원격 유도된다는 경우는 극히 희귀하고 특수하다. 이것은 비행자세나 엔진성능, 속도, 위치에 관한 모든 정보가 통제소로 다시 중계되어 거기서 정확한 지시나 자료가 그 항체로 송신됨을 의미한다. 원격통제장치의 성공 여부는 정확한 데이타와 지상탑 항공기 사이의 통신연락이 얼마나 뛰어나냐에 의해 좌우된다. 통신 연락만 확고히 세워진다면 조종사가 마치 실제로 그 항공기 내에서 조종하는 것과 똑같이 원격조종사의 마음대로 RPV는 움직여질 것이다. RPV의 원격 통제는 훌륭한 기술적 성과이나 군사 전략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기 체제로 전환시키는 하나의 전제에 불과하다. 실제 정찰임무 성과에 따라 폭격의 정확도 또는 적항공기 요격과 같은 전투기능이 부여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항체에 대한 이러한 능력증대는 자연적으로 RPV와 그 조종자 간에 있어서의 통신량은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데이타 교환이 상시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것은 군사적 목적에서 볼 때는 그 항체의 전체개념에 대한 하나의 주요한 약점이 된다. 사용 중인 주파수 범위는 타 통신 개입에 의해 방해받을 것이다. 전자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난관이 극복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즉 적의 방해에 대해 전파방해(ECM) 수단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가능한 방법은 모든 통신 수단을 중단하고 RPV를 스스로의 자동 조종에 맡겨 그 임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항체가 레이다에 포착되기가 어렵게 되므로 RPV가 그 영공상에 있다 하더라도 적은 잘 알지 못할 것이다. 장거리 무전 항공장치에 의해 멀리 유도하여 전투 지점이나 목표지점에 도착하였을 때에 비로소 지상탑과 RPV 사이의 통신연락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 통신 연락

주요한 하나의 문제점은 중계국이 없이는 지평선 저 너머까지의 통신연락을 완전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극초단파의 파장이 직선거리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이크로파는 그 스스로 통신 요구량을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필요 불가결하다. 그러므로 그 지휘통제소와 안테나는 지구상에 가능한 높이 세워져서 마이크로파가 되어 멀리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공 비행하는 거대한 항공기 안에 콘트롤 센터를 두거나 지상탑

으로부터 오는 명령을 재 송신할 수 있는 항공기를 중계국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장애는 극복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볼 때 통신 위성은 중계국과 똑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RPV와 위성 사이 혹은 위성과 지상탑 사이의 무전 통신 연락은 장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통신 위성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장거리 RPV에 대해 적절한 도움을 줄 것이다.

게다가 궤도 위성으로부터 오는 고도의 직선거리 마이크로파 신호는 지상에서 가는 전파보다 그 방해가 훨씬 어려울 것이다. 이상 말한 가능성은 상당수의 사람들에게는 과학적 허구처럼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RPV는 이미 초보적 형태로나마 존재하고 있으며 미군이 이를 사용하여 성공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주 1. **Closed Loop** : 지상에서 항체가 날아야 할 항로 고도 속도 시간 등을 사전에 항체 속에 장치시켜 귀환시까지 그 계획대로 비행하는 항로 비행임.

주 2. **Open Loop** : 비행자체를 지상통제소에서 Scope에 놓고 조종하는 형태로서 투입된 지역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변경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적정 기상 및 작전에 따라 모기지 지상 통제소에서 조종하는 형태의 원격 비행이다(역자 주).

2. 전투에 있어서의 RPV의 역할(RPV$_s$ in COMBAT)

RPV로서 유효한 전투기능을 갖추게 할 필요성은 일찌기 월남전을 수행하면서 미공군 전략가들이 절실히 느꼈던 것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미공군은 화포와 유도 미사일로 충분하고 완벽히 무장되고 또 조밀한 레이다망의 후원을 받는 적의 철통같은 방공망을 뚫고 공격을 감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 침투는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곧 월맹 상공에서의 공중전은 미공군에 견딜 수 없는 항공기 손실을 안겨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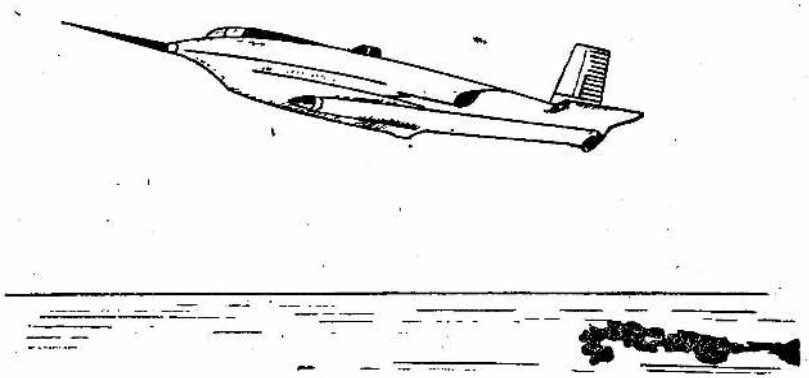
용기만 가지고 적의 방비를 뚫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명백해졌고 강대한 전자학을 이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되었다.

레이다로 방어하는 적지 상공에서 전투를 할 때 모든 항공기가 ECM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 특징이 되었다. 비유적으로 말할 때 월남전은 그 때부터 미국과 소련 사이의 전자실험전으로 바뀌져 버렸다. 갑자기 월맹 상공에서의 항공기 상실이 증대됨에 따라 소련은 유효한 ECCM의 개발을

공표했다. 동시에 철통같은 방어망을 가진 적 목표물에 대한 미국측의 성공은 미국 과학자들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다.

여하튼 방비가 철통같은 지역에서의 공중전은 예측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모험이 돼 버렸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항공기와 인적손실을 줄이기 위해 무인 항공기로 위험한 정찰사명을 수행케 하려는 안이 나타나게 되었다. "Comfy Bee"나 "Compass Dawn"과 같은 엑소틱 코드(Exotic Code)가 많이 고안됨에 따라 현재의 고성능 무인 표적기를 제한된 원격조종 능력을 가진 정찰기 형태로 개조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러한 초기의 계획은 대단히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끊임없이 개조하고 최신화시켜 텔레딘 리안사의 Fire Bee 무인항공기는 거의 20년 동안을 마치 실제 공중 표적기처럼 성공적으로 비행했다. 60년대 중반에는 SA-2 가이드 라인 미사일의 전투 상승 한계 고도를 넘어선 70,000피이트 상공에서 비행할 수 있는 거대한 High Aspect Ratio Wing을 가지게 되었다. 이미 RPV의 몇가지 특징을 구비한 이들 무인 항공기는 Lock Heed C-130 모항공기로 통킹만 상공에 발사되었으며 원격통제에 의해 레이다 수평선으로 유도되고 자동 조종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중국 본토 상공으로 정찰표적을 찾아 비행했다. 어떤 것은 격추되어 북경에 전시되었다. 그러나 대개는 별다른 희생과 위험을 치르지 않고 고도의 정보 사진 전자 정보를 얻고 무사히 귀환했다. 또 다른 한 형태의 Fire Bee는 저고도 고속 비행으로 월맹 상공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미 두 대의 유인항공기의 손실을 초래케 했던 한 다리의 사진촬영이 바로 이 한 대의 Fire Bee RPV에 의해 훌륭히 수행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것은 놀라울만큼 장래에 있어 RPV의 이용가치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유인 항공기와 비교해 볼 때 그 규모도 작은 편이다. 따라서 레이다나 광학적 장치에 의해 이것을 포착한다는 것도 힘든 일이다. 앞으로 RPV 시대가 닥아오면 레이다 횡단면이나 그 반사면은 최소한으로 축소될 것이다. 현재 텔레딘 리안사의 제작자들은 제트 엔진을 기체의 맨 윗부분에 두고 Tail 파이프를 덮어씀으로써 레이다뿐만 아니라 적외선 신호기도 동시에 줄이려고 고안했다. 적지 상공에서의 RPV 생존 가능성은 이러한 조치에 의해 더욱 높아졌으며 게다가 저고도나 고공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작은 물체를 명중(격추)시킨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는 사



<RPV의 이륙광경>

실이 명백하다.

★ 정찰 임무

RPV가 몇 가지 정찰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자, 미공군은 또다른 위험한 일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ECM의 효과가 없이는 월맹의 레이다 방비를 뚫고 깊이 침투하여 폭격한다는 것이 불가했고 현재도 그렇다. 일련의 Fire Bee RPV는 적의 방어진을 혼란시키고 침투하고 방해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를 주었다. Fire Bee의 한 변형된 항공기는 적 장악의 영공에 Chaff(알미늄의 종이 조각이나 이와 유사한 레이다 반응물질)을 싣고 가서 떨어뜨린다. Cambat Angel이라 불리우는 이러한 항공장비는 1968년 북폭이 중단되면서부터 사용되어졌다. 그러나 공습에 참가한 항공기 댓수와 그 임무의 빈번도에 비추어 볼 때 미 국군에 인정된 손실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 따라서 현재 전투 폭격에도 이들 전파방해 항공기를 완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래보다 짜임성 있는 RPV가 나타나면 직접적으로 적의 레이다를 혼란시키는 적극적 전파방해 Jammer도 운반할 수 있다. 게다가 전파로써 더 많은 숫자의 항공기를 출현시켜 유인한다면 적의 레이다 방어는 혼란되고 적의 주의도 유인 항공기 공격군으로부터는 멀어질 것이다. Chaff가 떨어지는 것과 폭탄이 떨어진 것과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하여 미공군은 한 계획에 착수하였었는데 하나의 발전계획으로서 1971년에 진행되었던 소위 "Have Lemon"이라는 것이었다. 얼마 동안 일련의 Fire Bee RPV들

을 개조시켜 미국에서 실험적으로 대지(對地) 사격장에다 폭탄이나 기타 무기로 폭격해봤다. 이러한 방식의 폭격이 월남에서 사용된 예는 지금껏 없으나 전술적인 근접 지원 임무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잠재성은 실제적인 것이다. 현재에도 RPV로 하여금 방어 분쇄의 역할로서 폭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유인 항공기가 공격을 감행하는 동안 적의 레이다 미사일 포대를 직접 공격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만일 ECM과 RPV의 폭격이 짜임새있는 공격을 이룬다면 적은 자체 방비에 역행하게 될 것이다. 즉 적은 탄약과 미사일을 무인 항공기에 다 소모하게 될 것이고 또 레이다 감시로서는 무인 항공기와 유인 전투폭격기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적 전투기는 RPV를 요격하게도 될 것이다. 그 손실에 대해서는 말할 바 없고 그 혼란 하나로서도 유인항공기가 대공방어망을 뚫고 목표지점에 도달 공격할 수 있다는 그 전술상 이 점은 한없이 큰 것이다. 이스라엘군은 다시 전투가 벌어지면 이 무인항공기나 RPV로서 적의 방비를 분쇄시킬 것을 생각하고 있다. 스에즈 운하를 따른 반공선은 벌집같아 만일 유인항공기로 침투한다면 너무나 큰 생명과 항공기의 희생이 있어야 될 것이다. ECM(전파방해) 무인 항공기와 장거리 정찰기 폭격용 RPV의 사용은 이스라엘 공군에 유효한 성과를 줄 것이고 또 유인항공기는 이집트의 방어진을 뚫고 방비가 약한 후방지역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RPV의 개발이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폭격용으로서의 RPV에 TV 카메라가 장비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일 TV 카메라가 장치되어 있다면 원격조종사는 전투상황이나 목표물을 시각적으로 보고 또 그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확한 조준폭격은 전천후에도 가능하게 될 것이며 만일 저고도 가벼운 TV장치를 감음장치로 사용한다면 월야(月夜)공격도 할 수 있다. RPV의 가장 야심적인 계획은 이를 공대공의 항체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공대공의) 무인 원격 통제요격기를 개발하자면 전자산업에 있어서의 기술자의 능력을 총동원하여 도전하여야 될 것이다. 이미 TV 장치를 가지고 있는 공대지 RPV에 있어서도 그 기술습득이 어려운 통신 채널은 더욱 더 복잡성과 정밀성을 요구하게 된다. 지상 통제소에 있는 조종사는 전투기형의 조종석에서 그 항공기를 비행시켜야 될 것이다. 주요한 정보소스는 TV 스크린이며 혹은 레이다 스코우프가 될 수도 있다. 지상통제국의 조종

사는 무장, 스로틀, 제동장치, 공기동력 조절을 다루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 전투시 유인항공기 조종사가 해야 할 모든 조치를 그는 전자학적으로 변경하여 그 지시를 RPV로 송신해야 하는 것이다. 1971년 5월에 실험적으로 한대의 Fire Bee RPV를 개조하여 미 서해안 「태평양 미사일 사격장」에서 F-4 팬텀기에 대한 모의 전투공격을 시도해 봤다. 이 항공기는 텔레딘 리안사가 고안한 기동증대장치가 되어 있어 최소한의 고도의 손실로서 높은 Mach속도를 6g 상태로 유지하면서 급선회를 할 수 있었다. 이 실험의 성과는 놀라와 RPV는 여러 경우에 있어 팬텀의 비행을 능가했으며 고도의 기동성으로 유인 전투기의 수많은 공격도 피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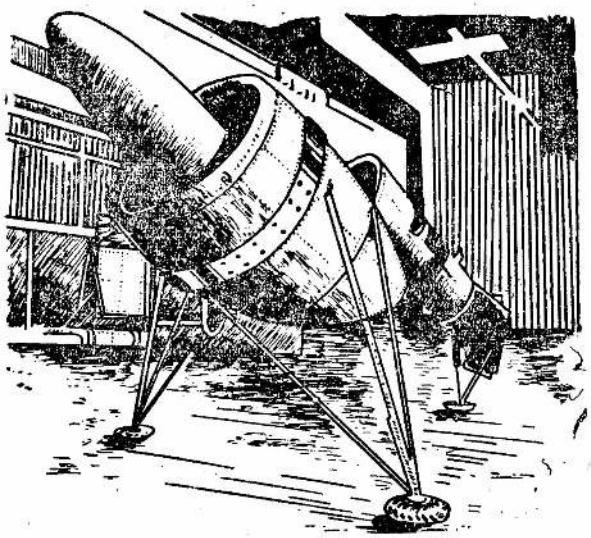
RPV전투기의 주 이점은 동 항체가 규모가 작고 민첩한 데에 있다. 사람의 몸으로서는 지탱할 수 없는 고도의 g에서도 선회비행할 수 있다. 장래 RPV가 10g에서 12g까지 선회비행하게 된다면 그 기동성은 어떤 유인 항공기보다 뛰어날 것이며 적의 유도미사일 공격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공학적으로는 이 실현이 가능하나 실제 운영상의 공대공 RPV는 장래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만일 이를 대규모 도입한다 하더라도 전술적 통제 체제가 발전되지 않는다면 완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단일 방공체제와 통합되고 완전히 적용할 수 있는 체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공중과 지상에 있는 RPV 통제국들을 합병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이를 대규모 도입함은 오히려 혼란만 초래된다는 점에서 볼 때 비 실제적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C-130과 같은 모선을 전통적 지상통제에 의해 위험 지역으로 출동시켜 RPV를 비행 조종케 한다면 독자적으로 적 공격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도 유인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다 방어망의 입증된 바와 같은 질서정연한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전반적 방어태세 속에 통합시키기는 어렵다.

현재 생각되고 있는 근접지원 RPV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난점이 크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또한 그 생각이란 것도 너무나 새로와 현 체제 속에 빨리 적합시킬 수 없다.

현재 생각되고 있는 것은 전투태세의 항체를 전투지역에 공중 발사하여 지상이나 공중에 자리잡은 전방 공중통제자가 이를 인계 유도 원격조종하는 것이다.

육안이나 TV 연락망을 통하여 한대 내지 수대의 항체들을 직접 조종해야 될 것이다. 통제국은 무장된 항체나 트럭 항공기 속에 자리할 수도 있고 안정



<공중정찰 및 대지공격이 가능하며 수직 이착륙이 자유로운 RPV>

된 방어지역에 영구히 확고하게 성취될 수도 있다. RPV가 폭격비행을 끝마친 후에 통제는 다시 발사된 항공기로 옮겨진다. 통제자는 그 항체를 귀환지점으로 비행 파라슈트로 착륙시키거나 강하 도중에 헬리콥터로 공중 귀환한다. 필요에 따라 전방 지상발사도 할 수 있으므로 RPV를 공중 발사할 필요도 없게 된다. 공중전이 열세이거나(제공권을 빼앗겼을 때나) 비행장 파괴시나 전투 상황의 유도성이 클 때 이것은 중요하다. 지상군은 RPV를 분산된 여러 지역에 준비 보관하여 필요에 따라 전투에 임하게 할 수 있다. 이상 몇 가지 언급된 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휘관의 RPV 사용에 대한 전술적 취사선택방법은 수없이 많고 이를 대규모로 도입하기 전에 먼저 전술적 적용에 대한 철저한 연구 평가가 있어야 한다. 지난해 10월 미공군은 두개의 팀을 선출 RPV를 비교 연구케 했다. 이 계약은 TRW 시스템과 휴빅회사의 보조를 받는 노드롭사와 RCA Corporation의 팀 멤버인 헬레덴 리안사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의 연구를 위해서는 원래 Avionics, 제작기술 추진력 등등에 대한 RPV의 공학적 평가가 필요하다.

이 평가와 미 공군이 규정한 임무를 기반으로 계약 회사측은 공대공 공대지 정찰과 ECM 임무를 수행케 할 수 있는 RPV의 체체개념과 그 예비적 고안을 발전시킬 것이다. 게다가 이 세 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고안이 가능한가도 연구되고 있다. 1971년

6월에 이 연구는 완성되어 미공군에 인계되었다.

★ 유럽 제 국가의 발전

미군에서만이 RPV에 대해 강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다. 유럽 제 국가와, 그 분야의 기업자들도 이와 같은 유망한 군사공학의 분야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연구는 국방면에서 볼 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큰 비밀로 되어 있어 일반 사람들은 최근의 발전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다. 단거리 무인조종 항공기의 제작은 현대 공학에 있어서는 별로 어려운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많은 유럽 제작회사들이 이 분야의 연구에 적극성을 띄고 있다. Drone에서 RPV에로의 단계변천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며 그 실현은 단지 전자기술자들이 얼마마한 능력과 시간의 집중투자 능력을 하느냐에 있을 뿐이다. 현 방어태세는 신속한 RPV의 도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의 10년이나 걸리게 될 이 연구는 효과적인 것이 못되며 따라서 유럽 회사들은 텔레딘 리안사와 계약을 맺어 Fire Bee 공학 기술을 포함하여 많은 인가합의가 이루어졌다. 영국 회사와 독일의 메서유 미트 뷜코오브롬회사는 유럽에 있어서의 Fire Bee 생산인가를 받았다. 그리하여 유럽산업은 RPV를 전술전략 목적을 위해 어떻게 제작할 것이냐에 대하여 미국이 축적한 광대한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기의 독자적인 연구노력도 분명히 있다.

이미 언급된 바 있는 에어로 스페셜 회사의 R-20 정찰 항체도 무인 표적기로부터 개발되어 하나의 RPV에 속한다. 그것은 Real-Time 방식으로 유도되고 정찰자료를 마이크로파를 통하여 긴급 송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이 분야에 대한 노력을 비밀로 삼고 있으며 단지 웨스트랜드사에 의해 연구되는 헬리콥터 무인항공장치만이 언급될 뿐이다. 독일에서는 도리어 회사가 설계하는 두 종류의 항체에 대하여 단편적 보도들이 출판되었을 뿐이다.

Korps-Aufklärung-Drone (KAD)라고 불리워지는 첫번째 설계는 연방공화국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지난해 취소되었다. 이 RPV의 고도의 조립성을 볼 때 독일에서의 동 공학이 얼마나 깊이 발전하였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매우 야심적으로 설계된 KAD는 그것이 취소되었을 당시 이미 Hardware 단계에 이르러 있었으며 General Electric J-85 제트 엔진에 의해 추진되는 3톤급 항체이다. 그것이 만일 개발되었더라면 250 mile에 걸치는 활동영역을 가졌을 것이다. 이 고정 날개 항공기는 표준 트럭으로부터 발사 작동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 있다. 임무 완료 후 불과 550 SqFT의 공지에도 정확히 착륙할 수 있게 하는 날개 끝에서 도는 회전자로 되어 있어 그 귀환장치는 훌륭하다. 이 계획이 실수됨에 따라 CL-89 무인 항공기로는 육군이 요구하는 레인저나 Payload 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독일은 부대급 정찰체제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KAD는 측면레이다 푸러스광학 적외선 Sensor(감응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게다가 정찰자료의 실제시간(Real Time) 송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이 갭은 「루프트 봐베」사가 제작한 RF-4 팬텀에 의해 보충될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은 부적격적인 환경 속에서도 강행적으로 일을 수행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독일은 Fire Bee를 변형 제작하여 결국 이 임무를 수행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도리어 회사의 두번째 RPV 설계는 실험 중에 있고 현재 새로운 공기동력원리를 시험 발전시키고 있다.

Aero Dyne이라고 불리우는 이 항공기는 날개가 없는 무인 VTOL 항공기로서 원형날개 속에 덮여져 있는 프로펠러에 의해 상승 추진된다. MTU 6022 터보 쇄프트 엔진이 동력원인이 된다. 아마 이 글이 인쇄 발간될 때까지는 이 항공기의 첫번째 제한 비행이 있을 것이다.

Aero Dyne 항공기의 개념은 제자리 비행능력과 고속 전진 비행 VTOL을 제시하였다.

"Tank-Killer"라는 비공식적 별명이 이것에 붙어 있다. 이러한 별명은 곧 이 항공기가 결과적으로 공대지 RPV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만일 새로운 공기동력의 개념이 성공하게 되면 그것은 거의 무제한의 전술적 지상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소음이 적기 때문에 탐지하기도 어렵다. VTOL 능력 때문에 이것은 여러 지역에 분산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이것은 저 혹은 고속도로 지상접근 비행을 할 수 있으며 무기운반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뛰어나다. 모든 RPV에서처럼 여기에도 그 주요 문제는 「데이타」 연락과 통신 분야에 있다.

만일 이것이 산악지방으로 저고도 비행하게 되면 Aero Dyne과의 마이크로파 연결은 확고히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RPV를 고공 비행시켜 중계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다면 해결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루프트 봐베사"가 이 항체를 얻고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된다. 이러한 고공 RPV는 전술적 RPV에 대하여 중계 유도 지휘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레이다 방사(능)감

시역을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설계들은 유럽에서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광범위한 어떤 조처들이 배후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RPV가 결국에 가서는 서구 유럽의 국방상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심증은 확고해진다. RPV의 가장 매력적인 하나는 그의 비길데 없는 경제 효과성에 있다. 유인 전투기의 현가격추세 경향이 과거와 같다면 전 세계의 공군은 극도로 위축될 것이다.

2차대전 당시의 평균 전투기 한대당 가격은 약 8만달러였다. 1955년 당시 제작된 F-84 한대당 설계비용은 이 액수의 거의 10배나 된다. F-4 전투기 개조형은 그 판매가격이 1965년 당시는 3백만 달러였으며 F-15는 이미 이 가격의 배에 이른다. 현 전투기 비용이 이렇게 기상천외로 높아서는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 대량도입이 어렵게 된다. 전반적 방어태세 속의 이러한 약점은 만일 RPV가 완전히 개발 이용되지 않는다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것이다. 조립성이 그렇게 치밀하지 못한 무인 항공기 한대당 현재 비용은 15만~20만달러로 측정되고 있다. 통합적 무기체제의 일 요소인 지상이나 공중 혹은 궤도상의 스테이션 및 중계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대 유인 항공기도 RPV와 거의 비슷한 지상 지원장치가 있어야만 완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때 유인 항공기나 무인 항공기의 지원 장비 비용은 거의 마찬가지이나 RPV 그 자체의 비용은 현 전투 폭격기의 1/10에 불과하다고 일단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유인 항공기가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다. 조종사가 조종석에 앉아 의사를 결정하는 전통적 유인 항공기는 매우 다양한 임무를 수행키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하다. 전투 폭격기의 조종사가 불때는 RPV는 방어 분쇄 및 견제 효과를 줌으로써 주어진 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임무지원 요소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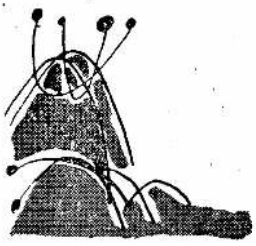
전술공군을 전면적으로 RPV로 대체하자는 제안자들은 전자학의 발전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예컨대 방해기술이 진보한다면 전반적인 RPV 효과에 붕괴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조종석에 사람이 타고 있다면 어떤 통신 장애도 극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은 장래 공군력을 유인 항공기와 무인 항공기 양자를 잘 조화하여 혼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RPV의 채택은 유인 항공기의 전투 능력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수행케 하며 주어진 예산체계 내에서 보다 뛰어나고 강한 방어 체제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 인 터 뷰

데이비드·C·존즈 대장

구라파 미공군 사령관을찾아서

이 응 수 역



○ 이 글은 구라파 미공군 사령부에서 발간하는 잡지 「에어 스코우프」의 1973년 3호 중에서 발췌한 것으로, 「에어 스코우프」의 편집자와 면담한 사람은 구라파 미공군사령관인 존즈 대장이다.

공군에 몸을 담은지 현재까지 31년간이 되는 존즈장군은 다양한 보직과 경험이 그의 특징이다. 1943년에 조종간부후보생학교를 졸업 후 대대에서 비행단과 중간부대급인 번호공군을 경유하여 상급부대인 주요공군사령부와 공군본부참모직에 이르기까지 공군의 모든 주요직책에서 근무하여 왔다. 그는 폭격기, 급유기, 전술전투기 및 지원항공기의 각 부대를 지휘할 기회도 많았으며 각종 수준 부대에서 승무원, 참모 및 지휘관을 지냈으며 정비와 기획분야에서 체득한 경험은 전략공군사령부(SAC), 전술공군사령부(TAC), 태평양공군(PACAF) 및 구라파 미공군사령부에 재임 중 잘 활용되어 작전에 관한 각종 지식을 완벽한 것으로 하였다.

문 : 우리들이 일하는데 대체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사령관께서는 감독관의 책임이 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 감독관이 개선을 도모하는 주요한 후보자임은 의심할 바가 없다. 작년도의 사고통계를 보면 공군사고 중 42%가 감독관의 실수가 주원인이나 부수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더욱 잘 감

독하면 이 %는 오르든 내리든간에 공군이 작년에 상실한 승무원과 항공기의 반은 구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감독관, 특히 비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러한 것은 나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인간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추정과 부단히 싸워서 이런 추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에 휩쓸려 들어가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실례를 들면 시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을 때 시계비행규칙을 유지하면서 바로 나와서 다시 같은 비행을 하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위험한 비행을 하는 사람은 항상 생각하기를 잡히는 자는 항상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사방이 절벽을 이룬 고지가 어렴풋이 나타난 순간 「다른 사람」은 갑자기 「나」로 둘변하면서 항공기와 승무원은 장비재고품목과 승무원 명부에서 사라져 버린다. 빈틈없는 감독자이면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직책상 승무원과 긴밀히 접근하므로 이런 옳지 못한 경향을 발견한 즉시로 시정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감독관도 이를 발견못하거나 태만하여 시정하지 않을 때가 가끔 있다. 좌우간 이런 사람은 자신과 공군의 위신을 하락시키고 있다. 즉 항상 주기를 풍기면서 자기를 엄호함이 자기에게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그릇된 신념에 사로잡힌 친구가 바로 이와같은 사람이다. 이런 결과는 분명히 매사에 동일하다. 즉 기본문제의 해결이 늦어진 것을 너무나 늦게까지 방치하면 시기를 놓쳐버린다.

문: 존 장군님! 우리가 현재 감독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비행단과 대대의 장교는 자기들이 관리자와 감독자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지만 관리, 감독상의 주요정책은 고위본부에서 결정하고 있읍니다. 이런 현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역설과 같지 않읍니까?

답: 전에 내가 승무원, 대대장, 비행단 참모로 재직시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위부대와 최고경영자 간에 사업의 전망에 대한 근본적인—그러고 필요한—견해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즉 단기대 장기사업간의 부단한 암투에 있다고 나는 믿는다. 하위부대는 주로 극히 단기의 사업에 주력한다. 나는 비행단장이 창 밖을 내다보면서 기상은 어떠한가, 비행예정자는 누구인가, 기종은 그리고 임무는 무엇인가를 알려고 당일의 일에 전념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나는 지휘관과 감독관이 자기들의 결정이 내포한 장기

간과의 상호관련성에 눈을 가리우라는 것은 결코 아니며 기실은 지방부대에서 가하고 있는 압력은 「지금」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금일의 비행스케줄, 명일의 비행대기 임명, 다음달의 무장훈련전개 등에 관하여 현재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즉각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좌우간 지방부대가 단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단히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기쁜 일이다. 군대의 서열제도에서 혹은 어느 큰 기관의 서열제도에서도 승진하게 되면 사업의 방향은 더욱 더 장기를 목표로 하게 된다. 구멍가게의 관리자(주인)는 금일의 수금과 내일의 판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국내의 사업가는 공급자의 코스트와 시장동향을 걱정하게 된다. 본사령부에 복무 중인 우리들은 단기사업 이상의 것을 구상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방부대의 장병보다 더욱 재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다만 전반적으로 비교적 장기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본사령부를 위한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를 그들보다 약간 폭이 넓게 전망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단기와 장기정책은 일치하여 호흡이 맞아야 함이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가끔 있다. 양자간에 불일치가 생기면 장기 사고방식이 우세하는 것이 보통이다.

단기대 장기 사고방식의 관리와 안정의 연류관계의 여러가지 실례를 여기에 소개하려고 한다. 항공기 스케줄을 짜는 경우가 좋은 실례가 된다. 일선부대의 조종사는 「나의 항공기는 부서졌다. 저기에 있는 1대는 가동상태이다. 왜 오늘 내가 저 항공기로 비행할 수가 없는가?」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비행목적이 그가 금일 특별출동으로 비행하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당연한 논리적인 질문이다. 그러나 경험에 의하면 허둥지둥하며 짠 스케줄을 실시하려고 가동상태에 있는 항공기는 무엇이든 모조리 잡아채게 되면 정비계획은 점차로 착절되어 가고 효과는 바랄 수 없게 된다. 「항공기가 저기에 있기 때문에 그 항공기를 비행시키는」 따위의 철학은 사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항공기를 비행시키는 여부에 관한 결정은 출동의 중요성과 정비상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시하여야 하므로 이를 의식하고 조심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장기정책수립의 필요성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안전분야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항공기와 승무원의 손실을 걸고서 비행하는 것을 보증하는 평시임무, 훈련스케줄 혹은 연습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체제하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따라서 용인할 수 있는 모험의 한도를 좁히

기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각 산하부대를 어느 정도 공평하게 엄격히 다루어 왔다. 이것은 결코 우리들이 지방부대 지휘관의 판단을 불신한다는 것이 아니며 이런 제한이 없었으면 기상의 압력, 불리한 임무, 엄격한 훈련 및 비상대기의 위입, 즉 위와 같은 단기적인 압력으로 구라파 미공군사령부는 1년에 거의 1개대대분의 항공기를 과거에 희생시켰을 것이라는 생생한 사실 때문이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승무원의 숙달과 안전 사이의 타당하며, 안전한 균형을 도모하려고 지금까지 여러가지 제한을 가하여 왔다.

나는 우리의 제한으로 승무원과 감독관 사이에 욕구불만의 감정이 생기게 된 것에 깊이 감사한다는 것을 여기에 추기하려고 한다. 나는 관리란 다구치기로 하는 동시에 억제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승무원을 계속 훈련시켜서 비행시간을 얻으려면 다구치게 되고 기상조건과 운영상 제한으로는 훈련이 억제를 받는다. 이런 욕구불만은 이해가 간다. 나는 이런 경우를 과거의 승무원 시기에 느낀 바 있으며 이런 현상은 큰 조직체에 있어서는 생활의 일부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최저로 억제하려는 정책수립에 있어서 안내역을 하는 장기방안을 더욱 잘 이해하여 줄 것을 갈망하고 있다.

문 : 죤즈장군께서는 훈련요구량에 여러번 언급하였읍니다. 오늘날 우리의 승무원은 충족시킬 예정요구량은 많은데 비하여 비행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당이 어려워집니다. 한 부대가 가진 경험과 숙련을 광범하게 이용하여 최저요구량을 각기 승무원의 요구에 맞도록 요리하는 방법은 있읍니까?

답 : 우리는 전술공군사령부와 태평양공군의 전문가는 물론 이 분야의 전문가와 특히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승무원의 전투준비태세에 대비할 최저요구량을 책정하고 있다. 결과는 아직 완벽하지 못하지만 많은 분야와 절충을 하여 완벽에 가까운 최저요구량을 책정하여야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로 보아 각자의 최저요구량을 책정시는 집단적인 판단(Collective Judgement)에 입각함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최저요구량은 평균보다 오히려 기준선(Baseline)을 택하는 방향으로 낙착하였다. 나는 과거 수년간 여러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을 보아 왔지만 각종 형식 중 일부는 서로 다른 요구량을 각종 승무원에게 과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즉 승무원의 경험과 숙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에게 훈련 이벤트를 더욱 적게 과하고 있었다. 솔

직히 달하던 임무가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것이 잘 되어 가는 것을 본 일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복잡한 임무를 잘 요리한 계획은 아직 한번도 본 일이 없다. 나는 관념상으로 이런 개념에 동의하지만 장차 성장할 수 있는 계획을 모범으로 할만한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지각있는 지휘관은, 훈련예정은 그 자체가 도달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도달 목표는 잘 훈련을 받아서 숙련된 전투준비태세를 갖춘 승무원의 전력에 있다. 최저요구량은 단지 목표에 도달하는 한 수단에 불과하다. 나는 위에 언급한 승무원의 전력구비를 위하여서는 책에만 의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른 승무원은 최저 숙련도의 유지상 출동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숙련도가 높은 승무원의 희생없이는 그를 출동시킬 수 없기에 예정이 달성되지 않더라도 나는 밤잠을 자지 않을 정도까지 과히 근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어야 하지만 지휘관이 논리적이고 균형이 잡힌 훈련계획에 입각하여 자기가 수립한 정책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으면 예정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더라도 나는 과히 조급히 나의 칼을 이에 대기 시작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의 비행시간계획에 관하여서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혹시 우리가 비행시간을 무시하고 순전히 출동(Sortie)을 기준으로 훈련을 실시하려고 하면 전체 시스템은 속력의 저하로 진로는 늦어지고 정비업무는 견잡을 수 없게 분란하게 되고 훈련을 완수함에 필요한 시간은 아마 부족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 혹시 관리자가 「어려운 정책의 고수」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승무원은 하늘에 구멍을 뚫는 격으로 허사만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추(錐)를 항상 중간에 가까이 유지하여야 하며 혹시 지휘관이 소속 승무원의 훈련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경우는 자기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지휘관에게 빨리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문 : 공군에는 청년에 관한 한 가지 전설—현재는 없지만—30대의 대대장들이 있읍니다. 금일의 젊은 공군 남녀가 내일의 통솔급(Leadership) 직위에 대비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권하려고 하십니까?

답 : 각별히 젊은 장교가 일부 지휘급 직책—대대장, 전대장 및 단장—을 맡을 것을 생각하면 제2차대전시가 생각난다. 전쟁의 혼란이 끝나면 계급대 연령의 구조가 비교적 안정되는 법이다.

오늘날 우리가 청년 각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비행단장은 먼저보다 젊은 축이 많으며 수년전의 단장보다 복무연수도 적다. 준장 예정자의 평균복무연수도 낮아가고 있다. 이런 경향은 결정적으로 청년에게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장래에 관한 한 젊은 장교가 무엇을 하여야 함을 가장 잘 표현한 어귀가 하나 있다. 즉 그것은 「넓은 도량을 가져라」는 것이다. 젊은 장교는 업무배정과 자기의 당면과업 및 일과를 함에 있어서 스스로 넓은 도량을 가지려고 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특기 이외의 다른 특기 중 자기에게 적합한 부특기를 골라서 이에도 숙달하여야 한다. 또 정비의 각 분야도 파악하며 기본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도 스스로 알려고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승무원의 경우, 조종사, 무장장교 혹은 항법사 간에는 동기부터 판이한 차이가 있다. 조종사는 대체로 Cockpit를 떠나는 것에 민감하다. 조종사는 일선근무 이외에 보직을 받으면 다시 일선근무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보증하여 줄 것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보증을 줄 생각은 없다. 사실은 보증을 원하는 자는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인생이란 모험 투성이다. 그들이 진실로 우두머리의 직책에 올라갈 것을 원하면 즐거이 모험을 하려고 하여야 한다. 나는 대령 진급시까지 오직 작전부야에서만 보냈다.

나는 당시 비행단의 부단장, 작전부장 혹은 군수부장 중의 어느 것이나 선택할 권한을 가졌다. 나는 정비를 택하였는데 이 직종은 더욱 위신이 있을성 싶었던 다른 일보다 낮기조차 하였으며 나는 결코 정비를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당시 나는 작전분야에 다시 돌아올 어떤 보증도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의 간단한 충고는 「도량을 넓힐 기회가 오기만 하면 이를 놓치지 말고 꼭장 잡아라」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 승무원 자격의 장교가 부특기를 얻는 것은 자기 목표에 도달하는 커다란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직위에 옮기는 것을 근시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또한 마지 못해 옮기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항법사의 견지에서 볼 때, 선임항법사는 「우리는 언제 Cockpit에서 벗어날 수 있읍니까?」라고 나에게 묻는다. 그들 전부가 Cockpit를 뒤로 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벗어날 기회가 희박하다고 그들은 느낀다. 나의 설명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아마 「옳습니다. 도량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도량을 넓힐 기회를 가지게 바로 지금 나를 Cockpit에서 해방시켜 주세

요」라고 답변한다. 이 분야에도 활동의 여지가 많으며 지금은 항법사가 전술부대를 지휘할 문제를 다룰 시기가 아니지만 전에는 오직 조종사에게만 개방되어 있는 많은 일을 재배치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특히 전하고 싶다. 우리의 당면목표인 여러 지휘와 참모부서의 재조정으로 조종사 대 항법사를 70대 30으로 하여 현재 본사령부에 배속된 조종사 대 항법사의 비율은 이에 접근하고 있다. 현재 항법사로 채우기 시작할 만한 주요한 일이 많이 있다. 실례를 들면 SAS기지에서는 과거에 지휘관의 대리인으로 오직 기술만 등용하였지만 지금 우리는 항법사를 이런 분야에 많이 투입시켜서 이를 감당하게 하고 있으며 그들도 각별히 책임을 완수하고 있다.

이런 직책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요구가 있는 직책이며 이들 항법사는 많은 전술대대장이 직면한 것보다 더욱 광범한 문제에 직면하여도 오히려 혼자 힘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많은 항법사를 당장 Cockpit에서 끌어내지 못하는 한 이유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공군 전체를 통하여 일선근무 항법사가 부족한 상태이지만 이런 어려운 문제도 현재 해결 중에 있다.

일반 장교의 경우 승무원장교가 일반분야에 보직되더라도 일반장교의 승진기회에 하등 큰 차질을 초래하지 않음을 일반장교에게 보증할 수 있다. 공군 내 장교의 다수는 직종의 다수가 그러하듯이 일반 장교이다. 일반장교는 승무원장교가 일반분야의 특기를 추가로 가지게 되면 이들이 모든 좋은 직종에 진출하여 모조리 자기의 직종도 독점할 것이라고 걱정말아야 한다. 승진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승진할 기회가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이런 충고는 사병의 승진의 경우도 적용된다. 물론 여기서는 사병이 한 직종에 더욱 머물려고 하는 경우이지만 승진은 주로 자기 특기에 숙달하므로 가능하지만 융통성을 가진 병이나 하사관—공군 임무를 여하히 지원할 것인가를 더욱 광범한 견지에서 자기의 일과조직을 통하여 고찰할 수 있는—은 공군이 선임하사관 중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기타 모든 사항은 평등하기 때문에 넓은 견식을 가진 사람이면 최고직위까지 올라가려고 한다.

문: 존 장군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젊은 장병은 어떤 특징을 발전시켜야 하여야 합니까?

답: 지휘급 직위를 열망하는 모든 장병—장교, 하사관 혹은 병의 여하를 불문하고—은 타인과 같이 일을 하는 능력, 즉 협동작업능력이 가장 중대하다.

타인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만 되면 자기 일의 기술적인 면은 쉽게 이루어 진다. 감독관인 자기를 위하여 타인이 일하게 하는 것이 감독관의 진짜 일이다.

지휘자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자기 일은 자기 부하에게 자극을 주어서 하게 한다. 한 특기에 처음부터 이런 능력을 배양함은 특히 중요하지만 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오직 소수에 불과하다. 동료의 제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 조직체에서 출세시 이것이 통솔력을 발휘시키는 큰 재산이 된다는 것을 앞으로 알게 된다. 지도자란, 나는 명백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즉 무엇이 부하에게 자극을 주면 작업의 완수소요시간, 그리고 부하를 진심으로 도와서 그 일을 완수하게 하는 방법을 체득한 사람이다.

문: 장군께서는 부하와의 협동작업에 언급하므로 대인관계에 깊이 관여하였읍니다. 이런 관계가 본사령부에 미친 영향을 알려 주십시오.

답: 잘 알았소. 우리는 우리의 대인계획에 많은 역점을 두어왔으며 부하는 우리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 때의 변경으로 항상 혼란은 따르게 마련이지만 군대사회에는 사람을 다루는 태도가 변경되면 멋대로 변경함을 장려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의 목적은 전체문제—사기, 복지, 군기 및 공적—를 다루는데 있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사기가 가장 높고, 군기가 가장 잘 엄수되어 있는 부대는 강력한 통솔력의 덕택으로 참 잘 짜여져 있는 부대였다. 이런 부대에서는 복무규칙이 일의 한계를 명확히 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선악을 구별할 줄 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인가 그릇된 일을 하면 법정출두를 예상하며, 응분의 조치를 받을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부대의 지휘관은 역시 제반문제에 민감하여 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감독관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며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각 개인을 즐거이 도와주려고 하는 재치있고 도량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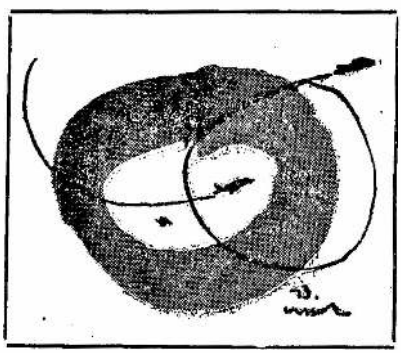
문: 장군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는데 지방부대와 본사령부 본부간의 상호관계를 여하히 생각하십니까?

답: 내가 각 지휘관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일을 하며, 부하가 어깨 너머로 자기를 보아도 신경질을 부리지 않는 태도이다. 실례를 들면 우리는 본래 재입대율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나는 변덕스러운 지휘관을 본 일이 있는데 그는 여러가지 승

부를 다루는 일을 벌여 놓고 부하의 선택권을 무시하면서 타당한 숫자를 속여서 자기 부대가 통계상으로 빛나게 보이도록 있는 모든 수단을 부리곤 하였다. 제일대가 중요한 것은 뚜렷한 사실이지만 질적인 제일대가 숫자상의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망각하고 있었다. 요약하면 「잘 보이자」는 각종 징조를 버리라는 것이다. 나는 지휘관에게 고위 본부의 지침에 유의하여 고찰대상과 고찰의 이유를 알아채는 태도를 가질 것을 부탁하고 싶다. 그러나 지휘관은 피상적으로 지나친 일을 하거나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 첫째로 허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휘관은 부하를 바보로 만들지 말고 부하가 감동하여 주어진 일을 최후까지 완수하게끔 하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나지만 실무부대 산하 여러 반(예를 들면 방공검열반, 작전준비태세 검열반 등)이 가끔 목격하는 「잘 보이자」라는 징조를 나는 철저히 제거하려고 한다. 이것을 산하부대장병에게 확신시키는 것은 때때로 어려운 일이지만 검열반이 피검열부대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즉 그들을 도와서 부여임무를 훌륭히 성취하도록 방문함을 이해하여야 한다. 어느 부대이건 간에 약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벌써 알고 있으므로 이런 반을 중심으로 환영하면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런, 저런 분야에서 너무나 잘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좀 살펴보시게 되면 아마 좋은 개선안을 서로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방문자에게 솔직히 전하는 것이 더욱 훌륭하다. 이런 신임과 협력의 정신이 우리의 많은 훌륭한 부대에 역력히 발휘되고 있으며 지휘관 중에는 일부 검열반의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본부에서 온 분들이 바로 우리에게 간섭하지 말고 그냥 놔두면서 순회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을 더 잘 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나는 그리 크게 믿지 않고 있다. 단시간 내의 검열을 원하는 부대이나 장시간 「간섭하지 말고 그냥 두어 두시오」를 권하는 부대는 보통 군기가 가장 문란하고, 관리상태가 특히 미약하므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대임은 경험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각종 검열반은 돕기 위하여 방문하는 것이다. 본사령부의 직능—유일한 직능—은 각 부대의 임무수행을 도와 주는데 있다. 각 산하부대와 본부간의 상호관계는 동료의 관계이지 적대관계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항공발달사

심 사 수



1. 머 리 말

비행기가 지구상에 첫 출발을 한 것은 지금부터 70년 전 일이다. 미국 동쪽 해안 구석진 모래 벌판에서, 59초의 체공시간으로 260미터를 비행한 것이 항공기의 첫걸음이었다. 불과 70년이 지난 오늘에 이렇게 장엄한 항공우주시대가 전개될 것을 몇 사람이 알고 있었을까.

1918년, 영국의 항공인 트렌차드(Trenchard) 원수는,「항공기는 10년 동안에 200년에 해당하는 발전을 하였다」고 주창하였다.

지구의 연령이 수십억년, 그 위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지구상에 등장한 것이 50만년 미만이며, 그 때부터 느리고도 지루한 구석기·신석기 시대를 거쳐, 문명사회로의 첫발을 내딛기는 몇 천년에 불과하다. 이려고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 더우기 항공기의 역사는 그 연령이 얼마나 어린가 함을 짐작할 수 있다. 어떤 학자는, 지구의 연령을 에펠(Eiffel)탑의 높이(300미터)에 비유한다면 인류역사 50만년은 그 꼭대기에 책 한권 쯤으로 비유할 수 있고, 6천년의 인류문명은, 그 위에 종이 한 장을 얹은 두께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인류문명 가운데서도 가장 집중적인 발전을 한 것이 있다면 항공기일 것이며, 그 발전의 기간이 집약될수록, 그 발전에 지불된 노력과 희생 또한 컸던 것이다.

항공기의 발전으로 인류의 사상과 생

활이 변화를 초래했고, 공간·시간개념이 변화되고 전술·전략이 변화하였다. 항공기는 두 번의 세계전쟁에 참여하였고, 그 이후에도 모든 전쟁의 주역을 담당해오고 있다. 항공세력이 지상과 공중만이 아닌 우주로 향해 발전하는 "항공우주세력"(Aerospace Force)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오늘에 있어, 항공기의 과거와 오늘을 이해함으로써, 내일로 향해 대응할 우리들의 정신전력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

필자는 항공기의 발명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시행착오의 역사를 고찰하고, 항공기의 소년기인 1차대전의 항공활동을 살펴본 다음, 항공기가 성인이 되어 주역을 담당하게 된 2차대전의 항공활동과 한국전쟁의 항공작전을 탐구해 갈 것이다. 민간항공의 발달에도 언급하겠으나, 1차대전 이후의 항공발달에 관해서는 군사작전운용에 중점을 두어 고찰할 것이다.

2. 항공의 선각자들

하늘은 원래 인간에게는 금지된 구역이었다. 하늘을 나르는 것은 신하고 거룩한 존재, 거룩한 신과 천사만이 아니다. 새도 날고 독수리도 날며 제비도 날지만, 박쥐도 날고 벌레도 날고, 심지어는 악마도 하늘을 나르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날지 못한다고 함은 아무리 해도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고대인들은 새의 날개를 동경하면서, 연에서 비행의 원리를 배우려 했다. 그러나 지구의 인력을 극복하는 일은 거의 절망적인 환상이었다.

고대인들은 우선 환상의 세계에서 하늘을 정복하기 시작했다. 고대 인도의 신화에는 하늘을 달리는 「전차」가 등장하며, 중국의 순임금도 하늘을 나르는 재주를 비밀히 배웠다고 한다. 관직에 천(天)과 비(飛)를 즐겨 붙인 것도 하늘에 대한 동경의 표현이었다. 인간이 가장 먼저 공중으로 올라간 것은 연에 의해서였다. 기원전 5세기 중국의 노반(魯班)은 거대한 연을 만들어 타고 공중에서 적지를 정찰하였다고 하며, 독일 사람 다니엘 슈베더는 1636년에 연으로 비행했다고 한다. 연에 의한 비행이 가능하다고 함이 실지로 입증된 것은, 1827년 영국인 죠오지 포코크가 연에다 사람을 태워 100야아드 높이까지 상승시켰으며, 1차대전 중인 1916년, 독일군의 리이퍼 중위는, 강풍 때문에 비행선이 사용 불능이므로, 연을 타고 솜므 전선에서 3시간이나 체공하면서 정찰임무를 완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 때(1592), 전라도 김제 사람인 정평구라는 발명가

가 있어, 그가 비거(飛車)를 만들어 진주성 혈전에 사용하여, 포위된 성 안의 군대와 연락하였으며, 또 이 비거로써 포위된 어떤 성의 장군을 구출하여 30리 밖으로까지 탈출케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라기보다는 강풍과 연을 이용한 전술이 그렇게 구전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옳을것이다.

중세 1천년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관이 대두함으로써 잠자고 있던 하늘에의 도전은 재개되었다. 르네쌍스의 새로운 천지가 전개된 것이다. 하늘은 성역시되고 비행술은 화형에 처할 범죄로 간주하던 중세가 끝난 것이다. 콜럼브스의 미대륙발견(1492), 코페르니쿠스(1472~1543)의 지동설, 천문학의 혁명, 새로운 우주관…… 이런 기운 속에서 과학정신과 결부된 비행의 욕망이 대두되었다. 인간의 공중비행의 가능성에 대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발표한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였다. 그는 토스카나주의 빈치에서 출생하였으며, 이탈리아 문예부흥의 중심지인 플로렌스에서 활동하였다. 그의 직업은 화가, 조각가, 건축가였지만, 그는 이것 이외에도, 천문학, 물리학, 지리학, 토목공학, 병기학, 식물학 등에 걸친 폭넓은 연구를 하였다. 그가 밀라노의 군주 루도비코스 스포르짜에게 보낸 서한에는 자기를 군사기술, 토목공학, 천문학, 병기학, 오락장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능력을 갖추었다고 말한 다음, 마지막에 가서 그림도 좀 그릴줄 압니다 라고 소개하였음을 볼 때 「모나리자」는 그의 본업이었는지, 혹은 부업의 소산이었는지 모를 일이다.

이 만능의 천재는 이동식 대포를 설계하였고, 또한 「새의 비행원리」를 연구하였다. 그는 많은 새를 해부해서 연구한 결과, 1505년에 「새의 비행원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그 논문에서 그는 「새는 수학적 법칙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이며, 그 모든 운동을 재현하는 것은 인간능력의 한계 안에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후의 비행기 발명가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다방면에 걸친 활동 때문에 다 빈치는 비행에 관한 자기의 구상을 실현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것 같다. 그는 박쥐에게서 착상을 얻어 「인력우격기」(人力羽擊機, Ornithopter)를 설계하였다. 날개를 나무와 천으로써 만들고, 로오프와 도르래를 이용하여 탑승자가 손·발을 움직여 날개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의 설계에 따라 모형을 만들면, 리리엔탈(Lilienthal)의 글라이더와 비슷하다고 하나, 그것이 나르려면, 실로 인

간의 팔다리의 근육이 실제의 50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위대함은 암흑시대가 끝나는 여명기에 있어서, 앞으로 올 비행의 시대를 예고하고, 비행이 「수학적 법칙」에 따라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선언했다는 점이다.

항공시대를 예언한 선각자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독일사람 고트프리이트 차이들러(Gottfried Zeidler)이다. 그는 1710년에 「철학적 비행술」이라는 저서를 발표하였다. 기구나 비행선조차도 발명되지 않았던 당시에 있어서 그는 찬란한 미래의 항공시대를 예언하고 있으며,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항공기가 등장할 미래에 있어서의 항공기 때문에 초래될 장단점을 세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항공기로 인하여 누리게 될 장점으로서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①육로나 해로에 비해 여행의 속도가 빨라진다. ②도둑이나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③말이나 선박보다 편복하지 않고 안전하다. ④여행에 피로가 감소된다. ⑤육상교통보다 혼잡이 덜하다. ⑥비용이 적게 든다. ⑦숙박료가 절약된다. ⑧적의 공격으로부터 쉽게 도피할 수 있다. ⑨우편이 신속화됨으로써 무한한 이익과 부가 증가될 것이다. ⑩상업활동이 민활해 질 것이다. ⑪적의 요새를 공중에서 공격·점령할 수 있다. ⑫적국 내에 간첩과 부대를 쉽게 투입할 수 있다. ⑬사람들이 철새와 같이 계절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차이들러는 또한 비행술이 발달하면 다음과 같은 결점이 있을 것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①항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많이 생길 것이며, 그 피해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②하늘의 도적과 공중전투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공중에는 도피할 곳이 없으므로 지상의 도적보다 처치가 더 어렵다. ③어떤 나라 어떤 도시도 적의 공중공격에 노출될 것이다. ④성벽과 담장을 아무리 견고히 쌓더라도 공중침입에 의한 약탈과 살인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⑤평상시에도 거대한 비용을 들여 공중순찰을 해야 한다. ⑥유럽 국가들은 미개한 국가들을 정복함으로써 더 많은 범죄를 하게 될 것이다. ⑦선박과 말을 이용한 수송수단은 쇠퇴할 것이다. ⑧해상 및 육상의 통행세가 감소되어 국가의 세원이 감소될 것이다. ⑨새들이 도망칠 것이다. ⑩빈부의 차가 더해짐으로써 평등과 기독교정신은 쇠퇴할 것이다.

인간이 지구의 인력에 도전하여 처음 성공을 거둔 것은 날개를 이용한 방법으로써가 아니고, 공기보다 가벼운 물체의 부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써였다. 1766년 영국의 과학자 카벤디시(Henry Cavendish)가 수소를 발견함으로써 이후의 기구(Balloon)와 비행선(Dirigible)의 개발을 촉진하는 기초가 되었다.

1783년 프랑스의 제지업자인 몽골피에르(Joseph Montgolfier) 형제는 기구에 사람을 탑승시켜 공중으로 상승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몽골피에르형제의 기구는 수소기구가 아닌 열기구(Hot-air-balloon)였다. 직경 10미터의 기구를 아랫 부분을 열리게 하고, 그 아래에 곤돌라를 매달아 연소대를 싣는다. 연소대에서 짚과 양털을 태움으로써 뜨거운 공기를 기구에 공급하여 부력을 만드는 것이다. 1783년 6월 5일, 1,800미터 고도에까지 기구를 상승시키는데 성공한 몽골피에르는, 그 해 9월 19일에는 루이 16세 황제를 모신 가운데, 양, 오리, 닭 등 동물을 탑승시켜 8분간 체공하게 하였고, 그 해 11월 21일에는 파리에서 세계 최초의 유인기구를 시험하게 되었다. 이 때의 탑승자는 젊은 물리학자 필라트르 드 로지에르(Francois Roland Pilatre de Rozier)와 다르랑(Francois Roland Darlant)소령 두 사람이었다. 이들을 태운 기구는 파리 상공 900미터 고도를 9킬로미터 날아서 교외의 쿠를발프 수차장에 착륙하였고, 체공시간은 25분간이었다.

몽골피에르형제의 열기구는 곧 이어서 개발되는 수소기구에 의하여 빛을 잃게 된다.

최초의 수소기구를 개발한 사람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쟈크 샤를르(Jacques Charles)이다. 몽골피에르의 기구실험의 성공으로 파리의 학계가 흥분하고 있던 1783년 6월, 샤를르는 카벤디쉬가 발명한 수소를 사용한 기구를 건조하기 시작하였다. 샤를르 1호기구는 직경이 4미터로, 고무를 바른 천으로써 제작하였다. 1783년 8월 27일 오후, 파리 시민 20만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샤를르1호기구의 상승이 실험되었다. 42분의 체공 끝에 이 기구는 파리 근교의 농장에 내렸다. 기상천외의 괴물을 본 농부들은 농기구를 가지고 이것을 공격하였으며, 괴물은 악취를 내면서 숨을 거두었다. 12월 1일에는 샤를르 2호기구가 실험되었다. 투일레리공원에서 시험된 이 기구에는 샤를르교수와 로베르(Robert)가 탑승하였고, 이들을 실은 기구는 600미터로 상승하여 세느강 건너 25킬로미터 떨어진 들판에 착륙하였다.

체공시간은 2시간이었다. 이날 해질 무렵 샤를르는 다시 제2회의 상승을 하였다. 이번에는 샤를르 혼자 탑승하여 3,500미터의 고도까지 상승하였다. 일몰 후에 이륙한 그는 하루에 두번 일몰을 구경할 수 있었으며, 이런 경험을 최초로 한 그는 당시의 감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나는 끝없는 지평선이 펼쳐진 광경을 보고 황홀해버렸다. 벌판에서 두번째 상승했을 때,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태양은 지고 없었다. 그러나 이윽고 태양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하여 다시 떠올랐으며, 태양은 다시 한번 지구와 나의 곤돌라를 금빛으로 비추기 시작했다. 잠시 후 태양빛을 보는 물체라고는 나 밖에는 없게 되었다. 모든 자연은 그림자 속에 잠겨버리고 만 것이다. 얼마 후에 태양은 나의 시계에서 사라졌다. 나는 하루에 일몰을 두번 보는 귀중한 체험을 했다.」

기구로써 실시한 비행 가운데서도 가장 큰 업적은 블랑샤르(Jean Pierre Blanchard)의 영국해협횡단일 것이다. 샤를르와 로베르가 기구실험을 한지 한 달 후인 1784년 1월, 블랑샤르는, 기구로써 영국해협을 횡단비행하겠다고 공표하였다. 드디어 1785년 1월 7일, 횡단비행을 단행키로 결정되었다. 비행코오스는 도오버에서 깔래까지였다. 1월 7일 오후 1시, 블랑샤르는 자금후원자인 미국인 의사 존 제프리이즈(John Jefferies)박사와 함께 도오버를 출발하였다. 기구는 천천히 바람에 날려 프랑스 해안으로 접근해 갔다. 출발 후 약 40분부터 기구의 고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발라스트(Ballast)를 내던져도 고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보이기 시작해야 할 해안은 나타나지 않았다. 발라스트를 다 던졌는데도 하강은 멈추지 않는다. 기구는 점점 내려와 수면에 스칠 정도가 되었다. 고도를 회복하기 위해 온갖 방법이 강구된 것이다. 곤돌라의 장식을 던지고, 비행을 위해 불가결한 계기도 던졌다. 책, 옷가지, 음식물을 모두 내던졌다. 기구는 약간 상승을 하다가는 다시 해면에 접근한다. 그들은 마지막 방법을 강구하였다. 타고 있던 곤돌라를 풀어서 내던지고는 몸을 기구의 밧줄에 묶었다. 매달린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블랑샤르와 제프리즈박사는 서로 부등켜 안았다. 이윽고 해안선이 4~5마일 저편에 나타났다. 그들은 두시간만에 깔레 근처의 숲 속에 착륙하였다. 역사상 최초의 영국해협 공중횡단이 성취된 것이다.

블랑샤르는 비행을 직업으로 택한 최

초의 사람이었다. 그의 기구애호열은 그칠줄을 몰랐다. 그는 당대에 있어 유일한 비행가로서 영웅의 대우를 받으면서 여러 나라 여러 도시를 순회하였다. 대담한 흥행비행의 묘기로써 한 때는 상당한 자산을 모우기도 하였으나, 만년에는 청빈한 생활을 영위하다가 56세를 일기로 1809년 파리에서 서거하였다.

항공의 선각자들 중에서도 가장 우뚝 솟은 정상의 인물은 영국의 조오지 케일리(George Cayley, 1773~1857)경일것이다. 항공기의 발명을 완성한 오오빌 라이트(Orville Wright)는, 그의 회상기에서, 「케일리 경이야말로 항공역학에 있어 누구보다 앞선 선각자이며, 적어도 19세기 말까지는 케일리를 능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였다.

케일리는 1809년에 「공중항행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양력과 항력의 원리를 밝혔다. 그는 연의 원리와 익단면에서 발생하는 압력을 항공역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어느 정도의 받음각을 가지고 평판이 비행할 때, 이 평판에는 비행속도의 방향에 평행하는 항력과, 비행속도의 방향에 직각인 양력, 이 두 가지 힘이 작용하며, 동력을 부여하여 항력을 이기면 양력에 의하여 상당한 중량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날개의 단면을 유선형으로 만들면, 이 때 날개 윗면으로 흐르는 공기의 기압이 감소됨으로써 양력이 발생한다는 원리를 발견하였다. 그는 실험에 의하여 날개 윗면을 유선형으로 만들므로써, 장차 1파운드의 항력의 대가로 30파운드의 양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비행기가 발명되기 100년 전에 양력발생의 이론을 체계화한 케일리는, 「비행기의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에 족할 것이다. 케일리는 또한 주익과 미익을 갖춤으로써 비행기의 기수가 상·하로 움직일 때의 세로안정을 해결하였고, 또한 주익을 V자 형으로 만들므로써 가로안정을 부여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는 실제로 비행기를 제작하려고까지 기도했으나, 강력한 엔진의 출현을 기다려야만 했고, 그는 단지 글라이더로써 비행기의 안정성을 실험할 수 밖에 없었다.

케일리가 제작한 복엽의 글라이더는 실로 세계 최초의 것이었다. 그는 이 글라이더에 방향타를 장치했을 뿐만 아니라 수직안정판과 수평안정판까지도 부착시켰다. 또한 그는 오늘날 항공기설계가의 슬로건인, 「세련된 형태에 더 가볍게」 항공기를 만드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유선형에 의한 유

해항력의 감소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케일리는, 내연기관이 발명되기 70년 전에 있어서, 항공기의 동력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함을 예견하였다. 즉 그는 항공기의 동력은 실린더 안에서 가연성개스를 폭발시켜 피스톤을 움직이는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3. 동력항공시대의 태동

기계적 에너지를 항공기의 동력으로 이용하려고 시도한 사람으로는 영국의 윌리암 헨손(William Samuel Henson, 1805~1888)이 최초이었다. 1840년부터 동력항공기를 연구하기 시작한 헨손은 우격기(Ornithopter)와는 달리, 고정익에 프로펠러를 장치하고 동력을 가지고 이 프로펠러(풍차)를 회전시킴으로써 비행을 하려고 계획하였다. 당시는 아직 고속엔진이 출현하기 40년 전이었으며, 동력으로는 제임즈 왓트(1736~1819)가 1769년에 발명한 증기기관 밖에는 없었다. 헨손은 이 증기기관을 이용한 「공중증기차」를 제작하였다. 그 제원을 보면, 주익은 폭이 40미터, 세로가 10미터이고, 두터운 명주로 만들었으며, 날개의 골격은 나무로써 만들었다. 날개 아래에는 보오트같은 곤돌라를 만들고, 여기에 20마력의 증기기관을 싣고 조종사가 타게 되어 있었다. 풍차 모양의 프로펠러가 두 개 장착되고, 길이 15미터의 3각형을 한 미익으로써 방향과 승강을 조종하게 되어 있었다. 이륙은 내리막길을 이용하며, 내리막길이 단절된 곳에서 가속이 붙은 「공중증기차」를 카타팔트로 쏘아 내려고 했다. 1842년 헨손은 이 공중증기차의 특허를 내었다. 그러나 이 공중차는 비행하지 못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공중차의 중량은 1.5톤이나 되었고, 거기에 비해 프로펠러가 빈약하고 동력이 20마력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한편 기구에다 동력을 부착함으로써 바람을 극복하고 비행하려는 계획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것이 곧 비행선이다. 기구에 동력을 결합시킨 최초의 사람은 프랑스의 앙리 지파아르(Henri Giffard)였다. 그는 이 비행선으로써 파리에서 베르사이유 앞 트라페(Trappes)까지 비행하는데 성공하였다. 이것이 인류의 최초의 동력비행이었다. 1852년 9월 24일이었다. 지파아르의 비행선은 길이가 42미터의 방수형의 기구에다 그 아래 20미터 쯤에 곤돌라를 장치했으며, 동력은 159킬로그람의 3마력 증기기관이었다. 비행속도는 시속 약 10킬로미터, 초속 2미터에 불과했으나, 자유기구에서부터 조종가능한 비행선

(Dirigible Balloon)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대단히 큰 것이다. 비행선은 그것이 가지는 무한한 체공능력의 특성과, 그 거대한 모양이 주는 심리적 안전감 때문에 항공기가 상당한 발전을 하게 되는 1930년 경까지도 많은 애호를 받으면서 발전을 계속하게 된다. 비행선이 본격화 되는 것은 1900년, 체펠린(Zeppelin)이 경식비행선을 발명, 완성한 때부터였고, 1차대전 및 그 이후에 있어서도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 체펠린의 경식비행선의 활동에 관해서는 별도로 서술키로 한다.

동력항공기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볍고도 강력한 출력을 가지는 발동기가 선행되어야 했다. 출력에 비해 중량이 큰 증기기관으로써는 비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세계최초의 개스발동기 발명가는 독일의 니콜라우스 오그스트 옷토(Nikoalus August Otto)였다. 그는 1867년 파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 신발명의 2행정식 기압작용 개스발동기를 출품하여,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1876년에는 4행정식 내연발동기로 개량되었고, 드디어 1883년에는 점화장치가 발명됨으로써, 자동차와 비행기의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속의 다임러발동기가 출현하였다.

동력비행에 전력을 다하다가 좌절된 마지막 사람으로는 영국의 하이람 맥심(Hiram Maxim)경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맥심은 동력으로 증기기관을 택하였다. 그의 비행기는 거대한 복엽기였다. 날개폭이 31미터, 전장 36미터, 무게는 승무원 3명을 포함하여 3.6톤에 달했고, 2대의 증기기관은 360마력을 내면서 직경 5미터의 프로펠러 2개를 매분 375회 회전시키도록 되어 있었다. 이 공중차는 1894년 런던 근교의 철로 위에서 시험비행을 하였다. 600미터 길이의 철로 양쪽에는 두터운 담장이 쌓여졌다. 기체가 2피이트 이상 상승하지 못하게 보호용 철색이 날려 있었다. 맥심의 「공중차」는 200미터 활주한 다음 2피이트까지 상승하였다. 3.6톤의 괴물이 날았던 것이다. 앞 뒤의 바퀴에 부착한 철색은, 활주시에 바퀴 축이 빠져나감으로 떨어져 나가, 기체는 2피이트 높이 이상으로 비행하여 담장 위를 날아, 담장 밖으로 나와버렸다. 화부는 곧 증기를 빼어버렸으며, 맥심은 착륙하였다. 착륙시에 기체는 조각이 나 버렸고, 맥심은 10만불을 소비한 비행연구를 포기해버리고 말았다. 비행을 포기한 맥심은 신식 기관총을 발명함으로써 옛날의 화포제조의 왕으로 돌아가

백만장자가 되었다.

맥심의 공중차는 두번 뜰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버렸지만, 그 의의는 대단히 큰 것이었다. 3.6톤의 거대한 기체가 비행했다는 사실인 것이다. 맥심의 공중차는 추락한 것이 아니라, 그가 조종술을 몰랐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강하여 착륙했던 것이다. 비행시간은 비록 5~6초였지만 성공적 비행이었다.

후에 비행기를 발명하게 될 라이트 형제는 맥심의 비행시험이 지니는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였던 것이다. 즉 맥심의 공중차는 엔진과 조종사를 포함하여 3.6톤이나 되는 그 큰 중량을 공중에 지탱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익면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엔진은 기체를 비행시키기에 충분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추진력과 익면적만 충분하면 어떤 무거운 물체도 비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다. 요컨대 맥심의 비행실패는 맥심이 어떻게 나를 것인가 하는 방법을 몰랐다는데 기인함을 라이트형제는 인식하였다. 또한 라이트는 맥심을 통하여 비행문제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 즉 ①중량물을 공중에 지탱시키는 주익을 만드는 방법, ②동력을 여하히 구하며 또한 여하히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③공중에서 기체의 균형을 여하히 잡을 것인가 하는 조종기술의 문제, 비행의 문제는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을 라이트는 알게 된 것이다. 비록 맥심경의 공중차는 단 1회의 시험으로 중단되고 말았지마는, 그것이 항공기 발명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동력항공시대 직전의 과도기를 장식하는 인물로 알베르 산토 듀몽(Albert Santos Dumont)과 옷토 리리엔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알베르 산토 듀몽은 브라질의 커피농장을 경영하는 부호의 아들로서, 그의 비행열은 재정적인 곤란을 받음이 없이 마음껏 뻗어날 수 있었으며, 그의 모험적인 비행과 호탕한 성품은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 각국의 비행열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듀몽은 비행선에서 시작하여 동력항공기의 개발에까지 연구범위와 차원을 발전시켰다. 그는 풍부한 자산을 비행기계의 개발에 투입하였으며, 설계와 조종과 제작을 겸비함으로써 당대의 유례없는 영웅이 되었다. 그는 가솔린엔진을 비행선의 동력으로 채택하여, 이를 대대적으로 개발하였다. 그는 끝없는 항공에의 정열을 불태우면서, 모험적인 비행을 감행하여 파리 시민의 우상적인 존재가 되었다. 「산토 듀몽 1호」

비행선이 처녀비행을 개시한 것은 체페린의 경식비행선이 완성되기 2년전인 1898년 9월 20일이었다. 이 1호비행선은 길이가 25미터이며, 상승과 하강은 발라스트(Ballast)를 곤돌라의 앞 뒤로 이동하여 조절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는 1898년부터 1900년까지의 3년간에 비행선 3척을 제작하면서 비행선의 개량에 힘썼다. 1900년, 프랑스항공협회 회원인 앙리 룰트씨가 현상금 10만 프랑을 내걸었다. 상금을 탈 수 있는 조건은 쌍 끌루(San Clous)의 기구포오트에서 에페르탑까지 11킬로미터를 30분 이내에 왕복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듀몽은 이 현상비행에 도전하였다.

1907년 7월 13일 듀몽은 제5호비행선으로써 에펠탑까지의 비행에 도전하였으나, 강풍에 밀려 불로뉴 숲속에 불시착하고 말았다. 8월 3일, 듀몽은 두번째의 에펠탑 왕복비행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비행선의 기낭에서 개스가 새었을 뿐만 아니라, 곤돌라를 매단 밧줄이 프로펠러에 걸려 엔진이 정지되고, 비행선은 바람에 날려 에펠탑 근처 트로카데로극장 옥상에 불시착하면서 폭발해 버렸다. 10월 19일, 듀몽은 세번째로 다시 도전하였다. 산토 듀몽 6호비행선은 에펠탑을 선회하여 왕복비행에 성공하였다. 소요시간은 29분이었고, 10만 프랑의 상금을 차지하였다. 그는 이 상금을, 파리의 빈민가에 6만프랑, 그리고 나머지 4만 프랑은 쌍 끌루에 있는 자기 공장의 많은 고용인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런 신사적 행위는 그의 명성을 더욱 부채질 해주었을 것은 틀림없다.

1904년 듀몽은 라이트형제의 동력항공기 발명의 소문을 들었다. 비행선에서 비행기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에는 블레리오, 보아잔, 파르망 등 비행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산토 듀몽도 비행기계의 연구에로 전향하였다. 1906년 8월 22일, 듀몽은 제14호기로써 제1회 비행시험을 실시하였다. 그의 항공기는 연의 원리를 이용한 상자식 복엽비행기였다. 8기통의 안토와네트 가솔린엔진(출력 50마력)을 장착하였다. 바가티르에서 실시된 제1회실험에서 듀몽 제14호기는 약 3피이트 떠 올랐다. 비행이 아니라 조약이었다. 9월 14일의 제2회 시험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10월 23일에 실시한 제3회 시험에서는 160피이트를 비행함으로써 25미터를 최초로 비행하는 사람에게 주기로 된 현상금 3천프랑을 차지하였다. 11월 12일에 실시된 제4회 비행시험에서 그는 220미터를 21초에 비행하였다. 바가티르에서 시행한

그의 비행은, 운집한 관중으로부터 대갈채를 받았으며, 그의 성공을 실은 기사들은 유럽 도처에서 읽히고, 독자를 흥분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듀몽의 비행은 너무나 때늦은 성공이었다. 듀몽을 비롯한 프랑스의 비행가들이 비행시간을 초 단위로 계산하고 있을 무렵, 미국의 라이트 형제는 1905년 10월 5일 데이톤(Dayton) 부근 하프만(Hafman) 목장에서 24마일을 38분간 비행하는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1908년 8월에 윌버 라이트는 프랑스에서 공개전시비행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윌버는 선회비행, 8자비행을 자유자재로 하여, 그의 비행술을 과시하였으며, 프랑스 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 모여든 관중들을 황홀케 하고 압도해 버렸다. 윌버의 전시공개비행이 유럽 각국의 비행가들로 하여금, 애국심과 결부된 비행열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듀몽은 1909년 9월 13일, 보다 개량을 가한 소형의 항공기 드모아젤호를 가지고, 5분간에 8킬로미터를 비행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드모아젤호에는 20마력의 엔진이 장착되었고, 날개폭은 5미터이며, 무게는 117킬로그램이었다.

1910년 듀몽은 항공계에서 은퇴하였다. 1928년, 정든 파리를 떠나 고국 브라질로 귀환했다. 그의 귀국을 환영하기 위해 항구로 나오던 대형수상기 「산토 듀몽」호는 불행하게 추락사고를 일으켜 탑승원 전원이 사망하였다. 그의 우울증은 악화되었다. 신기록을 목표하여 많은 젊은 조종사들이 비행사고로 목숨을 잃을 때마다, 그는 항공열을 불러일으킨 선각자로서의 책임을 느꼈다. 1930년 영국의 비행선 「R101호」가 폭발하여 51명이 사망했을 때, 비행선을 개발한 선구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자살을 기도하기까지 하였다. 1932년 쌍 파울로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브라질 정부군의 항공기는 반란 진압을 위해 쌍 파울로시에 폭격을 가하였다. 일찌기 비행선과 비행기를 개발하여, 이것으로써 인류에게 새로운 행복을 열어주려고 했던 이 비행가는, 동족상잔의 참극을 목격하고 참을 수 없는 비통에 싸여, 쌍 파울로의 호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이다.

동력항공기의 출현 직전에 나타나, 태동기의 마지막을 장식한 사람은 독일의 옷토 리리엔탈(Otto Lilienthal, 1848~1896)이다. 그는 13세 때부터 48세까지 35년간을 비행문제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다. 성실과 모험으로 일관된 그의 생애는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을 준다. 리리엔탈은 독일의 동북부, 폴란

도와의 접경지대인 폼메라니아지방의 앙클람(Anklam)시에서 생장하였다. 옷토(Otto)와 구스타프(Gustav) 형제는 옷토가 14세이던 1862년에 이미 비행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합판으로 날개를 만들어 양팔에 묶어서 언덕으로부터 뛰어내려 오면서 날개치는 놀음을 시작하였다. 1867년 리리엔탈 형제는 거위의 날개깃을 수집하여, 이것을 10피이트의 나무에 부착시켜 날개를 만들었다. 이것을 몸에 묶어 크랭크와 페달로써 상하로 날개치게 하는 시험을 하였다. 일종의 우격기(Ornithopter)였다. 그들은 더 큰 우격기를 만들어 시험해 본 결과 자신있는 성과를 얻게 되었고, 이 작은 성공이 리리엔탈의 항공이론의 기초가 된 것이다. 그는 새의 비행에 집착한 나머지, 비행의 모든 원리를 거의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력비행이 아닌 활공기의 개발에 머물었던 것이며, 이렇게 보면 그의 어린 시절의 그 작은 성공이 오히려 불행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1889년 리리엔탈은 「비행기술의 기초로서의 조류의 비행」이란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새의 비행방법에서 출발하여 모든 비행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태도를 여기에서 밝히고 있다.

옷토 리리엔탈의 본격적인 활공실험은 1891년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활공시험은 베를린 남쪽 교외 리노베산에서 시행되었다. 그는 단순한 활강만이 아니라, 기류를 타고 고도를 유지하면서 수평비행을 하기로 하고, 출발지점보다 더 높은 고도에까지 상승하기도 하였다. 수년간의 연습 끝에 리리엔탈은 점점 강풍을 이용한 활공법을 습득하여, 350미터의 활공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1893년 9월 30일, 그는 글라이더에 동력을 부착한 비행시험을 하였다. 동력으로는 2마력의 출력을 가진 무게 20킬로그램의 탄산엔진이 부착되었다. 그러나 이 동력비행은 실패하였으며, 그는 다시 준비훈련으로서 동력 없는 활공기 시험을 계속하였다. 1896년 8월 9일, 리리엔탈은 리노베산에서 활공비행 시험 중에 돌풍을 만나, 50피이트 고도에서 추락하여 척추 골절로 하루 후에 사망하였다.

리리엔탈의 활공기는 엔진이 없을 뿐 기체는 거의 완전하게 비행역학적인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그의 활공기는 죠오지 케일리의 이론에 따라 제작된 것이며, 주익과 미익을 갖추었고, 또한 수직안정판까지도 달려 있었다. 그는 주익 중앙에 구멍을 뚫어, 여기에 목을 내밀고, 팔과 어깨로써 매달려 활강하였다. 그에게 있어 문제점은 세로안정

(Longitudinal Stability)이었고, 이것 때문에 그는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그는 승강타를 사용하지 않고, 양쪽 다리를 움직임으로써 몸의 중심을 이동시켜서 세로안정을 취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그는 1891년부터 1896년까지 5년 동안에 2,000회 이상의 비행시험을 실시하였고, 최고기록은 비행거리 400미터, 상승고도 23미터였다. 2천여회에 걸친 시험에서 그의 체공시간은 도합 약 5시간이었다.

리리엔탈은 인류의 비행가능성을 굳게 믿었으며, 그 확신을 자기자신이 실지로 시험해 보는 용기있는 태도를 시범하고, 48세를 일기로 순직하였다. 비행기의 발명가 라이트 형제는 1895년에 리리엔탈의 비행시험을 전해 듣고 있었으며, 1896년 8월, 리리엔탈의 순직은 라이트 형제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자전거 생산공장으로 안락한 생애가 보장되고 있던 라이트 형제는, 한 동안 손을 떼고 있던 비행기의 연구에 진지한 결의로써 다시 착수하게 되었다. 리리엔탈의 숭고한 정신이 라이트에게 계승되었던 것이다. 리리엔탈이 라이트 형제에게 미친 영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력비행이 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형에 의한 실험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탑승하는 실물의 비행기로써 탐구해야만 된다고 하는 확신과 용기를, 시범해 준 점에 있다. 윌버 라이트는 1901년 항공학회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항공학에 관한 나의 적극적 관심은 1896년 리리엔탈의 죽음에서 발단되었읍니다……. 나는 이 때부터 항공에 관한 서적을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다시 읽었으며, 거기에서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론을 깨닫게 되었읍니다. 우리 형제는 그 때부터는 책을 읽는 단계에서 생각하는 단계로, 생각하는 단계에서 다시 실제로 시험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읍니다.

지금까지 필자는 항공의 여명기에서부터 리리엔탈에 이르기까지의 항공사를 정리하여, 필자 나름의 체계화를 시도해 보았다. 이 서술에서 제외된 항공인들도 또한 많이 있음은 물론이지만, 대담하게 줄였다. 아직 필자는 항공기의 진정한 발명가인 라이트 형제의 시기에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라이트 형제 이전에 출지은 성좌를 우선 살펴 본 것이다. 이들 수많은 영웅들이 흘린 땀과 피의 결정이 프리즘의 초점을 이루는 곳에서 라이트형제의 발명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빙산과도 같은 터전 위에 펼쳐질 항공시대의 아침을 보게 될 것이다.

□…… 여기 소개하는 글의 내용은 국방부 군 특명검열 ……
…… 단 연구요원들이 제 1단계 연구(자주국방을 위한 ……
…… PPBS: 공군 제128호, 73년 2호 게재)에 이어 ……
…… 72년초부터 73년 5월까지 연구한 제 2단계 연구 ……
……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

자주국방을 위한 PPBS

국방부 군 특명검열단 PPBS 연구위원회 제공

제 3 장 국방 5개년 계획과 예산

제 1 절 국방 5개년계획의 의의

1. 국방 5개년 계획의 목적

계획예산제도가 지향한바 군사기획과 자원배분, 즉 기획과 예산간의 유리를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방 5개년 계획이다.

따라서 이 국방 5개년 계획은 국방고위자원관리자로 하여금 현재 가용자원의 현황 뿐만이 아니라 차후 수년간에 필요하고 획득가능한 자원상태를 사전에 파악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계획문서이다.

또한 국방 5개년 계획은 오늘의 결정이 주는 앞으로의 영향을 적어도 5년전에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국방 5개년 계획의 구성내용

국방 5개년 계획은 전년도, 현년도 예산년도 및 4개년의 계획년도, 즉 7개년에 대한 부대계획(Force Planning)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계획(Finanical Planning)으로 대분되며, 계획구조에 따라 7개의 주요계획 항목과 200여개의

계획요소에 대한 계획내용으로 구성된다.

부대계획은 성과측정이 어려운 전투부대에 대해서는 부대수, 무기, 장비 및 인력으로 표현하고 성과로 표현이 용이한 지원부대에 대해서는 일정한 성과지표로서 기대되는 성과를 표시한다. 재정계획은 투입자원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표시한다. 따라서 국방 5개년 계획은 어디까지나 장래 수개년간에 있어서 얼마만한 자원을 투입하면 얼마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정책결정자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군사기획 즉 합동전략목표계획에 의하여 매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년 필요한 사업의 추가와 수정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매년 최근 계획연도는 예산 연도가 되어 세출예산요구에 반영된다.

제 2 절 국방 5개년 계획의 기능

국방 5개년계획은 본질적으로 기획과 예산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비용과 성과의 대조파악을 가능케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것을 국방부 수준과 각 군 본부 또는 국방부 직할기관 수준에서의 역할로 대분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방부 수준

가. 국방 5개년 계획은 본질적으로 국방부 내부의 행정적 필요에 의해서 작성되는 문서이기는 하나, 필요에 따라 경제기획원 또는 국회 등 자원배분에 관여하는 외부기관에서 국방자원 소요의 합리성에 관한 이해를 촉진하는 데에 이용될 경우는 상당한 설득력을 발휘할 것이다.

나. 국방 5개년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개의 선정된 계획을 종합하여 5개년간에 걸친 균형과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가 된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국방자원 관리자가 실제적 계획소요와 현실적 국방재정규모 간에 존재하는 공백을 인식하게 됨은 중요한 뜻을 지닌다.

다. 국방 5개년 계획이 확정되면 예산목표연도의 계획은 곧 예산편성의 기초로서 공헌한다.

라. 또한 국방 5개년 계획은 국방부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식 계획지침을 제공해 준다. 즉 국방 5개년 계획은 국방부장관의 부대 및 재정에 대한 앞으로 수개년간에 걸친 공식적 전망이며, 모든 관련부서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준치적인 역할을 해 준다. 따라서 군수분야에서는 군수소요에 대한 전망을 파악하고 그에 대비한 물자수급계획을 수

립하여 인사분야에서는 인력 수급 계획 또는 교육 훈련계획 등에 반영할 것이다. 그 결과 국방부는 경제적이고 균형이 잡힌 국방력 배양이 가능해 진다.

2. 각군 본부 및 국방부 직할기관 수준

국방5개년 계획은 사전계획적인 성격이지 집행계획이 아니므로 각군 본부나 직할기관에 대한 공약이나 또는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국방 5개년 계획의 예산년도는 다음 예산이 곧 바로 될 수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수정과 변경이 거듭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으로서는 각군 본부 수준에서 기본적인 문서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계획이나 무기발전 과정에 있어서 각군 본부와 국방부간에 있어야 할 의견의 교환, 정보의 소통, 성과파악의 기준 등이 일치되는 점이 바로 국방 5개년 계획이다. 따라서 국방 5개년 계획은 부단이 수정되고 가장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정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방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국방부 자원관리자와 각군 본부 수준의 자원관리자 간에는 개개사업 뿐만이 아니라 전체 자원에 대한 상호이해를 돕고 필요한 조정을 쉽게 해준다.

제 3 절 예산 구조

1. 계획구조와 예산구조

예산구조는 예산의 편성, 집행, 심사분석 및 보고에 있어서 표준적 분류와 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구조이다.

이것은 관리목적상 비교를 위한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고 모든 계획과 운영의 세부상태를 관찰하는 수단이며 분석 및 판단을 위한 형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구조의 일반적인 목적은 계획수립을 도우며, 효과적인 예산집행에 기여함과 동시에 재정관리상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경제분석방법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우수한 예산구조가 지니는 일반적인 특징이라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을 열거할 수 있다.

가. 확정된 제목표를 달성함에 필요한 총비용을 다각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용이하여야 한다.

나.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각 방안들을 비교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다. 오늘의 예산결정이 그 관계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장차 생기는 재정적 부담을 내다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라. 투입과 성과, 목표와 수단 등의 관계를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분석

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조건에 가장 충실하게 부합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지출비목 위주의 분류로 되어 있는 현행 예산구조를 지양하고 계획구조와 일치하는 예산구조를 택하는 길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경우의 시안으로서 별표 1과 같은 예산과목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지적해 둘 것은 첫째, 현행 입법과목인 장(章), 관(款), 항(項)과 행정과목인 세항(細項), 목 이외에 세세항, 세부활동 등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는 것과, 둘째, 군사작전상의 신속한 전개 및 적응이 가능하도록 예산집행상의 탄력성이 보장되어야 하겠다는 고려하에 계획구조의 7개 주요계획 항목을 예산과목 구조의 항에 해당시켰다는 것 등이다.

결과적으로 현행구조와 대비하면 예산과목의 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장	관	항	세 항
현 행	1	4	9	33
시 안	1	3	7	21

2. 회전기금제도의 역할

상술한 바와 같이 계획구조와 예산구조를 일치시킬 경우와 지출비목 위주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현행예산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검토해 보면 계획구조와 예산구조를 일치시킬 때의 그 장점으로써 복잡한 환산작업이 제거되나 단점으로서 지원부대의 회전기금 제도가 필요하며 회전기금이 없을 때는 예산집행시에 복잡한 회계절차가 수반될 것이다.

여기에서 회전기금제도에 관한 문제를 검토해 보는 것이 큰 의의를 가진다. 계획예산제도에 있어서는 계획요소별로 소요자원을 판단하고 계획요소별로 자원소비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므로 계획요소별로 부여된 목표임무와 이에 대한 효과, 즉 성과 측정의 상관성을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고로 예산구조를 계획구조에 일치시킨다는 것은, 계획요소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운영한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 보급을 담당하는 것은 군수부대이므로 군수부대가 물품의 구매보급, 생산 및 용역제공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군수부대는 각 계획요소가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운전자금이 필요한 회전기금 제도로써 운영할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피지원부대의 예산과 지원부대의 회전기금 사이에 상호결제체제(相互決濟體制)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다. 이때 사용부대와 회전기금은 다음과 같은 운영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가. 사용부대의 운영효과는

(1) 필요한 물품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케 함으로써 임무수행을 위한 실제 소요산출에 심중을 기하게 되며, 사용예산한도액이 정해짐으로써 무상보급 거래제도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낭비를 시정할 수 있다.

(2) 예산으로 보급품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부대관리를 향상시킨다.

(3) 장병에게 보급품의 금전적 가격의식을 고취시키게 된다.

나. 회전기금의 운영효과는

(1) 원가의식의 향상과 내부통제의 강화를 기할 수 있으며, 예산운영의 융통성이 부여된다.

(2) 저가생산, 적기공급 및 예산의 절약을 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회전기금제도는 군운영 부문에 있어서 경제적인 수요와 공급의 가격기구 및 비용과 효과의 척도를 개선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경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예산과 회계의 기술적인 개선을 가져오게 되며 각 임무부대에 있어서의 지휘관리의 분권책임(分權責任) 및 인센티브 제공을 기할 수 있는 일련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회전기금제도를 채택함에 있어서는 보급품의 표준화, 표준가격의 결정, 거래 및 회계절차의 확립 등 보급 관리개선이 강조되어야 하며 또 회전기금의 적용범위, 기금소요의 정확한 판단과 시행절차 제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국방비 특별회계법의 제정

계획예산제도는 정부전체·행정부서에서 다같이 적용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국방부 독자적으로 계획구조와 예산구조의 일치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가령 제 2군의 경비사단 즉 「후방방위 및 예비군」이 전선사단 즉 「전선방위」로 임무전환되는 항간(項間)의 이동이 요구되는 경우 등 국방운영상 특수성에 따라 예산집행의 융통성이 요구된다. 또한 상술한 바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게 되는 회전기금제도가 필요하게 되므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예산회계법(豫算會計法)의 테두리 안에서 계획예산 제도의 적용 운영에 상치되는 사항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계획예산 제도의 적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비 특별회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 과목 구조(시안)

(별표 1)

장	관	항 (주요계획항목)	세 항 (세부계획)	세 세 항 (세세부계획 항 목)	세 부 활 동 (계획요소항목)
방위비	방위작전	1. 전선방위		계획구조내용과 같음	계획구조내용과 같음
			지상부대	〃	〃
			해상부대	〃	〃
			항공부대	〃	〃
		2. 후방방위 및 예비군			
			경비부대	〃	〃
			해안경비부대	〃	〃
			예 비 군	〃	〃
			학도군사훈련	〃	〃
		3. 정보및통신			
			정보활동	〃	〃
			보안활동	〃	〃
			통신전사활동	〃	〃
	방위지원	4. 연구발전			
			연구발전	〃	〃
		5. 군 수			
			지휘관리	〃	〃
			군수지원	〃	〃
			기지지원	〃	〃
		6. 교 육			
			교 육	〃	〃
	방위행정	7. 일반지원			
			국방부본부	〃	〃
			각군본부	〃	〃
			의 무	〃	〃
			병무행정	〃	〃
			기타지원	〃	〃
			후생 및 복지	〃	〃

제 4 장 계획예산 제도를 위한 체계 분석

제 1 절 체계분석의 의의 및 분석단계

1. 체계분석의 의의

체계분석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각종 대안을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능한 범위까지 계량화하여 표현하며 객관적인 기준을 부여함으로써 최종 결심자에게 선택과 결정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주어진 자원의 경제적 우선 순위와 그 성과를 비교하여 선택에 정확을 기한다. 이와 같은 체계분석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상 다음과 같

은 단계를 밟고 있다.

2. 분석 단계

가. 목적의 명확한 설정

체계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처음 해야 할 일은 의사결정자가 주어진 상황하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결정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목적이 달성된다면 주어진 문제가 어떠한 상태에 도달하며, 얼마나 잘, 그리고 경제적으로 목적이 달성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다.

나. 대안의 선택

대안이란 목적달성에 사용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동질적인 방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대안이 이질적인 방법이라도 동일 목적의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다. 비용의 산정

목적달성을 위해서 채택된 대안을 실행에 옮기려면 필요한 자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자원은 타목적에는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 확보된 자원을 비용이라고 한다. 이 비용의 산정은 비용 대 효과분석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며 또한 제6장 「비용정보」에서 상세히 설명된다.

라. 모형(Model)의 작성

모형이란 체계분석 대상의 특징을 추상화하여 현실을 대표케 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단순화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대표케 된 것은 계수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계산기화 할 수도 있다. 그 외에 글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형의 작성 여하에 따라서 문제해결이 정확하고 용이해지며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긴다.

마. 기준의 설정

기준이란 주어진 상황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尺)이다. 즉 선택된 대안이 바람직한가 또는 효과가 클 것인가를 비교 판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표준이다. 이 기준은 비용 대 효과 또는 성과를 비교하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

3. 경제성 분석

한정된 자원으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자원의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이 바람직한 것이다.

즉 주어진 자원에서 가장 큰 성과를 찾아내는 방법 또는 정해진 목적을 가장 적은 자원으로 달성하는 대안을 찾아내는 방법이 체계분석이며 체계분석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수단이 흔히 경제성 분석이라고도 하는 비용 대 효과분석이다.

가. 비용 대 효과분석

비용 대 효과분석의 접근방법에는 흔

히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방법과 일정한 성과를 얻기 위해 최저의 비용을 투입하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여기에서 비용 및 효과라고 하는 말은 동일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중 그 대안에 관한 것이며 적용되는 시기는 미래의 결정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대안에 대한 비용과 효과의 개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효과의 개념

효과란 성과라고도 흔히 말하는, 투입된 자원으로 얻어지는 최종산물 또는 중간산물을 말한다. 그러나 성과가 일상 경제생활에 있어서는 상품의 형태를 지니고 가격기구 내에서 가격으로 표현되지만 군에 있어서는 통산부대 또는 구입된 무기(장비)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원부대 활동에서는 피지원물량, 인원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효과를 완전히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과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도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은 계량화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계량화 되면 그 부분은 명백하고 안정된 결정요소가 된다. 그러나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은 최종결정단계까지 불안정 요소이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미지수이다.

따라서 이 불안정한 미지수는 정책결정자의 통찰력과 훌륭한 경험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으며 체계분석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완전히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 효과에 대한 연구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이다.

(2) 비용의 개념

비용이란 주로 장래문제를 결정하는데 투입되는 자원에 관한 정보이다. 그러나 이 비용이 정보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할 때 그 시기에 알맞는 정확성을 지녀야 하며 동시에 자원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비용은 주로 세 가지 사용단계별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분석의 통례이며 정책결정자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다.

즉 오늘의 결정이 내일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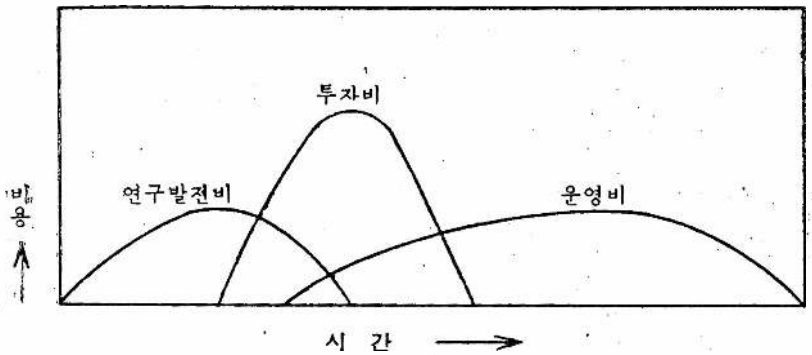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체계분석에서는 이 비용을 3단계로 구분함과 동시에 상호관련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 3단계 비용의 상관관계를 도시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가) 연구 발전비

연구발전비는 새로운 무기체계, 새로운 제도의 발전 및 설계에 투입되는 자원이며 주로 계획구조 제4항에 속한다.

1) 새로운 무기체계의 설계 및 발전



비용

- 무기의 본체
- 기 관
- 무 기

2) 시작품의 제작비

- 무기의 본체
- 기 관
- 무 기

3) 시험 운영비

- 시험 지원비

(나) 투 자 비

투자비는 시작품에서 합격된 제품을 대량생산 또는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고 이것을 정상 운영하기 직전까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다.

1) 시설비
2) 주 장비 구입비
3) 지원장비 구입비
4) 기타 장비 구입비
5) 초도 부속품비
6) 훈련비
7) 초도 이동비
8) 초도 수송비

(다) 운 영 비

운영비는 투자된 무기 또는 장비가 그 수명기간 중 운용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정책결정시 장래의 소요시점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를 미리 산정한 비용이다.

1) 시설 유지비
2) 장비유지 및 운영비

- 연 료
- 장비 보수비
- 기관, 무기의 보수비

3) 지원장비 유지비
4) 기타 운영비
5) 급여 및 수당
6) 보충인원 훈령비
7) 여 비
8) 수 송 비

9) 기타 지원비

(3) 비용의 현재값 산출

모든 비용은 역사적인 단계를 거쳐서 투입되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는 이 각종 비용을 결정하는 시점에서 동시적으로 가치평가를 해야 정확한 판단이 나오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예컨대 동일성능을 가진 두 개의 무기체계중 한 무기체계는 투자비가 많은 반면 차후운영에는 비용이 적게 들고 딴 무기체계는 투자비가 비교적 적게 든 반면 운영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향후 5개년간의 전체비용은 거의 같다고 한다. 이때 총 비용개념에 의해서 보다 적게 든 비용이 비용 대 효과면에서 바람직한 무기체계라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고려사항을 추가해서 생각한다면 좀더 내용이 확실해 진다. 즉 오늘의 만원이 3년 이후의 만원과 동등한 값을 지니느냐? 만일 다르다면 그 차이는 얼마나 있는가를 가려내서 그 차이를 적용한다. 이 차이를 판별하는 방법이 비용의 현재값을 산출하는 일이다. 이와 같이 현재값을 산출하려면 일정률의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오늘의 만원이 내일의 얼마에 해당하는가를 알 수 있다. 즉 할인율이란 수개년간에 발생할 비용을 현재값(Present Value)으로 환산해 주며 당해기간의 비용을 집계하여 실제적으로 상호비교를 가능케 한다. 각국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연 5%~1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 10%의 할인율을 적용시 1년후의 100원은 오늘의 91원에 해당되고, 2년후의 100원은 오늘의 83원, 5년후의 100원은 오늘의 56원에 해당된다. 이것을 가상 예를 통해서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가상 예 (10% 할인)

무기체계별 \ 비용구분		투자비	운영비					총액
			초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A무기체계	할인전	350	30	20	20	30	30	480
	할인후	350	27.3	16.6	15.0	20.4	18.6	448
B무기체계	할인전	310	30	30	30	40	40	480
	할인후	310	27.3	24.9	22.5	27.2	24.8	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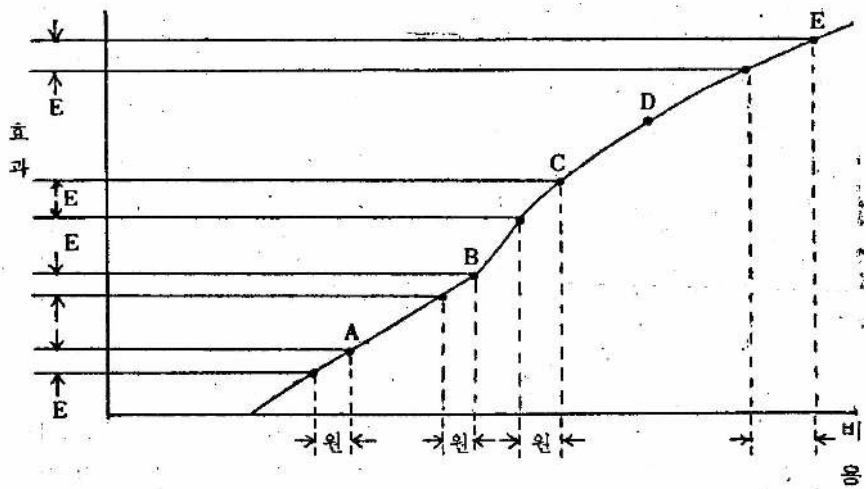
※ 무기체계 A와 B는 투자비 및 운영비 각각 다르지만 총 비용은 동일하다. 그래서 할인율을 적용하면 B무기체계가 동일한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비용 대 효과분석의 방법

분석대상의 전비용 및 효과를 파악하면 일정 규모에 있어서의 비용 대 효과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 이때 주어진 비용에서 효과가 가장 큰 규모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비용이 일정한계에 이르면 일정효과를 얻기 위해서 단위당 비용을 보다 많이 요구하게 되는 소위 한계비용에 도달한다. 따라서 각종 대안중 비용 대 효과가 가장 큰 대안을 선정하여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가상예"

전형적 비용 — 효과곡선



F : 효과증분　　원 : 비용증분(增分)

상기 곡선은 전형적 비용—효과분석 곡선으로 A점, B점, C점 및 E점을 비교하면 A점 및 E점은 상대적으로 비용보다 효과가 작고, B점은 비슷하지만 C점은 비용에 대해서 효과가 훨씬 크다. 즉 이 곡선에 의하면 C점은 비용 대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C점만큼 투자한다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정책결정에 대한 반응이 된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모든 문제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많은 고려사항 중에서 불안정한 요소를 계량화하여 가능한 분야만이라도 확정해 줌으로써 정책결정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예;

유도탄 200 발 대 표적 100개

발사한 유도탄수	표적의 명중률
200	75
300	87.5
308	88
324	89
340	90
356	91
380	92.5
400	93.75

유도탄 200발로 표적 100개를 파괴하고자 할 때 유도탄 2발을 동시에 발사한다면 2발이 전부 명중하는 경우, 그 중의 1발이 명중하는 경우, 2발이 전부 명중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즉 200발을 전부 발사하면 75%가 명중되며, 300발을 발사하면 87.5%, 400발까지 상기 도표와 같다. 이 도표에서 우리는 200발에서 400발까지 증가해서 발사하면 명중률은 18.75% 증가하고 89%에서 90%로 1% 명중률을 높이는데 유도탄은 16발이 더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책결정자나 지휘관은 명중률을 몇 %로 하는 것이 목적달성에 가장 경제적으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 2 절 체계분석의 역할

체계분석은 계획예산제도의 기획단계에서 시작하여 예산편성 및 그 운영에 이르기까지 크게 또는 작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획 예산제도와는 동신의 표리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획예산제도가 목적한 바 그 임무를 완전히 수행하게끔 계획화를 하려면 체계분석의 뒷받침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본절에서는 기획, 계획, 예산단계 별로 체계분석이 계획예산제도에서 행하는 역할을 다루었다.

1. 기획단계

각종 정보판단에 의해서 적성국가 및 그 주변국가의 현재와 장래의 위협 및 영향력을 분석하고 판단하면 우리는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그리고 군사적 측면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군사적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과 전략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합동참모회의(본부)에서 합동전략 목표계획을 국방성에 제출함으로써 국방 5개년계획에 대한 체계분석이 시작된다.

우리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첫째 국방기본시책작성시 정책결정상 및 합동

전략목표 결정에 있어서 위협분석과 대항전략의 결정과정에서 체계분석이 적용되어야 하겠다. 이때의 체계분석의 역할은 소요의 정당성과 소요충당에 필요한 가용자원의 한계를 결정하는데 계수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이때 적용되는 체계분석은 정책결정, 즉 3군에 대한 부대구조, 자원의 비중, 대안의 우선순위 선택 등에 있으며 전략선택에 있어서는 주요계획 항목간에 대한 비중선택 등이며, 여기에서 중시되는 점은 수직적인 군별 기획보다는 수평적인 국방 전체의 입장에서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2. 계획단계

계획예산제도가 과거의 제도와 판이하게 차이가 있는 점은 기획을 예산에 연결시켜주는 계획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하는 체계분석의 역할이 가장 크며 또한 효과가 있다. 즉 자원배분의 합리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대안의 우선 순위가 체계분석에 의해서 결정지어져야 한다.

국방 5개년계획 지침서에 따라서 군별 및 국방부 직할기관별로 5개년간의 소요를 산출하여 이를 국방부에 제출한다. 이때 주요사업, 신규사업, 부대창설 또는 기존계획의 변경이 요구될 때는 체계분석이 실시되어 체계분석의 결과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때 합참에서는 합동 5개년계획 의견서를 제시하며 국방자원관리면에서 군간 및 기관별의 균형, 구조에 대한 수평적인 면에서 체계분석 또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종합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국방 5개년계획이며 이것은 체계분석 결과의 종합적 수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예산 집행단계

예산 집행단계에 있어서는 자원은 이미 획득된 것이며 대외적인 소요판단은 필요없고 주어진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이 단계에 있어서의 과제이다. 따라서 이 예산 집행단계에 있어서의 체계분석의 역할은 운영상의 절차문제, 전시 예비물자의 적정소요판단, 운용저장수준의 결정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즉 각 보급부대에 있어서 가장 경제적인 저장수준을 결정하여 운영비를 최대로 활용하고, 전시예비물자의 적정규모를 산출하여 국방자원의 유휴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운영절차를 합리화하여 불필요한 절차의 제거, 과학적인 절차의 채용 등으로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전술면에 있어서도 적절한 무기의 선택부터 새로운 전술의 발전,

필요한 교육과 훈련 등을 부분적인 최대화 또는 최적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제 3 절 체계분석의 전망

각군 및 국방부에서의 정책결정은 그간 관리능력의 향상으로 계속 과학적으로 되었고 많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자료와 분석적 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자원관리분야에서는 통합회계제도의 발전으로 부분적이나마 확실한 계수를 얻어왔고 많은 생산창은 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여 개별원가 또는 공정별 원가를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온 역사적인 자료는 앞으로의 계획작성 및 기준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규모파악과 그 대상이 되는 성과를 동시에 비교하고 평가하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

체계분석의 입장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점은 상기 분석수단 또는 평가방법은 전체의 일부가 대상이 되기 쉽고 또한 전체를 위한 분석이지만 그것이 전체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가를 식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체계적인 파악이 되지 않으면 정책결정자가 필요로 하는 전체가 어떻게 되며 그 부분은 전체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가를 명백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체계분석이 이를 뒷바침해 준다.

1. 체계분석의 대상

제 1절에서 설명한 바 체계분석의 역할은 기획, 계획, 예산집행단계에 따라서 그 방법 및 대상이 달라진다. 그러나 일관성있게 운용되는 원칙은 (1) 분석대상이 모든 관련체제 전체가 된다는 점이며 (2) 상기 대상에 주어진 모든 비용을 현시점에서 계산하는 것이며 (3) 투입된 비용의 상대적인 성과의 계량화와 (4) 비용 대 효과가 어느 시점에서 비교되며 (5) 어느 규모 및 시점이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산출하는 것이다.

2. 체계분석의 조직

모든 사업의 주인공은 사람이며 사람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책임을 부여한 것이 조직이다. 즉 조직은 사업을 책임있게 수행하며 수행된 사업의 성과를 상호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사업에 반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적절한 조직이 없으면 훌륭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의 경우 1963년 국방성에 PPBS를 도입한 후 이 전반적인 책임을 관리차관보에 부여하였으나 1965년에는 체계분석을 위한 차관보가 신설되었고 그 임무를 전략계획작성, 자원분석, 지역

별 계획 및 일반목적 부대 등으로 구분되고 차관보실에 근무하는 인원은 일반직인 전문직 60명, 행정직 47명이고 군인은 전문직 47명 행정직 1명 총계 55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서 행해지는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일은 각군 소요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한 것과, 국방정책에 따른 무기체계의 선택, 부대구조의 결정 및 전략의 선정 등 국방 5개년 계획 작성에 직접 관여되는 것이다.

3. 한국국방부의 체계분석 기능

체계분석의 필요성은 이미 각 군이나 국방부에서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군별로 O.R 요원의 양성, 체계분석실의 설치 등으로 이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까지도 국방부 조직에는 각 군의 소요를 동일목표하에서 상호비교 또는 분석하는 기능이나 부서가 없다. 즉 육군의 사단, 해군의 구축함 또는 공군의 팬텀대대가 얼마나 필요한 가를 결정하고 어느 것이 우선한 가를 정하는 방법이 없다.

국방자원의 사용목적이 국방목표를 달성하고 그 정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면 국방부에서 각 군간 및 각 기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원배분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케 하는 조직과 기능이 필요하다.

즉 관리차관보 산하에 재정국장과 동격으로 체계분석을 주로 하는 국장 또는 미국과 같이 관리차관보와 대등한 체계분석차관보의 신설이 요망된다. 특히 군원의 이관, 자주국방체제의 확립 등을 고려할 때 국방소요는 증대하고 타분야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이 예상되는 바 현존 무기체계의 계속사용 또는 유지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전략의 선택 등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체계분석의 기능강화, 조직의 신설은 절실한 것이다.

4. 체계분석을 위한 준비

체계분석기능은 임무의 질과 양에 따라서 그 범위에 많은 차이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이 구비되어야 하겠다.

가. 훈련된 인원이 확보되고
나. 체계분석이 제도화되고
다. 관리정보 제도가 발전되고
라. 성과측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고
마. 가능한 자동자료 처리능력을 보유함이 바람직한 일이다.

동시에 이러한 일과 병행하여 상부 관리층에서는 체계분석의 필요성의 인식은 물론 적극적인 참여와 지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겠다.

제 5 장 성과측정 (成果測定)

제 1 절 성과측정의 의의

1. 성과측정과 국방 5개년계획

국방정책 수립자는 국방목표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국가자원을 요구할 때에 정부의 타부처와 경합(競合)하는 입장에 서게 되며, 타 부처의 요구보다는 국방요구가 국가에 더욱 긴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즉 요구하는 자원으로 국방목표에 대한 충족도 또는 효과를 어느 정도로 기대할 것인가를 결정짓고 그 합리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국가수준급 고위층에서 자원배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효과 또는 성과라는 것을 「안보」(安保)와 같은 넓은 뜻으로 국가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하는 표현으로 파악하게 되며, 또한 국방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전선방위」「후방방위」「군수지원」「일반지원」 등의 국방상의 요구를 충족하는 표현으로 성과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국방목표를 추구하는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몇 개의 방안을 우선 찾아야 한다.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비용 대 효과분석은 증가되는 일정한 성과와 관련되는 비용증가는 얼마나 되는가, 또는 반대로 비용에 있어서 일정한 금액을 삭감함으로써 기대되는 성과 중에서 어떤 것이 축소되는 가를 식별함으로써 자원분배에 관한 결심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계획에 관련된 비용과 효과 또는 성과에 대하여 적절한 자료를 보유한다는 것은 관리자에게 고차원적(高次元的)인 분석의 길을 열어 준다는 것이다. 계획을 성안할 때 기대하고자 하는 성과를 계량화(計量化)할 자료가 없거나 부정확할 때는 명확한 계획목표를 제시못하게 되며 결국 그 시행방안(施行方案)의 선정(選定)에 있어서는 비용이 싼 것만을 찾게 되는 빈약한 자원관리가 될 수 밖에 없다.

비용 대 효과분석을 통해 결정된 계획은 계획예산제도(計劃豫算制度)의 중축(中軸)을 이루는 국방 5개년계획의 내용이 된다. 국방 5개년계획은 국방 최고관리자와 그의 주요 기획관들의 용도에 이바지하고자 작성되는 서류이다. 제3장에서 국방 5개년계획의 성격과 기능을 소개한 바와 같이 이 계획서는 사업계획 결정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기능을 갖는 것도 아니다. 단지 계획의 요점(要點)만이 제시된다.

국방5개년계획은 부대계획(部隊計劃)과 재정계획(財政計劃)으로 구성되며 5개년 부대계획은 고위관리층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목표에 직결된 성과에 관한 정보를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즉 계획에서 기대하는 성과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사고방식에 따라서 자원소비의 규모를 결정하는 이 제도에서는 종전 제도에서와 같이 소요 인원수, 소요 시설, 구입할 장비 및 물자 등과 같은 식의 투입요소(投入要素)의 표현을 지양(止揚)하고 소비하는 비용으로 얻어지는 결과 또는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지표(指標)가 자원배분 과정에서 고위 관리자들에게 중요한 뜻을 갖는다. 생산기업과 같은 계획에서는 성과라는 것을 명시하는 일이 비교적 간단하며 자동차 생산의 성과는 트럭, 버스, 승용차 등의 차종별(車種別) 생산수량으로서, 또 제화기업(製靴企業)에서는 제화수량으로, 또 제강공업(製鋼工業)에서는 톤수로 나타낼 수 있다.

2. 성과측정과 운영관리

계획예산제도의 실시와 아울러 미국 정부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공식지시에 의하여 투입된 자원에 대한 생산결과의 측정을 보다 중요시하므로 비용의 절감과 자원소모의 효율화 및 자원배분의 합리화에 기여될 수 있는 건전한 자원관리의 적용을 강조하여 왔다. 이에 따라 미국방성에서는 성과측정 절차를 제도화하였고 이에 준하여 각군에서는 구체적인 절차를 제정하여 적용시키게 되었으며, 그 적용범위는 특수한 분석목적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지원기능 분야에 해당하는 계획요소부대(計劃要素部隊)에 우선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방임무의 수행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임무를 수행하는 최하단위에서 투입되는 모든 자원, 즉 인력, 물자, 금전, 시간과 용역 등이 망라되어 집계 보고되며, 또 일면에서는 업무수행 결과를 일정한 지표(指標)에 의하여 조직단위의 성과(산출물)로써 표시되고, 이는 또 다시 상급 관리자의 임무수행 성과측정에 기여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계획구조(計劃構造)에 따라 최고단계에서 집계될 때에는 국방임무 또는 목표의 수행성과(遂行成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성과측정 지표는 최하 말단단위(末端單位)로부터 최고 국방관리층에 이르기까지 질적분석의 다각적인 고려측면(考慮側面)에 따라 다양성 있는 지표로 제정 사용될 수 있다.

통상 성과를 표시하는데는 양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지표단위(指標單位)를 사용하게 되지만 계획요소별 임무에 따

라서는 구체적인 성과내용의 인지(認知)와 식별을 위해서는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사용케 된다. 성과지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관리자의 성과측정 목적과 관점에 따라, 또한 임무의 성격에 따라 차이있는 지표가 설정 적용하게 된다.

이 새로운 성과측정을 위한 회계제도(會計制度)는 예산의 인가 및 집행과정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종래의 정부회계제도(政府會計制度)의 목적에 추가하여 동일기간의 투입비용과 성과자료를 일치시켜 식별 파악케 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다.

제 2 절 · 성과측정 제도

성과측정의 의의는 계획예산제도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기능이 된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으나 이 제도를 국방자원 관리에 기여하는 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동일기간 중에 유사(類似) 기능부대에서 수행된 업무수행량 또는 표준량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필요한 기록물(記錄物)로써 제공되며

둘째로, 부대 임무수행에 투입된 자원의 소모에 따라 계량된 과거의 성과량을 분석함으로써 상호관계되는 비용계산의 능력을 증진시키며

세째로, 기획 및 계획수립을 통하여 국방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국방자원의 소요와 성과를 예측하는데 과학적인 근거자료로 제공된다.

따라서 현행과 같은 지출항목별(支出項目別) 진행분석만으로는 새로운 계획예산제도에서는 큰 의의를 갖지 못하게 되므로 앞으로의 성과측정 제도는 임무수행에 관련된 총비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개념하에 설정 적용되어야 한다.

1. 적용원칙 및 시행기준

성과측정제도를 국방부 산하에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나 시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국방부 성과측정 제도절차는 일정한 기간 중에 발생되는 성과측정 자료가 정확하게 계량화되도록 고안(考案)되어야 하며, 특히 계획수립 과정에 유효하게 기여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나. 모든 성과측정은 가능한 한 계량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역사적인 관련기록의 누적보관(累積保管)이 가능해야 하며, 업무나 임무의 목적, 제반여건(諸般與件)의 변경사항, 자원배당을 위한 판단 그리고 소모된 비용자료 등과 상호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다. 기존하는 자료제원(資料諸元)은 최대한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자료보고 제도에 따르는 행정처리 업무량은 가능

한 한 억제되어야 하며 특히 작전임무 부대에서는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

라. 성과측정 제도는 정기 또는 수시로 재평가나 검토가 되어 변동사항 또는 활용도(活用度)가 수정되도록 평가되어야 한다.

2. 제도발전에 고려될 사항

국방부 성과측정 제도를 적용함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가. 책임사항(責任事項)

(1) 국방부 성과측정 제도의 수립과 정도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및 기준설정(基準設定)과 운용감독

(2) 국방부 전반적 사업계획에 대한 성과측정의 분류, 기준 및 정의(定義)의 확립

(3) 국방계획의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指標)의 선정과 승인, 자료의 수집, 보관기록 및 시행의 조정(調整)

(4) 국방부로부터 시달되는 성과측정 시책(施策)에 대한 운영세칙(運營細則)을 발전시키며 그 이행을 지휘감독

(5) 성과측정 지표의 선정과 적용범위의 확정을 위한 건의 및 보고

(6) 성과자료의 군별(軍別) 종합분석 및 보고와 기록보관

(7) 산하부대에 대한 성과측정 업무의 적용을 위한 교육과 기술적인 지도

(8) 성과측정 업무절차의 이행감독과 절차의 분석 또는 변경사항에 대한 건의

(9) 부대별, 기능별 책임 및 원가중심점(責任·原價中心點)의 설정과 원가 및 성과보고 자료의 수집, 평가 및 확인

나. 기타 고려 사항

국방부에 성과측정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발생되는 성과자료의 정확성(正確性)의 보장이다. 성과측정은 최하 단위부대 혹은 말단 작업반에서부터 시작하여 중간관리층(中間管理層)을 거쳐 각군 본부에 궁극적으로는 국방부에 이르기까지 자료의 수집, 기록 및 보고들의 체계적 행정처리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그 기초자료가 되는 것인 바 부정확하거나 사실에 어긋나는 자료가 작성 보고되는 경우에는 그것에 의한 최종판단은 긴요한 국방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 과잉의욕(過剩意慾)으로 인한 비현실적 계획의 수립, 예산의 과다 또는 과소책정(過少策定)으로 인한 비합리적인 집행, 그리고 특히 비현실적인 기록보고 등은 중요한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므로 관리실무자들의 교육과 각급 지휘관의 깊은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많은 자료의 처리 및 유지(維持)문제이다. 성과측정 제도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의 기록, 처리, 분석, 보관에는 상당한 업무량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겠으며, 보다 많은 자료의 처리와 보다 빠르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자료의 제도적인 체계화와 자료처리의 자동화가 바람직하다. 다행히 현재 국방부와 각군에서는 기계화된 자료처리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본 연구서에서 요구되는 계획예산제도(計劃豫算制度)의 운용과 또한 성과측정 기능은 국방부와 각군 본부 및 전 단위부대 간에 이루어질 많은 제반 기록 자료의 통합체제에 의한 원활한 소통이 전제되는 바, 현재 진행 중인 자동자료처리제도의 국방관리에의 합목적적(合目的的)인 발전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중요한 고려점이 되고 있다.

제 3 절 성과측정 지표(指標)

1. 지표의 의지

성과측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입된 소모자원(消耗資源)에 대한 산출(産出)된 성과량을 일정한 지표를 기준하여 비교 평가하려는 목적으로써 운영단계에서는 업무통제와 실적분석에 활용되며, 또 일면 특히 국방부와 같은 고위관리층에서는 국방자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국방 5개년 계획의 각 계획요소별(計劃要素別)로 예측되는 성과를 추정 판단하는 데에 적용될 때에는 계획예산제도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또한 성과측정 지표는 그 종류를 성격상으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임무수행에 소요된 또는 투입된 자원이나 총비용을 그대로 성과로 측정하려는 경우이며 예로 들면 그 부대에 배속된 총인원수라든지 활동사업에 집행된 총금액수 또는 장비의 가격 등을 성과측정의 지표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임무수행에 사용된 활동량(活動量)을 총인력수라든지 인시수(人時數)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로 예를 들면 업무수행에 관계된 작업시간 수, 교육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총교육 인원 수, 또는 작업에 관계된 총평수(總坪數) 등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세째, 어떤 임무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투입된 활동량을 당초 설정된 표준치(標準値)의 활동량과 비교 검토하여 그 효율도를 표시하여 성과를 측정하려는 방법으로서 예를 들면 재고통제부서(在庫統制部署)에서 업무개선으로 인한 절약된 인시수(人時數), 작업수행량의 기준치의 변동 등이 이에 속하는 측정방

법이라 하겠다.

네째,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며 가장 적절한 성과표시의 지표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작업 또는 임무수행에서 얻어진 최종산출물(最終産出物)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수리공장에서의 수리된 엔진수량, 보급지원된 병기(兵器)수량, 사관학교에서의 임관 장교 수, 수송부대에서의 수송된 톤/마일 수 등 계량(計量)이 용이한 지원기능분야(支援機能分野)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다섯째, 단위부대에서 수행된 임무의 성과량이 외부적인 타기능에 기여하는 공헌도(貢獻度) 또는 효율도를 기준하여 성과측정의 단위로 보려는 방법으로서 가장 발전되고 바람직한 성과측정이라 하겠다. 예를 들면 군수부대(軍需部隊)에서 정비되어 보급된 엔진이 운용부대에서 사용될 때의 품질상태 또는 사용을 통해 얻어진 품질의 평가도, 항공수송지원으로 인하여 얻어진 지상작전의 전술효과도(戰術效果度) 등이라 하겠다.

2. 지표선정(指標選定) 기준

계획예산제도의 제 1차적 목적이라고 할 자원배분이 국방 5개년계획 수립과정에서 결정되며 이 때의 판단기준이 바로 예측되는 성과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의존한다 함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때의 성과측정 지표선정은 자원배분 결정에 직접 관계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계획분석(計劃分析)을 위한 성과측정은 목표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므로 운영단계에서 관리통제상 실시하는 실적측정의 경우에 적용될 성과지표와는 그 성격이 판이한 것이다.

이미 결정된 각개 계획의 집합으로써 국방 5개년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며, 그 부대계획에 지시될 성과지표는 역시 앞의 두 가지 지표와도 그 성분(性分)이 달라진다. 즉 부대계획표에 지시될 추정성과(推定成果)에 관한 정보가 계획의 효과라든가 목표에 대한 진척수준 등을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계량화된 단순한 정보로서 지시하고자 하므로 실제적으로 난점이 많은 것이다. 국방 5개년계획의 부대계획에 적용될 지표가 주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관심사(關心事)이며 그 지표선정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들이 고려될 수 있겠다.

가. 임무활동의 목적, 즉 추정하려는 성과와 그를 위하여 소모될 자원과 상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목적 혹은 성과량의 가감변동(加減變動)은 곧 투입자원, 즉 비용면에도 변동이 초래되어야 하는 관련성을 지닌 지표라야 한다.

나. 성과지표는 소모될 자원과 동의

어(同義語)로 표현되어서는 아니 된다. 어떤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인시수는 성과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시수가 성과지표로 사용될 경우에는 무슨 임무가 수행되는지,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내용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표시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성과측정 지표는 또한 관리자에게 합리적인 어떤 뜻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표는 간단하면서도 지표단위만으로도 이해가 되도록 자원관리자들에게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의 지표이어야 한다.

라. 그 성과지표로 임무 성과량을 나타내는 계량적인 자료가 수집될 수 있어야 한다. 성과측정에 필요한 모든 계량적인 자료들은 어떤 임무기능(任務機能)일지라도 모든 보고절차에 의거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3. 외국의 지표실례(指標實例)

가. 미국(美國)

미국방성에서는 성과측정제도를 무기체계(武器體系)발전을 위한 체계분석이나 특수 문제연구를 위한 분석목적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지원기능 분야의 계획에서 널리 적용하고 있으나 일반행정부 각 기관에서는 내부적으로 계획을 작성할 때 성과측정이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현재 미국 주정부급(州政府級)에서는 사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를 양적(量的)지표, 질적(質的)지표, 그리고 사업의 성과를 국민과 사회전체에게 주는 효과를 보기 위한 측면에서 비교 목적(比較目的) 지표의 3종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그 중의 일부를 예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미국 주정부계획의 성과지표 실례

계획요소	양 적 지 표	질 적 지 표	비 교 목 적 지 표
급 수 시 설	상수도 소비량	급수 일수 수질(소독, 온도)	가옥당 급수량
동물원관리	출입자 수	동물별 종류 수	인구 1,000당 사용자 수
교 통 안 전	교통정리 지점수	차량사고 건수 사상자 수	인구 1,000당 사고건 수
일 반 병 원	진료환자 수 일일환자 수용수	수술환자 수	환자당 치료 일 수
시 가 조 명	전기 소모량	조명 내역	마일당 전기 사용량
예 방 접 종	접종자 수	전염병별 접종 수	접종 인원 수 비율

나. 일본(日本)

일본정부에서 개발되고 있는 성과측정제도는 방위청(防衛廳)은 물론 전 정부기관이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서는 일본의 대장성(大藏省)이 실시하고 있는 PPBS 중견직원(中堅職員) 연수기관(練修機關)에서 발표된 성과측정의 구체적인 적용안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성과측정 지표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정부의 성과지표라는 것은 정부의 시책이 집행되든 경우 그 집행결과를 나타내는 자료 또는 지표이며, 정부의 시책목적과 자원투입의 중간에 위치하여 투입량(投入量)을 시책목적에 결부시켜 줌으로 예산의 편성, 집행관리의 효율화, 확보성(確保性)의 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극히 중요시되고 있다. 성과측정의 지표는 다음의 다섯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즉

시책목적(施策目的) 지표

계획시책량(計劃施策量) 지표

실적시책량(實績施策量) 지표

시책달성도(施策達成度) 지표

시책유효도(施策有効度) 지표

이상 다섯 가지이지만 현재는 세 가지만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 시책목적 지표는 국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시책을 구체적으로 수량적으로 표현하는 자료나 지표.

둘째, 시책량 지표는 위의 시책목적 지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활동에 관한 작업 수행량을 나타내는 지표.

세째, 시책유효도 지표는 시책목적의 달성도, 유효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시책목적 지표의 변화량, 비율 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위의 각 실례를 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일본 정부계획의 성과지표 실례

계 획 요 소	시 책 목 적 지 표	시책량 지표	시책 유효도 지표
주요간선의전철화	여객수·화물량	전화 구간 거리	여객수·화물량의 증감
방파제 건설	화물량·해난사고건수	방파제 연장	화물량·사고건수 증감
활주로 연장	항공수송량	활주로연장거리	항공수송 증가량
교 육 양 성	부족 교원 수	교관수·운영비	자격 취득자 수
대기오염의 방지	오염도의 저하	감시·측정회수 처분 건수	오염도의 저하
직 업 소 개	취직희망자수 구인수	소개 건수	취직·정착률의 향상
댐 건 설	수요 수량	이수(利水)용량 댐 설치량	개발수량의 증가 급수량의 균형

4. 한국 성과측정 지표의 시안 (試案)

가. 지표의 구분

위에서 말한 외국의 성과측정 지표의 실례를 고려하면서 한국의 국방부 및 각 군과 단위부대에 적용 시행될 임무, 성과의 측정지표는 각각 관측하려는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양적지표(量的指標)와 질적지표(質的指標)의 두 가지로 분류하며, 성과의 평가 및 측정의 능력에 따라 각 부대별로 이를 적용 발전시켜 국방관리(國防管理)에 기여토록 한다.

(1) 양적지표

이 지표는 부과된 임무 또는 성과를 양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유지되고 있는 인원 수, 정비한 기관 수, 지원한 급식인원 수, 보급한 수량, 소모한 물자, 교육수료한 인원 수, 출동한 일수(日數) 등 집행된 결과나 성과를 아무런 분석이나 다른 요소와 비교 검토함이 없이 다만 많고 적은 수량의 폭(幅)을 나타내며 극히 보편적이고 단순한 성과의 측정지표로 분류 적용한다(지표 실례 도표 참조).

(2) 질적지표

부과된 임무 또는 업무성과를 질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그 내용의 특성, 성능, 효용기간 또는 효과의 정도 등을 단순한 양적표시가 아니라 질적으로 표시하므로 결심자의 판단기준에 보다 구체적이고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교육인원 수를 다시 세분하여 교육정도별로 또는 성적별로, 부대 사격훈련의 명중률, 수송차량의 운행 마일당 톤수, 비행시간당 유지소모량(油脂消耗量)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지표실례 도표 참조).

이렇게 하여 성과측정 지표는 계획요소별 단위부대의 임무성과를 측정표시함으로써 투입된 자원으로 얻어진 결과가 당초 계획되었던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를 알 수 있게 되며, 과거와 미래에 대한 자원관리(資源管理)상의 분석과 평가 및 자원배분을 결정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성과측정 지표는 확고부동(確固不動)한 것이 아니고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요구되는 부대격(部隊格)의 상하 또는 요구도의 정도나 자료평가의 복잡성에 따라 수시로 발전된 지표로 대치(代置)시킬 수 있다는 가변성(可變性)과 융통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야 한다.

나. 지표의 시안(試案)

지금까지 언급한 바 있는 성과측정의 기준과 외국의 실례들을 참고하면서 한국 국방부에 적용될 성과측정 지표의 분

류 구분에 의한 몇 개의 계획요소별(計　　다음과 같다.
劃要素別) 지표의 실례를 작성하여 보면

국방부 성과측정 지표 시안

계 획 요 소	양 적 지 표	질 적 지 표
전 선 사 단	병 력 수	소화기 사격률·사단 슬라이스
155밀리포대대	포 문 수	사 격 명 중 률
구 축 함	출동일수·항해일수	〃
전투비행대대	비행시간수·출격회수	가동비율·사고율·사격명중률
방공관제대대	병 력 수	가동시간율·포착건수·통제건수
수원기지운영	급유지원량·병력수	총 출격회수·재 출격 능력
관구지원단	지 원 량·지원병력수	물 자 별 지 원 효 율
제 2 통신단	통 화 소 통 량	불가동 회수량·통화당 시간수
피 복 창	피 복 총 생 산 량	생산원가·불합격량·생산시간
사 관 학 교	졸 업(임 관) 인 원 수	도 태 자 수·평 균 성 적

◇ 속담풀이 ◇

◇ 네 떡 내 먹었나……시침이 떼는 말.

◇ 네 병이야 낫든 안 낫든 내 약값이나 내라……남을 위해 한 일의 성부는 제쳐놓고 보수만을 요구함.

◇ 가난한 집 신주 굶듯……줄곧 굶는다.

◇ 가마 밑이 노구솥 밑을 검다 한다……제 흉은 모르고 남의 흉을 본다.

◇ 가만한 바람이 대목(大木)을 꺾는다.……작다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

◇ 가물에 돌 친다.……미리 준비를 한다.

◇ 가빈(家貧)에 사량처(思良妻)라……가난할 때 어진 아내 생각을 한다는 뜻으로 비상시에야 비로소 진부를 안다는 말.

식품의 맛과영양

박 일 필

<미나리>

비타민 A와 C가 많은 김장 채소이고 고혈압, 「류머티스」에도 좋음.

미나리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목(草木)으로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인도, 일본 등 넓은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다.

키는 30cm 이상으로 털이 없고 줄기가 길게 진흙 속에서 뻗는다. 7~8월에 백색의 꽃이 피어나고, 열매는 타원형으로 주로 습지에서 자란다.

독특한 향기를 갖고 있으며 이른 봄에 중요한 비타민A와 C의 공급원이 될 뿐 아니라 가을 김장용으로도 없어서는 안 될 채소로 꼽힌다.

성분은 수분 92%, 단백질 3%, 지방 0.1%, 당분 3.5%, 열량은 100g당 25칼로리로 「비타민」A가 풍부하며 B_1, B_2, C 및 「나이아신」도 상당량이 들어 있다.

고혈압, 치질, 「류머티스」를 비롯 신경통에 좋은 식품이다.

한방에서는 수근(水根), 수영근채(水英根菜)라 하여 약제로 사용한다. 식욕을 돋구어 주고 대·소장의 활동을 좋게 하여 변비를 없애준다 치질, 신경쇠약, 정력이 약한 사람, 술마시고 열이 날 때, 여성의 대하증이나 하혈에도 좋다.

어린이가 급하게 체해 토하고 설사할 때 달여 먹기도 한다. 변비로 항문이 터지거나 치질로 오는 하혈(下血), 황달, 설사 등에 생즙을 짜서 하루 2~3회 한공기씩 먹는다. 황달엔 삶아 먹어도 좋다.

인후(咽喉)계통의 질병엔 그 근을 짓찧어 즙을 낸 다음, 꿀을 조금 넣어 고약처럼 진하게 달여 먹는다.

경도불순엔 말린 미나리 1냥중을 물 2공기에 넣고 절반 정도가 되도록 달여 마시면 좋고 땀띠에는 즙을 바르면 좋다고 한다.

<모과(木瓜)>

기침, 천식의 묘약으로 사용하고 달여 먹으면 폐결핵에도 좋음.

모과는 능금나무과에 속해 있으며 중국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는 충남지방이 주산지로 되어 있다. 커다란 타원형으로 가을에 누렇게 익으며 거죽이 울퉁불퉁하고 맛이 몹시 시며 향긋한 것이 특징이다.

설탕에 절여 먹기도 하고 모과수, 모과정, 모과죽, 모과편 등을 만들어 먹는다.

모과의 당분은 주로 과당이며 약간의 담백질과 욱분이 들어있다.

약효로는 기침과 천식에 특효로 알려져 있다. 용법은 우선 껍질채 엷게 썰어 한번 데쳐내고 이것을 다시 설탕을 넉넉히 넣어 삶는다. 이렇게 삶아낸 것은 떫은 맛도 없고 달콤하면서도 향긋하여 맛이 훌륭하다.

기침이 날 때, 몇쪽씩 먹으면 아주 잘 듣는다고 한다. 한방에서는 잘 익은 것을 엷게 썰어 말려두었다가 이것을 달여 하루에 3~4회 장기간 계속 먹으면 폐염, 기관지「카다르」, 폐결핵에도 훌륭한 효험을 나타낸다고 한다. 적어도 6개월 이상 복용해야 효력이 있다고 한다.

급체로 토하고 온몸이 뒤틀릴 때(곽란)도 좋다고 한다.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설사 후에 오는 갈증을 억제해주기도 한다.

폐를 튼튼하게 하고 위를 편안하게 해주나 많이 먹으면 이와 뼈를 약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하며 약효는 오래 될 것일수록 좋다고 한다.

<더 덕>

한방에서 건위(健胃), 담(痰) 치료제로 사용하고 오래 먹으면 위, 폐, 신장, 비장에 좋다고 함.

초롱꽃과에 속하는 초본으로 산과 들에 생기며 우리나라, 만주, 일본, 대만 등지에 널리 분포돼 있다.

더덕은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더덕누름적, 더덕구이, 더덕생채, 더덕장아찌, 더덕자반 등이 있다.

더덕자반은 더덕을 잘게 쪼갠 다음, 참쌀풀을 발라 말렸다가 기름에 튀겨 만든다. 더덕 뿌리에는 일종의 「잔포닌」이 들어있다.

한방에서는 더덕을 사삼이라 하여 건위와 가래를 없애주는 약제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백삼, 지취(志取), 가덕(加德)이라 부르기도 하며 옛날부터 물에 체한데 먹으면 특효라고 알려져 있다.

더덕은 건위뿐만 아니라 강장제 식품으로도 꼽히며 폐와 신장 및 비장을 돕는다고 하며 각종 부스럼에도 좋다.

위, 폐, 신장, 비장의 보약으로 사용하려면 매일 8그람 정도를 달여 먹으면 된다.

약효는 뿌리가 크고 상하지 않은 것일수록 좋다. 또한 양음 사이가 가려울 때는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먹으면 좋고 식용으로 쓸 것은 2월과 8월에 캐낸 것이 좋다고 한다.

<땅 콩>

오랜 기침, 각기(脚氣) 등에 좋고 인조 버터, 비누 원료로 사용됨.

콩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으로 남「아프리카」와「브라질」이 원산지로 돼 있다.

늦은 여름에서 초가을에 걸쳐 나비모양의 노란꽃이 피는데 성분은 수분 8.3%, 단백질 32%, 지방 46%, 당분 17%로 지방질이 많으며 열량은 100g당 600칼로리로 어느 식품보다 높다. 이 밖에「리놀」산,「히포코에」산,「아라킨」산 등이 있다.

각종 연고의 기초제와 인조「버터」, 고급 세수비누의 원료로 사용하며 최근엔 인조섬유를 뽑아내기도 한다.

변비를 없애주며 폐를 튼튼하게 해준다. 오랜 기침과 각기(脚氣)에 좋다. 오랜 기침엔 날 것으로 반근 정도 껍질을 벗긴 다음, 절구에 찧어 깨끗한 물을 부어 삶으면 기름이 뜨게 되는데 이것을 건져내고 설탕을 조금 넣어 다시 끓여 즙을 짜면 뿌연 우유와 같은 것이 한 공기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2등분하여 새벽 공복과 자기 전에 1주일쯤 계속해 먹으면 낫는다고 한다.

각기(脚氣)에는 4냥중을 껍질채 달여 그 즙을 하루 4회 3일간 계속 복용한다.

그러나 1년쯤 묵어 곰팡이 생긴 것은 사람은 물론, 가축에게도 해롭다고 한다.

<석 류>

약효로는 옛날부터 강장제(强壯劑)로 알려져 있으며 석류의 속은 주로 식용에 사용하며 껍질과 뿌리는 약용으로 쓴다.

석류(石榴)나무과의 낙엽, 활엽 교목으로 석류의 즙은 신맛을 갖고 있을뿐 아니라 무척 달고 빛깔 또한 아름다워 고급 식품으로 꼽는다.

나무와 뿌리의 껍질엔「페레치에린」「아소페레치에린」「메틸·페레치에린」등의「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타닌」산 등을 갖고 있다.

껍질은 한방에서 석류피(皮)라 하여 설사, 이질, 복통, 대하증 등에 수축제로 사용하고 각종 기생충, 특히 촌충의 구충약으로 쓰여진다.

촌충 구제를 위해선 하루 50그람을 달여 먹으면 된다.

꽃은 엽차용으로 쓸 수 있으며, 장을

편안하게 하는 작용을 갖고 있는데 하루 10그람 정도의 꽃을 달여 먹으면 된다. 나무뿌리의 껍질을 짓찧어 뽑아낸 즙은 무좀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통엔 잎 또는 과일을 약한 불에 달여 먹으면 좋다. 입에서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든지 충치엔 잎을 달인 물로 양치질을 하면 그만이다.

껍질이나 뿌리를 달인 물은 감기에 좋고 만성설사에는 껍질을 말려 가루를 내어 미음에 매회 3돈중씩 넣어 먹으면 낫는다고 한다.

<참 깨>

위산과다, 생리불순에 효과있음.

참깨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 인도와 이집트가 원산지이고, 검은 참깨, 흰 참깨, 혼합 금빛 참깨 등이 있다.

흰 참깨는 지방분이 많아 기름을 짜는데 좋고, 검은 참깨는 냄새와 맛이 좋아 조미료용으로 좋다.

성분은 수분 7%, 담백질 22%, 지방 44%, 당분 15%, 열량 100g당 550칼로리로 대우 좋은 식품이다.

「비타민」 B_1, B_2가 대우 풍부하며, 볶아서 오랫동안 복용하면 건강에도 좋을뿐 아니라, 머리털을 윤기나게 하고 늦게까지 잘 시지 않는다.

깨죽은 회복기의 환자에게 좋다. 기름은 연고제의 기초제로 사용하며, 생계란을 함께 갠 것은 연고제가 된다.

검은 참깨는 신장을 튼튼하게 하며, 볶아서 소금을 알맞게 치고 간을 맞춘다음, 밤과 함께 먹으면 위산과다증에 좋다.

날것으로 먹으면 뇌를 밝게 하고, 근육을 튼튼케 하며 생리불순에도 좋고 흰 참깨는 혈액순환을 원활케 하고 폐를 튼튼하게 한다.

「칼슘」식품으로 대우 우수하며 100g 참깨의 「칼슘」함량은 무려 1,000mg 나 된다.

많은 학자들은 참깨의 질병 예방에 대한 뛰어난 효과를 이처럼 엄청난 「칼슘」 함량으로 설명하려 한다.

옛부터 위산과다증, 위궤양, 습진, 안질 등에 효능이 많고 더우기 최근에 발표된 한 보고는 참깨가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함으로써 제암(制癌)효과까지 발휘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참깨가 정력증강에 좋다는 것도 아마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 E」나 필수지방산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참깨의 약 절반은 지방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방의 대부분은 필수지방산인 고급불포화 지방산으로 50%는 「오레인」산, 40%는 「리놀」산이다. 이것들은 실험에 의하면 머리가 희어지는 것을 막고 세포의 노화를 막는다고 해서 「비타민·F」라고 불리우기도 하며 한편, 「리놀」산은 높은 혈압을 정상으로 끌어내리는 효능이 있다고 한다.

<당 근>

빈혈에 좋고 체력회복, 빠른 「스태미너」식품임.

당근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2년생 초본으로 우리말로 홍당무라고도 한다.

당근은 「유럽」과 북「아프리카」, 「아시아」지역 등 광범한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인류와 인연을 맺기는 무척 오래되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에는 약 400년 전 중국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근이 빨간 빛깔은 「카로틴」이란 색소 때문이다. 무우보다 수분이 훨씬 적으면서 풍부한 자당과 포도당을 갖고 있으며 단맛을 띠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밖에 「비타민」 A, B, C도 듬뿍 들어있으며 회분으로 「칼슘」「인」 등이 많고 지방질도 있다.

빈혈에 좋고 체력을 회복하는데 좋은 영양식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당근의 잎은 무기질로서 회분과 철분이 풍부하며 「비타민」 A_1, B_1, B_2, C 등 많은 영양가를 갖고 있어 연한 것은 식용으로도 훌륭하다. 따라서 흔히 잎을 버리는데 이것은 곧 잘못이다.

그러므로 날 것으로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소화도 잘 된다.

빈혈증에 생당근을 갈아 간을 맞추어 꾸준히 먹으면 값싼 보약보다 나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당근의 종자는 의뇨(利尿)작용이 있어 신장병에 좋고 당근 1개와 사과 반 개를 껍질채 강판에 갈아 즙을 만든 다음 꿀을 타먹으면 「스태미너」를 높여준다.

<잣>

자양 강장(滋養 强壯)에 좋고 죽이나 엿기름으로 보신에 좋음.

잣나무 열매의 씨로서 솔과에 속해있는 늘 푸른 큰키나무로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나무키는 10m 정도, 잎은 솔잎과 비슷하나 보다 푸르고 굵은 것이 특색이다.

암·수꽃이 같은 가지에 피고 열매는 길쭉한 계란 모양으로 이 속에 씨(잣)가 들어있다.

잣은 백자(柏子), 송자(松子), 매송자(梅松子), 송실(松實)이라고도 한다.

까서 그대로 먹을 수 있고 잣죽, 잣엿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칼로 난도질하여 만든 잣가루는 음식의 고명으로 사용한다. 잣기름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주로 약용으로 쓰며 영양가는 단백질 8%, 지방 31%, 당분 0.6%, 열량은 100g당 310칼로리, 「비타민」류는 A, B_1, B_2가 풍부하고 C와 「나이아신」이 약간 들어있다.

옛부터 자양 강장제로 알려져 있고,

특히 회복기의 환자에게 좋다.

한방에서는 기운을 돕고 풍기를 치료하는데 좋다 하며 코피 나는데 좋고 피로회복에 도움된다고 한다.

이질에는 속껍질에 생강을 몇쪽 넣어 달여마시면 좋고, 기침엔 1냥중을 호두 2냥중과 함께 꿀에 재어 먹는다.

갓죽은 회복기의 환자뿐 아니라 태아에게도 좋다고 한다.

<호 도>

열량 높고 비타민 등을 함유하고 중병 앓고 난 환자에 효험 있음.

호도(胡桃)는 호도나무의 열매이고 호도나무과에 속한 활엽 낙엽 교목이며 원산지는 중국으로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영양은 단백질 28%, 지방 59%, 당분 4%, 100g당 660칼로리의 영양 식품이다.

「비타민」은 B_1, B_2가 풍부하며 C와 「나이아신」이 약간 들어있고 이 밖에 「리놀」산을 갖고 있다.

소화 흡수도 잘 되어 큰병을 앓고 난 회복기의 환자에게 매우 좋다.

한약방에서는 자양 강장제와 기침을 멎게 하고 특히 폐결핵에 좋다고 한다.

호도기름은 모든 피부병에 바르면 좋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먹으면 몸을 덥게 하여 추위를 덜 타고 구충(驅虫)효과를 가지며 머리털을 까맣게 윤기나게 한다.

따라서 강장, 미발, 구충식품으로 돼나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의 열이 너무 세어져서 눈썹이 빠지고 · 혈압을 높게 한다.

마른기침에는 마른 것 2냥중에 갓 1 냥중을 함께 짓찧어 이것에 끓인 꿀 반냥중을 넣어 식후에 먹으면 좋다.

담과 함께 기침이 나오면 호도 3알과 생강 3쪽을 잠자기 전에 함께 씹어 먹어도 좋다.

<귤>

인후(咽喉)계통의 질병에 효험 있고 생선 중독, 동맥경화에도 좋음.

귤나무는 운향과에 속한 상록 활엽 교목으로 원산지는 「아시아」의 온대지방과 열대지방으로 우리나라는 제주도에서 재배되고 있다.

「비타민」C가 어느 식품보다 풍부하며 A가 조금 들어있다. 껍질 속에 과당과 단맛이 도는 성분과 「리모넨」 등이 들어있다.

약효는 주로 각기와 동맥경화에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한방에서는 말린 것을 진피(陳皮)라 하여 감기를 비롯한 모든 인후계통의 질병과, 기침을 멎게 하여 담을 내게 하고 위를 튼튼하게 하는 약제로 사용한다.

감기엔 말린 껍질 5~10그람을 잘게 썬 다음 설탕을 알맞게 넣어 끓는 물을

부어 약 10분쯤 그대로 두었다가 마신다.

보통 감기뿐 아니라 유행성 감기, 위장 질환, 몸이 퉁퉁 부었다든가 생선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켰을 때와 「마라리아」 등에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담이 나오는 기침엔 씨를 태워 가루를 만들어 따끈한 물에 타서 먹으면 좋다.

말린 껍질에 생강을 넣 쪽 빚어넣고 달여마시면 감기기침에 좋다. 이것에 설탕을 타 마시면 맛도 좋을뿐 아니라 효과도 더 좋다고 한다.

젖이 잘 안 나올 땐 말린껍질(37그람)에 찹쌀(37그람)과 감초(82그람)를 함께 빻아 가루를 만들어 따뜻한 물에 타먹으면 좋다. 또한 딸꾹질에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

<겨 자>

편도선, 폐염 등의 찜질에 효험 있고 몸이찬사람에 좋은식품임.

겨자(芥菜)는 겨자과에 속한 1년~2년생 초본(草本)으로 원산지는 「아시아」로 키는 100cm 정도, 잎은 무우잎과 비슷하나 보다 쭈글쭈글하고 가장자리가 톱니같다.

4월에 노란빛깔의 잔꽃이 피고 길이 5cm 정도의 원추 모양의 열매가 열린다.

열매는 맵고 향기로운 맛을 갖고 있어 양념으로 사용하고 잎과 줄기는 식용한다.

몸이 찬 사람에게 좋은 식품으로 되어 있다.

「시니그린」과 「미로친」을 상당량 갖고 있는 열매는 한방의 중요한 약제로 사용되며 그 대표적인 것을 가루를 만들어 찜질약으로 쓰는 것이다.

찜질은 겨자가루를 물에 진하게 개서 헝겊이나 질긴 종이에 바른 다음 그 위에 「가제」를 대고 이것을 환부에 붙인다.

편도선염, 폐염 등에 효험이 큰 것으로 돼 있다. 한편, 겨자물에 목욕을 하면 내장의 염증을 없애주고 심한 설사를 멎게 하며, 신경통과 「류머티즘」에 효험이 있다.

목욕은 200g 정도의 겨자 가루를 헝겊에 싼 다음, 물에 풀어 피부가 빨개지도록 한다. 목욕 후엔 마른 수건으로 몸을 깨끗이 닦고 따뜻한 곳에 편한 자세로 쉰다.

목욕할 땐 휘발성 겨자기름으로 눈과 호흡기 등이 자극을 받아 염증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욧엔 겨자를 달인 물로 씻어주면 곧 낫는다.

경도 불순에는 겨자가루 2돈중을 따끈한 물에 타서 식전에 먹으면 좋다고 한다.

<대 추>

강장제로 좋고 다려 먹으면 해열(解熱)에 효험이 있음.

대추(棗)는 대추나무의 열매로 갈매나무과에 속한 낙엽, 활엽 교목으로 원산지는 남부「유럽」으로 되어 있다. 대추는 익으면 붉은갈색 또는 짙은 황색으로 되어 있고 모양은 긴 타원형으로 단맛을 갖는다. 날것을 그대로 먹을 수 있으나 주로 말려서 먹으며 설탕조림을 하면 더욱 맛이 있다.

대추음식으로 대추미음, 대추인절미, 대추부꾸미, 대추초 등 다양하며 대추초는 대추를 시루에 찌거나 그릇에 담아 푹 물린 뒤에 꿀, 기름, 계피가루를 치고 버무린 뒤에 잣가루를 뿌려 만든다.

성분은 주로 당분으로, 약효는 위를 편하게 하고 몸을 돕는 강장제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민간약으로 가장 다양하게 쓰여지는 약제로 한방에서는 대추를 온화강장제(緩和强壯劑)로 사용한다.

잘 익은 것을 쪄서 말렸다 달여 먹으면 몸의 열을 내리게 하고 변을 묽게 하여 변비를 없애주며 기침을 멎게 해준다.

하제로선 하루 152그람 정도를 달여 먹는다.

심한 기침엔 씨를 빼낸 대추 20개를 미지근한 우유에 담갔다가 한개씩 씹어 먹으면 좋다.

산후 허리가 아픈데는 진하게 달여 먹고 임신 허약엔 종이에 싸서 불에 구워 계속해 먹으면 좋다.

풋대추는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이 여위고 열이 나기도 하나 잘 익혀 먹으면 위와 장을 튼튼케 하며 부스름엔 대추잎으로 즙을 내어 바르면 좋은 것으로 돼 있다.

<쑥>

신경통, 두통, 복통에 좋고 자궁출혈 등에는 달여 먹음.

쑥은 엉거시과에 속한 다년생 초본으로 키는 60~90cm 정도로 줄기에 하얀 잔털이 나있고 잎은 새털모양으로 중간 중간에 패져 있으며 잎 뒤쪽에 줄기와 같이 하얀 잔털이 밀집해 돋아나 있고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엷은 홍자색의 잔꽃은 7~10월에 피며 우리나라 전국의 들에 자연생으로 자라난다.

이른봄 막 돋아난 새싹을 뜯어 국을 끓인다든지 쑥떡을 해먹으면 향긋한 맛이 일품이다.

잎과 줄기의 흰털을 모아 인주 만드는 재료로 쓰며, 단오(端午)를 전후하여 채취한 것은 말려 약제로 사용한다.

특히 소금기 있는 바닷바람을 쏘인 것이 약효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방에서는 쑥처럼 많이 사용하는 약

제도 없으며 민간약 가운데서 가장 오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단군신화 가운데 곰이 쑥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쑥이 사람과 오래 전부터 인연을 맺어왔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방에서 복통, 토사(吐瀉), 지혈제로 사용되며, 지혈제로서는 자궁출혈, 코피 등에 효험이 큰 것으로 돼 있다.

용법으로는 하루 8그람을 달여 먹는다. 이 밖에 신경통, 두통, 감기, 인후「카타르」, 첫월경에도 좋다고 하며 여성의 하혈에 싱싱한 잎을 술에 담가두었다가 마시면 좋다.

생즙은 벌레에 물린데 좋고 말린 것은 담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고사리>

양기(陽氣)억제 근거 없고 뿌리에는 전분(澱粉)이 많음.

고사리는 옛부터 정력을 감퇴시키고 양기를 약화시키는 식품중 대표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수도승들이 금욕을 목적으로 고사리를 애용한다는 설이 있다.

그런데도 고사리처럼 일반에게 널리 애용되는 나물도 드물다. 명절 때나 제사 때 그리고 잔치상에는 으레 고사리 나물이 자리를 차지한다.

고사리 성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정력과 양기를 억제한다는 속설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고사리 속에 함유돼 있는 어떤 성분들은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다른 식품을 능가하고 있다. 「칼로리」만 해도 말린 고사리는 100그람이 266「칼로리」를 산출해낸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학자는 고사리에 얽힌 속설들을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고사리를 세속인들이 먹지 못하도록 수도승들이 일부러 퍼뜨린 낭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일이 있다.

고사리는 참고사리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알칼리」성 식품이다. 이른 봄에 싹을 내는 고사리는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식용하는 것은 어린잎을 따서 그대로 삶아먹거나 말려 두었다가나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한다.

고사리 뿌리에는 전분이 많이 함유돼 있어 이를 빼내어 전을 부친다든지 떡을 해서 먹기도 한다.

영양학적으로 보아서는 말려 두었다가 나물을 무쳐서 먹는 게 좋다. 말린 고사리는 전체의 ¼인 27%가 담백질로 구성돼 있으며 약 절반은 탄수화물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봐도 고사리가 정력과 양기를 감퇴시키고 다리힘을 약하게 만든다는 속설은 근거가 희박한 것같다. 어쩌면 이와 정반대일는지 모

른다.

무기질도 골고루 들어있는데 치아와 골격 형성의 기본물질인 「칼슘」이 68mg % 함유되어 있는 것은 특기할만하다.

「비타민」 B_1을 제외한 「비타민」 A_1, B_2, C의 함량 또한 우수식품으로서의 고사리를 말해준다. 특히 「비타민」의 함량은 30mg%나 된다.

고사리를 많이 먹으면 눈이 침침해진다는 설이 있는데 「비타민」 함량을 검토해 보면 이것도 한낱 낭설에 불과한 것 같다. 밤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막아주는 「비타민」A 함량은 200Iu(국제단위)이다.

한방에서는 정신흥분제와 탈홍치료제로 고사리의 어린잎을 사용하며 어린잎을 달인 물은 이뇨와 해열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가을잎이 떨어진 후 고사리 뿌리로부터 빼낸 가루는 자양강장제와 해열제로 이용되며 설사가 심할 때, 가루를 물에 타먹으면 좋다고 하며 고사리 가루는 보통 8~9월에 캐낸다.

<시금치>

보혈 강장 식품으로 우수하고 류머치스, 관절염에 효험이 있음.

시금치는 명아주과에 속한 1년생 또는 2년생 초본(草本)으로 원산지는 「페르샤」지방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아열대지방으로부터 「시베리아」에 이르는 광범한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종래 시금치 하면 가을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생각해 왔으나 최근엔 「유럽」의 개량종이 들어와 봄에 씨를 뿌려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시금치는 푸른 채소류 가운데 가장 영양가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금치는 「비타민」A와 B가 특히 풍부하며 C도 많이 갖고 있다. 또한 여름철엔 D도 함유한다. 단백질도 갖고 있으며 철분과 옥분(灰分)이 어느 채소류보다 풍부하다.

시금치 가운데 들어있는 철분은 우리 몸에 흡수되어 피를 만드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되어 있어 빈혈성의 사람에게 보혈강장제로서의 역할도 한다. 소화도 잘 되어 환자나 어린이용으로도 적당하다.

그러나 시금치는 수산(蓚酸)을 포함하고 있어 오랫동안 계속해서 많이 먹으면 신장과 방광에 결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금치를 날것으로 3kg을 1개월 동안 계속해서 먹으면 결석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양은 하루 10포기의 양에 해당한다.

한방의 처방에 따르면 시금치는 장과 위의 해로운 열을 없애주며 숙취(宿醉)를 풀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

소화, 해열, 백일해에 좋고 잎을 달여서 먹으면 이뇨에 도움이 됨.

배는 능금나무과에 속한 낙엽, 활엽의 교목으로 개량종으론 일본, 서양, 중국 등 3종이 있다.

잘 익은 배는 과당을 비롯, 사과산을 주로 한 약간의 주석산「구엔」산이 들어 있다.

「비타민」류로는 B와 C가 약간 들어 있다. 또 소화를 돕는 효소가 들어있어 생으로 먹으면 소화에 좋고 해열에도 효과가 크며 기침에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배를 그대로 불 속에 파묻어 익은 후에 즙을 짜서 먹으면 기침, 특히 백일해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나무잎도 약효가 있어 하루 10그람씩 달여먹으면 이뇨를 도와 뇨도소독약으로 좋다고 한다.

담(가래)이 나오는 기침엔 배즙에 생강즙과 꿀을 타서 먹는다. 기침이 심할 때는 배 1개를 썰어 우유나 양유에 달여먹는다.

복통이 심한 때는 배잎을 진하게 달여 자주 먹는다. 담이 많고 숨이 차면 배즙과 무우즙을 각각 반홉 정도 만들고 여기에 생강즙을 4~5숟갈 정도 타서 한꺼번에 먹는다.

종기의 근을 빼는데는 생배를 썰어서 붙인다. 또한 배는 갈증, 특히 술먹고 난 다음의 주갈에 좋다.

그러나 많이 먹으면 속이 냉해지고 부스럼 환자나 산모는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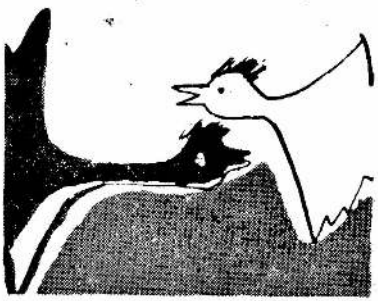
◇ 세계 명언

◇ 항상 전쟁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전쟁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멘토르는 말했다. —페늘롱

◇ 문무를 겸비하는 것이 장군이니 싸움에는 강유를 아울러 써야 한다. 일반적으로 용맹만으로 장군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니와, 용맹은 장군이 갖추어야 할 자격의 몇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吳子

한국동란 휴전20년의 발자취

편 집 실



1. 휴전 교섭

가. 2년여의 판문점 협상

1953년 7월 27일에 조인된 한국휴전협정의 과정은 길고도 험한 것이었다. 1951년 7월 10일 최초의 휴전협상이 개성에서 시작된지 무려 2년간이라고 하는 오랜 입씨름과 신경전 끝에 맺어진 협정이었다.

6·25동란이 시작된 1950년 6월 25일부터는 무려 3년 4개월이란 기간이 소모됐다.

1950년의 6·25동란은 「북한군이 38선 전역에 강력한 공격을 가해 옴으로써 시작되었던」 것이다.

UN 경찰군의 강력한 반격을 받은 북한은 중공군의 지원을 받고서도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북한의 의사를 대변하는 소련의 「유엔」대표 「야코프·마리크」는 1951년 9월 23일 유엔에서의 연설에서 교전 당사국끼리 휴전회담을 열 것을 제의했다.

「맥아더」장군의 후임자 「리치웨이」유엔군 사령관이 공산측에 휴전교섭을 제의했던 바 북한과 중공은 이를 수락하여 7월 10일 개성에서 휴전회담의 막을 올리게 되었다.

이 회담의 의제는 ①남북간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을 만드는 문제 ②휴전 감시기관의 구성권한, 기능에 관한 문제 ③포로에 관한 문제 ④쌍방 각국 정부에 대한 권고에 관한 것 등으로 할 것에 합의를 보았다.

9월 27일 「리치웨이」장군은 개성 아닌 다른 장소에서 회담을 열자고 제의하여 결국은 10월 22일 공산군측이 제안한 판문점에서 휴전 교섭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12월 11일 개시된 포로교환에 관한 교섭에서 회담은 다시 난항에 부딪쳤다.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함으로써 6·25도발을 배후에서 조종한 최고 책임자가 없어진 뒤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

3월 28일에 공산군측은 휴전회담을 재개할 것을 제의하여 포로교환 문제의 교섭이 재개되었고 4월 26일에는 휴전회담이 재개되었으며 6월 8일에는 포로 송환 협정이 서명되었고 7월 27일에는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

나. 휴전협정의 내용

한국의 휴전협정은 「상이포로 교환협정」, 「중립국 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 「포로에 대한 보충 협정」, 그리고 휴전협정 등 4개의 협정으로 혼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휴전 협정」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휴전협정의 내용 중 주요한 것을 요약하면

①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②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비무장 지대 내의 모든 폭발물, 지뢰원, 철조망 및 기타 군사 정전회 또는 그의 공동감시 소조(共同監視小組) 인원의 통행 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을 제거한다.

③ 군사 정전 위원회

군사 정전위원회 임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공동 감시 소조를 둔다.

④ 중립국 감시위원회

「스웨덴」, 「스위스」,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각기 임명하는 도합 4명의 고급 장교로서 중립국 감시위원단을 설립한다.

2. 휴전을 「승리」라고 하는 북한

역사를 멋대로 위조하는 북한은 6·25의 참패를 오히려 「영광스러운 승리」라고 강변하고 있다. 한국의 휴전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들은 이 명백한 역사를 또 한번 위조하고 있는 것이다.

6·25도발의 결과 북한측은 휴전까지 매일 500대로부터 1,500대의 폭격기 또는 전투기의 공격을 받았으며 26만발의 폭탄, 2억발의 탄환, 40만발의 「로케트」탄 그리고 약 150만발의 「네이팜」탄 공격을 받은 북한이 얼마나 크고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을 것이냐 하는 것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6·25를 「북침」이라고 강변하는 북한은 이 치명적 타격마저도 「승리」라고 허위날조했다.

3. 변함 없는 대남 적화 전략

가. 폭력 혁명의 광신

휴전 이후에도 폭력과 무장 봉기에 의해서만 한반도를 적화할 수 있다는 북한의 광신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

북한의 6·25 남침은 그들이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나 사실은 폭력 혁명 이외에는 아무 것도 믿는 것이 없다는 좋은 증거이다.

「칼로 승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과도 같이 북한은 그들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철저한 힘의 응징을 받았으나 그들의 폭력혁명에 대한 광신적 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평화통일」이란 곧 「적화통일」과 같은 뜻임을 여기서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나. 수출까지 하는 「게릴라」

청와대를 습격하고 요인을 암살하기 위해 북한은 31명의 무장 공비를 남파시켰으며 울진·삼척 지구에는 120여명의 무장 「게릴라」를 침투시켰었다.

폭력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은 3만명의 무장 공비를 훈련시켜 놓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게릴라」 준비는 마침내 외국에까지도 「게릴라」를 수출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했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확인된 북한의 「게릴라」 수출 실태만 보더라도 다음과 같다.

믿을만한 정보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에서 「게릴라」 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나라와 그 인원수는 「멕시코」, 「과테말라」, 「우루과이」, 「페루」, 「칠레」, 「베네주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등 중남미 9개국의 1,300명 그리고 「시리아」, 「통일아랍공화국」, 「이란」, 「기니아」, 「알제리아」, 「앙골라」, 「중앙아프리카」, 「수단」, 「리비아」 「케냐」, 「콩고」, 「예멘」, 「우간다」, 「월맹」, 「크메르」, 「라오스」, 「베트콩」 등 18개 아시아, 「아프리카」 제국에서 700명 도합 27개국의 2,000명에 이르고 있다.

폭력과 무장 봉기에 의해서만 공산혁명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제2의 월남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 자신의 「게릴라」 3만을 훈련 확보해 놓았다. 우리가 1·21사태나 삼척·울진 공비 사건 등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도 바로 이같은 북한의 「게릴라」 전술 때문이었다.

다. 폭로된 세균전의 흉계

「게릴라」를 수출함으로써 폭력과 범죄의 조직적 양성기관으로 전락한 북한

이 가증스럽게도 세균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북한을 상대로 밀수를 해오던 일본상사「야나기다」무역회사를 수사하고 있던 일본 제5관구 해상 보안부는 1970년 2월 이 상사가 북한으로부터 ①탄저균(炭疽菌) ②페스트균(대륙형 대양형) ③아시아형(비브리오·콜레라)균 ④천연두균 ⑤「바실리루스·안트리시스」균 등 5종의 세균주(株)를 주문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사건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음은 물론 일본방역 당국은 69년 9월 한국 서해안에 번졌던「콜레라」발병 사실과의 관련 여부를 신중히 조사한다고까지 발표했었다.

세균전은 전투요원과 비전투요원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마구 살인을 할 뿐 아니라 그 피해가 화약 폭발처럼 한번의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두고 계속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피해로부터 인류가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장 야만스럽고 비인도적인 전쟁수단으로 규탄되고 있다.

이처럼 무서운 세균을 북한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용서받을 수 없는 도발인 것이며 인류를 세균전의 생지옥으로 몰아넣는 문명의 파괴 행위인 것이다.

라. 비무장지대의 무장화

1972년 초 대한민국 국군과「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이 비무장지대 안에 어마어마한 무기와 병력을 들여다 놓았을 뿐 아니라 요새를 방불케 하는 진지를 구축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물 등과 함께 세계에 발표했다.

확인된 북한의 비무장지대 내 조사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225개의 진지(GP=민정경찰소)를 만들고「시멘트」로 요새화
② 76.2mm 야포 31문
③ 박격포 78문
④ 방사포(放射砲) 17문
⑤ 무반동총 450정(GP당 2정)
⑥ 14.5mm 고사포 225문
⑦ 중대 기관총(RP—46) 676정(GP당 3정)
⑧ 분대 기관총(RPD 675정) (GP당 3정)
⑨ 척탄통 675정(GP당 3정)
⑩ 군사 분계선에 맞대어 철조망을 80km를 설치(판문점에서 금성까지)
⑪ 배치 병력 9천여명

이상과 같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불법 무장화는 대한민국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북한이 군사 분계선에 연하여 80km의 철조망을 설치하면서 북방 비무장지대를 무장화했다는 것은 북한이 전선을

사실상 2km 남진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우리의 전선 병력이 북한 공산군의 사정거리(射程距離) 안에 들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 재침을 위한 군비 증강

1972년 봄에 북한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뉴욕·타임즈」의 「해리슨」 및 「솔베즈리」 기자는 북한은 거대한 병영(兵營)이라고 보도했고 같은 무렵에 「미노베」 동경 시장을 따라 평양을 다녀온 일본의 「마이니찌(每日)」 신문 기자는 「13세 정도의 어린 소년들이 군복을 입고 국민학교에서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서울에서 열병식을 하자!고 외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어린이에게 인간의 사랑과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치기 전에 적개심과 증오심을 불어넣고 인간을 살인하는 전쟁 광신자로 교육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 없는 잠수함과 함대함 「미사일」 탑재 고속 초계정까지 가지고 있다.

공군의 비행기 보유 대수도 대한민국의 근 6배나 된다.

이처럼 군비를 증강시켜 온 것은 바로 북한 자신이다.

4. 북한의 전술적 변화

북한은 휴전이 성립된 1973년부터 휴전협정을 위반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73년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위반한 건수는 무려 1만7천4백37건이 된다.

이같은 사실은 북한이 처음부터 휴전협정을 지킬 의사가 있었는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김 일성은 휴전 성립 9일 후에 열린 1953년 8월 5일의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 회의에서 그들의 당면 목표는 미제 침략자들과 그 졸도들의 식민지적 강점 정책과 미국 통치를 반대하며 미국 침략 군대를 철거시킴으로써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에 변함이 없음을 표명한 것이다.

가. 전후 복구기(1953~1960)

이 기간은 KNA기 피납사건(1958. 2. 16,) 소련 「푸라우다」지 이 동준 기자 탈출 사건(1959.1.27.), 동해안 거진(巨津) 동북방에 침투한 북한 수병을 생포한 사건(1960.7.30.) 등이 일어나는 시기다.

그러나 이 시기의 북한 무력도발은 휴전 20년간의 전 기간을 통해 가장 적었던 시기다. 그 이유를 우리는 북한이 전후 복구 사업에 전력을 쏟아야 했던 사정과 박 헌영의 숙청으로 남한의 지하 공산당 조직이 전멸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여건 및 소련의 새로운 「평화공

존」정책으로 말미암아 적극적 대남 공략이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은 1953년부터 「전후 인민경제복구 발전 3개년 계획」을 세워 우선 초토화한 북한 땅을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이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으로 6·25 이전의 수준으로 산업, 생산, 시설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 대남 도발 준비기(1961~1964)

이 시기에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은 1950년대의 소주적 자세를 버리고 서서히 격화하기 시작한다.

1961년 8월 25일, 북한 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유엔」군 측 민정경찰 초소를 습격하고 대원을 학살한 사건, 1962년 12월 23일 북한 PT함이 연평도 근해에서 「유엔」군측 초계정을 습격한 사건, 1964년 1월 14일 우리 공군의 F—86D 전투기가 북한의 대공 포화를 맞고 격추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다. 노골적 무력 도발기(1965~1970)

이 기간은 북한의 무력도발이 노골적으로 나타나며 대량의 무장간첩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다.

1·21사태 「푸에블로」호 납치, 울진·삼척 무장공비사건, EC—121기 피격사건, 해군 방송선 피납사건 등 크고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이때부터 대남 적화 전술도 크게 달라졌다.

첫째, 과거에는 남한에 연고지를 가진 이남 출신만을 골라 파견하던 것이 사격술과 「게릴라」전을 위주로 하는 무장공비를 침투시키기 시작했다는 것.

둘째, 과거에는 3~5명씩의 적은 인원으로 한 조가 구성되었으나, 이때부터 한개 조의 인원이 7~10명부터 100여명까지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대량 무력 도발로 바꾸었다는 것.

세째, 과거에는 정보 수집이 목적이었으나, 이때부터는 「게릴라」전의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는 것.

네째, 따라서 과거에는 도시 중심으로 파견되던 간첩이 산간벽지 등을 중심으로 공비를 파견하기 시작했다는 점.

다섯째, 과거에는 신변 보호를 위한 권총 정도의 무기를 가졌었으나 이때부터 기관 단총 등으로 완전 무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 등으로 보아 간접적이며 우회적이던 방법이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무력도발로 변화한 것이다.

라. 남북 대화 이후(1971~)

1971년에 들어와서 남북 적십자회담이라고 하는 남북대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대화에 임하기 위해 「남북 적화」라는 기본 목표를 버렸다는 증거는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73년에 들어와 북한이 제주 우도에 무장 공비를 남파시키는가 하면 심지어는 휴전선 전방에까지 무장공비를 침투시키고 비무장지대에서 안전 표지를 달고 안전 통로를 보수하던 한국군에 사격을 가한 것 등은 모두 북한의 이같은 대남 적화노선에 변함이 없다는 증거일 것이다.

5. 평화를 위한 노력

남북대화에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발견한 것은 평화와 민족적 양심이 아니라 남한 적화를 실현해 보려는 음흉한 음모와 흉계였다.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겨레의 염원이 여지없이 배반 당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평화를 이땅에 실현하여야 한다. 인내와 성실로써 남북대화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공산주의자와의 대화에서는 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국력 배양의 가속화를 위해 총화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1만7천4백73건의 협정 위반

「유엔」군 사령부가 조사한 북한 공산군의 휴전협정 위반사건은 73년 3월 30일 현재 1만7천4백7십3건이나 된다.

그 동안 정전위원회 본회의를 3백 39회 비서장 회의를 4백12회 도합 7백 5십1회의 판문점 회담이 있었으나 북한이 인정한 휴전협정 위반 사실은 1953년 즉 휴전이 성립하던 해에 단 2건이 있을 뿐이다.

그 이후 19년 동안 단 한건의 협정 위반도 없다고 강변하는 것이 북한이다.

그러나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건들이 얼마든지 있다.

무장 「게릴라」를 남파시켜 청와대를 습격하려던 1·21사태, 「푸에블로」호와 EC—121기의 피격사건, 그리고 울진·삼척 지구의 공비 침투사건 등은 누구도 부인못할 북한의 야수적 무력 도발 행위다. 그러나 그들은 이처럼 명명 백백한 사건들마저 부정하고 있다. 판문점의 20년 회담은 공산측의 「모른다」, 「조작이다」 등 상투적인 선전 용어를 지루하게 이어져 왔다.

그러면 공산측이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휴전 협정 위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자.

<KNA기 납북 사건>

1958년 2월 16일 부산을 떠나 서울로 나르고 있던 대한항공사 소속 KNA 여객기가 평택 상공을 나르고 있을 때 돌연 김형(金亨) 등 5명의 괴한이 총기를 휘두르며 승객과 조종사를 협박하여 서울 상공을 7,000m의 고도로 날아 포천 상공을 거쳐 휴전선을 넘어 월북했다.

KNA기에 타고 있던 사람은 1명의 미군 장교와 1명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28명의 승객과 3명의 승무원이었다.

괴한들은 평양 근방에서 신호인 것으로 보이는 모포 3매를 떨구고 비행기는 순천 비행장에 내렸다.

대기하고 있던 북한 공산군의 상좌가 나타나 승객을 차례로 내리게 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전쟁이나 정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민간기를 강제로 납치하는「하이·재크」는 가장 비인도적인 범죄 행위로 규탄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납치」가 대한민국 국민의 의거 월북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괴한들에 의해 뜻밖의 납치를 당한 승객들이 월북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비행기 여행을 할 사람이라면 공산주의와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북한으로 하여금 끝내「의거」라고 우겨댈 수 없게 하였다.

북한은 하는 수 없이 기체와 승객을 돌려준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 돌아온 것은 승객들 뿐이었다. 기체와 승객 일부는 그대로 북한에 있다. 명백한 백주의 강도행위다.

더구나 이 비행기 강도 사건이 범죄 집단이 아니고,「국가」를 감칭하는 정치 집단에 의해 감행되었다는 곳에서 우리는 북한의 무법자적 범죄성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민정 경찰 초소 습격 사건>

1961년 8월 25일, 한국에서 5·16군사혁명이 일어난지 얼마 안 되었을 때다. 그리고 북한의「로동당 제4차 당 대회」(9월 11일)에서 한국 정부는「타도의 대상」이라고 열을 올리기 얼마 전이다. 북한 공산군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유엔」군 측 민정 경찰초소(民情警察哨所)를 습격하고 대원을 사살하는 살인 행위를 감행했다.

군사 분계선은 어떠한 이유로도 서로 침범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휴전협정의 규정이다. 민정 경찰 초소는 비무장 지대의 안전 통로 등을 관리하는 기구로서 휴전 협정 상 양측 사령관이 인정하게 되어 있다. 이를 습격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협정 위반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아무 타당한 설명없이 이 사건이「유엔」군 측의 조작이라고만 우겨댔다.

이 사건 이후「유엔」군 측은 전방의 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연평도 순찰선 피습 사건>

1962년 12월 23일 11시 경, 연평도 북방 6「마일」해상에서 순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유엔」군 측 초계정은 갑자기 중무장을 갖춘 북한의 PT 고속

정 2척의 기습을 받고 약 40분간의 집중공격 속에 빠졌었다. 여기서 「유엔」군 측은 3명이 전사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를 보았다.

이처럼 1961년 이후의 북한 측 대남 도발은 바다와 육지 그리고 하늘을 가리지 않고 서서히 격화하기 시작했다.

<F—86D 전투기 피격 사건>

1964년 1월 14일 한국 공군 소속 F—86D 전투기 한 대가 비무장 지대 근방을 비행하던 중 갑자기 날아오는 북한 공산군의 대공 포화를 맞고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월 27일 제164차 군사 정전 위원회에서 조종사의 시체는 인계되었으나 기체는 돌아오지 않았다.

시체가 돌아오던 날, 「유엔」군 측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는 북한 공산군측 대표에게 죽음은 경건한 것이며 사자의 명복을 비는 것은 범인류적 도의심이다.

이 시체에 경례를 함으로써 너희들의 살인을 용서받으라!고 요구했으나 그들은 이를 끝내 거부했다.

<식사 운반 트럭 피격 사건>

1966년 10월 21일 17시 11분경, 군사분계선 서부 비무장 지대 남방 500m, 북위 38도 40초, 동경 126도 50분 27초 지점 부근에서 식사를 운반 중이던 한국군 트럭 1대가 북한 공산군의 매복 기습을 받고 한국군 병사 2명이 사살되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산군은 무성한 수풀 속에 잠복해 있다가 이 트럭이 나타나자 자동화기를 난사했다. 트럭은 운전사가 총탄에 맞아 탈선, 공산군의 매복 지점 부근으로 굴러가 버렸다. 공산군은 한국군이 완전히 죽었다고 확인될 때까지 총을 난사했다. 잠시 후에는 북한 공산군의 동복을 입은 다른 일당 등이 나타나 죽은 한국군 병사들을 일일이 총검으로 찌르며 죽음을 확인한 뒤 황급히 도망쳤다.

이 사실은 이 사건 때 기적적으로 살아난 한국군 병사에 의해 목격되고 증언되었다.

이 때를 계기로 북한군의 무력도발에 의한 휴전 협정 위반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56함 피격 사건>

1967년 1월 19일 오후, 한국 해군 소속 56함(당포호)이 공해 상에서 북한 경비정 2척의 집중 포화를 받고 격침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피습으로 말미암아 40여명의 사상자와 30여명의 실종자를 내는 비극이 벌어졌다.

56함은 이날 평화로이 고기잡이를 하던 70여척의 우리 어선단을 보호하고 있던 중 갑자기 나타난 북한의 경비정이 어선을 납치하려 함으로 이를 보호하여 끝까지 싸우다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 사건은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이

노골화하여 간다는 전주곡이었다.

<판문점 후방 막사 피습 사건>

1967년 8월 28일 하오 5시 수 미상의 북한 공산군이 서부 휴전선을 넘어와 비무장 지대의 남방 한계선을 2.3km까지 불법적으로 남침, 판문점 지원 사령부 막사를 공격했다. 공산군은 곧 미제 2사단 부대의 반격을 받고 도주했으나 이로 말미암아 미군 2명과 「카추샤」 1명이 전사하고 2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비무장 지대 남방 한계선을 넘어 판문점 사령부 부근 부대까지 남침해온 북한 공산군은 비전투 부대인 공병 부대 사병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줄지어 선 사병들에게 총탄을 퍼부었던 것이다.

<경원선 폭파 사건>

1967년 9월 5일 10시 5분경 경기도 포천군 청산면 초성리 역 남방을 지나던 서울발 신탄리 행 311열차가 통과하기 직전 요란한 폭음을 내면서 폭발, 노선 약 50m가 폭파하여 열차는 탈선되었다.

이 장소에서 발견된 여러가지 증거물들은 이것이 북한 간첩의 소행임을 드러내게 했다. 「유엔」군측은 군사정전위원회(제254차 67.9.8.)에서 이를 북한측에 항의했다.

이로부터 북한에 대남 공작이 과거에 정보 수집 단계에서 직접적인 파괴 행위로 들어간다.

이는 그 이듬해에 일어나는 연이은 무력 도발 사건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1·21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

1968년 1월 21일 밤 10시경 31명의 무장 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휴전선을 넘어 서울의 심장부에까지 침입해 왔다.

군 특수 부대를 사칭한 이들은 신분 증의 제시를 강경히 요구하는 종로 경찰서장에게 총을 발사함으로써 그 정체를 나타냈는데 1명이 생포되고 다른 일당들은 모두 사살됐다.

이 사건은 1965년의 김 일성의 「인도네시아」 연설과 1966년 북한 로동당 제2차 당 대표자 회의에서 확인된 「타도 한국」의 구호를 직접 실행에 옮긴 무모한 도발 행위였다.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미 국방성은 미 해군 정보수집 보조함 「푸에블로」호가 1968년 1월 23일 오후 1시 45분 동해의 공해 상에서 4척의 북한 초계정과 「미그」기 2대의 위협 아래 나포되어 원산항으로 납치되었다고 발표했다. 장교 6명과 수병 75명, 민간인 2명을 포함하여 모두 83명이 탄 「푸에블로」호는 동경 127도 54.3분, 북위 39도25분, 북한 해안에서 40km 떨어진 공해 상에서 나포되었다.

미 해군 함정이 공해 상에서 납치되기는 미 해군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푸에블로」호는 이날 정오 경 1척의 북한 초계정으로부터 첫 도전을 받았으며

하오 2시 32분「엔징」이 모두 꺼졌으며 무전 연락도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원산항으로 끌려간다고 최종보고를 보내왔다.

<울진·삼척 무장 공비 사건>

청와대 습격 미수사건과「푸에블로」호 납치 사건이 있은 1968년에 또 하나의 대규모 무장 도발 사건이 발생했다.

1968년 11월 2일 새벽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군에 120명의 북한무장 공비가 해상으로 침투하여 양민을 학살하고 위조지폐를 뿌리면서 갖가지 만행을 저지르는 단말마적 참극이 벌어졌다.

이들 무장 공비는 처음 울진군 북면의 한 마을에 나타나 부락민을 모아 놓고 그들의 지시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끝내는 부락민 한 사람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검으로 찌르고 머리를 돌로 쳐서 무참히 학살, 마을 사람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공비들은 마을 사람들을 감금하고 밥을 약탈하는가 하면 볏짚을 지고 가는 농민에게 총을 쏘기도 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을「길을 안내하라」며 끌고 가기도 했다. 한 우체부는 공비에게 끌려간 지 10일만에 총을 맞고 돌로 얻어맞아 숨진 시체로 계곡에서 발견되었다. 그뿐 아니라 강원도 평창군에서 공비들은「나는 공산당이 싫어요!」하고 외치는 10살 짜리 어린이의 입을 찢어죽이는 야수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공비들의 이같은 만행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기지와 용기에 찬 신고 정신과 군·경 합동 수색에 의해 공비들은 완전히 소탕되었다.

<주문진 앞바다 무장 공비 사건>

1969년 3월 16일 강원도 주문진 어선 통제소와 경찰 초소 부근에 무장공비 수명이 나타나 경비 중이던 경찰관과 교전 끝에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교전에서 경찰관 1명이 순직하고 공비들이 가졌던 시한폭탄 1개,「다이너마이트」0.5「파운드」, 일제 시계 1개, 수갑 2개와 불온「비라」다수를 압수했다. 17일 상오 교전 현장에서 약 600m 떨어진 해상에서 9개의 총구멍이 나 있는 소형「보트」(9인승)와 북한 공산군의 대위 계급장을 단 작업모를 발견했다. 이날 사살됐던 공비의 시체 7구가 떠올랐고 잠수 작업에서 시체와 함께「카빈」4정, 기관단총 3정, 권총 4정, 수류탄 11발, 실탄 225발, 5만분지 1지도 1장, 주문진 약도 4장,「콤파스」3개와 현금 십2만6천8백원(한화) 등 30여종을 노획하였다.

승 공 강 좌

북한의 위장평화 제의

편 집 실

제 1 장 북한의 기본전략

북한은 말할 것도 없이 공산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과 그 발전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 기본목표 달성을 위해 김 일성을 정상으로 하는 공산당(노동당)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전략 목표로 세우고, 그를 위해 유일사상체제와 무자비한 혁명적 투쟁을 전개하는 소위 혁명노선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다.

북한의 혁명노선은 「맑스」·「엥겔스」 이래 공산주의의 기본노선으로서 사회주의 사회건설은 오직 무자비한 혁명적 투쟁에 의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는 공산주의의 계급투쟁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북한 공산 집단만의 특수한 기본전략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 공산주의 집단보다도 가장 무자비하고 철저한 혁명노선을 지향하여 피의 숙청과 인민탄압을 통해 유일사상체제의 독재체제를 수립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다.

혁명노선이란 모든 행동 원리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혁명투쟁에 두고 반체제세력, 즉 그들이 말하는 소위 「반동분자」, 반사회주의세력,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무자비한 투쟁은 물론 생산도 생활도 혁명투쟁이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전 인민에게 그를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 집단은 희망적인 목표로서는 노동자 농민의 천국인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내걸고 위험요인으로서는 인민에게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고취하고 적대요인을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적대관계를 조성하

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다.

무자비한 혁명적 투쟁이란 바로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산주의의 기본전략과 그 전략에 입각한 가지 가지의 전술적 책략을 생각할 때 해방 후 오늘날까지 공산분자나 혹은 북한공산집단이 우리에 대한 그 숱한 도발이나 6·25남침 그리고 무수한 책임전가와 생떼는 물론 자체내에서 자행되었던 그 많은 피의 숙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도발로 대남 적대의식을 고취해서 위기 의식을 조장함으로써 군비확충의 명분을 찾아 소위 4대 군사노선으로 전국토를 요새화하고 전 인민을 무장화하였으며 독재권을 더욱 강화하여 북한동포들을 탄압해 왔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이 군비를 확장하고 전 인민을 무장화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대남전략, 즉 통일 기본 전략과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 기본전략을 혁명적 투쟁에 두고 있는 당연한 귀결로서 모든 반공사회체제의 붕괴 역시 혁명적 투쟁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지론이다.

이와 같이 모든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혁명투쟁의 기본목표와 기본전략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이니만큼 북한공산집단이 우리 남한에 대해 어떠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는 뻔하다.

그들은 북한은 소위 위대한 「소비에트」붉은 군대에 의해 해방되었지만 남한은 미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강점되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소련군은 해방군이며 미군은 침략군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남한을 해방시키는 것은 자기들의 불가피한 역사적 사명이며 남한이 해방되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해방이란 바로 공산화를 말하며 그것은 오직 혁명을 통해서만 이룩되고 혁명은 폭력에 의한 혁명적 투쟁으로만 성취된다고 주장한다.

이리하여 그들은 조국통일은 「남조선혁명」, 즉 폭력혁명에 의한 남한의 공산화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혁명통일론을 통일기본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혁명통일이란 다름 아닌 무력적화통일이다. 그들이 이와 같이 무력적화통일을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는 한 그들은 남한 침공을 위한 군사력이 필요하며 그 군사력은 언제나 남한의 군사력을 우월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기본방침이다.

그들은 공산화통일을 「전조선혁명」이라고 말하고 북한은 바로 그를 위한 혁명기지이니만큼 기지의 요새화와 북한 전 인민의 무장화는 필수적 요건이라는 논법으로 소위 4대군사노선에 의한 군사력 증강을 서둘러 왔다.

북한의 6·25 남침은 바로 그들의 「전조선혁명」이라는 무력적화 통일의 기본전략에 의한 도전이었던 것이며 그 많은 폭력행위와 무력도발 역시 이 기본전략에 입각한 하나의 전술적 기도였음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들의 속셈을 짐작하면서도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들은 남북대화를 어떻게 이용하려 하였기에 우리의 제의에 응했던가?

그리고 이제 그를 교착상태로 빠뜨리기 위해 다시 무장도발과 대남비방 그리고 위장평화공세를 격화하는 저의는 무엇인가를 파헤침으로써 그들의 평화제의가 얼마나 허구에 찬 위장된 것인가를 이해하는데 참고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 2 장 남북대화에 응한 저의와 태도표변의 속셈

1. 남북대화에 응한 북한의 저의

북한이 그들의 통일기본전략의 포기를 전제하는 남북대화에 응한 것은 진실로 그들이 혁명통일이라는 그들의 기본전략을 포기하고 참다운 평화통일을 지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대내적인 상황, 국제정세의 변화 그리고 우리 남한의 여건변동 등 다각적인 상황판단에 입각하여 대남혁명이라는 그들의 통일 기본전략을 수행하는 한 방편으로 남북대화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첫째, 국제정세가 냉전체제로부터 평화공존체제로 이행됨에 따라 북한 역시 언제까지나 홀로 냉전체제의 장벽 안에서 고립해 있을 수는 없고 세계정세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들은 판단하였을 것임에 틀림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선결문제이며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수적인 조건이다.

둘째, 북한의 대내적인 상황을 살펴본다면 북한은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6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중·소 이념분쟁과 국경분쟁이 격화되고 대립적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중공과 소련은 한동안 후진 약소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원조와 지원을 경쟁한 적도 있었으나 점차 그 방향을 전환하여 중·소 양국의 대외 원조가 격감되자 북한 역시 그들로부터 지원이나 협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중·소 외교에 있어서 등거리 외교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한때는 소련측에 편중했다가 또 어떤 때는 중공측에 접근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대외교에 고심하였던 것인데 68년 북한은 중·소 외교의 중립을 의미하는 소위 「자주노선」을 표방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북한은 막대한 군사비와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어떻게 해서든지 군사비를 줄이고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를 늘이는 한편 다른 외국으로부터 차관이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한 현실적 요구로 등장하였다.

북한의 산업은 과거 일제가 「남북 공동정책」을 시행했던 덕분으로 해방 당시만 해도 한국 전체의 공업시설의 거의 90% 이상이 북한에 있었고 그 공업적 기반을 통해 북한은 주로 중공업과 군수산업 등 전략 산업의 개발에 치중해 왔지마는 그것은 거의 노동집약적인 낙후된 시설과 기술에 의한 것으로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군수분야만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오히려 우리 나라의 공업생산력보다 훨씬 뒤진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실리추구의 현 국제사회에서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업시설과 기술의 근대화는 물론 소비재 생산이나 경공업 분야의 개발 역시 추구해야만 되겠는데 그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나 시설 및 기술도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세째, 그들이 판단하기에 우리 남한에 대한 무력침공은 현단계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고 결정적 시기에 폭력봉기할 수 있는 지하당의 구축이나 사회교란 요인을 부식시킬 수도 없는 철통같은 총력안보태세로 말미암아 당분간 적극적인 남한의 적화기도는 중단하고 남북대화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또한 합법적이며 공개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혁명사상을 남한에 침투시키는 전술적 전환이 오히려 그들의 혁명전략을 수행하는데 유일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인도주의 문제를 다루는 적십자회담에서조차 김일성의 유일사상을 선전하는 정치적 장광설을 늘어놓던 북적대표들의 연설이나 우리 대표단에게 북한사회의 여러가지 장점을 인상 깊게 부각시키려고 고심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이러한 그들의 의중을 능히 타진할 수 있는 것이다.

2. 태도 표변의 속셈

그러면 북한은 왜 최근에 이르러 무력도발을 자행하고 대남 비난방송을 재

개하며 위장평화공세를 다시 시작하는 등 태도를 표변하여 남북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첫째로 현재와 같은 남북대화를 계속해 보았자 그들이 기대했던 전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더구나 적십자회담을 개최할 때 서울시민의 열렬한 환영을 보고 「김일성 수상님의 평화통일사절을 맞는 것처럼 열렬한 환영을 했다.」고 보고했을만큼 자신들의 혁명기풍조성의 목적이 적중했다고 착각했던 그들이 김 병식·윤 기복의 연설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얼음장같이 냉냉해진 것을 보고 대남혁명사상 고취는 도저히 바랄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둘째는 남북대화를 추진하면 남한에서는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의 제기 등 공산주의 침투를 위한 조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했던대로 초기에는 국회 내에서 떠들썩하더니 오히려 10월유신으로 반공체제가 더욱 굳어지는 역효과를 초래한데 실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세째는 남북대화를 진전시키면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유리해져 국제진출이나 서방세계의 접근, 특히 일본과의 접근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다지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네째, 남북대화에 있어 적십자회담이나 조절위원회의 원칙적인 문제는 전부 합의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그 합의한 원칙에 따라 남북교류문제나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실질적인 실천업무의 토의에 들어가고 그에 따라 조만간 남북교류가 실시되어야 하겠는데 남북교류를 통해 자기들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겠다는 의구심이 일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다섯째는 우리 측에서는 적십자회담 예비회의 개최 이후 남북대화의 모색을 위한 자주적 노력의 경주를 위해 유해롭다는 이유로 한반도 문제의 「유엔」 상정을 연기하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북한은 「유엔」을 불신하던 종래의 방침을 180도 전환하여 중공의 「유엔」 가입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유엔」에의 접근을 시도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금년 가을의 「유엔」 총회에 대한 북한측의 전략은 되도록이면 남북대화가 교착상태로 빠져 남북한문제의 자주적 해결이 어렵다는 인상을 주어야만 한반도 문제를 국제무대인 「유엔」으로 끌고 가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시키려고 하는 것은 「유엔」의 판도가 점차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그를 이용해서 국제적으로 적어도 남북한이 동등하게 대우 받도록 함으로써 「유엔」이 승인한 우리의 유일 합법 정부의 성격을 무색게 하고 그들도 간접적으로 승인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음으로써 국제진출은 적극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속셈을 타진할 때 현재 그들의 일련의 도발은 남북대화를 교착시키되 적반하장격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제 3 장 평화통일론의 허구성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조국통일은 무력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룩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온 민족 앞에 서약했다. 남북 쌍방은 이 역사적 합의를 충실히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의 북한동향을 살펴보면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본래 북한이 말하는 평화적 통일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통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즉 북한은 통일의 문제를 혁명의 문제로 보고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적 사상에 의한 통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하는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야 비로소 평화적 통일이 가능하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에 통일노선이란 공산화의 통일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래서 남한에서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하는 혁명을 「남조선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공산화통일을 「전조선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입장은 1955년 4월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총회)에서 명백히 천명했고 1960년대에도 61년 9월 노동당 제4차 대회와 66년 10월 노동당대표자회의 등에서 재확인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기 전일인 72년 7월 3일에 평양방송을 통해 그들의 본래 평화통일의 개념이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밝힌 점이다. 이 방송에서는 현 상태에서 평화적 통일을 바라는 것은 환상이며 「남조선혁명」을 수행해야만 비로소 평화통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남조선혁명」은 오직 폭력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를 하루 앞두고 그들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동 성명을 처음부터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생각보다는 그것을 그들의 불순한 정

치적 목적에 악용하겠다는 속셈을 미리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7·4남북공동성명 이후 평화통일에 대한 북한의 진의는 점차 부각되어 나왔다.

북한은 7·4공동성명 이후에도 자기들은 평화적 통일에 가장 성의가 있고 그 해결을 위해 가장 정당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73년 3월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회의를 수일 앞두고 북한측이 감행한 일련의 도발행위는 우리 국민에게 경각심을 안겨 주었다. 제주도 근처에 있는 우도에 북한의 무장간첩선이 출현하여 우리측 인원을 사살한 사건과 또한 중부 휴전선에서의 총격사건 및 4월 17일의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이 그것이다. 이들 사건은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에 임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폭력에 의한 소위「남조선혁명」의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진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의 평화통일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 전망 아래 북한 지도층의 반민족적 및 호전적인 술책을 대내외 여론의 압력으로 누르고 평화통일에 한걸음씩 접근하는 인내성 있는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4 장 4대군사노선이 노리는 것

북한의 김일성은 73년 신년사에서 4대군사노선을 계속 추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73년 2월 8일 북한군 창군 25주년에 즈음한 오진우(인민군 총참모장)의 연설에서도 4대군사노선을 유지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북한의 4대군사노선이란「전인민의 무장화」,「전국토의 요새화」,「군의 간부화」및「군장비의 현대화」를 말한 것이다.

4대군사노선은 1962년 12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총회)에서 처음으로 결정한 것이며 그 배경은 1962년 10월「쿠바」사태에 대한 소련의 처리방식이 미국의 강경책에 양보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보고 북한의 방위에 있어서 소련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니 자위의 원칙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60년대에 북한은 대남 지하공작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력하였고 아울러 남한사회의 교란과 정국의 혼란을 목적으로 무장공비를 연이어 침투시켰으며 1968년 무장 특공대를 침입시켜, 청와대를 습격하려다가 미수로 그친 1·21사건은 당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악랄

한 획책을 대표적으로 말해준 것이다.

이렇듯 북한의 4대군사노선은 평화적 통일과는 역행하는 것이었으며,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킨 것이다. 따라서 무력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통일하기로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동시에 평화통일의 방도를 모색하는 남북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북한의 4대군사노선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일성과 북한의 군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4대군사노선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말로는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참다운 평화통일의 길로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어떻든 북한의 4대군사노선은 남북대화의 배후에서 딴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그것은 평화통일의 제의가 위장이고 허구적인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제 5 장 남북교류에 대한 생떼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불성실한 태도는 남북교류의 문제에 있어서도 반영되고 있다. 남북공동성명에서는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였다. 즉 남북교류는 남북간에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당면 목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남북교류는 우선 상호의 이념과 체제에 구애되지 않는 분야부터 개시하고 민족적 공통성이 넓어지는대로 교류의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남북의 접촉은 비정치적 분야로부터 정치적 분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자세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측이 남북적십자 회담을 제의하여 남북대화가 개선된 것은 국토분단으로 빚어진 이산가족의 비원을 하루 빨리 풀어주어야 한다는 인도적 정신에 입각한 것이다.

그런데 남북교류에 대한 북한측의 태도는 어떠한가? 말로는 다방면적인 남북교류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이 과연 민족적 입장에 서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측이 1950년대부터 되풀이해서 통일협상과 남북교류를 제의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 여건을 도외시한 가공적이며 허구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이 남북교류를 참다운 남북관계 개선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혁명적 목적에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실은 남북관계의 단계적 개선을 반대하고 있는데서도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그들의 선전수단을 총동원하여 남북관계의 단계적 개선 방안이 부당한 것이며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렇듯 남북관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과 그것을 반대하고 인도적 문제까지도 정치적 문제의 차원에까지 끌어올려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북의 입장은 남북적십자회담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제 6 장 남북연방제 안의 저의와 부당성

평화통일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진실하지 못함은 그들의 남북연방제 안에서도 엿볼 수 있다. 북한이 남북연방제를 처음으로 제의한 것은 1960년 8월 15일 「김 일성」의 연설에서였다.

이와 같이 60년대에 남북연방제를 제의한 일이 몇번 있으나 본격적으로 다시 들고 나온 것은 남북대화가 개시된 이후이다.

남북연방제 안은 남한의 반정부 세력을 회유하려는 의도와 위장 평화공세의 일환으로 선전적 효과를 노린 것이다.

남북연방제 안의 구체적 내용은 남북의 현상을 그대로 두고 남북정부의 각 대표로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여 경제, 문화교류를 광범하게 실시하여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또 합의에 이른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라는 것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말과 속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대화를 하고 있는 새로운 남북관계에서도 본래의 공산화 통일 야망을 버리지 않고 대남혁명 전략의 실현이라는 기본노선을 버리지 않고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또한 북한이 남북연방제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통일의 장애가 되고 있는 미군을 철수케 할 여건을 만들며 또한 상상, 이념 및 제도가 상극된 남북의 현실은 다방면적인 교류에 있어 그 제한성이 불가피하므로 남북연방제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북한의 남북연방제 안은 평화공세의 하

나로서 올바른 남북대화를 저해하고 그들의 본래의 적화통일 목적을 실현하려는 계략적인 것이며 그들의 불법적 정권을 합법화시키려는 국제외교적인 책략인 것이다.

제 7 장 우리의 자세

이상에서 우리는 북한의 기본전략이 무엇이고 남북대화를 교착상태로 빠뜨리려는 속셈과 그들이 주장하는 문제들을 분석하여 북한의 저의를 파헤쳐 보았다. 결론적으로 한 마디로 말해서 북한 공산주의의 기본전략은 추호도 변동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국민이 가져야 할 국민적인 각오와 자세는 어떠해야겠는가?

첫째, 우리는 북한의 기본전략에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들의 위장 평화 공세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끈기와 인내로써 남북대화에 협조하고 총력 안보 태세의 강화를 위해 10월 유신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총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속담 풀이

◇ 작작 먹고 가는 똥 누어라……작게 먹고 가는 똥 누어라.

◇ 차면 넘친다……너무 정도에 지나치면 도리어 불완전하게 된다.

◇ 처서에 비가 오면 독의 곡식도 준다……처서 날에 비가 오면 흉년이 든다.

◇ 콩 볶아먹다가 가마솥 깨뜨린다……작은 일을 실없이 하다가 큰 탈이 난다.

◇ 하늘 무서운 말……천벌을 받을만한 못된 말

◇ 가을중 싸대듯 한다……바빠서 분주히 싸다닌다.

◇ 감기 고뿔도 남을 안 준다……매우 인색하다.

절제와 생활

유 병 춘

<서울여대 교목>

절제라는 낱말의 뜻은 제한하는 것이다.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제한없이 행할 때에 절제는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제한하는 일이 다 절제가 되지는 못한다.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덮어놓고 제한만 하면 부족에 빠지고 만다. 그런 부족의 상태를 절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적절히 제한하는 일이 절제일 것이다. 절제란 낱말에 유사한 낱말로서 자제, 절약, 적절, 분별, 사려 등을 들 수 있다. 자제는 자기의 정욕 내지 자기자신을 억제하는 일을 말하고, 즉 특히 정욕의 부면에 있어서의 절제를 말하며 절약은 경제부문에 있어서의 절제를 말한다. 절제란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적절히 행하는 일을 말하며, 분별력 있게, 사려깊게, 건실하게 하는 데 절제는 이루어진다. 젊은 군인에게 절제라는 언어는 구속하는 굴레와 같아서 무한히 발전하고자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절제란 발전과 향상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여 필요한 곳에 더 힘을 쓰게

하므로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는데 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과수원에서 충실한 과실을 얻기 위하여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버려 과목의 모양을 아름답고 완전하게 조절하는 동시에 필요한 가지에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절제(Temperance)는 특히 서양에서 옛날부터 주요 덕목(德目)들 가운데 하나로써 간주되어 왔다. 플라톤에 있어서는 그의 네 가지 주요 덕목들 중의 하나이다. 철인의 덕은 지혜이며 군인의 덕은 용기이며 기술자 내지 부녀자 덕이 절제이다. 플라톤에 있어서 절제는 정욕에 대한 억제를 의미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를 쾌락에 있어서의 중용의 덕으로 절욕(節慾), 즉 쾌락을 참고 억누르는 일과를 구별한다. 「씨세로」는 절제란 사려의 통제력으로서 정욕을 다스리는 일이라고 하였다. 동양에서도 맹자의 중용의 덕은 비교적 절제의 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절제라는 말은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준법정신의 절제, 둘째는 외적 명령에 복종하는 생활의 절제, 세째는 자아 중심에서의 주관적, 자치적 상태의 절제 등이다. 영어로 절제는 Temperance인 바 Moderation과 Self-Control로 표시할 수가 있다. 즉 언어나 행동에 있어서 중용과 자제 혹은 알콜 음주에 있어서 절주(節酒)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어의 Temperance란 말은 라틴어의 Tempus에서 유래된 말로써 시간 생활에 있어서 할당된 시간을 질서있게 적절히 사용한다는 의미로써 생활 전체에 조화된 질서를 문란시키지 아니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의미를 종합해 볼 때 절제란 개인의 수양에 있어서나 군인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어떻게 보면 군인의 생활이란 절제생활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Augustine에 있어서 절제는 자기 자신을 참되게 사랑할 때, 필연적으로 취하게 될 모양(Form)이 되는 것이다. 절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의 형식인 것이다. Augustine은 절제의 정의를 「절제의 기능은 하느님의 법도에서 떠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들을 갈망하는 욕망들을 제어하고 영도하는데 있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절제는 결국 자신을 그 몸과 영혼과 정신을 송두리째 하느님께 봉헌하는 사랑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절제의 목적은 자기의 저급한 본성들을 복종시키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급한 이상을 함양하는데 있는 것이다. 어떤 높은 이상을 가지고 이것을 실현하고자 달음질

할 때 거기에 절제가 자연히 필연하게 되며, 따르게 된다. 가령 어떤 운동선수가 이기기를 다툴 때에 그는 모든 일에 절제할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몸가짐에 있어서도 즉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나 잠자는 일 등 모든 일에 있어서 이 경주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절제는 반드시 어떤 높은 목표를 향하여 모든 일을 특히 자기 자신의 모든 성품의 질서잡는 일을 말한다. 운동선수는 운동에 적절하게 자기 자신을 가져야 하며 군인은 전쟁에 적절하게 자기 자신을 가져야 한다.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군인들 가운데 간혹 거의 자포자기에 가까울만큼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을 보는 것은 그가 자의로 군대생활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 군대생활을 해야 한다는 타율적인 사람으로 절제생활을 강요 당하다가 간혹 해방되어 나올 때 방종에 빠지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그에게 있어서 확고한 목표가 서 있지 않은 연고이다.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을 통제할만한 정신적인 이상이 불붙고 있을 때 그의 육체적인 부분은 자연히 복종케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육체와 정신(靈肉), 우리 자신의 전체를 헌신할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가 헌신하는 그 헌신으로 인하여 절제는 자연히 되는 것이다. 절제의 목적은 절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높은 목적을 위한 생의 모든 여건들을 질서잡는 일을 말한다. 그러므로 절제의 목적은 보다 높은 이상을 함양하는데 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의 환경에 잡히지 않고 자기 환경의 주인이 됨을 말하며, 이와 같이 자기 환경에서 해방받은 영혼이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절제인 것이다. 절제는 생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필요하다. 첫째로 성(性)과 먹는 일, 마시는 일의 분야에 있어서 욕욕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성이나 음식이나 음료는 모두 그 자체로서 악한 것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선한 것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의 요소들을 이룬다. 성이란 것이 그 순화된 형체에 있어서 인생을 부드럽고 즐겁게 하여 주며, 고상하고 명랑하게 하여 준다. 그러나 인간이 성의 저급한 측면이나 치정(痴情)에 사로잡혀, 성 그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 신의 자리를 차지할 때 그에게 있어서 다른 모든 가치는 말살되고 그의 인생은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몇 푼 안 되는 월급봉투를 대포집에서 털어버리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족속들이 어찌 공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먹고 나라 재물을 가로 채지 않을 수 있겠는가? 술이 늘어가고 있는 곳에 인

간개조가 능히 가능하겠는가? 한강변의 기적은 먼저 절제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절제한다는 일은 실지의 경우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이다. 절제가 좋은 일이란 것은 알면서도 이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정욕의 불길 앞에서 이성은 완전히 그 무력함을 폭로하고 만다. 사람이 굶주릴 때 그의 인생에 대한 판단이 정상적으로 되기 어렵다. 강행군으로 목이 말랐을 때 약한 전우에게 물을 양보할 줄 아는 군인이 몇 사람이나 될까? 강정과 정신에 따라서 적권행사하기가 십중팔구가 아닌가? 사람이 자기의 혀를 길 들인다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제란 거의 불가능의 가공적 덕목에 불과함이 분명하다. 인간 속에 있는 자연적 경향들을 가지고는 절제를 할 길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절제는 우리 자신의 내부에 속하는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절제는 외부로부터 강요 당할 때나 자신의 내부에서는 원치 않으나 부득이 절제하게 되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다 우리를 강제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이 있는 것이다. 영(靈)의 힘인 것이다. 이 영(靈)의 힘이 아니고는 자유로이 절제를 행할 길이 없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영이 임재할 때 인간은 자유로이 자신을 헌신하며 누가 무어라 이르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을 다듬어가면서 그 영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어간다. 참신(神)의 영이 올 때 인간은 비로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그 자유는 자기의 전 인간을 그 신 앞에 헌신하게 되며, 여기에 나타나는 생의 모양은 곧 우리가 말하는 절제인 것이다. 이상 인생에 있어서 절제란 것이 얼마나 그 본질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인간의 보다 높은 생을 위한 자기 헌신의 모습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는 보다 높은 생의 목표를 가져야 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 전체가 이에 규제되도록 힘써 나가는데, 인간다운 생활이 이루어질 것이며, 절제의 덕은 완성될 것이다.

× × ×

군인과 용기

김 선 도
<서울광림교회 목사>

일찌기 헬라인들은 인간의 4가지 덕(德)을 말할 때 지혜, 절제, 용기, 정의 등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용기를 인간의 기본적인 덕이요, 인간의 아름다운 미며 자랑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러면 먼저 용기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생각을 해본다. 우리는 흔히 용기와 비슷한 단어를 찾아본다면 용감성, 담대함, 욕망, 열정, 의욕성, 적극성 등 많은 용어를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용기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어떤 인간 본연의 감정이나 열정의 표현이 아니라 이는 어느 면에서 볼 때 절대자 신에 대한 속성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용기는 반드시 그의 목적도 선할 뿐만 아니라 방법도 좋아야 하며 결과도 아름다운 얼매를 가져야 할 것이다. 어떤 감정적인 폭발이나 열정은 용기라고 할 수가 없다.

용기는 언제든지 의를 위한 투쟁에 대해서 도전적인 용감성으로 비교를 할 수도 있다. 만일에 아무리 잘 싸우고 그의 놀라운 용감성과 투지력을 잘 나타냈다 할지라도 이것이 선한 목적과 방법으로 행하여지지 못하였다면 이는 참 용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젊은이들의 용기는 의를 위한 투쟁이요, 봉사와 사랑을 위한 열정과 모험적인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용기의 덕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의 내용에 있어서 봉사와 사랑과 정의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는 참 용기라고 할 수 없다. 용기는 순간적이거나 감정적인 태도는 아니다. 다만 용기는 자기의 재간, 기술, 지혜, 물질, 열정을 총 동원해서 의를 위한 사랑의 투쟁에 다 바치는 것이라고 생

각을 하게 된다. 그런고로 현대인에게서 용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현대적인 모든 기술과 과학, 예술, 지혜를 가지고 인류 평화와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데 봉헌하려는 것이 용기의 뜻이요 목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을 침해하며 그들의 어떤 목적과 이념을 위해서 각자의 고귀한 생명의 능력과 힘을 악용해서 가장 큰 일을 만드는 능력을 창조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참 인간 고유의 용기의 행위라고는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살상가상의 공헌을 오히려 인류 발전과 번영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들이 발견한 신비한 과학 기술이나 지혜가 오히려 하느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질서를 파괴하며 타락케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용기의 미를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용기의 행위와 태도는 그의 목적도 선할 뿐 아니라 방법 결과도 좋아야 하고 특히 책임도 뒤따르게 된다. 책임을 다 하려는 노력과 사명의식은 더욱 용기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군인의 책임을 다하였다면 이는 곧 젊은이의 용기의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 주변에서 용감한 군인 혹은 용기있는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맡겨진 일에 충실하며 마침내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였다든지 맡겨진 사명을 다하였을 때 그를 가리켜서 용감한 군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아무리 용기있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아무런 목적없이 순간적인 사고나 문제를 가지고 비참한 죽음을 한 군인을 용감한 군인이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때문에 용기는 씩씩한 군인의 인격을 소유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가장 강한 군대로 훈련을 시키는데도 필요한 요소가 된다. 강한 훈련과 군대는 훌륭한 무기나 장비를 소유함으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젊은이들의 높은 선의 투쟁과 고차원적인 이념에서부터 오는 용기의 투쟁과 노력에서 되어 지는 것이다. 아무리 젊은이의 피끓는 내적인 열정과 정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노력이나 열정과 힘이 선을 위한 노력이나 힘이 아닐 때 오히려 용기의 기백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마침내 그와 같은 열정이 타락과 방종의 무의미한 낭비의 힘이 되고 말 것이다. 일전 일간 신문의 17세의 신혼부부 살인사건은 그 소년의 용감성과 담대성 혹은 용기라고 그의 과오의 행위를 떠나서 단지 말할 수도 있겠으나 이

는 분명히 그의 목적과 방법이 이미 의를 위한 선을 추구하기 위한 이념보다 오히려 악을 내포한 자기의 감정적 행위라고 생각을 할 때 이는 가장 큰 실수요 비극적인 불행의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어두움 속에서나 혹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감정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릇된 관념과 사상에서 시작되는 행동을 용기라고 볼 수 없다. 용기는 언제든지 이성이 따라야 하며 희생과 봉사, 사랑이 기초를 이룬 행위가 되어야 한다. 때문에 용기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의 좌절이나 실망 속에서 자기를 상실하지 않는다. 다만 용기는 어떤 역경과 위험 속에서라도 자신의 올바른 뜻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계획된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행위요, 과감하게 결단하며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같은 젊은이의 고상하고 거룩한 용기가 때로는 순간적인 감정의 충동에 의해서 어느 Sex(성)의 유혹이나 물질 때문에 본연의 양심 속에서 울려오는 용기를 포기하고 좌절과 실망 혹은 허무와 의심 속에서 용기를 상실할 때가 있다. 즉 내적인 용기가 외적인 세력에 의해서 혹은 유혹에 의해서 가리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용기는 마지 못해서 돈받고 힘을 파는 용병의 용기나 노예의 용기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희생적인 각오 속에서 중세기의 기사도적인 적극적 태도며 모험적 태도이다.

그러므로 용기는 어떤 직업적인(Occupation)태도가 아니라 사명적(Vocation)인 행위의 태도이다. 이 사명적인 용기라고 하는 것은 타의에서 강요 되거나 억지로 되어지는 태도가 아니라 자발적이요, 능동적이요, 모험적인 행위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용기 있는 사람은 부조리한 생활에도 혹은 역경적 상황에라도 끝까지 선한 싸움의 투쟁력을 가지고 강하게 역사하며 때로는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끈덕지게 참으며 외부에서 도적해 오는 세력과 대결하여 이미 계획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속해서 올바른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노력이요, 열정이다. 이는 마치 국가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며 맡겨준 책임과 사명을 다 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적군의 포화속으로 돌격하는 행위와 같은 군인의 용기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마치 어느 연약한 부녀자가 악당에게 피습을 당하였을 때 그를 구조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의 위험도 돌보지 않고 악당에게 달려가서 싸우는 모습이다. 그러나 물론 특

수한 군대 사회 속에서 혹은 계급의 차이의 구별이 심한 체제 속에서 군대의 규율이나 법의 지배 하에서 생활할 때 용기란 하나의 허황된 꿈과 같은 강요로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참 용기는 그와 같은 부조리한 역경의 상황 속에서 고민하거나 회의를 품지 않고 이를 박차고 일어서려는 내적인 충동의 힘이요, 양심의 소리라고 볼 수 있다. 의를 위한 투쟁이나 사랑을 위한 노력과 힘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 강하게 역사를 이루며 힘이 생겨 지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자 틸릭은 말하기를 인간이 요구하는 것은 안전이 아니고 용기라고 하였다. 이는 평온한 안전보다는 강력한 용기의 투쟁만이 악화된 사회를 구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종교에서 신앙을 말할 때 신앙은 도박이라고 파스칼은 말하였다. 이는 곧 망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큰 돈을 벌든지 하는 모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용기도 어느 면으로 도박의 행위라고 볼 때 마치 용기는 큰 모험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과연 군인은 모험적인 도박성과 같은 기질과 열정과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참 군인은 그의 생존과 운명 앞에서 두려움 없이 투쟁하는 용기만이 곧 국가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다. 때문에 용기가 있는 곳에는 승리와 발전과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올 것이다. 진정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을 각오한 뚜렷한 행동에서만이 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용기는 의를 위한 투쟁이요, 선의 싸움이요, 사랑의 행동인 것이다. 용기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도 아니요, 오직 이웃과 전우, 국가와 민족 더 나아가서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인간의 아름다운 욕망의 의지인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참 군인의 속성은 용기며 용기의 모습이 곧 군인의 모습이다. 참 군인은 불의를 위해서는 냉담하여야 하며 의를 위해서는 도전적이요, 투쟁적인 결단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만일에 군인이 용기를 상실하였다면 이는 이미 인생에 있어서나 국가 면에서 볼 때 낙오와 실패의 쓴잔을 마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군인은 날카로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흑백을 구별할 수 있으며 맡겨진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명감 속에서 자기의 힘을 다하며 의를 위해서 백절불굴의 신념을 가지고 싸우는 결단적인 행위가 참 군인의 자랑이며 덕이며 아름다운 미의 용기의 모습이다.

샤머니즘과 한국문화

이 준 학

(1)

"사람은 문화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은사람의 생활과 역사가 본능적 생존만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를 창조하고 발달시켜 나아가는 과정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라는 말처럼 흔하게 쓰이는 말도 드물 것이다. 그런데 일반 생활상 용어로 흔히 문화라고 하면, 문화생활이라든지 문화인이라든지 해서 보통 것과는 다른 고급적인 생활, 사람 등으로 연관시켜 듣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 문화 인류학에서 규정해 본다면, 그런 고급 저급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란 곧 일상생활 그 자체일 따름이다. 말하자면 어느 특정사회에 있어서의 생활양식이 그 사회의 문화라 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이조시대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온돌방에서 거처하며 논 농사를 주로 해서 쌀밥을 즐겨먹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했다면 그것이 곧 이조시대의 우리나라 사람이 가진 한 문화적 특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화적 근거는 종교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신적 존재이고, 인간의 정신을 결정지워 주는 것은 종교적 신앙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종교적 신앙과 인간정신 사이의 관계로 표현해본다면 종교는 인간정신을 결정하는 신앙의 모체이고, 인간의 신앙적 모체는 곧 종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양사상의 연구가 중에 한 사람인 독일의 오피츠(Peter J. Opitz)박사는 중국의 정치사상을 연

구하면서 「사회적 신앙」이라는 말로 정치제도, 사상의 내면적 근원을 표현했다. 즉 그에 의하면 「사회적 신앙」이란 말은 세계관(World Outlook), 사회의 덕(Virtue)이라는 말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중국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공자(유교)의 덕이 사회적 신앙이었고 근세에 와서는 강유위, 양계초, 손문 등을 거치면서 새로운 사회적 신앙이 모색되다가 현재에 와서는 모택동 사상이 사회적 신앙이 되어 오늘의 중국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택동 역시 중국의 전통적 유교사상 및 도교를 비롯한 중국의 고전적 전통적인 사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공산주의 국가라도 중공과 소련은 사회적 신앙이 다르고, 그 신앙의 다른 점은 두 나라의 가치관을 다르게 함으로, 문화창조의 방향도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신앙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생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온 재래종교의 문화적 공과를 고찰하여 봄으로 보다 바람직한 한국적 문화의 창조를 위해 오늘날 종교의 새로운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도 뜻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2)

중국으로부터 유교, 불교, 도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일찌기 한(韓)민족과 더불어 이 땅에 들어와 우리 역사와 함께 시작된 우리나라의 재래종교는 샤머니즘(Shamanism)이다. 이 샤머니즘은 원래 자연숭배 사상인 아니미즘(Animism, : 해, 달, 별, 거목, 기암괴석 등에 정령—Anima—이었다고 믿고 그 정령이 인간생활의 화복과 관계된 것으로 알아 숭배한 원시종교)에서 발전하여 종교적 체계를 갖춘 것으로 상고시대에 시베리아, 일본, 만몽지역(滿蒙地域)의 우랄 알타이(Ural-Altai)어계 각 민족사이에 널리 유행된 것이다.

샤머니즘 세계에서의 신앙의 대상은 신령인데 특히 한국에서는 태양을 천계(天界)의 왕으로 보아 하느님, 한 얼, 천신 등으로 불렀고, 인간의 혼백을 또한 가장 관계있는 영으로 믿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계(靈界) 혹은 신계에 대해 기원을 드리고 종교적 응답을 얻는 의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신사는 주술(呪術), 압승 등의 방법으로 신인간에 중재와 교통(Comunication)이 가능한 무사(巫師)를 통해서 행했다. 이렇게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역할을 하는 무사를 "샤먼"이라고 하는 바, 이는 만주

어의 "흥분하는 자" "도발하는 자" "요동하는 자" 등을 의미하는 말과 관련된 단어이다. 즉 샤먼은 영계를 탐지하고 영능을 행사할 수 있어서 제사, 주술 등으로 재액을 없이하고 복을 가져오게 하는 제사인 것이다. 좌전(左傳)에 「나라의 대사는 제사(祭事)와 군사(軍事)」라고 말한 것처럼, 상고시대처럼 정사가 극히 간단하고 종교적 의식이 씨족사회의 행사를 대표하고 있을 때에 신사를 맡아 다스리는 무사는 곧 그 사회의 정치, 문화, 군사, 경제, 종교 등 모든 것의 치도자였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사적 입장에서는 단군은 역사상 맨 처음 나타나는 무사(신인, 혹은 선인이라고도 부름)인 것이다.

이러한 무사는 남녀가 다 될 수 있는데 여자는 무당, 남자는 박수라는 호칭으로 전승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외래 고등 종교가 전래된 이후, 샤머니즘의 긍정적 요소(정신)는 그들 외래 종교의 토착화 과정에 작용하여 한국적 불교, 한국적 유교 등의 형성에 공헌하면서 흡수되고, 부정적 요소는 그들 독자적으로 역사의 이면에서 서민의 애환과 더불어 무속이라는 형태로 계속 존속해 오면서 여자 무당이 남자 박수보다는 주역을 담당하고 또 숫적으로 월등히 많아 흔히 샤먼하면 곧 무당을 말하기도 한다. 샤먼에는 선령과 교제하는 백(白)샤먼과 악령과 교제하는 흑(黑)샤먼이 있으며 한국의 샤먼은 대체로 백샤먼 계통이다. 이렇게 샤머니즘은 한국의 역사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종교계의 유일한 사회적 신앙으로 군림하면서 신라가 불교문화를 이룩할 때까지 문화적 모체가 되어 왔으며, 계속적으로 한국민의 종교적 심성(바탕)을 이룩하여 불교가 들어오면 그것의 한국화를 초래케 하고, 유교가 들어오면 한국유교의 문화적 개성을 만들면서, 또한 Shamanism의 일면은 그대로 서민과 더불어 역사의 뒤안길에서 무당과 함께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잘 되었건 못 되었건 오늘날 한국이 이 모습으로 있기까지 언제나 역사와 함께 살아 움직여 온 정신 유산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하여 샤머니즘의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먼저 긍정적인 면에서 샤머니즘의 공헌은 바이블이 없는 한국 역사에 하느님 사상을 전승해준 것이라 할 것이다. 샤머니즘은 본래 범신론이다. 그러나 그들은 전체의 영계를 지배하는 최고신이 있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에서는 그 최고신을 "하느님" "한님" "하눌님"이라 불러 왔다. 물론 이

"하느님"은 히브리 민족의 계시종교에서 바이블의 신으로 있어온 유일신과 같이 완전한 개념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계 어느 민족이 지녀온 최고신 개념에서보다도 바이블의 신에 근사한 신개념이다. 단군이 전해준 민족의 자랑스러운 고유사상인 "홍익인간"과 "붉" 사상은 한국 샤머니즘의 "하느님" 뜻에서 나온 것이라 볼 때 불교도, 유교도 이 "하느님"이라는 천신사상과 과협하지 않고는 한국에 토착화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되면서 바이블의 신을 "천주" 혹은 "하느님"으로 부름으로 사실상 한국민의 종교적 심성에 크게 부합된 바 있었으며 사실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아도 바울이 아덴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우상을 바이블의 신으로 설명하는 선교방법을 채택한다면, 한국에서의 천신은 아덴의 신보다 그대로 기독교 신으로 호칭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이래서 한국 재래종교로서의 샤머니즘은 하느님 신과 그로 인한 단군의 홍익인간 및 붉사상으로서 한국역사를 세계사의 와중에서 한국의 긍적적 개성으로 문화를 있게 한 국민적 신앙의 모체가 되어 역사적, 문화적 공헌을 했다고 보며 앞으로도 이 사상을 보다 훌륭히 융합,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종교만이 한국에서 토착 발전하리라 본다.

그러나 한국 샤머니즘은 부정적인 면에서 너무나 많은 역사적 불행의 원인을 만들었다. 일찌기 홍익인간, 붉, 사상같은 좋은 유산도 주었지만 또한 불행한 역사의 찌꺼기로 수없이 남겨 오늘날 우리들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종교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혼란과 후진성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적 유산은 무엇인가?

첫째, 사고의 비합리성이다. 오늘날 문화의 발전이란 과학과 연관시키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과학적 발전의 모체는 합리적 사고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서양문화의 정신적 기초가 된 기독교 신앙과, 희랍철학은 철두철미하게 인간에게 합리적 사고를 하고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휴머니즘은 민주주의를 만들게 했고, 만물은 인간 아래 인간을 위해 있음으로 인간은 자연을 개발 이용하는 능력 여하에 따라 잘 살고 못 산다는 인간 지상주의는 모험과 합리적 사고방식을 통한 과학의 개발을 낳았다. 이것이 오늘날 서양이 동양을 앞질러 물질문명의 왕국을 차지한 원인이다. 그러나 자연을 숭배한데서 출발

한 동양사상은 자연을 개발하게 하지 못했으며, 정령숭배와 귀신숭배는 모든 것을 비과학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미신을 숭배하게 했다. 요즈음도 정치인이 점쟁이 집을 찾고 대학입시 때면 교문에 떡과 엿이 붙는 것은 아직도 생생히 우리 국민의 심성에 살아남아 있는 샤머니즘의 유산이다. 이 유산은 오랜 불교문화와 유교문화가 제거하여 내지 못했다. 그것은 이 고등 종교들 자체가 너무나 안일하게 한국문화에 토착화 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우수한 문화의 모체는 열등한 문화권에 토착할 때 그 거부반응을 이길만한 정열과 힘을 갖고 투쟁해야 하며 그 방법은 순교의 피 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교와 유교는 너무 피를 적게 흘렸기 때문에 샤머니즘의 불행한 유산을 그대로 남겨놓고 말았다. 이제 이 나라에는 샤머니즘의 비합리성 비과학성을 제거할 강력한 새 종교가 국민의 종교로 등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의타성이다. 샤머니즘 세계에서는 천지신명이 우리들의 운명과 생활을 좌우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느덧 운명론이 지배하게 되고 길흉화복의 책임은 운명에 전가되어 신명만 의지한다. 이 의타심이 정치적으로는 사대주의가 되고 경제적으로는 노예근성을 만든다. 유교 효(孝)사상을 제도화한 조상제사도 사실의 효보다는 선조들의 영에 의존하여 현실의 복락을 얻으려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졌다. 병이 나면 스스로의 힘으로 과학적 치료를 해보려 하지 않고 무당에게 굿을 하게 하여 의타적으로 치유해보려 했다. 이것 역시 그 오랜 불교와 유교의 문화적 지배에도 말소되지 아니 하고 심어지 근대 기독교 안에까지 파고 들어와 교회의 본질을 변질시킬 뿐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 수많은 물의를 일으키는 신흥 유사종교들의 정신적 모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세째, 현실주의이다. 샤머니즘에 있어서 모든 욕구는 현재에 집결되어 있다. 현재 어떻게 모든 재액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안심하고 복된 생활을 즐길 수 있는가 하는 데에 관심과 초점이 있다. 그러므로 영원과 함께 하는 내일이 없다(순수한 우리 말로는 어제와 오늘은 있어도 내일은 "來日"이라는 한자 표기 뿐이다). 이러한 심성에서는 심오한 철학도 종교도 발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해탈과 인간존재의 영원한 근원적 문제해결에 본의를 둔 불교도 호국불교라는 현실주의적 교리를 중심으로 국가와 결속할 수 있었고 재앙을 없애고 복을 비는 기도 불

교로서만 민중과 영합되었다. 이율곡의 십만 양병론은 현실주의자들에 의해 좌절되고, 충무공의 미래적 안목은 수난과 모멸의 곤욕을 겪었다. 이러한 현실주의는 또한 의타적인 성격과 보수적인 성격을 동반했기 때문에 근대적인 자본주의도 과학도 발전하지 못하고 단순한 현금주의에 머물고 만 것이다.

(3)

그러면 이같은 재래종교의 유산 속에서 오늘 이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대 종교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미 말했거니와 국가의 운명은 사회적 신앙이 그 기초를 놓고 사회적 신앙은 국민의 종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대 종교는 그 사명이 명확해진다. 모든 외래 종교는 역사가 말해주듯이 그 토착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재래적인 것을 전부 무시해 버리고, 외국의 교리와 문화를 그대로 이양하려 한다면, 거부반응에 의해 발 붙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고유종교 사상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그 종교가 일시적 융성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종교는 이미 그 본질을 상실할 수 밖에 없으며 아무런 문화적 공헌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적 혼란을 보태는 일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서 가장 바람직한 종교와 그 종교의 사명은

첫째, 한국의 재래 샤머니즘 중에서 한국 문화에 주체적으로 공헌한 하느님 사상과 그 내용인 홍익인간 및 붉사상에 토착화 할 수 있어서 이것을 더 완전하게 현대사상으로 완성하는 것일 것이며,

둘째, Shamanism의 모든 부정적인 정신 유산인 비합리성, 의타성, 미신성, 현실주의적 성격 등을 과감하고 힘있게 그러면서도 설득력 있는 교리로서 제거하거나 지양(止揚)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종교는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 새로운 문화창조를 위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종교이며 또 영원히 역사에 공헌하고 번영하는 종교가 될 것이다.

참으로 많은 종교가 이 땅에도 있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수행하는 종교만이 생명의 종교이고 참 종교이며 발전할 수 있는 종교인 것이다.

시간과 성공

전 을 성

시간과 성공이란 말은 평범하면서도 가장 사람들에게 깊숙이 뿌리박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 있다. 창조자가 자유로운 재물을 누구에게나 주었듯이 시간도 만인에게 골고루 주었다. 그러나 성공이란 것은 그렇지 못하다. 눈물겨운 노력을 하여 성공의 언덕에 올라 인생을 아름답게, 보람있게 살 뿐만 아니라 국가에 공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패배자로서 인생을 실패의 그늘 아래 보내며 사라지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은 것을 역사를 통해서 주위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성공"이란 말만 들어도 젊은이들의 마음에는 뭉클거리며 또한 먼저 착잡한 생각이 생기는 것을 금치 못한다. 왜 그럴까? 시간에 대해서 충실치 못하기 때문이다.

1. 시간은 금이다.

사람들이 얼마의 돈을 잃어버리거나 낭비를 하였으면 그것에 대하여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며 그 잃어버린 액수나 낭비한 액수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 그러나 금보다 귀한 시간은 무의미하게 탕진하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가?

시간은 금(金)이다. 만일 시간이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라 한다면 시간의 낭비야 말로 최대의 낭비임에 틀림이 없다. 더욱 심하게 서양 속담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곧 자살자(自殺者)이다"라는 말이 있다. 한번 잃은 시간은 두번 다시 발견할 수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언제나 후에 가서는 시간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 일어나 일을 하자꾸나. 목적(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자꾸나. 열

심히 일하면 흔미함도 없어지는 것이다. 게으름을 부리고 있으면 만사가 어렵게 되지만 근면하면 그만큼 만사가 쉽게 된다. 아침에 늦잠을 자는 자는 온종일 뛰어다니지 않으면 안 되며 밤이 되어도 이불 되찾을 길이 없다. 나태한 자는 느릿느릿 걷고 있는 동안에 즉시 가난에게 잡히고 만다. 일을 쫓아다녀라. 일에게 쫓기지 말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건강하고 부자이며 현명한 사람을 만든다. 잠언 6:10~11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한 말씀도 시간과 인간의 부에 대하여 심각하게 경고한다. 내가 신학대학 3학년 때이다. 모처럼 친구들과 배운대 등산을 하게 되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의 모습을 피부로 느끼며 하루를 보내고 기쁜 발걸음으로 백운대를 내려 오고 있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술에 흠뻑 취하여 해가는 줄도 모르고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노나니" 깨어지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서로 껑실덩실 춤을 추고 있지 않겠는가! 나는 거기서 그들의 모습을 한참 주시하다가 슬픈 마음과 나 자신을 반성하면서 발걸음을 돌린 적이 있다. 기분 좋게 노는 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는 바야흐로 민족중흥을 향해 힘찬 도약을 내보이고 있는 때이며 젊은이들의 창조적 지혜와 역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을 때 퇴폐적인 사상이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 점이다.

개인이나 국가가 부를 이루는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2. 시간은 밭이고 성공은 열매다.

성공의 배후에는 반드시 눈물겨운 노력이 있는 법이다. 사람은 자기가 심는 것을 거둔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둔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는 법이 없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올 까닭이 없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전혀 심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거둔다. 인생은 인과응보의 철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수고없이는 아무 일도 안 되며 땀과 정성의 투자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우리는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시간은 밭이고 성공은 열매이다. 시간이란 밭에 남달리 목적하는 바의 씨를 뿌리고 남달리 노력하고, 남달리 성실하고, 남달리 인내하고, 남달리 땀을 흘리고, 남달리 용감하고, 남달리 모험하고, 남달리 창의성을 가지고 바친 시간을 다룰 때 남달리 성공의 열매를

획득할 수 있다.

3. 시간은 기회이다.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라고 했다. 곧 이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때를 분별하라고 경성케 하는 말이다.

"소년은 이로하고 학난성(少年易老學難成)하니 일촌의 광음은 불가경(一寸光陰不可輕)이라"함은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힘드니 세월의 촌각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다. 옛사람의 말에 "흘러가는 똑같은 강물에 두번 다시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하였고, 일본의 내촌씨는 "과거도 내 시간이 아니요, 미래도 내 시간이 아니요, 현재만이 내시간이다"하는 엄연한 사실을 말했다.

4. 성공은 꾸준한 전진의 시간을 요한다.

꾸준한 노력과 쉼없는 전진으로 성공의 정상에 오른 것이다. 장구도 10년을 쳐야 제소리가 난다고 한다. 서서히 그러나 쉼없이 전진해야 한다. 무슨 일에나 한가지 일에 10년쯤 애를 써야 일가견이 생기며 저다운 신념이 솟는다. 공안 들이고 성공하는 길이 없을까 생각한다. 성공에는 절대로 지름길이 없다. 무슨 모험이나 부정한 수단을 써서 단번에 성공을 취하려고 한다. 벼락부자, 벼락출세, 벼락성공을 꿈꾼다. 이런 생각이야 말로 벼락 맞을 생각이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크린은 처음에 인쇄소 직공으로 있으면서 날마다 장시간 노동을 해야 했지만 그런 중에서도 조금의 여가의 시간을 이용하여 한번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책을 읽고 문장을 썼다. 그러나 장구한 노력이 마침내는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기자, 저술가가 되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외교가를 겸한 정치가 심지어는 피뢰침의 발명까지 하였던 것이다.

누구나 잘 아는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도 처음에는 농사 일을 돕기도 하고 선원이 되기도 하고 혹은 어느 잡화상 점원으로서 하루에도 긴 시간을 일해야 했지만 그도 역시 남은 몇 시간을 아껴서 꾸준히 공부하였던 것이다. 방직 공장에서 필요한 조면기를 발명해서 유명해진 휘트니는 학교 교사였지만 틈틈히 시간을 이용하여 기계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다.

성공할 수 있도록 시간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최대 한도로 사용하고 붙잡아야 한다. 그리고 초조하고

성급한 마음으로 성공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군목의 사명

정 필 도

예레미야서 1장 18~19절·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다. 그는 BC 6세기에 나타나 유태나라가 멸망해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외친 선지자였던 것이다.

이 당시 유태민족은 타락할대로 타락해서 예루살렘 거리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러한 시대에 나타난 예레미야는 하느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하느님이 같이 하신다는 확신과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요, 또한 예레미야로 하여금 모든 위협과 공포를 이기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Strong Image인 것이다.

이러한 Image는 우리 군목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우리 공군장병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셨다는 확신,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신이 필요한 것이다.

첫째로, 하느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였다"고 하였다.

성읍은 견고해야 한다. 그런데 그 성읍이 견고한지 못한지는 겉만 보거나 평소에는 모른다. 홍수나 태풍이 몰려와 봐야 안다. 견고한 성읍은 평소보다 환난 때에 오히려 더 빛이 나고 값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도 얼마나 견고한 신앙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평소에는 몰라. 도 환난이나 시험을 당해 봐야 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될까?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중생의 체험을 확실히 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하고 하느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일 것이다. 그 뿐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다.

우리 군목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하느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Image는, "너를 쇠기둥이 되게 하였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를 가리켜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집 구조를 보면 기둥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둥은 지붕을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기둥의 강약에 따라 집의 생명이 좌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느 교회나 단체든지 이 기둥과 같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다. 특히 우리 군목들은 한국 공군의 교회를 짊어지고 있는 기둥이요, 군목들이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전 장병들의 신앙이 좌우된다. 특히 전 장병들의 정신문제가 군목들의 충성 여부에 따라 사활(死活)이 좌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목들은 기둥처럼 맡은 일을 책임지고 충성스럽게 수행하여야 한 것이다.

세번째로, 하느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Image는 "너를 놋성벽이 되게 하였다"는 것이었다.

성벽은 본래 외적의 침입을 막거나 홍수가 났을 때에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다. 우리 군목에게는 바로 성벽과 같은 사명이 있다. 오늘날의 사회는 불의와 부정이 심하고 부조리와 부도덕이 판을 치고 있다. 10월유신의 참뜻도 이러한 혼탁한 사회를 맑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군대사회도 이 사회의 영향을 받아 죄악과 혼돈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이런 특수사회 속에 뛰어들어가야 하

는 군목들은 참으로 놋성벽과 같은 사명을 다 해야 하는 것이다. 즉 군목 한 사람이 그 부대에 있으므로 해서 그 부대의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장병들의 생활이 변화되고 그 부대의 분위기가 변화될지언정 군목들까지 속화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군목은 놋성벽처럼 불의와 부정과 부조리의 물결을 막아내는 사명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군목들은,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 더운 피가 식기 전에는 절대로 이 불의와 부정과 부도덕의 세력이 들어 올 수 없다!"고 생명을 걸고 정의와 경건을 사수할 수 있는 놋성벽의 사명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장 개석 정권이 중공세력에게 쫓겨나게 만으로 오게 된 것이나. 오늘날의 월남정권이 위태로운 것은 바로 부정, 부패와 도덕적 타락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불의와 부도덕을 막아내는 문제는 이 민족의 생존의 문제이다. 특히 불의와 부도덕은 군대를 약화시키는 최대의 적이다. 그러므로 군목들은 예레미야가 가졌던 Image를 가지고 사명을 다 하며 Living Power를 가지고 참사는 운동을 일으키는 일꾼이 되어야겠다.

□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

○—이념의 퇴색이 있을 수 없고, 정열의 생각이 있을 수 없다. 왜! 우리의 근대화는 세계사의 과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며 또 지금 이 시기는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마지막 중흥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혁명의 불길을 영원히 살려야 한다. 그것이 꺼지는 날 우리는 영영 세계사의 진운(進運)에서 탈락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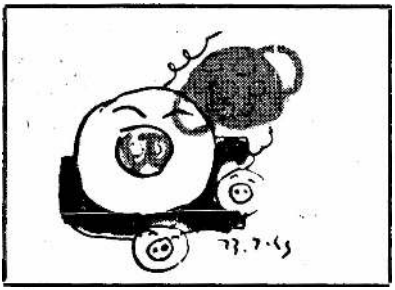
— 1970. 5. 16. 민족상 시상식 치사에서 —

○—유신과업은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를 위한 과업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지상과업이다.

— 73년도 신년사에서 —

돼지 사육법

손 행 남



조그마한 뜰을 가진 가정에서 손쉽게 한 두마리를 기를 수도 있고 수십마리를 기업화하여 사육할 수도 있는 양돈사업은 정확한 지식만 있다면 가장 착실한 부업이 될 수도 있다.

최근에 비약적인 각광을 받기 시작한 부업 가운데 하나가 양돈사업이다. 돈육의 해외수출량이 증대함에 따라 국내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지 못해 돼지고기의 품귀현상을 빚기까지도 했다.

우리가 가정에서 손쉽게 한 두마리를 키울 수도 있고 수십마리를 기업사육할 수도 있는 양돈사업은 정확한 지식만 있다면 가장 착실한 소득증대의 수단이라 하겠다.

양돈사업은 자금의 회전기간이 빠른 것이 장점이다. 교미 후 4개월이면 새끼를 낳고 생후 8개월이면 새끼를 낳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1대(代)가 12개월 밖에 걸리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재래종이 많이 있지만 「렌드레이스」종이나 「버크셔」종 등 신종도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렌드레이스」는 번식률이 높고 성장이 빨라서 환영받고 있는데 최고 22마리의 새끼를 낳은 기록이 있어 양돈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데 평균 11~12마리의 생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반면 「렌드레이스」는 질병에 약하기 때문에 그 점을 보완하는 의미에

서 「랜드레이스」 암컷과 「요크샤」 수컷의 교배잡종 f1을 얻어 이것을 식육돈으로 사육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돼지는 1년중 봄과 가을에 새끼를 낳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낳는 달보다 4개월 앞서서 교미시키는 것이 상식이다.

1. 새끼돼지 내기와 돌보기

1) 새끼 낳기의 돌보기

가. 돼지는 접붙인 후 114일만에 새끼를 낳게 되며 돼지가 깔 짚을 물어 모으면 새끼날 때가 가까와진 것이며 새끼 낳기는 보통 5~30분 간격으로 2~3시간에 끝난다.

나. 분만예정일 3~4일 전부터 밤에는 등불을 준비하여 항상 동태를 살펴야 한다.

다. 걸레나 가제(짚을 부드럽게 만들어 두어도 된다), 옥도정기, 칼 또는 가위

라. 새끼받이 상자(대 광우리나 큰 바구니)

마. 통나무나 굵은 나무토막으로 분만책(分娩柵)을 돼지우리에 만들어 두어야 한다.

바. 새끼가 분만되면 준비했던 걸레나 짚으로 먼저 코끝과 입가를 닦은 다음 온몸에 묻어있는 점액(粘液)과 피막(皮膜)을 닦아준다.

사. 대줄을 약 4~5센티쯤 남겨 실로 결박하고 자르며 그 끝에다 소독약을 바른다.

아. 분만 직후 거의 죽어가는 새끼돼지는 콧구멍을 불고 몸을 흔들어 전신운동과 인공호흡을 시키며 알콜이나 소주 등을 입가에 발라준다.

자. 태반(胎盤)이나 죽은 새끼는 어미돼지가 못먹도록 곧 치워야 하며 되도록 조용히 한다.

2) 새끼돼지의 젖먹이기

가. 분만시간이 5시간 이상 끌게되면 먼저 분만된 새끼돼지는 먼저 젖을 먹이도록 한다.

나. 어미돼지 한 마리에 맡길 수 있는 새끼돼지의 수는 몸이 다 자랐고, 젖나는 능력이 좋으면 10마리 정도, 초산돈으로 몸집이 작으면 8마리 정도가 적당하다.

다. 새끼돼지는 깔려 죽을 염려가 많으니 처음 2~3일은 특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3) 첫젖(初乳)

새끼를 낳고 며칠 동안의 젖은 보통

젖과 달라서 단백질 함량이 약 3~5배 많고 특히 비타민A는 약 10배쯤 더 들어있으며 새끼돼지의 태뇨(胎尿)를 배설시키고 병에 대한 면역항체(免疫抗體)도 가지고 있으니 출생한 후 며칠 동안은 꼭 먹여야 한다.

4) 어미돼지의 먹이기

가. 새끼낳은 직후부터 많은 사료를 주면 유방염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니 묽은 밀기울죽, 물 등을 주고 7~10일 후에 정상적인 양을 준다.

나. 사료의 양은 딸린 새끼돼지의 수에 따라 다르나 생후 2~3주째가 젖나는 양이 가장 많으니 사료를 보통 때의 5~10퍼센트 더 주어야 한다.

5) 새끼돼지의 사료 먹이기

생후 2~3주 경부터 삶은 고구마와 밥찌꺼기 또는 밀기울, 쌀겨, 어분, 우유가루 따위의 여러가지 사료를 섞어서 새끼돼지만이 먹을 수 있는 곳에 따로 마련하여 하루 4~5회씩 준다.

6) 젖떼기와 방법

새끼돼지는 45~50일간 젖을 먹여 체중이 12킬로그람(바크샤의 경우) 이상 되었을 때 젖떼기를 하되 급작스럽게 떼어서는 안 된다.

2. 식용돼지와 사료공급

돼지는 보통 교미 후 4개월이면 새끼를 낳는다. 그리고 새끼가 자라서 8개월이면 다시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대(代)가 12개월 밖에 걸리지 않는 셈이다.

더구나 식용으로 쓰이는 돼지는 젖을 뗀 후 4~5개월이면 족하기 때문에 생후 50일만에 젖을 뗀 새끼는 도합 6개월 정도면 상품으로 완전히 성장하게 된다.

젖을 떼는데 가장 적당한 시기는 56~60일인데 우리나라 농가에서는 흔히 40일만에 젖을 떼는 일이 많아서 발육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겠다.

젖떼는 기간이 40일일 때에는 체중이 8킬로그람 내외이며 56~60일에는 12~15킬로그람이 된다.

이 때의 새끼돼지는 7천원~8천원이 적정가격이라 하겠으나 최근에는 올라서 1만 2천원까지도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쨌든 1만원 미만으로 생후 60일의 새끼를 구입하여 4~5개월 자라면 최고 90킬로그람의 돼지로 큰다. 이러한 성장은 좋은 사료로 관리를 잘 했을 경우의 성과임은 물론이다.

가장 좋은 사료를 먹일 때 4대 1의 비율, 즉 4킬로그람의 사료로 1킬로그람의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후 60일인 15킬로그람의 새끼에서 90킬로그람이 되려면 75킬로그람이 더 늘어야 하므로 필요한 사료는 그 4배인 3백킬로그람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3. 기생충 구제와 질병예방

돼지의 기생충은 크게 체외(體外) 기생충(진드기·벼룩·이 등)과 체내(體內) 기생충(회충·흡충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같은 기생충은 돼지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산재되어 있어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

양돈을 하는 사람은 대개 돼지콜레라와 같은 급성전염병에 비해 만성적인 기생충병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적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1) 회 충

돼지의 회충은 황색을 띤 연필만한 크기의 선충이며, 소장에 주로 기생하나 위, 대장, 담관을 비롯해 통로가 트인 곳이면 어디든지 기생한다.

증상……소화장애, 식욕부진, 빈혈, 발육지연 등이 특징이며 어린돼지는 흔히 복통으로 고생할 뿐 아니라 심하면 전신경련을 일으키고 죽는 수도 있다.

유충이 허파 안에 밀집되어 가득 차 있는 것이 원인이 되는 수가 많다.

치료와 예방……회충약으로 우수한 것은 「피페라진」이나 가격이 비싸 실용적이 못되므로 불화소다를 쓰는 것이 좋다.

예방법으로는 산실(産室)을 깨끗이 하고 포유돈은 유방 근처를 잘 씻어주고 포유자돈을 깨끗한 돈사에 두는 것이 좋으며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위생관리 방법에 준한다.

2) 대구두충

유백색 내지 푸른 빛이 도는 큰 연필만한 크기의 선충으로 숙주의 장막 깊숙이 결착하고 있다.

증상……본충이 결착한 부위는 약간 부어 있고 두드러지게 결절을 형성하고 있어 장외 막에서도 이것을 알 수 있으나 임상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때로 장벽이 파열되어 장막염의 원인이 되는 수가 있다.

치료와 예방……이렇다 할 효과가 있는 약이 없어 예방에 힘쓸 것을 기해야 한다. 예방법으로 콘크리트 바닥을 만들어 주어 땅을 파지 못하게 하여 굼벵이를 돼지가 먹지 못하게 한다.

3) 돼지의 신충

길이 2.5~5센티미터의 비둔하고 빛

은 얼룩덜룩하며 성충은 콩팥 주위에 포낭을 형성하고 그 속에 들어 있으며 때로는 콩팥 내에 침입하기도 한다.

증상……외모가 건전치 못하게 보일 뿐 특별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신충에 감염된 부분은 식육검사에 불합격이다.

치료와 예방……아직 좋은 치료방법은 없고 예방법으로는 배수조건을 개선하고 자리깃 또는 오물 처리를 청결히 하고 양돈장 및 방목지는 음습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오줌처리에 유의하며 모돈한테서 자돈의 집단감염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4) 돼지의 위충류

적색 위충의 경우 외계에 배출되면 수일 내에 부화되어 그 유충이 물이나 사료에 섞이어 숙주에 침입한다.

비대위충은 중간 숙주가 돼지똥을 먹음으로써 충란을 먹게 되고 이에 감염된 풍뎅이를 돼지가 먹음으로 감염된다.

증상……심한 소화장애를 일으켜 수척하게 된다.

치료와 예방……이유화탄소를 체중 1백파운드에 대하여 8~10cc를 교갑에 넣어서 먹이거나 위「카테메루」를 사용하여 먹이되 투약 전 34~48시간 굶긴다.

예방법으로는 먹이통, 물그릇을 청결하게 하고 똥을 빨리 치워주는 등 감염기회를 주지 않도록 한다.

5) 돼지의 폐충류

돈폐충, 비음폐충 등이 있는데 이는 공동기생이 많고 살미폐충 등은 그다지 빈번하지 않다. 길이 1.2~5센티미터가 되는 백색선충이다.

증상……기침을 하는 것이 특징적인 증상이며 환돈은 기침과 함께 점차 쇠약하게 된다. 이 증상은 어린 돼지에 심하며 폐염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치료와 예방……5퍼센트 불화나토리움 10cc를 기관 안에 주입하면 증고 지렁이에 접근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여 준다.

환돈은 격리시키고 오래 사용한 양돈장이나 방목지는 바꾸어야 한다.

6) 돈낭충과 세경낭충

돈낭충은 사람에게, 세경낭충은 개에게 기생하는 갈구리촌충의 유생이다.

증상……살아있는 동안에는 별 증상이 없고 잡은 후에 발견된다. 이 기생충에 감염된 돼지고기는 사람의 보건상 위험이 있으므로 판매를 금지한다.

치료와 예방……적당한 치료방법은 없고 예방법으로 돼지끼리 직접·간접적으로 인분에 접근함을 막고 식육검사를 철저히 할 것이며 사람이 먹지 못하는 병든 부분을 개에게 먹이지 말 것 등

이다.

7) 장결절충

「돈장결절충·장미결절충·단미결절충」이 있으며 유충시절에는 장벽내에 잠입하여 있다가 성장한 후에 장안에 기생한다.

증상……전신이 쇠약해지고 「피모가 거칠게 보이며 빈혈증이 생기고 설사와 변비증이 빈발하는 공통적인 기생충병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 기생충에 걸린 돼지는 다른 기생충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치료와 예방……「희노다이아진」 요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90퍼센트 살충할 수 있는 용량은 1백파운드에 20그람 정도를 일정기간 반복투여함이 좋다. 「피페라진도」 유효하다.

예방법으로는 일반적인 위생관리와 영양상태의 향상을 꾀해야 하며 일광과 배수를 잘 해서 건조하게 만들어 충란을 없애도록 한다.

◇ 세계 명언 ◇

◇ 평화는 모든 정의보다 더욱 중요하다. 평화는 정의를 위하여 만들어지지 않으며, 정의가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다.

— M·루 터 —

◇ 무장하지 않는 평화는 약하다.

— G·허버트 —

◇ 평화가 이루어져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은 멸시될 수 없는 금언이다.

— O·크롬웰 —

◇ 어느 곳에서든 평화가 깨졌을 때 모든 곳의 모든 나라의 평화는 위험하다.

— F·D·루즈벨트 —

즐거운 실내게임

김 남 기

● 일반 게임놀이

1. 게임에 대한 개념

게임을 하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다. 원숭이도 고양이도 개도 말도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게임을 하고 있다. 다만 사람처럼 규칙이나 사전의 합의가 없이 난폭하게 즐길 뿐인 것이다. 그래도 같은 짐승끼리 서로 모여서 1대1로, 혹은 떼를 지어서 게임놀이를 하는데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하는 게임에 이르러서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게임놀이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다.

여기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흥미진진한 실내게임놀이만을 추려 보았다.

그리고 여기서는 너무 거추장스러운 도구나 준비가 필요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생략했다.

옛날부터 서양에서는 「일만 하고 놀이를 즐길 수 없으면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격언이 일러내려오고 있어 현인(賢人)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모두 바쁜 중에서도 틈을 타서 게임놀이 하기를 잊지 않았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으론 동양에서도 진나라 시대에 죽림의 일곱 현인이 주흥과 시흥을 돋구기 위해서 주먹놀이를 즐겼다

는 유명한 이야기이다.

영국의 전 수상 처칠경이 벽돌을 쌓거나, 그림을 그렸으며, 미국의 트루만 전 대통령이 주말휴양을 요트타기로 즐겼다는 사실은 제아무리 현인이나 바쁜 사람이라도 휴양이나 기분전환을 위해서 레크리에이션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파티 게임

● 창작놀이

먼저 인원을 세패로 나눈다. 다음에 손바닥만한 종이를 전원에게 나누어 준다. 그리고 난 후, A편에는 누구나가 알 수 있을만한 소설가의 이름을 쓰도록 한다. B편에서는 소설의 제목을, C편에서는 간단한 비평을, 이를테면 「전쟁문학의 최고봉」이라든가, 「청소년 필독의 서」와 같은 식으로 전부 쓰도록 하여, 편대로 모아서 뒤집어 놓고 A편, B편, C편에서 각각 한장씩, 도합 3장을 하나로 해서 그것을 차례로 읽는다.

반드시 대걸작품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예를 들면 「차탈레이 부인의 사랑」「청소년 필독의 서」와 같은 걸작 폭소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 땅, 물, 바람, 불

전원을 둥글게 둘러앉힌다. 술래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의 무릎 위에 손수건을 던지고 「땅」, 「바람」 또는 「불」, 「물」이라고 한다. 이때 술래가 「땅」했을 때는 손수건을 받은 사람은 땅위를 달리는 동물의 이름을 하나 대어야 한다.

「바람」 하면 하늘을 나는 동물, 「물」 하면 물속에서의 동물을, 다만 「불」했을 때는 지적받은 사람은 잠자코 있어야 한다. 적당한 동물의 이름을 대지 못하거나 「불」했을 때 입을 열면 반점을 받게 된다.

벌점을 세개 받게 되면 벌금을 물든지 다른 여흥을 여러 사람 앞에서 해보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에는 한번 댄 동물의 이름을 두번 다시 대서는 안 된다.

3. 재주부리기 게임

● 밀크병 타기

주둥이가 넓은 한개의 우유병을 한가운데에 놓는다. 재주를 부릴 사람은 병위에 앉는 것인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바른발로 몸의 중심을 잡으면서 왼발을 바른발 위에 걸쳐서 양쪽 발의 뒤꿈치 위에 조용히 앉는다. 그리고 한손엔 성냥을, 다른 한손에 담배를 들고 몸의 균형을 잡는다. 몸의 균형이 잡혔으면 카아드나 연필에 이름을 새달라고 해도 좋겠다.

● 촛불 켜기

두 사람이 방석을 깔고 엎드려서 서로 마주 본다. 두 사람의 거리는 서로 손을 뻗혀 상대방의 손이 닿을 정도이다. 두 사람의 바른손에 초 하나씩을 들게 하는데 A의 초에는 불을 켜고 B의 초에는 불을 켜지 않은채 들게 한다.

두 사람이 다 왼쪽 다리를 들고 각자 왼손으로 잡는다. 그리고 두 사람은 불이 켜있지 않은 초에다 불이 붙은 초로서 불을 붙이는 것인데 이때 어느 쪽이든지 왼쪽 무릎을 방바닥에 대면 그 편은 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몇편을 짜가지고 각 편의 시간을 재어 제일 짧은 시간에 불을 붙인 편이 이긴 것으로 한다.

4. 명절에 할만한 게임

● 아베크 좁쌀좁기

좁쌀 스무알을 방바닥에 쏟아놓고, 한 사람이 공기를 들고 한 사람이 앞지른 좁쌀을 숟가락으로 한톨도 남기지 않고 공기에 주어담는 놀이이다. 이때 빨리 한 편이 이기는데 이때 양손을 쓰면 안 된다.

5. 손쉬운 요술

● 컵에 달라붙는 동전

「자, 여기에 들고 있는 컵에 동전이 달라붙게 해보이겠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투명한 컵이니까 아무 비밀도 특수장치도 없읍니다」라고 그럴듯하게 말을 한·후 컵 속에 한 개의 동전을 떨어뜨린다.

이것을 두세번 흔든 다음에 「얏」하는 호령과 함께 컵을 거꾸로 엎는다. 그러면 놀랍고 신기하게도 동전이 찰깍 달라붙어 떨어지질 않는다.

요령 이것은 물리학의 응용으로서 당연한 일로, 컵 밑에 두어방울의 물을 떨어뜨려 놓는 것이 골자이다.

● 잘라진 바나나

「바나나의 껍질을 벗기지 않고, 바나나의 알맹이만 잘라보이겠읍니다」하고 바나나를 앞에 놓고 칼을 잡는다.

「이것은 완전히 정신을 통일하지 못하면 안 되는 기합술이기 때문에 힘도 드는 것이지만 여러분은 내가 정신을 통일한 수 있도록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제스추어를 하며 눈을 감고 정신통일을 시키는 척 한다.

그 다음에 서서히 눈을 뜨고 칼을 바나나 위에 댄채 「에잇」하고 온몸의 힘을 합해서 힘있는 소리를 낸다. 그리고 바나나를 세워 들고 천천히 껍질을 깐다. 바나나를 옆으로 기울이면 바나나는 반쯤 갈라져서 옆으로 떨어진다.

「오랫동안 기합술을 배운 덕택이다」하면 아주 그럴듯하다.

요령 미리 가는 실을 껀 바늘로 바나나의 중간의 한 군데서부터 껍질 밑을 스쳐서 바늘을 찌르고, 나온 바늘을 잡아당니며 실을 충분히 남겨놓고 잡아당겨서 먼저 나온 바늘구멍으로 다시 바늘을 찌른 후 실을 조금 느슨히 잡아당기고 이것을 되풀이해서 바나나의 중앙부를 일주한다. 그리고 제일 처음의 바늘 구멍에서 바늘을 꺼내어 실의 양쪽 끝을 잡아당기면 바나나의 알맹이는 잘라지고 실이 전부 나와버린다.

● **트럼프의 요술**

구경하는 사람에게 트럼프를 전부 주어서 잘 치도록 한다.

「그 트럼프를 제가 보지 않도록 뒤로 엎어서 돌려주십시오. 그 표가 무엇인지 척척 맞추어보겠읍니다」하고 구경하는 사람에게서 뒤로 엎은 카아드 한장을 받는다.

「이것은 다이어몬드 3」또 한장「이번에는 하트의 5이지요」하고 몇장이라도 백발백중 맞춥니다.

요령 아무 것도 아니다. 카아드를 쥐는 방법에 달려있는 것이다. 카아드의 뒤에서 활처럼 반대로 조금 굽히는듯 하면 카아드의 밑구석의 글자가 잘보인다. 이번에는 자기가 카아드를 가지고 맞추는 것이지만, 먼저 카아드를 잘 친다.「트럼프를 앞에 내놓고 뒤에서 무슨 카아드인가를 한장 한장 맞추어 보겠읍니다」라고 말하고, 카아드를 잘쳐서 그리고 카아드를 등 뒤에 돌려 조금 쳐서 구경하는 사람에게 겉을 보여준다.

「그럼, 먼저 여러분이 말해 주십시오. 스페스 5입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부터 제가 맞추어 보겠읍니다」라고 말하면서 등 뒤에서 한장 뽑아선 앞에 내밀고「이것은 하트 1입니다」「그 다음은 다이어몬드 3」「다음은 클로버 7」하고 계속 맞추어 나간다.

요령 이것은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한 것이다. 트럼프를 반쯤 등을 맞대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먼저 잘 쳐서, 등 뒤에 돌렸을 때에 치는 시늉을 해서 반쯤의 카아드를 그림과 같이 등을 맞대서 앞에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장의 다음은 자기 눈앞에 앞쪽이 향해있으니까 알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6. 알아맞추기 게임

다음에 가장 간단한 것을 들어보겠다. 이 게임은 알아맞추는 사람과 조수 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연락을 취하고, 될 수 있으면 사전에 미리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 손을 들고

「이제 제가 돌아와서 누가 손을 들었나 맞추어 보겠읍니다」하고 알아맞추는 사람은 방에서 나간다.

그리고는 옆방에서 「여러분 중에서 누구든지 한 사람만 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한다.

조금 있다가 「지금 손을 들고 있으면 그대로 들고 계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리를 짜주십시오」라고 말한다.

또 조금 있다가 「다리를 서로 짰으면 위에 든 손을 안 든 손과 나란히 놔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곧 방으로 돌아온다. 여러 사람의 다리를 조사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 손입니다」하고 맞춘다.

요령 한동안 높이 들고 있었던 손은 피가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손보다는 파랗게 보여서 곧 알아낼 수가있다.

● 당신의 연령은

상대방의 나이를 맞추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읍니다.

먼저 바둑알 11개를 상대방에게 주어 자기 나이만큼 되풀이해가면서 세어서 남은 바둑알의 수를 묻고, 다음에 또 9개의 바둑알을 주어, 전과 마찬가지로 자기 나이만큼 세어서 남은 수를 물어 그 사람의 나이가 몇살인지를 맞추는 것이다.

요령 11개인 때에 남는 수에 54를 곱하고, 이것에다 9개인 때에 남는 수에다 44를 곱한 답을 보탠 것을 다시 99로 나눈 다음 나머지의 수가 바른 나이이다.

즉 상대방이 42세라면 11개인 때는 2개가 남고, 9개인 때는 3이 남으니까 2와 54를 곱하면 답 180과 3에 44를 곱한 답 132와의 합계(240)에 99로 나눈 다음 나머지의 수 2가 남으니까, 42세가 상대방의 연령인 것이다.

또 22세인 때는 11개의바둑알로 세면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9개인 때는 5개가 남으니까 역시 5에 44를 곱하고 99로 나눈 다음 나머지 22가 그의 나이입니다.

외국의 게임

1. 트럼프 게임

트럼프 게임의 수는 굉장히 많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나는 것 몇가지만을 추려서 게임하는 방법을 적기로 하겠다. 먼저 게임을 적기 전에 트럼프의 등급을 설명하겠다.

트럼프의 등급은 클로버, 다이어몬드, 하트, 스페이드의 4종류를 통해 에이스(1)가 최상위고 다음에 킹, 퀸, 잭크, 10, 9, 8, 7, 6, 5, 4, 3, 2의 순서로 수가 적은 표일수록 하위이다.

죠커는 그때 그때 게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 사용법도 경기의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 사용법도 경기에 따라 서로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가장 센 표라고 생각하면 된다.

● 포 커

포커는 유럽과 미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게임으로 그 재미는 수많은 트럼프 게임 중에서도 제 1위를 차지한다.

포커경기는 언뜻 보기엔 대부분을 운이 차지하고 있어 별로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용할 표는 죠커를 제외한 52이며 사람의 수는 5, 6명 정도면 적당하다. 이 경기에는 칩스(거는 것)를 사용한다. 칩스는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 칩스에는 포커용의 셀루로이드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있으나 바둑알로 대신 써도 무방하다. 경기 방법은 먼저 물주가(데일러) 표를 각각 한번에 한장씩 다섯장을 나눈다. 그리고 분배를 마치면 남은 표를 자기 앞에 쌓아둔다. 다음엔 물주의 왼쪽 사람부터 차례로 각자가 가진 표를 한장에서부터 다섯장까지 몇장이라도 좋은 수만큼 물주에게서 쌓아둔 표와 바꿔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바꿀 필요가 없으면 안 바꿔도 좋다.— 물주는 각자의 표를 다 바꿔준 다음에 자기 것을 바꾼다. 그러나 손에는 표와 쌓아둔 표를 바꾸는 것은 이때 단 한번 뿐이다.

그러니까 서투른 초심자는 잘 주의하지 않으면 표를 바꾸기 때문에 도리어 손해를 보는 수가 있다. 다른 게임이면 몇번이라도 손에 든 표를 판에 내놓고, 쌓아놓은 표에서 새 것을 가져 자기에게 유리하게 꾸며 나갈 수 있지만 포커는 단 한번으로 승부의 기본을 삼게 되는 것이다.

● 21

게임을 할 사람은 세 사람 이상이면 된다. 이 게임은 죠커를 사용해도 좋고,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 만일 죠커를 사용한다면 죠커는 0점이든지, 2점이든지, 몇점으로도 통용된다.

표의 점수는 2가 2점, 4가 4점, 이처럼 표의 숫자와 같다. 그림의 표는 어느 것이나 10점이고 에이스(1)은 11점도 되고 그냥 1점으로도 셀 수 있다.

게임을 하기 전에 각자 걸 표를 분배해둔다(바둑알 같은 것이라도 좋다). 이 게임의 특징은 한 사람의 물주를 상대로 다른 경기자가 전부 싸우는데 있다.

경기방법은 물주가 먼저 왼쪽에 앉은 사람부터 한 사람에게 한장씩 겉을 밀으로 해서 표가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나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자는 자기 좋은 대로 표를 건다.

물주는 다음에 또 한장씩 이번에는 표

를 겉으로 해서 각자에게 나눈다. 각자는 나눠받은 두장의 표의 점수를 합계한다. 그래서 합계가 21점이 되면 그것이 최상인 것이다.

그러나 한번으로는 좀체 잘 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 합계가 만약 7점이었다면, 경기자는 물주에게서 더 한장 표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합계 점수가 16점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다시 한장의 표를 청구한다. 이때 받은 표가 8점이었다면 16+8=24가 되므로 21점을 넘으니까 0점과 같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잘 생각해서 표를 청구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각자가 표를 마치고 나면 물주는 자기에게 돌아온 두장의 표를 보고, 만약 그 점수가 모자란다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쌓아놓은 표에서 한장을 갖는다. 그래서 세장의 합계 점수가 높은 점수라면 그대로 자기 손을 펴고, 다른 사람에게도 손을 펴게 합니다.

그래서 물주가 19점으로 그 판에서 최고점이면, 그 판에 건 모든 표를 전부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물주가 19점일 때 그 중의 한 사람이 20점이었다면 물주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건 장수만큼 표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물주가 20점 혹은 그 이하로서 다른 상대 중에서 21점인 사람이 있을 때는 물주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건 배수의 표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물주가 21점이고 다른 상대자가 전부 20점 혹은 그 이하이면 경기자는 모두 자기가 건 표의 배액을 물주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두장 걸었다면 합계 넉장을 준다. 만일 물주와 상대자가 양쪽 다 21점인 때는 비긴다. 그 이외에 동점수인 때는 물주가 이긴다.

● 31

조커는 사용하든 안 하든 좋다. 사용할 때는 21 때의 조커 사용법과 같습니다. 표의 점수도 모두 21 때와 같습니다만, 에이스(1)는 11점으로서 1점이 되지는 않는다.

경기 방법은 물주가 한 사람에게 한장씩 한 사람 앞에 석장의 표를 나눈다. 판에 석장을 위로 해서 깐다. 남은 표는 겉을 밑으로 해서 판에 쌓아둔다. 여기서 경기자 중에서 누구든지 나눠받은 표가 같은 종류—예를 들면 하트라면 하트, 다이어면 다이어만의 표만으로 31점이 되어 있으면 스톱을 선언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승부는 이긴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처음부터 31점으로 표가 맞는 일은 거의 드물다. 그리고 석장의 표에 석장이 다 같은 종류인 것도 드문 것이다. 게임은 물주의 왼편 사람부터 시작한다. 자기가 가진 표

중에서 필요없는 표를 판에 버리고, 판에 깔린 표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표를 한장 집는다. 다음 사람도 이런 것을 되풀이한다.

두번째부터는 자기에게 필요한 표가 판에 깔린 것 중에 없으면, 그 석장을 옆으로 치우고, 쌓아놓은 표에서 석장을 집어서 판에다 깐다. 이렇게 되풀이하는 동안에 누구든지 31점이 된다. 31점이 된 사람은 스톱이라고 소리를 지른다. 스톱의 소리가 나면 각자는 자기 손에 든 표를 전부 앞에 펼친다.

그래서 그 석장을 합해서 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어 하트의 6과 10과 퀸을 가지고 있었다면 26점인 것이다. 만약 같은 종류의 표가 없고 하트의 3에다 클로버의 잭크, 다이어의 퀸이었다면 그 사람은 0점이다. 31점인 사람은 최고점으로 이 점수도 자기 이름 밑에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적는다.

또 자기의 표가 비교적 높은 점수로, 다른 사람들이 아직 표를 맞추지 못했을 경우, 「콜」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콜은 스톱과 달라서 승부가 즉석에서 결정되지는 않는다. 콜을 말한 사람부터 그 바른 쪽에 앉아있는 사람까지 한 바퀴 돌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되도록 높은 점수를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콜을 말한 사람보다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하며는, 콜을 부른 사람은 자기 점수만큼 마이너스가 된다. 예를 들면 콜을 부른 사람의 점수가 29점이고, 다른 사람 중에 30점이 있었다면 콜을 부른 사람은 마이너스 29점이 된다.

◇ 속담풀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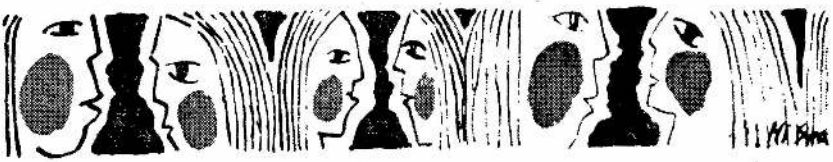
◇ 개 꼬락서니 미워서 낙지 산다……제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

◇ 개 못된 것은 들어 가 짖는다……멀된 사람은 쓸데없는 짓을 잘 한다.

◇ 개 뼈다귀 은 올린다……쓸데없는 치레에 돈을 들인다.

◇ 개하고 똥 다투랴.……본성이 포악한 사람은 더불어 교계(較計)할 수 없다.

◇ 개구멍에 망건 치기……빼앗길까봐 겁을 먹고 막고 있다가 막던 그 물건까지 잃음



사랑의 시도

앙드레 · 지이드

1. 약간의 바람에도 흩날리는 가벼운 먼지

새벽이 왔다. 뤼크는 아직도 어둑한 숲에서 꽃을 가지고 나왔다. 아침 냉기에 몸을 떨면서 그는 기슭의 비탈진 곳에 앉아 해뜨기를 기다렸다. 그의 앞에는 알록달록한 꽃과 수증기로 반짝이는 이슬로 축축히 젖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다. 뤼크는 모든 행복을 기다렸다. 하늘을 날던 벌떼가 다시 내려앉듯이 행복은 쉬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은 벌써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터오는 먼동은 끝없는 환희에 전율하고 봄은 미소의 부름으로 싹트고 있었다. 노래소리가 들리며 퍼지더니 윤무(輪舞)를 추며 소녀들이 나타났다.

미친듯 축축한 풀잎 속을 밤 사이에 헝클어진 머리 그대로 그녀들은 온갖 꽃을 다 꺾었으며, 꽃바구니마냥 치마를 걷어올리고 하얗게

드러낸 그들의 발은 춤의 율동을 쫓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곧 그 윤무에 지치자 목장 아래 샘물 쪽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몸을 씻고 물 위로 떠오르는 그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그날의 즐거움을 맞으려 채비를 하는 것이다.

서로 헤어지면 그들은 곧 자기 동무들을 잊는다.

라셀은 혼자서 꿈을 꾸며 돌아왔다. 그녀는 떨어진 꽃들을 집어들고 새로운 꽃을 꺾으려고 몸을 수그려 뤼크가 다가오는 것도 못본 체했다. 그녀는 노란 사르비아며 실국화 그리고도 풀밭에 있는 온갖 꽃을 다 꺾어 들었다. 뤼크는 계곡에 있던 디지타리스와 자색빛 히아신드를 꺾어 가지고 왔었다. 그는 라셀의 바로 곁에 있었다. 이제 라셀은 꽃을 엮는 참이었다. 뤼크는 자기 꽃도 그 꽃다발 속에 넣었으면 싶었지만 감히 그러질 못했다. 갑자기 그 꽃들을 그녀의 발 아래 던지고 그는 말했다.

『이건 숲속의 어두운 꽃들이죠. 어둠 속에서 내가 꺾었지요. 당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때 나타난 분이 바로 당신이었으니까요. 나는 밤새도록 당신을 찾았읍니다. 당신은 이 봄길처럼 아름답군요. 게다가 나보다는 훨씬 젊고 오늘 아침엔 당신의 해맑은 발을 보았지요. 당신이 친구들과 같이 있어서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이제야 당신은 혼자군요. 내꽃을 가지시오. 그리고 이리 오시오. 우리 함께 즐거운 놀이나 배웁시다.』

라셀은 은근한 웃음을 띄우고 있다. 뤼크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돌아갔다.

그 날은 장난과 웃음 속에서 지나갔다. 저녁에 뤼크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밤이 오면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몇 번이나 너무 더운 침대에서 벗어나 방 안을 서성거리거나 열어젖힌 창 밖으로 몸을 내밀어보기도 하였다.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사랑이란 그들의 육체에 따라서 찬란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좀 젊고 훨씬 더 아름답기를 바라고 있었다. 밤새도록 뤼크는 라셀을 탐내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그는 그녀에게로 달려갔다.

라일락 핀 길 끝에 그녀의 집이 있었다. 그리고는 나지막한 울타리가 둘러싸인 장미 가득한 정원. 무엇보다도 먼저 뤼크는 라셀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 저녁녘까지 그는 거기서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또 왔다. 매일같이 그는 왔다. 눈 뜨기가 무섭게 그는 달려가는 것이었다. 라셀은 정원에서 미소를 띄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 날이 지났다. 뤼크는 어쩌지도 못하였다. 라셀이 먼저 제 몸를 맡겼다. 어느 날 아침 줄곧 오던 소사나무 아래에서 그녀를 볼 수 없었던 뤼크는 그녀의 방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라셀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거의 알몸으로 다만 쇼울만을 걸치고 그것도 거의 다 흘러내린 채로 침대에 앉아 있었다. 틀림없이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뤼크는 들어서자 벌겋게 상기되어 빙그레 웃었다. 그러나 몹시도 부드러운 그녀의 날씬한 다리를 보자 그는 거기서 어떤 연약함을 느꼈다.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섬세한 발에다 입을 맞추고 흘러내린 쇼울 자락을 여며주었다.

뤼크는 사랑을 갈망했지만 어떤 상처같은 걸 두려워하듯 육체의 소유를 겁내고 있었다. 우리들이 받았던 서글픈 교육, 눈부시게 빛나면서도 차분히 가라앉은 맑은 쾌락을 그것이 우리들에게 서러운 오열(嗚咽)과 상심으로 혹은 침울하고 고독한 것으로 느끼게 한다. 우리는 이제는 신에게 행복의 자리에까지 우리들을 끌어올려 달라고는 더 빌지 않을 것이다. —— 그런데 아니다! 뤼크는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누가 창안하여 처음 한 것일지라도 자기에게 또다시 같은 짓을 되풀이만 한다는 것은 가소로운 편집광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뤼크는 이 여인을 소유했다.

만약 그들을 둘러싼 즐겁고, 같이 나눈 기쁨과 똑같은 자연의 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지금 어떻게 내가 그들의 기쁨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사상이란 이제는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 그들은 행복하는 데에만 몰두해서 그들의 문제는 오직 욕망이었고 충족이 그 해답이었다. 그들은 남모르는 육체를 알았고 그들의 정은 날마다 비밀스레 깊어만 갔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언제나 하던 것처럼 그녀의 곁을 물러나려고 할 때 그

녀는 말했다.

『왜 가려고 하세요? 만약 다른 애인이라도 있으시다면 좋아요. 그렇다면 가 보세요. 저는 질투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 계시고—— 자 이리 오세요. 네. 나의 침대가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그 때부터 그는 매일 밤을 거기서 지냈다.

대기는 좀더 따뜻해졌고, 밤이 몹시도 아름다와서 그들은 이제 더 창문을 닫지 않았었다. 이처럼 그들은 달빛 아래에서 잠들어 있었고, 난만하게 만발한 장미 나무가 하나 뻗어 올라 창을 둘러쌌다. 그들은 그 장미가지로 창틀을 둘렀기 때문에 장미 향기는 그 침실에 있는 꽃다발의 향기와 섞여 있었다. 사랑 때문에 그들은 밤늦게야 잠이 들었고, 취한 사람들처럼—밤 동안의 피로를 아직도 다 풀지 못한 채 느지막하게 눈을 떴었다. 정원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샘물에 몸을 씻었다. 튀크는 라셀이 알몸으로 나무잎 아래에서 목욕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산책을 나서는 것이었다. 가끔은 풀밭에 앉아 하염없이 저녁이 오기를 기다렸다.

해가 지는 걸 바라보고 있다가 드디어 대기가 부드러워지면 그들은 천천히 그 보금자리로 되돌아 왔다. 바다는 그리 멀지 않았다. 힘찬 조수로 밤이면 그들은 가냘프나마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가끔 그들은 바닷가의 모래사장까지 내려가기도 하였다. 좁고 구불구불한 냇물 줄기 하나 없는 계곡을 지나야 했다. 그 계곡에는 양골담초와 금작화들이 얽혀져 있었고, 바람이 거기서는 모래를 쫓듯이 불고 있었다. 그러자 모래사장이 열리었다. 커다란 선박이나 작은 배 하나 없는 물구비다. 하지만 바다는 잠잠하다. 거의 정면으로 멀리 작은 섬을 이루고 있는 듯한 굴곡진 해안선이 보였고 바로 그 지점에 커다란 정원을 둘러친 호화스러운 철책같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저물녘에 그 철책은 황금으로라도 만들어진 듯 눈부시게 빛났다. 이윽고 라셀은 모래 속에서 그 이상 조개를 찾지 못하였다. 그들은 바다에도 싫증을 느끼게 되었다.

가까운 곳에 마을이 하나 있었지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그 쪽으로 지나가 보지는 않았다.

비가 올 때나 혹은 그것도 귀찮아서 풀밭에조차 내려가지 않을 때는 라셀은 길게 누운 채 그의 발치에 앉아 있는 뤼크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졸라댔다. 그녀는 말하였다.

『말씀하세요. 저 지금 듣고 있어요. 내가 잠들더라도 그치지 마세요 네. 봄날의 정원이야기 해주세요. 당신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높은 테라스 이야기 말이에요.』

그래서 뤼크는 테라스며, 한 줄로 심어 놓은 마로니에며, 그리고 들판에 걸려 있는 여러 정원들을 이야기했다. 아침이면 어린 소년들이 거기 와서 놀았고, 서로 손을 잡아 둥그렇게 원무를 추었다. 해는 아직도 들판 위로 높이 떠올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들은 그들을 이루지 못했었다.

조금 후에 얌전한 큰 처녀들이 화단 가운데로 들어와서 꽃장식을 만들고 있었다.—『라셀, 당신이 꽃을 엮었던 것처럼 말이야』— 정오쯤 되어서 몇쌍의 부부들이 나타났었다.— 태양은 수목들 위를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가지들로 엮어진 불투명한 둥근 천정은 좁은 길을 좀더 서늘하게 하는 듯 싶었다. 그 길을 거닐던 사람들은 이젠 나지막한 소리로 밖엔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윽고 눈부시던 빛이 좀 사그라지자 여름이 짝 펼쳐 있는 듯이 보이는 들판이 보이기 시작했다. 소풍객들은 난간에 팔꿈치를 괴기도 하고 몸을 기대키도 하였다. 여러 패로 나뉘어 앉은 부인네들은 어떤 이는 털실을 감고, 또 다른 이들은 그것으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학생들이 들어왔다. 학교시간이 끝난 것이다. 어린이들은 구슬치기를 하고 놀았다. 저녁이 되었다. 소풍객들이 좀 뜸해졌다. 그러나 아직도 어떤 이들은 모여서 끝내 버린 일이라도 말하듯 벌써 그날 하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테라스의 그림자가 들판 위로 길게 깔려 있고 저 멀리 지평선 맑은 하늘에는 몹시도 가늘고 서늘한 달이 나타났다. —「밤에 나는 텅 빈 테라스를 거닐려고 왔지……」 뤼크는 말을 그치고 이야기 소리에 잠든 라셀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훨씬 더 긴 산보도 하였다. 그 때는 봄도 다 간 마지막 무렵이었다. 그들의 집이 자리잡고 있던 작은 산을 기어 오르다가 중턱에서 그들은 맞은편 산록에 운하 하나를 발견했다. 그 운하를 따라 포플러들이 줄지어 있었으며, 비스듬하게 물 줄기를 따라 길이 나 있었다. 지세(地勢)는 계속하여 내리받이었다. 다리를 건너 그 운하를 지날 수 있었지마는 타는 듯한 태양은 그들을 물 기슭으로 따라가게 하였다. 계곡으로부터 열기가 물결치듯 올라왔고 들판에는 대기가 흔들리고 있었다. 저 멀리 큰 길을 짐마차가 지나가느라고 먼지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들은 들판에 펼쳐진 여름을 보았다. 길이며 수목들, 그리고 그 운하는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이 작은 산의 굴곡을 따라 가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도 둑 길을 걸어 그 운하를 따라 내려갔다. 저편 쪽 둑에서 조그마한 숲이 끝나 있었다. ——그것이 전부터였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매우 오랫동안 걸었지마는 그것이 한없이 계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자 곧 거기에 싫증을 느끼고 돌아와 버렸다.

2.

부인—바로 당신에게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 주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서글픈 사랑이 황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었다는 것을 당신은 아십니다. 제가 여간해서는 웃지 않는다고 이전에 불평하신 당신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랑이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보았읍니다. 제가 찾아낸 것이 권태 뿐이라면 그것은 저의 탓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지요. 한 권의 책 속에 기쁨이란 얼마나 짧은 것이며 그것은 또 어찌나 빨리 이야기가 끝나 버리는지. 결함도 애수도 없는 미소란 얼마나 평범한 것인지! 그리고 남들의 사랑, 그들을 행복게 하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인가. 그들에게는 안 되었지만 뤼크와 라셸은 서로 사랑하였읍니다. 나의 이야기에 일관성을 주기 위하여, 둘은 사랑 이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읍니다. 그들은 권태라고 해도 행복의 권태 밖에는 알지 못

하였읍니다. 꽃을 꺾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단조로운 일거리였읍니다. 그들은 더욱 깊은 어떠한 탐구를 위해서 그 욕망을 버려본 적도 없었고, 기다림이 가져오는 번민 초조감도 별로 느껴보지 못하였읍니다. 소유에의 두려움과 격정적인 사랑 때문에—— 아! 부인 우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꼭 껴안아 주고 싶은 애인을 밀쳐 버리는 몸짓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읍니다. 탐나는 꽃을, 그 꽃이 미적지근한 그들의 손에서는 더욱 빨리 시들어 버린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송두리채 꺾어버렸읍니다. 그들처럼 아무 의식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말로 행복할진저! 그들은 의식 때문에 피로한 적은 별로 없었읍니다.—— 우리를 피로케 하는 것은 사랑이나 또는 죄악 때문이 아니라 지나간 일을 돌이켜 보고 탄식하는 데서 옵니다. 따라서 그들은 흘러가는 과거의 물 위에 둥실 둥실 떠내려가는 그들의 옛 행동을 좀처럼 되돌아보는 법이 없었읍니다. 그들에게 속하는 이러한 환희는 슬픔을 모른다는 데서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몇번이고 되풀이할 수 있는 키스와 포옹 외에는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하였읍니다.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융합되었던 한 순간이있었읍니다. 그것은 하지(夏至) 때였읍니다. 새파란 공중에 그들 머리 위의 높은 나무가지들은 더없이 섬세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읍니다.

여름! 여름! 그것을 찬미가처럼 노래해야겠지요. ——다섯 시—— 나는 일어났다(새벽이다.). 나는 들로 나갔다. 풀잎에 맺힌 신선한 이슬, 아침 냉기에 시린 발을 씻을 수 있는 맑은 물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또 벌판에 비치는 아침 햇살들과 들의 현기를 그들이 알고 있다면 게다가 여명이 자기를 향해 잔디밭으로 내려오는 이에게 던지는 환영의 미소, 이 모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잠들어 누워있지는 않았겠지…… 그러나 뤼크와 라셀은 간밤에 키스에 지쳐 있고 사랑이 가져 온 이 피곤은 여명이 벌판에게 주었을 미소보다 더 많은 미소를 아마 꿈 속에서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날 아침 그들은 집 밖으로 나섰다. 어느 봄날 그들이 따라갔

던 그 계곡 그 운하에 그들은 당도했다. 그러나 작은 산을 오르지 않고 돌아서 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 운하가 한 커다란 내와 합치는 곳으로 오게 되었다. 그 운하는 배를 끄는데 사용되고 있었다. 그들은 수문 위로 해서 물을 건넜다. 그리고는 배를 끌어올리는 길을 따라갔다. 오른 쪽으로는 운하가 있었고 왼쪽으로는 큰 강이었다. 저편쪽 강기슭에도 역시 길이 있었다. 그리고 다섯줄의 평행한 이 길들은 그들의 시선 밖으로 좁은 계곡 속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그들의 산책은 상당히 장거리였지만 별로 이야기할만큼 흥미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해변이 다시 보고싶어졌다. 다시 그 계곡을 내려갔다. 바다를 앞에 두고 그들은 앉았다. 요 얼마 전에 있던 폭풍우로 파도는 모래 밭 위에 깊은 곳에 있던 조개껍질이며, 뿌리 뽑힌 해초 나부랑이들이 떠밀어 올려 놓았다. 아직도 부풀어 있는 파도가 끊임없는 소음으로 정신을 못차리게 하였다. 그래서 라셀은 갑자기 어떤 불안을 느꼈다. 그녀는 뤼크가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더욱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소름이 끼쳤다. 그래서 그들은 일어섰다. 뤼크는 앞장서서 몹시 잰 걸음으로 얼굴을 약간 찌푸려 험상궂게 하고 걸었다. 시커먼 홈 투성이의 통나무가 하나 거기 있었다. 이름도 모를 말뚝, 어느 배의 파편 먼 어느 섬의 목재였을 이 통나무 앞에서 그들은 멈추어 섰다. 그리고 나서 뤼크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라셀은 어쩔 수 없이 또 본능적으로 뤼크에게 몸을 기대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얹었다. 뤼크의 내부에 꿈틀거리는 모험에 대한 불안과 갈망을 어렴풋이 느끼면서 그들은 선 채로 머물러 있었다.

태양은 물러가서 해만의 저 너머로 멀리 바다의 끝없는 수평선이 갑(岬) 둘 사이로 빠져 달아나는 듯이 보이는 해협 뒤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리고 태양이 가라앉는 동안 그들의 맞은편 섬같은 것 위에서는 이름 모를 그 정원의 철책이 꺼져가는 낙조를 받아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거의 초자연적인 모양으로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하였다. 적어도 이것에 관해서 그들에게는 무어라고 서로 주고 받을 말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황금이라기보다는

강철로 된 그 쇠창살들은 본래부터 그런 것인지 혹은 특별히 잘 닦아서 그런 것인지 자기 자신이 빛을 내고 있는 듯이 보였다. 기이한 것은 그 철책 너머까지를 보았다고 생각했지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없었다. 뒤크와 라셀은 서로가 그것에 대하여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돌아오는 길에 라셀은 모래 위에서 크고 바짝 마르고 검고, 탄력 있는, 일부러 그렇게 만든 듯한 기이한 모양의 알을 하나 발견했다. 너무 괴상한 것이어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퍽 중요한 것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그 이유를 골똘히 생각해 볼 정도였다.

이 날의 기억은 그들에게 막연한 어떤 불안을 남겨 놓았다. 때때로 어쩔 수 없게 저 바다 앞에 꽉 닫힌 그 정원을 생각하며 그것에 끌려 자꾸 알아보고 싶어졌다. 그런데 그 곳으로 데려다 줄 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날 아침 출발하여 해안을 따라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걷기로 작정하였다.

날이 새기 전에 그들은 일어나서 길을 떠났다. 아직도 날은 어둑하고 싸늘했다. 그들은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순례자들처럼 진지하고 묵묵하게 생각에 잠겨 걸어갔다. 그리고 다시 식어 버린 호기심은 그들의 마음에 한 의무감같은 것을 남겨 놓았던 것이다.—그러나 부인 거기에 대해선 너무 말하지 않기로 합시다. 이제는 그들이 거의 우리들 마음에 들었으니까요.—안 된 일이지마는 처음으로 그들은 태양의 뜨거움을 무릅쓰고 어떤 한 생각에 끌리어 걸었읍니다.—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욕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라셀은 발끝에 채여 굴러다니는 길 위의 자갈이나 발을 디딜 때마다 빠져 들어가는 흐물거리는 모래에도 불평하지 않았다.—어떤 때는 모래밭을 따라 어떤 때는 돌을 가로 질러서—한 번은 다리를 찾을 때까지 강 둑을 거슬러 올라갔고 그리고는 또 되돌아 내려오고,—다시 새로운 범판을 건너고……아! 이렇게 해서 그들은 드디어 거의 그 담벽 아래까지 왔다. 그것은 정원이었다.—그런데 사람들을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

려고 돌로 쌓은 도랑으로 끌어들인 조수가 담 밑을 치고 있었으며 거기 버티고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이 담은 방파제 모양 바다 가운데로 뻗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해안에서는 음산한 석회질 갑(岬) 외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다. 도랑이 끝나 있었다. 그래 그들은 벽을 끼고 걸어갔다. 태양은 찌는 듯하였다. 그들 앞에는 길이 뻗어 있었다.—그 때는 정원의 벽에 그늘 하나 없을 무렵이었다. 그들은 담장 속에 거의 감추어진 듯한 조그마한 닫힌 문을 보았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그 벽은 굽어 있었고 태양도 또한 낮이 지나는 동안 그들을 따라 담 벽을 도는 것 같았다. 그 담 위로는 나뭇가지들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나뭇잎 하나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정원 안에서는 그치지 않는 웃음소리 같은 것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따금씩 분수의 물이 말하는 것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갑자기 그들은 바다 앞으로 나와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커다란 슬픔에 잠겼다, 그리고 돌아오려고 다시 길을 떠나기 전에 잠간 앉았다. 그들 앞에는 저편 쪽에도 돌로 된 갑(岬)이 바다 가운데로 나가 있었고 벽도 계속해 있어서 바닷물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도랑에 들어와 담벽 밑을 찰싹거리고 있었다. 슬픔이 한꺼번에 좁은 틈새로 들어와 그들 속으로 뚫고 들어왔고 그들을 가득 채웠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오늘의 코오스 때문에 지쳐 있었고 게다가 헛수고만 한 것이 맥이 빠진 것이다. 태양은 지금 그 정원 뒤쪽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 담이 덮은 그늘 속으로 걸어갔다. 그들에게는 그 그늘이 어떤 신비를 지니고 있듯이 보였다. 그들은 이따금씩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 듯해서 걸음을 멈추면 그 소리도 따라 그쳤다. 그건 그들이 걷느라고 머리가 어지러워져서 그러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들이 집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밤도 깊어 있었다.

다음 날 낮 휴식 때 라셀이 말했다.

『여름날의 새벽을 이야기해 주세요. 내 게으름 탬에 여기 당신 곁에 있으니 말이에요.』

뤼크는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여름이었지, 그렇지만 아직 동트기 전이었어. 아직 새들도 지저귀지 않았고 숲은 이제 겨우 눈을 뜬 참이었지.』

『아! 숲이 아니었어요. 가로수였어요. 동이 텄는데도 아직 새들이 지저귀지 않았다면 그건 아직도 밤이 머무적거리고 있는 너무도 깊은 계곡 때문이지요. 그러나 흰한 빛이 언덕의 꼭대기들을 벌써 밝혀주었지요.』

라고 라셀은 말했다.

『그 상봉의 밝은 빛 쪽으로』하고 뤼크는 말을 이었다.

두 기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말을 몰았다. 밤새도록 계곡을 따라 달린 뒤, 가장 높이 주위가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을 향하여 오랫동안 어둠 속을 달린 뒤라 그들은 묵묵히, 엄숙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들 머리 위로는 가로수의 높은 참나무들이 가지를 펼치고 있었다. 그들의 말들은 천천히 그 곧고 가파른 길을 올라갔다. 그들이 올라가자 그들 둘레에는 빛이 점점 크게 번져갔다. 언덕 위로 해가 나타났다. 언덕 위에는 더 넓은 가로수 길이 펴져서 먼저 길을 뚝 자르고 언덕의 상봉으로 이어져 있었다. 두 기사는 멈추었다. 하나가 말했다.

『여보게, 이제 헤어지기로 하지. 우리들을 부르는 길은 똑같은 길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도 충분히 용기는 가지고 있으니 자네가 나를 도와 줄 필요도 없단 말일세. 게다가 한 사람이 가려는 곳은 한 사람에게는 무용(無用)한 곳이고』

그러자 상대편이 말했다.

『잘 가게. 친구여!』

그런 다음 등을 돌려 그들은 각기 외로운 정복을 향하여 가버렸다.

그때 모든 새들은 잠에서 깨어났다. 나무잎사귀 아래로는 사랑에 추겨이 있고 하늘에는 곤충들의 윤무가 벌어졌다. 벌꿀의 붕붕하는 소리가 들려 왔고 잔디밭 위에는 꿀을 담은 새로운 꽃들이 피어났다. 미묘한 속삭임이 일어났다.

더 멀리 대지가 끝나는 곳에는 이제 나뭇잎 밖에 더 보이는 게 없었다. 저

아래 희미하게 밝은 계곡에는 수목들의 흔들리는 끝 가지들이 보이고 더 아래 쪽에는 안개가 끼어 있었다. 오! 사슴들이 물 마시러 내려오는 걸 보려고 우리는 얼마나 몸을 숙이었는지!

『그래 그 두 기사는 어떻게 되었어요.』 라셀이 물었다.

『아, 그들은 그만 내버려두고 가로수 길 이야기를 하기로 하지.』……정오쯤 해서 한 떼의 젊은 여자들이 이곳에 왔다. 그녀들은 당신이 당신 친구들과 했듯이 서로 손을 잡고 걷고 있었지. 그녀들은 웃고 있었다. 다음엔 멋진 금장식과 비단옷을 입은 남자들이 왔다. 다같이 함께 앉아 이야기들을 했다.

낮은 지나갔다. 그들은 입을 다물고 묵묵히 있었다. 어둠이 이미 위로 뻗쳐져 있었다. 그들은 일어나서 해가 지는 걸 보러 갔다. 가로수 길은 불안과 소곤거림으로 가득찼다. 모든 것이 잠잘 준비를 하고 있었다.—그리고는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저녁이었다. 가지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잿빛의 나무 등걸은 어둠 속에서 신비롭게 보였다. 저녁놀의 새 소리가 일어났다. 그때 벌써 시작되는 밤 속에 두 기사가 되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길이 잇달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향하고 걷고 있었다. 그들의 말은 매우 피로한 기색이었다. 그들은 헛수고를 한 때문에 아침보다 더 엄숙해 보이고 허리가 굽어 있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다시 만나서 언덕길을 내려가더니 어둠속 나무가지들 사이로 사라져 버렸다.

『뤼크, 그렇담 뭣하러 떠났었대요? 길 떠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저의 모든 생활이지 않아요?』 하고 라셀이 말했다.

『그렇지만 라셀—당신은 내 생활의 전부가 아니거든. 내게는 또 다른 일들도 있으니까.』 뤼크가 말했다.

3.

부인, 저는 이 이야기에 싫증이 났읍니다. 제가 여러 문장을 지었다면 그건 남을 위해서이지 결코 제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잘 아십

니다. 저는 계절과 영혼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을을 이야기해야겠지요. 저는 무슨 일이건 한 번 계획한 일은 포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만났다. 그런데 그녀들은 꽃을 꺾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비슷하다고 믿었다. 그녀들은 길을 줄곧 따라가리라 마음먹으며 서로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들의 과거의 영향이 그들을 헤어 놓는다. 그들의 손은 풀어지고 그들은 각자의 지나간 일 때문에 혼자서 길을 계속해 갈 것이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이별이다. 왜냐하면 단지 비슷한 과거만이 여러 영혼들을 닮은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영혼들에게는 모든 것이 계속되는 것이다. 부인 당신도 아시다시피 나란히 가는 이들은 서로 만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래 뤼크와 라셀은 결국 헤어지고 말았다. 어느 날 단 하루, 여름의 어느 한 순간에만 그들의 인생곡선이 서로 얽혔던 것이다. —그게 유일한 접촉의 교차점이었는데 지금은 벌써 그들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파도 가까이 모래 위에 앉아서 뤼크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으나 라셀은 다른 쪽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때때로 풀어지는 사랑을 다시 움켜쥐려고 하였지만 그것도 신기한 즐거움은 아니었고 이미 고갈된 것이었다. 그래서 뤼크는 출발을 꿈꾸면서 행복에 잠겨 있었다. 라셀도 그를 더 붙들지 않았다.—그들이 함께 밖에 나갈 때에는 그들은 꿈에 잠겨 걸었다.—차라리 나는 생각에 잠겨서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들은 거의 마주 바라보질 않고 그들의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뤼크는 이제는 더 사랑을 꿈꾸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몹시 감미로운 추억같은 것, 시들어 버린 아름다운 꽃들의 향기같은 것을 그들 외부에 남겨 놓았다.—꽃 장식으로부터 남은 것 같은 것 말이다.—그러나 아무런 슬픔도 아무런 서러움도 없이 며칠 동안 그들은 이처럼 힘없이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걸었다. 가을의 나무잎들이 갖는 눈부신 색조, 물 위에 비치는 아름다운 반사 때문에 그들은 잠자듯 잔잔한 물을 더 좋아하였고, 그래서 물가를 천천히 산책하였다. 수목은 빛을

받아 찬란하였고, 또 바람에 울렸다. 나무잎은 떨어져 지평선을 드러냈다. 뤼크는 광대한 삶을 꿈꾸고 있었다.—나도 그 걸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지만 내 생각엔 그는 필경 그걸 꿈꾸었을 것이다.—부인, 나는 뤼크와 라셀이 싫증났읍니다. 이제 또 그들에 대해 무엇을 당신에게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있겠읍니까? 그들은 다시 한 번 돌아가서 그 교묘한 철책의 정원을 보고 싶어했다. 벽을 끼고 가다가 그들은 그 감추어진 작은 문을 찾아냈다. 전에는 꼭 닫혀져 빗장조차도 없던 것이 이제는 활짝 열려 있어서 그들은 들어갔다.—그것은 버려둔 정원이었다.

그 정원 통로들의 아름다움은 무엇으로도 그릴 수 없는 것이었다. 가을이 잔디를 덮었고 나무가지들은 꺾여져 있었다. 잡초가 우거져 뒤덮여 있었다. 금잔디며 보리잎 같은 풀들로 그들은 조용히 그 안을 걷고 있었다. 빨간 방울새가 지저귀고 있는 적갈색의 과일 나무로 가득찬 숲 곁을. 나는 가을의 찬란함을 사랑한다. 거기에는 돌 의자가 있었고 석상(石像)들이 있었으며 덧창은 닫히고 출입문들이 밀폐된 커다란 저택이 한 채 우뚝 서있었다.—정원에는 축제의 자취가 남아 있었으며 무르익은 과일들이 과수 울타리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저녁이 되자 그들은 되돌아왔다.

『가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고 라셀은 말했다.

『가을.』 뤼크는 말했다. 『아! 그건 숲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숲 기슭에 있는 갈색의 연못이랑 사슴들이 오고, 그리고 뿔피리(角笛)가 울리지. 와아! 사냥개들이 마구 짖어대고—사슴들은 펄쩍 뛰어 달아나지. 우리 커다란 나무들 밑을 거닐어 보자구—사냥꾼의 떼가 달려오네.—그건 지나갔고—당신, 의장마(儀仗馬)를 본 적이 있어? 뿔피리 소리가 멀어지는군. 숲 속으로 멀어지는 것이지. 자, 저녁이 내려 앉는 고요한 연못을 보러 가자!』

『당신이 하는 이야기 우스워요. 「의장대」라는 말은 이젠 아무도 안 쓰는 걸요. 게다가 저는 시끄러운 건 모두 싫어해요. 자, 이제 그만 잡시다.』라고 라셀이 말했다.

그래서 뷔크는 그녀 하는대로 내버려 두었다. 아직 그는 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헤어진 것은 그 뒤 얼마 안 가서였다. 눈물도 눈웃음도 없는 이별. 말 없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다 끝났다.

부인, 여기도 이제 가을이군요. 비가 옵니다. 숲은 죽고 그리고는 겨울이 곧 오겠지요. 저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의 영혼은 활활 타다가 가라앉곤 합니다. 저는 불 가까이 앉아 있읍니다. 제 곁에는 책들이 놓여 있었읍니다. 저는 혼자 있읍니다. 저는 생각에 잠겨 있읍니다. 저는 귀를 기울여 듣고 있읍니다.—옛날처럼 신비로 가득찬 아름다운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하지 않겠읍니까?—저는 행복합니다. 살아 있읍니다. 고귀한 생각들을 저는 품고 있읍니다.

우리들을 싫증나게 하는 이 이야기를 당신한테 저는 끝까지 하였읍니다. 이제 커다란 일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읍니다. 바로 위에서, 인생의 대양 위에서 영광스러운 조난(遭難)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조난당한 뱃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해야 할 여러 섬들이 기다리고 있음을—그런대로 우리들은 책 위에 몸을 굽힌 채로 있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욕망들은 더욱 확실한 행동 쪽으로 가버리고 있읍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그러나 때때로 너무나 계속된 연구에 지쳐서 저는 숲 속으로 비 속을 내려 갑니다. 가을이 끝나가는 걸 보러 가는 것입니다.—저는 알고 있읍니다. 어떤 저녁에는 이러한 산책으로부터 돌아와 저는 불가까이 앉읍니다. 삶의 행복에 도취한듯이 그리고 이러한 도취에 거의 흐느껴 울며 앞으로 해야 할 진지한 일감들을 나의 생각 속에서 느끼면서—저는 행동하겠읍니다. 저는 움직이겠읍니다. 저는 살아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위대한 말없는 작품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건 시(詩)도 될 것이고, 이야기도 될 것이며, 희곡도 될 것입니다.—나의 누이여, 마치 당신이 깊이 생각하고 그랬듯이 이제 저는 떠나겠읍니다. 그러나 항해의 행복을 꿈꾸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 전부를 길게 끄는 것을 벌써 겨울이지만 좋아했

을 겁니다. 우리들은 어느 날 홀랜드의 어떤 마을로 우리들만이 떠나게 될 겁니다. 길은 눈으로 뒤덮이고 얼어붙은 운하를 사람들은 얼음을 치우고 있을 겁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오랫동안 들판까지 얼음을 타고 그리고 우리는 눈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는 들판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눈은 끝없이 하얗게 펼쳐 있고 싸늘한 공기를 느끼는 것도 상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당신은 방안에 내 곁에 있을 겁니다. 불 가까이 내려진 커어튼, 우리들의 모든 생각들, 나의 누이여—그때 당신은 제게 말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길을 돌릴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시다. 그러나 우리들의 목표는 이러한 것들보다는 훨씬 멀어요.—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혼동하지 말아야 해요—이런 것들은 움직이며 그리고는 가버리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움직이지 말아야 해요—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쟁취할 때까지 전진할 거예요. 아! 장애물을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불행할지니. 사실은 목표란 없어요. 사물은 목적도 장애물도 아니거든요. 아니지요. 결코 장애물은 아니지요. 단지 그것들을 넘어 뛰어야 해요. 우리의 유일한 목표, 그것은 하나님이지요. 우리들은 하나님에게서 눈길을 떼지는 않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보이니까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갑시다. 오직 우리들 때문에 빛나는 통로를, 바른편에는 예술품들이, 왼편으로는 풍경들이 전개되는 우리 앞에 펼쳐진 가야 할 길을—그리고 이제는 이 영혼들을 아름답고 즐겁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들 주위에 슬픔을 싹트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들의 눈물이니까요.』

편집을 마치고

○…극심한 진통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그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결코 아님을 새삼 절감하면서, 이제 대당(當) 1분 40초가 단축된다고는 하나 역시 한대의 담배를 피워 물어도 좋겠지.

하루가 하루를 더해갈수록 「스타트·라인」에 선 주자(走者)만큼이나 아쉬움과 초조함을 한꺼번에 느끼면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또 내일도…….

○…이번 호는 「조국 근대화와 우리의 좌표」를 특집으로 엮었다. 어이없게도 후진국이 되어버렸던 우리는 그러나 이제 이에서 탈피하여 선진국의 대열을 접하고자 열심히 근대화를 서두르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지…….<환>

○…닫갑지 않은 연말이 돌아왔다. 한해가 지나는 문턱에 서니 반성과 아쉬움이 뇌를 때린다.

편집업무를 맡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흘렀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환경, 무거운 업무에 몸이 움추려지더니 공군지 2호를 출산하고 나니 제법 초조와 긴장이 풀려지는 것 같다. 내년에는 반성과 아쉬움이 없는 알찬 연말이 되도록 열심히 뛰어볼 작정이다.……<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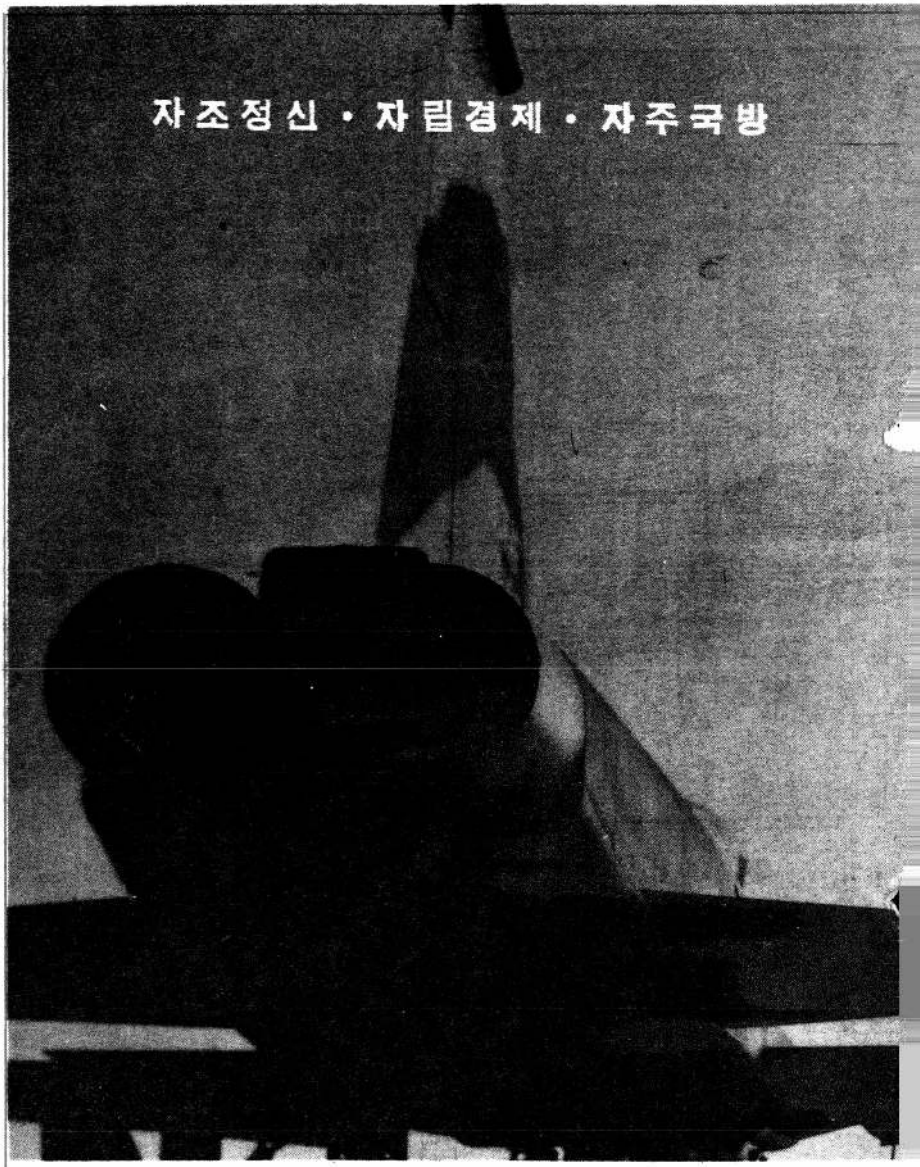
○…소담한 눈송이로 하얗게 바래이는 거리 너머 「맺음」과 「소망」이 이어지는 계절.

우리 모두에게 「맺음」이 주는 아픔보다 더 진한 환희를 맛보는 전진있기를……<진>

발 행 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 : 공군대령 신 찬
인 쇄 처 : 공 군 교 재 창
인 쇄 인 : 공군대령 방 오 섭
편집실 전 화 : 69-3511, 406-3353

제 20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서 공사 종합우승

건군 제2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인 제20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가 지난 9월 18일부터 3일간 계속되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는 공군사관학교가 축구 우승, 럭비 준우승의 전적으로 종합우승을 거뒀다.



정예공군 되자